

타이거! 타이거!

TIGER! TIGER!

알프레드 베스터 Alfred Bester 지음

1956

트루먼 탠리에게

<차례>

제 1 부	5
제 2 부	116
작품 해설	262

등장 인물

걸리버 포일	<타이거>
플레스타인	플레스타인 재벌의 우두머리
더겐햄	더겐햄 클리어 대표
안 요빌	중앙첩보국 대위
레지스	센필드 변호사
로빈 웬즈버리	<조운트> 교사.
지스벨라 매퀸(지즈)	포일의 친구.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의 딸. 장님.
모이라	<과학인> 여자.
조제프	<과학인>의 우두머리.
세르게이 오렐	의사.
린제이 조이스	<스코프치>의 여자.

제 1 부

타이거여! 타이거여!
범부채 열매가
밤의 숲에서 찬란하게 불타고.
대체 어떤 불사의 손이
불구의 눈이
만들었는가, 그대의 복잡한 균형을.

윌리엄 블레이크

프롤로그

그야말로 황금 시대였다. 힘찬 모험이 시도되고,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삶을 노래하며 죽기가 힘든 시대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것이야말로 부와 절도와 수탈과 검략과 문화와 악덕이 낡은 미래 시대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이 극단으로 치닫는 시대, 기이한 것에 대해 매혹되는 시대……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도 없는 시대였다.

태양계 가운데 인간이 살 수 있는 천체에는 모조리 인간이 옮겨가서 살고 있었다.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 다 그렇지만, 그들도 역시 다른 시대를 동경하고 있었다. 아무튼 세 개의 행성과 여덟 개의 위성군과 11조의 인간이 역사 이래 가장 활동적인 시대에서 바쁘게 살고 있었다. 태양계는 활동으로 들끓고 있었다. 투쟁하고, 식량을 구하고, 생식을 행하고, 새로이 나타난 공학 - 아직 낡은 공학을 충분히 다 배우지도 못했는데 - 을 배우고, 깊은 우주에 있는 아득한 별들을 향해 탐험을 준비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대에 뒤진 로맨티스트들은 이렇게 외쳤다.

“뉴프런티어는 어디에 있는가?”

24세기에 이미 정신의 프런티어가 목성의 위성 카리스트 연구소에서 열렸었던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조운트라는 이름의 학자가 뜻밖의 실수로 자신의 소파에서 불길에 싸여 구급 소방대에 구원을 청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때 조운트는 소방 대원 바로 곁에 서 있었다. 조운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와 소방 대원들도 깜짝 놀랐다. 소방 대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때 조운트는 연구실 의자에서 한순간 70피트나 움직였다고 한다.

사람들도 조운트를 위급한 상황에서 구한 다음, 그가 순간적으로 70피트나 움직인 이유와 원인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정신 감응 이동 - 정신의 활동만으로 인간이 하늘을 이동하는 것 - 은 그 때까지 하나의 이론적인 개념이었다. 물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백 가지의 증거 기록으로 남아 있기는 했다. 그러나 전문적인 관찰자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그들은 이 <조운트 효과>를 철저하게 조사했다. 이것은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한 큰 사건으로, 조운트 자신이 이 기묘한 사실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 영원불멸의 것으로 하고 싶어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그는 유서를 썼다. 동료 연구가

들은 필요하다면 그를 죽여서라도 이 현상을 해명하려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자신이 실험을 받다가 죽을 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던 것이다. 드디어 실험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여러 분야의 학자들 - 심리학자, 초심리학자, 신경학 전문가 등 열 두 명이 관찰자로 초대됐다. 실험자들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수정 수조에 조운트를 넣고 밀폐했다. 그들은 밸브를 열어 수조에 물을 넣었다. 조운트는 그들이 밸브의 핸들을 부수는 것을 보고 있었다. 수조를 여는 것은 물론 흘러들어오는 물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다.

이 실험은 다음 가설에 기초를 둔 것이었다 - 죽음의 위협에 직면한 조운트가 감응 이동을 했다면, 그를 인위적으로 죽음의 위협에 직면케 하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수조는 순식간에 가득 찼다. 관찰자들은 일식 관측 사진 반같이 긴박한 정확성으로 자료를 모았다. 조운트는 수조 속에서 곧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순간 그는 수조 밖으로 나와 물방울을 똑똑 떨어뜨리면서 몹시 기침을 했다. 또다시 감응 이동을 하였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를 조사하고 질문을 했다. 여러 가지 그래프와 윈트겐 사진, 신경의 형상과 신체의 화학 변화를 자세하게 조사했다. 이윽고 조운트가 정신 감응 이동을 했다는 결론이 내려졌으며 - 이것은 비밀로 해야만 했다 - 이번에는 자살 지망자들을 모집했다. 정신 감응의 방법에 대해 아직 원시적인 단계였으므로, 이것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죽음의 위협에 맞닥뜨리게 할 수 밖에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자살 지망자들에게 사정을 잘 설명했다. 조운트는 자기의 행동과 행위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주제의 강의를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살 지망자들을 실험하여 죽이기 시작했다. 물에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목을 죄어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했다. 그리고 죽음의 속도를 조절하는 새로운 방식도 발명했다. 아마 죽는 일이 대상이 될 경우 어떤 수단을 취하든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자살 지망자의 80퍼센트가 죽었다. 살인자들의 고뇌와 양심의 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흥미도 있고 끔찍스러운 연구 자료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역사상으로 볼 때는 이 시대의 기괴함을 강조하는 한 가지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지원자의 80퍼센트는 죽었지만, 20퍼센트는 조운트였다 - 이 단어는 그 실험 뒤 조운트의 이름에서 새로이 생겨났다.

“로맨틱한 시대로 돌아가자!”

로맨티스트들이 외쳤다.

“힘찬 모험에 자신의 생애를 걸 수 있었던 그 시대로!”

지식 체계는 급속히 확대되었다. 24세기에 들어서서 처음 10년 안에 찰즈 포트 조운트에 의해 학교가 설립되었다. 그 무렵에는 조운트의 모든 원리가 확립되었으며, 당사자인 조운트는 57살이었다.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으나 자신이 단 한 번 밖에 조운트를 행하려고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러나 원시적인 시대는 과거가 되었다. 감응 이동을 하기 위해 죽음으로써 위협할 필요는 이미 없었다. 그들은 인간에게 정신이 무한한 새 자원임을 인식시키고, 훈련하고 개발시키는 교수법을 터득했던 것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은 어떻게 해서 감응 이동을 했는가?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운트 대학의 섭외부장 스펜서 텀슨은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설명을 했다.

텀슨 : 조운트하는 것은 이른바 사물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인간 유기체의 본질적인 적응성으로서, 물론 훈련과 경험에 의해서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신문기자 :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물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까?

텀슨 : 당신은 아직 젊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결혼한 경험이 없거나 아기가 없는 모양이군요. 어떻습니까, 둘 다 꼭 알아맞추었지요?

(웃음소리)

신문기자 :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텀슨 : 눈을 쓰는 방법을 익히려는 하는 아기를 찬찬히 관찰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신문기자 : 정신 감응 이동이라는 것은 뭐니까?

텀슨 : 정신의 노력만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일입니다.

신문기자 : 결국 우리는, 이를테면 뉴욕에서 시카고로 단번에 이동할 수 있다는 뜻이요?

텀슨 :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뉴욕에서 시카고로 조운트하려면, 감응 이동을 행하는 사람은 출발할 때 자신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려 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문기자 :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팀슨 : 만일 당신이 어두운 방 안에 있어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어디로 조운트하든 안전하게 해 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고 있다 해도 본 일도 없는 곳으로 조운트하려 하면 결코 살아서 도착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의 출발점으로부터 미지의 목적지로 조운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나 다 기억하고 시각에 포착하여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신문기자 : 알몸인 채로 도착하는 겁니까?

팀슨 : 자신이 입은 옷,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동시에 이동합니다.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습니다만, 부인들의 옷도 함께 도착하는 거지요.

(웃음소리)

신문기자 : 그것을 행하는 방법은?

팀슨 : 우리는 무엇으로 사고를 하지요?

신문기자 : 정신으로 합니다.

팀슨 : 그렇다면 정신은 어떻게 사고하며, 그 과정은 어떤 겁니까? 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상상하고, 추측하고, 창조합니까? 뇌세포는 대체 어떻게 작용합니까?

신문기자 :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팀슨 :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응이동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 마치 사고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데카르트를 아십니까? 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조운트한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만일 팀슨의 설명이 사람을 놀리는 무례한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존 켈빈 경이 왕립 협회에 제출한 조운팅의 메카니즘에 관한 보고서를 조사해 보기로 하자.

우리는 거리 감응 이동의 능력은 닛슬체나 신경 세포의 호반의 질에 관련이 있다는 설을 세웠다. 호반질은 3.75그램의 메틸렌블루 및 1리터의 물에 용해된 1.75그램의 베니시안 비누를 사용하는 닛슬법에 의해 쉽게 실증된다.

농염 물질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조운팅은 불가능하다. 거리 감응 이동은 타

이그로이드 기능이다.

(박수)

시각으로 포착하고 정신을 집중하는 두 가지 능력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나 조운트할 수 있었다. 이동하고 싶은 장소에 대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각화해야만 했으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정신의 잠재 에너지를 집중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신념을 가져야만 했다. - 찰즈 포트 조운트는 그 신념이 없어서 끝내 두 번 다시 조운트할 수 없었으므로 - 자신이 조운트한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아주 조그마한 의심으로도 감응 이동에 필요한 정신력이 방해를 받는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는 필연적으로 조운트 능력을 제약한다. 훌륭하게 시각표상을 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를 정하였으나, 도달하는 힘이 모자랐던 사람도 있었다. 힘은 있어도 조운트할 장소를 시각화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한계는 공간이었다. 왜냐 하면 아직 1천 마일 이상 조운트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간은 육지와 바다를 조운팅하여 북극에서부터 멕시코까지 날아갈 수는 있었으나 1천 마일을 넘을 수는 없었다. 2420년대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입사 원서가 일반적인 것이 되어 있었다.

이름(대문자로)

주소(호적)

대륙

주

군

조운트 클래스 (하나만 ○표 하시오)

M(1000마일)

L(50마일)

D(500마일)

I (10마일)

C(100마일)

V (5마일)

과거의 자동차 교통과는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시험을 보아 조운트를 지원하는 자의 등급을 매겼다. 그리고 구 아메리카 자동차 협회 AAA

는 AJA로 고쳐 불렀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어리석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시도해 보았으나, 온갖 실험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우주 공간을 조운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테면 헬무트 그랜트는 달에 조운트할 장소를 기억하기 위하여 한 달이나 걸려 타임즈 스퀘어에서 켈파 시에 이르는 24만 마일의 전향정을 마음에 그렸다. 이 욕고 그랜트는 조운트하여 모습을 감추었다. 그것으로 실종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신앙부흥론자로 천국을 찾던 엔치오 댄들리지가 행방불명되었다. 초물리학자 야곱 마리아 플로인트리히는 초차원을 찾아 심원한 공간에 조운트하는 것 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 또한 실종되었다. 늘 알 수 없는 것만 하기로 유명했던 시플렉 코건을 비롯하여 열광한 사람, 노이로제 환자, 도피주의자, 자살자들이 몇백 명이나 똑같은 결과가 되었다. 공간은 감응 이동에는 완전히 닫혀 있었다. 조운팅은 태양계의 행성 표면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3세대도 채 지나기 전에 모든 태양계가 조운트 가능 범위가 되었다. 이 변화야말로 4세기 전, 말과 마차 시대에서 가솔린 시대로 옮겼을 때보다 더 장관이었다. 세 개의 행성에서는 사회와 법률과 경제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있었으나, 한편 우주 조운팅이 요구하는 새로운 관습이며 법규가 속속 만들어졌다.

조운트하는 가난뱅이가 슬럼 거리를 버리고 평원이나 숲으로 침입하여 가축과 야생 동물을 습격하는 등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났다. 가정과 관청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조운트에 의한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해 미로를 만들고, 미장을 해야 했다. 조운트 시대 이전의 산업이 멸망했으며, 도산과 공황과 파업과 굶주림이 덮쳐왔다.

조운트하는 방랑자들이 질병이며 해충을 아무 방비도 없는 땅으로 가지고 들어와 질병과 유행병이 미친 듯 날뛰었다. 말라리아, 상피병, 뎅그 열병이 북쪽 나라와 그린랜드를 덮쳤다. 광견병은 실로 3백 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왔다. 갑충, 감귤류의 인충, 울모충, 유식충이 온 세계 가는 곳마다 퍼졌으며, 보르네오의 어느 잊혀진 병원지에서 이미 오래 전에 근절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문둥병이 또 다시 발생했다.

범죄의 물결은 행성과 위성을 덮쳐, 암흑가의 우두머리들은 밤만 되면 끊임 없이 조운트를 했다. 경찰이 그들을 제압하기 위해 즉시 출동하여 잔학한 행위가 여러 건 발생했다. 사회는 조운트의 성적·도덕적 위협에 대해 도덕을 높이 들고 싸웠지만, 그 결과 저 빅토리아 왕조 시대 같은 참으로 점잖은 체한 풍조에 대해 무시무시한 보복이 일어났다.

조운트 시대 이전까지는 세 개의 내행성 - 및 달도 포함하여 - 은 일곱 개의 외위성 - 목성의 이오, 에우로파, 가니미드, 카리스트, 토성의 리어, 타이탄, 해왕성의 러셀 - 과 미묘한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여 생존해 왔다. 외위성동맹은 내행성연합의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고, 또한 그 제품의 시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10년도 채 되지 않아 이 균형이 조운트에 의해 허물어지고 말았다.

생산 부문에 있어 아직 발달되지 못한 어린 세계인 외위성동맹은 내행성연합의 수송기 생산량의 70퍼센트를 사갔었다. 그러나 조운트에 의해 이것이 끊어졌다. 또 그들은 내행성연합의 통신 기재 생산량의 90퍼센트를 사갔었다. 그러나 조운트에 의해 이것도 끊어졌다. 그 결과 행성의 위성들로부터의 원료 수입 역시 그 만큼 줄어들었다.

무역 관계가 단절되면 경제 전쟁이 변하여 실탄 전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내행성연합은 경쟁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외위성동맹에 생산 시설을 수출하기를 거부했다. 외위성동맹은 이미 조업을 개시하고 있는 행성의 공장을 몰수하고 특허 협정을 파기했으며, 특허료 지불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시대는 기형과 괴물과 그로테스크의 시대였다. 세계는 놀랄 만한 악의의 과정을 더듬고 있었다. 이것을 미워한 고전주의자와 로맨티스트들은 25세기에 숨어 있는 위태함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들은 발전이라는 냉엄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진보란 극단적인 기형의 결합에 의하여, 거의 대척적인 것의 부조화된 합병에서 생긴다. 고전주의자와 로맨티스트들은 이 때 태양계가 바야흐로 어떤 인간의 폭발을 일으키려고 진동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폭발이야말로 인간을 변형시켜 우주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소란스러운 25세기를 무대로 하여 여기 걸리버 포일의 복수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 1 장

1백 70일 동안이나 죽음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다. 덮에 걸린 야수 같은 정열로 살아남으려고 싸워온 것이다. 정신은 혼돈 속을 헤매고 사기도 크게 떨어졌지만, 이따금 불타오르는 삶의 악몽에서 원시적 본능이 나타나 맑은 정신에 가까운 것을 불러일으키곤 했다. 그 때 그는 신을 향해 벅어리 같은 얼굴을 들어 중얼거렸다.

“나는 어떻게 된 거지? 살려줘, 이 썩어빠진 신들아! 도와줘, 살려달란 말이야!”

신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절반은 입 끝으로 중얼거리는 것이었지만. 그는 25세기의 빈민가에 있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상스러운 말뼉에 쓸 줄 몰랐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물 가운데 가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을 테지만, 살아남을 가능성은 꽤 컸다. 그 때문에 계속 싸워왔고, 신을 모독하면서도 줄곧 기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극도로 혼란된 정신이 이따금 30년 전 유년 시절로 돌아갔다. 그리고 동요가 머리에 떠올랐다.

내 이름은 걸리버 포일
그리고 지구는 나의 나라
무한한 우주에 살고 있지만,
머지않은 죽음이야말로 나의 숙명.

이 사나이는 걸리버 포일, 삼등 기관사, 30살. 근골이 늙름하고 건장했으며, 1백 70일 동안이나 공간을 떠돌아다녔다. 걸리버 포일, 금유, 청소, 연료 창고 담당. 걸핏하면 말썽을 일으켰으며, 농담을 해도 언제나 멍하니 있어 친구가 거의 없었다. 그는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게을렀다. 그의 견잡을 수 없는 성격은 정식 무역 우주선의 승무원 기록이 보여 주고 있었다.

걸리버 포일—AS- 128/ 127:006

교육 없음.
기능 없음.
상벌 없음.

장점 없음.

평가 육체적으로 강인하나 지력은 야심이 모자라 발달되지 않았음.

에너지 최저

평범한 사람으로 예기치 못한 충격에 의해 눈뜰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 분석 담당자는 그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음. 인간 실격의 상태에 있음.

확실히 이 사나이는 <인간 실격의 상태>에 이르러 있었다. 이 3년 동안 마치 무거운 갑옷을 입은 인간처럼 게으르고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며 실제로 존재하는 순간에서 순간으로 떠돌아다녔다. 걸리버 포일은 틀에 박힌 여느 사람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우주 공간 속을 1백 70일 동안이나 떠돌았으며, 이윽고 눈뜰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야말로 크나큰 자각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다.

우주선 <노매드> 호는 화성과 목성의 중간을 표류하고 있었다. 길이 백 야드, 폭 백 피트 되는 매끄러운 강철 로켓의 폭격을 받아 이 우주선은 산산조각으로 파괴되어서 선실, 창고, 갑판, 간막이벽 등의 잔해만 남았다. 선체의 거대한 깨진 틈으로 태양을 향한 쪽에서는 찬연한 빛이 보이고, 어두운 쪽에서는 서리वाद 같이 얼룩을 이룬 별들이 보였다. 우주선 <노매드> 호는 태양의 눈부신 빛을 받으면서 얼어붙은 채 침묵에 잠긴 거무스름한 그림자의 공허하고 무게없는 물체였다.

잔해는 주위에 떠돌며 얼어붙은 파편 덩어리뿐이었다. 그 파편은 파괴된 선체 속에 폭발의 순간을 찍은 사진처럼 정지되어 있었다. 미세한 인력 작용으로 작은 파편들이 서서히 몇 개의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는 이 잔해에 단 한 사람 살아남은 AS- 128/ 127:006 걸리버 포일이 통로를 지날 때마다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는 이 잔해 속에서 전혀 상한 데 없이 말짱하게 남은 단 하나의 기밀실에 생존해 있었다. 주갑판 통로에서 떨어져 있는 기계용 로커였다. 이 로커는 폭 4 피트, 깊이 4피트, 높이 9피트였다. 사이즈는 틀림없이 거인의 관이었다. 6백 년 전에는 이러한 크기의 우리에게 사람을 몇 주일 동안이나 감금하는 일이 가장 잔혹한 동양적인 고문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포일은 이 암흑의 관 속에서 5개월 20일 4시간을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너는 누구인가?”

“걸리버 포일.”

“어디서 왔는가?”

“지구.”

“지금 어디에 있나?”

“무한한 우주 공간에.”

“가는 곳은?”

“목적지는 죽음이다.”

생존 투쟁 1백 71일째 되는 날, 포일은 이런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고 눈을 떴다. 심장이 무섭게 고동치고 목이 타는 듯 했다. 암흑 속에서 자기와 함께 관에 들어 있는 공기 탱크를 손으로 더듬어 조사했다. 탱크는 텅 비어 있었다. 곧 또 하나의 탱크를 넣어야만 한다. 이리하여 이 날도 또 죽음과의 투쟁이 시작되었다.

로커의 선반을 더듬어 찢어진 우주복의 소재를 확인했다. <노매드> 호에는 이제 이것 하나밖에 없었다. 포일은 자기가 어디서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는지 잊어버리고 말았다. 비상용 분무기로 그 깨진 틈을 수리했으나, 등의 산소통에 새로 산소를 넣거나 교환할 수는 없었다. 포일은 우주복을 입었다. 우주복의 공기로 5분쯤은 진공인 내부에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다.

포일은 로커의 문을 열고 어둡게 얼어붙은 별하늘인 공간으로 나왔다. 그러자 로커의 공기도 함께 분출되어 그 습기가 곧 얼어붙었다. 그것은 작은 눈의 구름이 되어 주갑판 통로로 재빨리 흘러떨어졌다. 포일은 비어버린 산소 탱크를 로커에서 끌어 냈다. 1분이 지났다.

그는 빙글 몸을 돌려 주위에 떠돌고 있는 파편 속을 지나 우주선의 창고 문으로 걸어갔다. 뛰어간 것은 아니었다. 헤엄치듯 중량감이 없는 기묘한 상태로 걸어간 것이다. 발과 팔꿈치와 손을 뻗쳐 갑판, 벽, 모퉁이로 돌진해 갔다. 마치 물 속을 날아가는 박쥐처럼 공간을 헤엄치듯 나아갔다. 문에서 어두운 창고로 들어갔다. 2분이 지났다.

모든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노매드> 호는 바닥에 짐을 실었고, 긴 용골 위에 준비하게 매달린 가스 탱크로 강화되어 있었다. 용골은 긴 재목으로 된 뗏목 같은 것으로, 옆면은 배관이 뒤섞여 부설되어 있었다. 1분이 걸려 공기 탱크를 하나 떼어 냈다. 산소가 가득 들어 있을 것인지, 이미 다 써버린 것인지 - 모쳐

럼 애써서 기밀실로 가지고 돌아가도 탱크가 텅 비어 그 때문에 목숨이 끊어지고 말 것인지 어떤지 알 방법이 없었다. 1주일에 한 번씩 그는 이처럼 공간에서 목숨을 거는 게임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귀가 멍했다. 우주복의 공기가 급속히 탁해졌다. 큰 통을 창고문 쪽으로 힘껏 당겼다. 몸을 숙여 그것을 머리에 올려놓고 밀어내듯이 했다. 탱크가 문으로 세게 튀어나갔다. 4분이 지나자 몸이 떨리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탱크를 주갑판 통로로 운반하여 로커로 밀어 넣었다.

로커 문을 메어붙이듯 닫고 잠근 다음 선반 위의 망치를 집어들어 얼어붙은 탱크를 세 번 두드려 밸브를 늦추려고 했다. 포일은 핸들을 힘껏 돌렸다.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 우주복의 헬멧을 벗었다. 로커에 공기가 가득한데 우주복 속에서 질식할 필요는 없다 - 이 탱크에 산소가 들어 있다면 말이지만. 그전에도 여러 번 그랬지만, 이 때도 그는 이것으로 죽는 건지 어떤지도 모르는 채 의식이 흐려졌다.

“너는 누구인가?”

“걸리버 포일.”

“어디서 왔나?”

“지구.”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한한 우주 공간에.”

“가는 곳은?”

의식이 되살아났다. 살아 있는 것이다. 아무 것도 기도하지 않았고, 감사하고 싶은 심정도 없었다. 이제 살기 위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암흑 속에서 로커의 선반을 더듬었다. 식량이 놓여 있다. 이제 몇 꾸러미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탱크의 공기를 우주복에 넣고, 우주모를 단단히 밀착시킨 다음 또다시 서리와 빛 속으로 나갔다. 주갑판 통로를 허위적거리는 듯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그곳의 층계를 올라와 사령실에 닿았다. 그 방은 겨우 지붕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벽은 거의 다 파괴되어 있었다.

오른쪽으로 태양을, 왼쪽으로 별을 보며 포일은 고물로 나와 창고로 향했다. 통로 중간에서 갑판과 지붕 사이에 네모난 형태로 남은 문틀을 빠져 나갔다. 문은 아직도 경첩에 붙어 절반쯤 열려 있었으나, 어디로도 나갈 수가 없었다. 그

뒤에는 망막하게 넓고 큰 공간과 끊임없이 빛나는 별이 있을 뿐이었다.

포일은 지나가다 문의 크롬에 언뜻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재빨리 보았다. 걸리버 포일은 시커먼 거인으로, 수염이 자랄 대로 자랐으며 마른 피와 때가 달라붙은 데다 여위고 약해 앓는 사람 같은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떠 있는 파편의 흐름이 귀찮게 따라붙었다. 그의 움직임으로 휘저어진 파편 무리들은 엮여져가는 혜성의 꼬리처럼 길게 뒤를 끄는 것이었다.

포일은 창고로 들어가 5개월 동안 습관이 되어온 재빠른 정확성으로 약탈을 시작했다. 병은 대부분 딱딱하게 얼어서 깨져 있었다. 공간의 절대 영도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통조림 강통이 부서지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었다. 포일은 식량 꾸러미며 덩어리며 파열된 물탱크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를 주섬주섬 긁어모았다. 구리로 만든 큼직한 냄비에 모두 집어넣고 창고에서 급히 밖으로 나왔다.

돌아올 때도 그 문에서 별이 상감된 크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그 때 그는 깜짝 놀라 움직임을 멈추었다. 문 뒤의 별무리로 눈길을 돌렸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현재, 별무리는 친한 벗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수많은 별 속에 침입자가 나타났다. 머리는 보이지 않았으나 짧게 꼬리를 끄는 혜성인 듯 했다. 이윽고 포일은 자기가 응시하고 있는 것이 우주선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지금 있는 곳, 태양을 향한 코스를 급속히 진행하면서 꿈무늬로 로켓의 불길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니다.”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우주선이 아니야.”

걸리버 포일은 끊임없이 환상에 시달려왔다. 그는 본디 있었던 관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 때 또 다시 눈을 한 군데 못박았다. 그것은 틀림없이 태양을 향한 코스를 급속히 달려와 머지 않아 그의 옆을 지나칠 우주선으로, 뒷부분의 로켓에서 불길이 뿜어나오고 있었다. 환상이 아닐까 하고 그는 신을 향해 말을 걸었다.

“벌써 6개월이 되었던 말이야!”

그는 점잖지 못한 말투로 중얼거렸다.

“그렇지? 내 이야기를 들어줘, 썩어빠진 신아! 나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라구. 알겠어? 또 한 번 저것을 볼 텐데, 만일 저것이 정말 우주선이라면 나는 당신 것이 되겠어. 당신에게 이 몸을 바치겠어. 그러나 저게 엉터리라면, 알겠어? - 만일 우주선이 아니라면 나는 여기서 당장 우주복을 찢고 몸째 날아가

버리고 말 테야. 우리는 서로 최악의 상태에 있단 말이야. 자아,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들려 주시지. 예스인가 노우인가? - 그것만으로 충분해.”

이로써 그는 세 번째로 보았다. 세 번째로 본 것은 역시 태양을 향한 코스를 잡아 그가 있는 쪽으로 돌진하며 뒷부분 로켓에서 불길이 뿜어나오는 우주선이 었다.

확실히 신의 계시였다. 그는 믿었다. 구출되는 것이다.

포일은 허둥지둥 뛰쳐나가 사령갑판 통로의 브리지로 갔다. 그러나 승강 통로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우주복에 다시 공기를 채워넣지 않으면 순식간에 의식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는 접근해 오는 우주선을 향해 애원하는 듯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급히 로커로 가서 우주복에 공기를 넣었다.

콘트롤 브리지로 올라갔다. 우현의 전망창으로 그 우주선을 보았다. 뒷부분 로켓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뿜어나오고 있었다. 분명 코스를 크게 변경하고 있었다. 우주선은 매우 천천히 그에게 접근해 왔다.

낮선 우주선의 추진 분사가 정지되었다. 그를 발견한 것이다. 이제 구조되는 것이다! 새로운 탄생을 맞이한 것이다! 말할 수 없는 흥분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로커로 뛰어돌아가 다시 우주복에 공기를 채워넣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의 소지품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다 - 다만 시간 새기는 소리를 듣기 위해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문자반이 망가진 시계, 심한 고독감에 사로잡혔을 때 움켜쥐기로 하고 있던 손모양의 자루가 달린 렌치, 철사에 손톱을 대면 원시적인 소리를 내는 달걀 교반기 등. 그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그 물건들을 손에서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당황하여 캄캄한 속에서 다시 그것들을 굽어 모으며 혼자 웃음을 터뜨렸다.

다시 우주복에 공기를 채워넣고 서둘러 브리지로 나갔다. <구조>라고 씌어진 섬광 신호 버튼을 눌렀다. <노매드> 호의 선체에서 작은 태양이 뛰어나가 터지면서 공간을 떠돌았다. 그리고 몇 마일에 걸친 공간에 번쩍이는 흰 빛을 던졌다.

“자아, 부탁한다!”

포일은 입 속으로 노래하듯 중얼거렸다.

“빨리 와다오, 부탁이다. 제발 빨리, 빨리!”

낮선 우주선은 유령 어뢰처럼 섬광 저 쪽 맨 끝에 나타나 천천히 접근하면서 그를 정찰했다. 순간 포일의 심장은 오므라들었다. 그 우주선이 너무나 주의 깊게 행동했으므로 외위성동맹에서 온 적측 우주선이 아닐까 하는 공포를 느낀

것이다. 그러나 이윽고 그는 우주선의 현 쪽에서 그 유명한 빨강과 파랑의 상표, 다시 말해서 사업계에 군림하는 플레스타인,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경이적이고 자비로운 지구의 플레스타인 <상표>를 보았다. 그리하여 그 우주선이 <노매드> 호의 자매선이라는 것을 알았다. <노매드> 호도 플레스타인의 우주선이었으므로, 저 우주선이야말로 우주의 천사로서 그를 수호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운 자매여!”

포일은 노래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다.

“마음씨 고운 천사, 나를 고향으로 데려가다오!”

우주선은 포일의 우주선 옆으로 다가왔다. 현 쪽의 밝은 창문에서 그리운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 배의 이름과 등록 번호가 선체에 발광 도료로 써어 있는 게 보였다. - 보거 T 1339호. 그 우주선은 한순간 <노매드> 호와 나란히 있더니 곧 핵 지나가 그대로 보이지 않게 되고 말았다.

자매선은 매정하게 그를 버린 것이다. 천사는 그를 버리고 말았다.

포일은 펄쩍 뛰지도 않았다. 입 속으로 노래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그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눈을 들었다. 섬광신호가 달린 벽으로 뛰어가 버튼을 몇 번이고 눌렀다. 조난, 착륙, 이륙, 정선 신호들이 <노매드> 호 선체에서 발사되어 하양, 빨강, 초록빛이 미친 듯 차례차례 번쩍이며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그런데도 <보거 T 1339호>는 아무 대꾸도 없이 침묵을 지키는 채 매정하게 지나쳤다. 보거 호는 뒷부분의 로켓으로 불을 뿜어내면서 태양을 향해 달려가 버렸다.

이리하여 겨우 5초 동안에, 그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것이었다. 30년이나 살고 6개월이나 고통에 시달린 끝에, 평범한 사나이 걸리버 포일은 이미 아무 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말았다. 열쇠가 그의 영혼의 열쇠 구멍에 꽂히더니 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 영혼 내부에서 나온 자가 그를 영원히 말살해 버렸다.

“너는 나를 버렸다!”

그는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담아 천천히 말했다.

“나를 못 본 체 내버려두어 개처럼 죽어도 좋다는 뜻이겠지. 이대로 두면 죽으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버려둔 것이다. 보거…… 보거 T 1339호, 알겠느냐? 나는 여기서 살아나갈 테다. 너를 따라갈 테다. 보거, 너를 찾아 내고 말 테다. 그래서 이 원수를 갚아줄 테다. 죽여줄 테다. 없애버릴 테다! 보거, 죽여서 갈기갈기 찢어줄 테다!”

가슴을 불태우는 분노가 지금까지 걸리버 포일을 하찮은 인간으로 만들었던

잔혹한 인내와 활발하지 못한 성격을 마구 먹어치웠으며, 그를 폭발시킬 만한 연쇄 반응을 촉구했다. 그는 굳게 맹세했다.

“보거, 나는 너를 철저히 죽여줄 테다!”

그는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해냈다 - 그는 자기 자신을 구제한 것이다.

이틀 동안 난파한 부품을 살살이 조사하여 5분씩 약탈하여 마침내 어깨에 달 장치를 고안했다. 공기 탱크를 그 장치에 접속시켜 즉석에서 만들어낸 호스로 탱크와 우주모를 연결했다. 그는 재목을 끄는 개미처럼 공간을 기어다녔는데, 그 덕분에 시간을 걱정하지 않고 <노매드> 호 안을 자유로이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사령탑에서 파괴된 항행실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던 갖가지 조종법 책을 조사하면서 그는 파괴되지 않고 남은 우주 항행 기계를 사용하려고 생각했다. 진급과 보수면에서 매력에 있는 직업이었으나, 이 10년 동안 우주 근무를 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일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보거 T 1339호로부터 잔혹한 취급을 받은 것이다.

시계를 확인했다. <노매드> 호는 태양으로부터 3억 마일 떨어진 황도(태양의 궤도를 나타내는 원)상의 공간을 떠돌고 있었다. 눈앞에는 페르세우스, 안드로메다, 쌍어궁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바로 앞쪽에 떠 있는 더러워진 오렌지 빛한 점이 목성이었다. 뚜렷이 나타난 행성의 원판이 보였다. 만일 운이 그의 편을 든다면, 목성으로 가는 코스를 잡아 구출될 수 있을 것이다.

목성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살 수 없다.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작은 행성의 궤도 저쪽에 있는 모든 외위성과 마찬가지로 메탄과 암모니아가 동결되어 만들어진 덩어리인데, 도시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가장 큰 네 개의 외위성은 내행성연합과 전쟁 중이었다. 그는 전쟁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보거 T 1339호에 보복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만 한다.

포일은 <노매드> 호의 기관실을 조사했다. 몇 개의 탱크에는 고압 연료가 남아 있었으며, 네 개의 후부 분사 추진 로켓 중 한 개는 움직일 수가 있었다. 포일은 기관실의 조종법 책을 찾아다 연구했다. 그는 연료 탱크와 하나 남은 분사 로켓 실과의 연결을 수리했다. 연료 탱크는 태양 쪽으로 면한 곳에 있었으므로 빙점 이상의 온도로 따뜻했다. 고압 연료는 액체였으나 흐르지 않았다. 무중

력 상태에서는 연료를 파이프를 통해 흐르게 할 수 없었다. 포일은 우주선 조종법 책을 읽고 중력에 대해 이론적인 지식을 얻었다. 만약 <노매드> 호를 회전시킬 수 있다면, 우주선에 충분한 원심력을 주어 분사 연소실에 연료를 도입할 수가 있다. 연소실에 불을 붙일 수만 있다면 한 개의 분사 로켓의 한쪽으로 치우친 추진이 <노매드> 호를 빙글빙글 회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우주선을 회전시키지 않으면 분사 로켓에 불을 붙일 수가 없으며, 불을 붙이지 않으면 우주선을 회전시킬 수 없다.

이 꼭 막힌 상황의 돌파구를 생각해 보았다. 그는 <보거> 호의 일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포일은 연소실의 배기 콧을 열고 참담한 생각을 하면서 손으로 연료를 가득 채웠다. 일을 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연료에 불을 붙이면 오래도록 충분히 타서 우주선을 회전시켜 중력을 주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탱크로부터 연료가 유입될 것이며 그 결과 분사 추진이 계속될 수 있다.

성냥을 켜려고 했다.

진공의 공간에서는 타지 않았다.

부식돌과 강철을 때려보았다.

공간의 절대영도에서는 불꽃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전열된 필라멘트를 생각했다.

<노매드> 호는 필라멘트를 타게 할 만큼 열을 가할 전력이 없었다.

그는 책을 찾아 다시 읽었다. 몇 번이나 의식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았으나, 그는 사고를 쫓아 계획을 세웠다.

포일은 얼어붙은 물탱크에서 얼음을 가져다가 체온으로 그것을 녹여 물을 분사 연소실에 떨어뜨렸다. 연료와 물은 융합되지 않으므로 서로 섞이지 않았다. 물은 연료 위에 얇은 층이 되어 떠올랐다.

화학 약품 창고에서 포일은 순수한 나트륨을 가지고 왔다. 그는 그것을 고압 연료의 마개를 열고 그 속에 넣었다. 나트륨은 물과 접촉하자 발화하여 높은 열을 내면서 탔다. 고압 연료가 작은 마개를 통하여 넣어진 나트륨의 불꽃으로 폭발하여 열을 뿜었다. 포일은 렌치로 고압 연료의 마개를 닫았다. 연료실에서 점화가 되자 하나뿐인 후부의 분사추진 로켓이 발랑발랑 불꽃을 분사하며 소리도 없이 진동하여 선체를 흔들었다.

중앙에서 벗어난 제트 추진이 <노매드> 호를 천천히 회전시켰다. 그 힘이 약간의 중력을 일으켰다. 다시 무게가 주어졌다. 주위에 흩어져 떠돌던 파편들

이 갑판과 벽과 천장에 부딪혔다. 그리고 중력은 연료를 탱크에서 연료실로 계속 흐르게 했다.

포일은 너무나도 기빠 시간을 헛되이 하는 짓은 하지 않았다. 기관실을 나오자 그는 사령탑에서 마지막 운명적인 관측을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이제 곧 <노매드> 호가 끝없는 우주에 난폭하게 돌진하여 또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운명이 될지, 아니면 목성으로 가는 코스를 잡아 구조될 것인지 알게 되리라.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중력이 생겼기 때문에 가스 탱크를 질질 끌면서 걸을 수는 없었다. 가속도가 앞쪽으로 작용했으므로 파편들이 <노매드> 호의 알맹이를 뒤쪽으로 날렸다.

포일이 층계를 올라가 사령갑판으로 나가려고 할 때, 브리지에서 잡동사니들이 힘차게 날아와 그에게 부딪혔다. 이 공간의 잡초에 부딪친 덕분에 그는 길고 텅 빈 통로를 구르고 나동그라지며 벽에 부딪쳐 마침내 의식을 잃었다. 그는 반톤이나 되는 파편 한복판에 쓰러져 희망도 없이 간신히 생명을 잇고 있었다. 그러나 미친 듯한 복수의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너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나?”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가는 곳은?”

제 2 장

화성과 목성 사이에 넓은 소행성의 대가 펼쳐져 있었다. 이미 알려진 행성,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은 행성들이 수없이 모여 있었다. 이 기형의 세기에 있어서 가장 특이한 존재는 사가소 소행성이었다. 그것은 자연석이며 난파선의 파편들이 모여 만들어진 소천체로, 2백 년 동안 그 주민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야만인으로, 24세기의 유일한 야만민족이었다. 그들은 2세기 전 우주선이 조난되어 소행성대에 남겨진 과학 조사단 일행의 후예였다. 그 자손들이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독자적인 세계와 문화를 이룩하여, 지구로 돌아가기보다는 우주에 머물러 있고 싶어했다. 우주의 조난자를 구조하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하고, 선조로부터 전해진 과학적 방법을 기괴한 형태로 발전시키기도 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과학인>이라고 일컬었다.

우주선 <노매드> 호는 공간에 원을 그리며, 목성으로 향하는 코스도 아니고 더욱 먼 별을 향하는 코스도 아닌 채 죽음에 직면한 미생물이 천천히 나선형으로 움직이듯 행성대를 떠돌고 있었다.

<노매드> 호는 사가소 소행성에서 1마일 떨어진 상공을 통과하다가 곧 이 과학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의 작은 천체로 연행되었다. 그들은 거기서 포일을 발견했다.

문득 잠이 깨어보니 포일은 소행성의 자연과 인공으로 된 통로를 들것에 실려 운반되고 있었다. 그 통로는 행성의 금속과 돌 및 선체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 통로는 행성의 금속과 돌 및 선체의 금속판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오랜 옛날에 잊혀진 우주 여행 시대의 명칭 - 예를 들면 <지구 소속 인터스 여왕>, <화성 소속, 실리더스 유랑자>, <토성 소속, 드리·링·서커스> 같은 명칭이 박힌 금속판이 몇 개 있었다. 위의 통로는 큰 홀과 창고와 아파트 주택 구역으로 통해 있었으며, 건축물들은 난파된 우주선의 선체를 시멘트로 굳혀서 만든 것이었다.

<노매드> 호는 목성의 제 3 위성 가니미드의 대형 평저선, 러셀식 쇠빙선이며 선장용 연락단정, 카리스트의 대형 우주선, 연기와 같은 로켓 연료가 아직 하나 가득 놓여져 있는 유리체의 탱크를 갖춘 22세기의 연료 수송선 사이로 급히 운반되었다. 그곳에는 2세기에 걸쳐 획득한 물건들이 모여져 있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무기, 책, 옷, 기계, 도구, 식량, 음료, 약품, 합성 제품, 대용품들이었

다.

들것 주위에 몰려선 군중들은 의기양양하게 일제히 소리쳤다.

“분석하라!”

한 여자의 목소리가 먼저 노래하듯 흥분된 목소리를 질렀다.

취화 암모니아— 1.5그램.

취화 룬— 3그램.

취화 나트륨— 2그램.

구연산— 분석하라.

“분석하라!”

과학인이 고함을 쳤다.

“분석하라!”

포일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는 다시 의식을 되찾았다. 우주복이 벗겨져 있었다. 신선한 산소를 섭취케 하기 위해서인지 식물을 심어놓은 온실에 있었다. 그 방은 예전의 백 야드 광석 수송선의 선체로 만들어져 있었다. 한쪽 벽에는 난파선 창문과 똑같은 원형, 사각형, 다이아몬드 형, 육각형 등 온갖 모양, 온갖 시대의 현창이 채택되어 있어 거대한 벽은 유리조명이 미친 듯이 뒤섞여 모아져 있는 것 같았다.

아득히 멀리서 태양빛이 스며들어오고 있었다. 공기는 덥고 축축했다. 포일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았다. 악마 같은 얼굴이 그를 둘러다보고 있었다. 뺨, 턱, 코, 눈가풀에 고대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 족처럼 무시무시한 문신을 하고 있었다. 이마에는 화살표가 쏙 내밀어져 있었다. 이것은 화성을 나타내는 기호, 그리고 남성을 나타내는 기호로 씌어진 것이었다.

“우리는 과학인이요.”

하고 조제프가 말했다.

“나는 조제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의 동료요.”

그는 몸짓으로 뜻을 나타냈다. 포일은 들 것 주위에 모여서 히죽히 웃고 있는 사람들을 노려보았다. 모두들 하나같이 얼굴에 문신을 하고 있어 악마 같은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마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언제쯤부터 표류했소?”

조제프가 물었다.

“<보거>.”

포일은 가위 눌린 사람처럼 간신히 말했다.

“당신은 이 50년 동안 처음으로 살아서 도착한 사람ियो. 힘이 센 사나이요, 매우. 적자생존은 성 다윈의 교의지요, 매우 과학적인.”

“분석하라!”

하고 모여섰던 군중이 소리쳤다.

조제프는 의사가 맥을 짚어보듯 포일의 팔목의 잡았다. 악마 같은 입이 무게 있고 엄숙하게 98까지 션다.

“맥은 98.6.”

조제프는 체온계를 꺼내 눈금이 0에 이르도록 조심스럽게 뿌리는 시늉을 했다.

“매우 과학적이야.”

“분석하라!”

다시 그들은 소리를 맞추어 외쳤다.

조제프는 병을 하나 집어들었다. <폐용 헤마토키실린 및 이오딘>이라는 레테르가 붙여져 있다.

“비타민?”

조제프가 물었다.

포일이 대답하지 않자 조제프는 병에서 커다란 알약을 꺼내 파이프를 담는 그릇에 넣어 불을 붙였다. 그는 한 모금 빨더니 눈짓을 했다. 세 여자가 포일 앞에 나타났다. 여자들의 얼굴에도 무시무시한 문신이 있었다. 이마에는 조안(J ♀AN), 모이라(M ♀IRA), 폴리(P ♀LY)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O> 자 밑에는 여성을 나타내는 작은 십자 표시가 붙어 있었다.

“선택하십시오.”

조제프가 말했다.

“과학인은 자연도태를 실행하오. 과학적인 선택을 하시오, 유전학적으로.”

포일은 또다시 정신이 아득해져서 손을 들 것 밖으로 힘없이 축 늘어뜨렸다. 그 순간 모이라에게 눈길을 던졌다.

“동화되었다!”

포일은 어느 틈에 둥근 지붕이 있는 원형의 방에 옮겨져 있었다. 그 안은 원심 분리기, 수술대, 형광등, 소독용 자비기, 외과용 기구가 든 케이스 등 고대의 기구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포일을 수술대 위에 뽕뽕 묶었다.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몸 부림쳤다. 그들은 먹을 것을 주었다. 수염을 깎고 몸을 깨끗이 씻어 주었다. 두 사나이가 손으로 원심 분리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쟁 때의 큰 북소리 같은 울림을 냈다. 모여선 사람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노래부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고대 소독용 자비기의 스위치를 넣었다. 자비기는 부글부글 끓으며 증기를 냈다. 그들은 낡은 형광등의 스위치를 넣었다. 불빛이 갑자기 증기가 자욱한 방 안을 밝게 비추었다. 10피트나 되는 인간이 수술대에 나타났다. 수술대에 올라앉은 조제프였다. 그는 수술용 모자와 마스크를 하고, 외과의사의 가운을 어깨에서부터 마룻바닥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인체 해부도가 빨강과 파랑 실로 음침하게 수놓여져 있었다.

조제프는 가락을 붙여 말했다.

“나는 여기에 그대를 <노매드>라고 명명하노라!”

포일은 의식을 잃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암흑 속에서 <보거 T 1339호>가 몇 번이나 돌진해 왔다가는 태양을 향해 사라져 버리며 포일의 피와 뇌수를 관통했다. 마침내 복수를 맹세하고 침묵 속에서 외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렵듯하지만 몸을 씻기우고 식사를 한 일이며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노래부르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이윽고 그는 눈을 떴다. 주위가 조용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모이라라는 여자가 그와 함께 나란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포일이 쉬어터진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의 아내예요, 노매드.”

“뭐라고?”

“당신의 아내예요. 당신이 나를 고르셨어요, 노매드. 우리는 접합체랍니다.”

“뭐라고?”

모이라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과학적으로 배우자가 된 거예요.”

그녀는 나이트 가운의 소매를 걷어올리고 팔을 보여 주었다. 거기에는 네 개의 흉한 상처가 있었다.

“결혼을 상징하는 낡은 것, 새로운 것, 빌어온 것, 파란 것의 점종 자국이에요.”

포일은 침대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쳤다.

“여기가 어디요?”

“우리 집이에요.”

“누구의 집이라고?”

“당신의 집이에요. 당신의 우리의 일원이에요, 노매드. 당신은 매달 결혼하여 수많은 아이들을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과학적이지요. 하지만 내가 제 1 호예요.”

포일은 그녀를 목살하고 주위를 살폈다. 그 방은 23세기 첫 무렵의 소 로켓 단정의 주선실로, 예전에 개인들이 쓰던 요트였다. 그 주선실을 침실로 고친 것이었다.

그는 현창에 기대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이 단정에는 행성 덩어리에 의해 밀폐된 주선체로 통하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고물로 갔다. 두 개의 작은 선실에는 산소를 호흡하기 위한 식물이 가득 재배되고 있었다. 기관실은 부엌으로 개조되어 있었다. 연료 탱크에는 고압 연료가 있어, 분사 추진실 위에 있는 작은 스토브의 연소기로 보내어지고 있었다. 포일은 앞쪽으로 가보았다. 조종실은 응접실로 꾸며졌으나, 아직 작동이 가능했다.

그는 생각했다.

고물의 부엌으로 가서 스토브를 떼어 냈다. 그리고 연료 탱크를 그 전의 분사 연소실에 연결시켰다. 모이라는 신기한 듯이 그를 따라왔다.

“뭘 하세요, 노매드?”

“나가줘!”

포일은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나는 <보거>라는 우주선에 볼 일이 있어. 나에게서 그 말을 듣고 싶어? 나는 이 우주선으로 탈출할 뿐이야.”

모이라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포일은 그 눈빛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붙잡으려고 덤벼들었다. 그가 심하게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쉽게 몸을 뺄 수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순간 굉장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제프와 그 악마 같은 얼굴의 동료 과학인들이 밖에서 금속 선체를 쿵쿵 두드리며 신희부부를 위한 과학적인 소음 의식을 시작한 것이다.

포일이 끈질기게 뒤쫓자 모이라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다. 가까스로 그녀를 구석에서 붙잡자 나이트가운을 찢어 여자를 꽂고 재갈을 물렸다. 모이라는 행성이 둘로 깨질 만큼 큰 소리를 질렀으나, 과학인들이 내는 소음이 그보다 더 컸다.

포일은 기관실의 응급 수리를 끝냈다. 그는 이미 숙련된 전문가라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그는 몸부림치는 여자를 일으켜 승강구로 데리고 갔다.

“나는 출발하겠어.”

그는 모이라의 귓가에 대고 소리쳤다.

“나는 여기서 떠나는 거야! 이 행성은 폭발할 거야. 굉장한 파괴가 일어나 모두 죽을지도 몰라. 모든 것이 크게 폭발하는 거야. 사태를 똑똑히 생각해야 해. 공기가 없어지고 있어. 그러면 이 행성도 끝장이야. 자아, 가서 저들에게 이야기 해 줘. 경고해 줘, 어서!”

승강구를 열어 여자를 내보낸 뒤 문을 닫고 잠갔다.

소음이 갑자기 멎었다.

포일은 조종실에서 버튼을 눌렀다. 수십 년 동안 울린 일이 없을 이륙의 자동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분사 추진기가 둔한 진동과 함께 점화되었다. 그는 온도가 연소점에 이를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이 단정은 시멘트로 행성에 고정되어 돌과 무쇠로 굳혀져 있었다. 후부 로켓은 행성에 고정되어 있는 또 하나의 선체의 높이와 같았다. 분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었지만, <보거> 호에 대한 복수의 일념으로 되고 안되는 것은 하늘에 맡기고서 모험을 할 작정이었다.

그는 로켓을 시동시켰다. 고압 연료가 뒷부분에서 불길을 내며 폭발했다. 단정은 진동하며 방향을 바꾸더니 높을 열을 냈다. 삐걱거리는 금속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윽고 단정은 하늘로 날아올랐다. 금속과 유리는 가루가 되고, 단정은 행성에서 우주로 돌진했다.

내행성연합의 우주 해군이 화성의 궤도 밖 9천 마일 지점에서 그를 구조했다. 7개월에 걸친 실전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행성의 순찰정은 민첩하고 용감했다. 상대방이 아무 응답도, 알았다는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일격에 파괴해 버려도 나중에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단정은 작았으며, 순찰정의 승무원들은 현상금을 목표로 열심히었다. 그들은 단정에 가까이 접근하여 나포했다.

단정 안에서 그들은 머리없는 벌레처럼 잡동사니며 여러 가지 살림 도구 속을 기어다니는 포일을 발견했다. 그는 피가 나고 지독한 악취를 풍기는 악성 종기로 부어오른데다 머리 한 옆이 깨져 있었다. 그들은 포일을 병실로 옮기고, 주의깊게 그의 탱크 덮개를 쳐들었다. 포일의 참혹한 모습에는 거친 하급 선원

조차 눈길을 돌렸다.

지구로 돌아오는 도중 포일은 의식을 되찾아 V로 시작되는 말을 중얼거리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구조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복수는 시간 문제인 것이다. 병실의 간호병은 그가 방 안에서 미친 듯이 기빠하는 목소리를 듣고 커튼을 열었다. 포일은 흐리멍당한 눈을 들었다. 간호병은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 알아들었나?”

포일은 신음했다. 간호병은 몸을 숙였다.

“대체 어떻게 된 건가? 누구에게 당했지?”

“뭐라고?”

포일은 갈라진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뭐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잠깐만 기다리게.”

간호병은 조운트하여 보급실로 갔다가 5초 뒤에 다시 탱크 곁에 모습을 나타냈다. 포일은 몸부림치면서 밖으로 나왔다. 눈이 번들번들 불타고 있었다.

“되돌아왔군. 조운트한 건가? 나는 노매드에서 조운트할 수가 없었어. 방법을 잊어버렸거든.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 지금도 그다지 생각나는 게 없어. 나는…….”

간호병이 끔찍한 문신이 박힌 얼굴 그림을 그 앞에 들이밀자 포일은 너무나 무서워 뒤로 물러섰다. 마오리 족의 얼굴이었다. 뺨, 턱, 코, 눈까풀에 여러 가지 줄이며 소용돌이치는 물결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마에는 <노매드(NOMAD)>라고 새겨져 있었다. 포일을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고뇌의 외침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거울이었다. 자신의 얼굴이었다!

제 3 장

“훌륭했어요, 해리스 씨, 잘되었어요. 위치(L), 고도(E), 상황(S)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해요. 위치, 고도, 상황—이것이 조운트 좌표를 기억하는 유일한 방법이니깐요. 프랑스 어로는 Etre entre le marteau et l'enclume 예요. 아직 조운트하지 마세요, 피터즈 씨. 차례를 기다리세요. 조금 더 참고. 이제 곧 C급이 될 수 있겠군요. 누구 포일 씨를 못 보았나요? 행방불명이에요. <<아아, 그 사나이는 늘 없어지고 마는군요. 그 사람을 말려야 하는데. 그럼, 여러 가지 장소를 모두 생각해 보았겠지만……>> 어머니, 나는 또 정신 감응으로 여러분께 멋대로 이야기했나 보지요?”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스마트하니깐요.”

“<<어머니, 친절하시군요, 고거스 씨.>> 자아, 여러분, 수업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해봅시다. 포일 씨는 벌써 조운트했나요? 그 사람의 행방을 전혀 알 수가 없군요.”

로빈 웬즈버리는 뉴욕 시의 지역적인 조운트 재교육 클라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하급 학년 아이들과 같아서 뇌장에 환자를 다루는 것도 꽤 재미 있었다. 그녀는 어른들을 어린이가 다루듯 했으며,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 한 달 동안 학생들은 가로 교차점에 있는 조운트 대를 암기하며, <L E S—위치, 고도, 상황>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고 있었다. 이 여교사는 미모의 흑인으로, 키가 후리후리하고 충명하며 교양이 있었다. 그리고 감응 전 달, 다시 말해서 정신 감응을 하는데, 자기 쪽에서 밖에 할 수 없는 핸디캡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방사할 수는 있었으나,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아 낼 수가 없었다. 이 핸디캡 때문에 좀 더 훌륭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는 데는 적합했다. 로빈 웬즈버리는 기분이 잘 바뀌는 성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고도 기술적인 조운트 교사였다.

총합육군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조운트 학교에 속속 보내져왔다. 거리의 허드슨 브리지에 있는 어떤 건물이 아예 학교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학교에서 출발하여 악어처럼 타임즈 스퀘어의 조운트 대로 행진했다. 이 조운트 대를 열심히 마음에 새겨넣었던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학교로 조운트하였다가 타임즈 스퀘어로 돌아왔다. 악어 같은 줄이 다시 만들어져 나란히 콜럼버스 서클로 행진하여, 조운트 통제지점을 기억에 새겼다. 그런 다음 모두들 타임즈 스퀘어를

거쳐 학교로 조운트하고, 다시 같은 코스로 해서 콜럼버스 서클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거기서 다시 줄을 지어 육군 연병장으로 가서 암기와 조운팅을 반복했다.

로빈은 일반 사람들의 조운트 대가 되어 있는 채송대에 환자들 - 모두 뇌에 상해를 받아 조운트하는 능력을 잃은 자들 - 을 데리고 가서 재교육시키고 있었다. 이윽고 그들은 가로 교차점에 있는 조운트 대를 암기했다. 행동 범위가 커졌을 때 - 그들의 능력이 회복되었을 때는 좀 더 넓은 범위에 걸친 행동 반경의 조운트 채송대를 기억했다. 그 범위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도 제한되었다.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 장소를 기억하려면 실제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조운트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로 가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입체 사진으로도 속일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대여행은 여유있는 계급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의미를 갖기에 이르렀다.

“위치, 고도, 상황!”

로빈 웬즈버리가 강의했다.

학생들은 채송대에서 워싱턴 하이츠로, 허드슨 브리지로, 초등 정도의 4분의 1마일 조운트를 계속하고 다시 본디 장소로 돌아왔다. 학생들은 아름다운 흑인 여교사를 열심히 따라다녔다.

백금으로 두개골을 수술한 몸집 작은 기술중사가 점잖지 못한 말로 지껄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곤란한 겁니까?”

“그래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우리가 마음 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들리지 않습니까?”

“전혀 들리지 않아요. 나의 것은 일방적 정신 감응이니까요.”

“우리들은 모두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아니, 나 혼자만 일지도 모릅니다만…….”

“그것은 사정에 따라 달라요. 나는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는 한 가지 일밖에 생각지 않는답니다.”

로빈은 책 뒤를 돌아보았다.

“조운트하기 전에 주저해서는 안돼요, 해리스 씨. 주저는 의혹을 일으키고 의혹은 조운트를 멎게 합니다. 다만 조운트를 감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끔 걱정이 되어서…….”

머리에 붕대를 감은 해리스 상사가 대답했다. 아무래도 조운트 대 끄트머리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걱정이라니, 뭐가 말인가요?”

“내가 달은 장소에 누가 서 있으면 어쩍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한 소동이 벌어질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벌써 몇백 번이나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온 세계 조운트 체송대의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 조운트대는 조그맣고, 타임즈 스퀘어의 조운트 대는 2백 평방 야드나 된답니다. 수학적인 계산으로 산출한 것이니까 다른 사람과 동시에 도착될 염려는 1천분의 1도 없어요. 당신이 제트기로 사고사할 가능성보다 더 적은 거지요.”

붕대를 감은 해리스 상사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높은 대 위로 올라갔다. 흰 콘크리트로 된 원형의 대로, 그 길에는 기억을 돕도록 뚜렷한 백과 흑의 장식이 되어 있었다. 한 가운데에는 현재 있는 곳의 명칭과 조운트 지점의 위도, 경도, 고도를 가리키는 조명판이 있었다.

붕대를 감은 사나이가 첫걸음인 조운트를 하려고 용기를 불러일으킨 순간, 체송대는 갑자기 출발하고 도착하는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어 동요하기 시작했다. 조운트하여 도착하는 순간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새로운 목적지를 정하여 조운트하려는 동안 잠깐 주저하다가 곧 모습이 사라졌다. 사라져갈 때는 몸이 차지했던 공간에 공기가 돌입하여 희미한 소리가 났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로빈이 소리쳤다.

“혼잡하니까 대에서 내려와주세요.”

무거운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들은 아직도 눈을 주위에 뿌리면서 북부 숲지대에서의 작업을 마치고 남부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참이었다. 흰 옷을 입은 낙농장 종업원 50명이 서부 세인트루이스로 향해 갔다. 이날 아침 동부 표준시 지대에서 태평양 지대로 나가는 것이었다. 이미 정오가 된 동부 그린랜드에서 셀러리맨들이 점심을 먹으러 뉴욕으로 들어왔다.

혼잡은 곧 끝났다.

“자아, 여러분!”

로빈이 외쳤다.

“이제 계속합시다. 어머니, 포일 씨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언제나 행방불명이 되는 모양이군요.”

“그런 얼굴로 없어지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정신과 병동에서는 그를 <부기>라고 부른답니다.”

“정말 무서운 얼굴이더군요, 로건 중사. 병원에서도 그 <표적>을 떼어 줄 수 없나요?”

“해 보기는 할 모양입니다만, 수술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문신이라고 하는데, 무척 오랜 옛날에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포일 씨는 어째서 그런 얼굴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는 정신 이상으로 입원했는데, 아무 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얼굴이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가엾기도 하지…… 그 사람은 늘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아요. 로건 중사, 혹시 내가 무슨 일인가로 미처 생각지 못하고 포일 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백금 두개골을 단 중사는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선생님. 그런 자의 마음은 상하게 해 주려고 해도 처음부터 상할 만한 뭐가 있어야지요.”

“이제부터라도 조심하겠어요. 누구든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이렇게 감응 전달하는 것이 정말 싫어요. 외로와지니까요. 부탁이에요 -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말아요. 오늘은 내가 좀 어떻게 되었나 봐요.>> 어머니, 포일 씨가 왔군요. 대체 어디를 갔다 왔지요?”

포일은 대에 조운트해 와서 조용히 내려는데, 무서운 얼굴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려듯 말했다.

로빈은 몸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억누르고 동정심을 보이며 그에게 다가갔다.

“우리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모두 친구들이고, 즐겁게 지내고 있잖아요. 당신도 함께 친구가 되어줘요”

포일은 그녀의 눈길을 피했다. 그가 무뚝뚝하게 그녀에게서 팔을 빼낼 때 옷소매가 젖어 있음을 로빈은 문득 깨달았다. 그의 환자용 흰 옷이 흠뻑 젖어 있

었다.

<<젖은 것일까? 어디선지 비를 맞은 모양이군. 하지만 아침에 일기 예보를 보았는데, 세인트루이스 동부에는 비가 오지 않았어.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보다 더 먼 곳에 갔다왔을 거야. 이 사람에게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텐데 - 조운트하는 기억과 능력을 모두 잃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병역을 피하기 위해 가짜 병을 앓고 있는 모양이야, 틀림없이.>>

별안간 포일이 그녀에게로 날아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가만 있지 못하겠소?”

홍폭한 얼굴이 무시무시했다.

<<역시 가짜 병을 앓고 있는거야.>>

로빈은 마음 속으로 생각했다.

“당신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소?”

<<당신이 바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경박하고 조심성 없는 짓은 그만두세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이야기가 들리요?”

<<글쎄, 어떨지 모르겠어요. 나를 놓아줘요.>>

로빈은 포일에게서 떠났다.

“자아,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어요. 병원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해요. 로건 중사, 당신부터 조운트하세요. 아시겠어요? L E S를 잊지 마세요. 위치, 고도, 상황!”

“무슨 볼 일이지, 나에게?”

포일이 고함쳤다.

“<<조용히 하세요, 떠들지 말고.>> 자아, 기운을 내세요, 해리스 상사. 대에 올라가 조운트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소.”

“<<거절하겠어요.>> 피터즈 씨, 차례를 기다리세요. 그렇게 서두르면 안돼요.”

“당신은 병원에 나에 대한 일을 보고하겠지?”

<<물론!>>

“당신에게 이야기할 게 있소.”

<<듣고 싶지 않아요.>>

“별써 모두 없어졌소.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소. 나는 당신 아파트로 가겠소.”

“내 아파트?”

로빈은 진정으로 무서워졌다.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에 있지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있을까? 의논할 일도 전혀 없을 텐데…….>>

“아니, 많습니다. 당신에게는 의논할 가족이 있소.”

포일은 그녀가 뚜렷이 두려움을 드러내보인 것을 확인하자 빙긋 웃었다. 그는 되풀이했다.

“당신 아파트에서 만납시다.”

“내 아파트가 있는 곳을 당신이 알 리가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그녀는 더듬거리면서 말했다.

“아니, 그렇지 않소.”

“당신으로선 도저히 그렇게 먼 곳까지 조운트할 수 없을 거예요. 도저히 당신은…….”

“할 수 없다고?”

문신을 한 얼굴이 뺨을 일그러뜨렸다.

“당신은 바로 조금 전에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피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소. 당신 생각이 옳소. 이제부터 30분 여유가 있군. 그럼, 거기서 만납시다.”

로빈 웬즈버리의 아파트는 그린베이 해안에 혼자 동그마니 세워진 거대한 건물에 있었다. 그 아파트 건물은 마치 마술사가 도회지의 주택 지역에서 가져다 위스콘신 주 소나무 숲 속에 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런 건물은 조운트 시대의 세계에는 매우 흔히 있는 것이었다. 난방이며 조명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교통 문제는 조운팅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단독 또는 집단적인 주택이 사막이며 숲이며 황야에 널리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방이 네 개인 플랫으로, 이웃집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방은 책, 음악, 그림, 인쇄물로 가득 했다 - 이것들은 불행한 일방 통행 감응 전달밖에 할 수 없는 로빈의 문화적이면서도 고독한 생활의 증거들이었다.

포일이 몹시 안타깝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데 몇 초 뒤 로빈이 아파트 거실로 조운트해 왔다.

“자아, 이것으로 확실해졌겠지요?”

그는 느닷없이 이야기를 꺼냈다, 아플 정도로 단단히 그녀의 팔을 잡고서.

“병원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일을 절대로 폭로하지 않겠지요? 아무에게도 말이오.”

“놓아요!”

로빈은 그의 따귀를 때렸다.

<<영큼하게도! 야만인! 용케도 나를 만졌군요!>>

포일은 그녀를 놓고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감정이 격변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려고 화난 듯이 등을 돌렸다.

“역시 피병이었군요. 조운트 방법도 알고 있었어요. 초급에서 배우는 체하며 줄곧 조운트했었군요. - 전국을 돌아다녔겠지요. 어디에 갔었는지 알 게 뭐예요.”

“아아, 나는 타임즈 스퀘어에서 콜람버스 서클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곤 했소……”

“그래서 언제나 행방불명이 되었군요. 하지만 왜지요? 어째서지요? 당신은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끔찍스러운 얼굴에 신들린 듯한 교활한 표정이 나타났다.

“나는 종합 병원에 갇혀 있소. 그것이 내 작전의 기반이오. 알겠소?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소, 로빈 양. 나는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그것을 갚아야 하오. 어떤 우주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내야만 하는 거요. 이제야 말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요. 나는 당신을 다치게 하려는 게 아니오. <보거>, <보거>를 죽여주는 것, <보거>를 죽여서 산산이 부숴버릴 거요!”

그는 소리치는 것을 그만두고 의기양양하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로빈은 까무러칠 듯이 놀라며 뒤로 물러섰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보거>, <보거 T 1339호>, 들어본 일 있소? 나는 본즈 앤드 위그 선적 등 기소에서 그 것이 있는 곳을 알아 냈소. 당신이 저 조운트 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동안 가보았지요. 생프랑에 가서 <보거>를 찾아 냈소. 지금은 밴쿠버 계선소에 있더군요. 그 우주선은 플레스타인 일족, 플레스타인의 소유요. 이런 이름을 들어본 일 있소? 플레스타인은 지구에서 가장 큰 사나이요. 그러나 그가 나를 붙잡지는 못할 걸. 나는 <보거>를 철저하게 죽여줄 거요. 당신이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소, 로빈 양.”

포일은 자기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바싹 댔다.

“나는 내 몸을 지킬 거요. 자신의 약점을 모두 보충하는 거요. <보거>를 죽이기 전에 나를 붙잡으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항 수단이라도 취하겠소. - 당신도 포함해서, 로빈 양.”

“싫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나는 당신의 출신을 알아 냈소. 병원에서 가르쳐 주더군. 나는 여기에 와서 조사했소. 당신의 일기장도 읽었소, 로빈 양. 당신은 외위성동맹의 카리스트에 가족이 있더군, 어머니와 여동생 둘.”

“그만하세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외계 시민인 셈이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내행성연합에서는 당신들에게 고향에 돌아가도록 1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었소. 그 때 돌아갔다면 법률상 스파이가 되지는 않았겠지요.”

포일은 움켜쥔 주먹을 폈다.

“나는 당신을 이 안에 움켜쥐고 있소.”

그는 다시 손을 움켜쥐어 보았다.

“어머니와 동생들은 1년 반 동안이나 카리스트를 탈출하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지구인이예요. 우리는……”

“나는 당신을 이 손에 쥐고 있소.”

포일은 되풀이했다.

“스파이가 어떤 처분을 받는지 알고 있겠지요? 스파이에게서 도로 정보를 알아 내는 거요. 다시 말해서 당신을 하나하나 분해하지요. 서서히 당신을 분해하여…….”

흑인 여자는 비명을 질렀다. 포일은 기분 좋은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다.

“내가 당신을 잡았소. 그것뿐이요. 당신은 나에게서 달아날 수가 없소. 첩보부에 밀고해서 당신의 신분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무도 내 행동을 방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요. 병원이나 플레스타인 일족의 전능하신 플레스타인 씨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소.”

<<썩 나가요, 이 더러운…… 괴물, 썩 나가줘요!>>

“내 얼굴이 보기 싫다는 거로군. 하지만 로빈 양, 이 얼굴도 당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요.”

그는 와락 덤벼들어서 그녀를 안아올려 소파로 운반하여 그 위에 던졌다. 그리고 그녀를 알몸으로 만들어 꼼짝 못하게 눌렀다. 그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당신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을 거요.”

플레스타인 재벌의 플레스타인은 모든 사회의 기반이 되어 있는 저 유명한

남비의 원리에 봉사하고 있었으므로 센트럴 파크의 빅토리아 왕조식 저택에 엘리베이터, 내선 전화, 말 못하는 하인, 그밖에 조운팅 덕분에 못 쓰게 되어버린 낡고 옛스러운 장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었다. 이 거대하고 사치스럽기 이를 데 없는 저택의 하인들은 충실하게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돌아다니고, 문을 손으로 열었다닫았다 하고, 층계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었다.

플레스타인 재벌의 플레스타인은 침대에서 나오자 하인과 이발사의 도움을 빌어 옷차림을 갖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의 방으로 내려와 집사와 하인과 하녀들의 시중을 받으며 아침 식사를 했다. 아침의 방을 나오자 그는 서재로 옮겼다. 실질상 통신 제도가 폐지된 시대인데도 - 이미 전화나 전보보다 직접 상대방에게 가서 의논하는 편이 훨씬 간단한 시대인데도 - 플레스타인은 서재에 남은 교환대를 설치하여 교환수를 두고 있었다.

“더겐햄에게 연결해 주게.”

그는 말했다.

교환수는 무척 애플을 먹은 뒤 가까스로 더겐햄 클리어 인코플레이테드를 불러 내었다. 이 회사는 관공서의 연락 및 개인적인 모든 연락 사무를 대행하는 것을 공인받고 있는 1억의 인원을 거느린 신용 조직이었다. 요금은 1마일 당 1¢r이었다. 더겐햄은 특파원이 80분이면 세계를 한 바퀴 돈다고 선전하고 있었다. 플레스타인 저택 밖에 있는 전용 조운트 대에 더겐햄의 특파원이 나타나자, 입구 뒤의 조운트에 의한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든 미로로 안내되었다. 그는 M급 조운터로, 1천 마일씩 감응이동을 계속할 수 있고, 수천 가지 조운트 좌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도 역시 더겐햄 클리어의 특징이 된 능력과 대담성을 훈련에 의해 얻고 있었다.

“플레스타인이지요?”

그는 인사말도 빼고 직접 본론으로 들어갔다.

“더겐햄을 고용하고 싶소.”

“여기 와 있습니다, 플레스타인.”

“당신이 아니라 솔 더겐햄 본인을 쓰고 싶소.”

“더겐햄 씨는 10만 ¢r 이하로는 직접 일을 맡지 않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섯 배를 내겠소.”

“수수료입니까? 아니면 비율로?”

“양쪽 다요. 25만의 수수료와 보증금의 10퍼센트로서 25만.”

“좋습니다. 일은?”

“파이어(Pyre).”

“스펠이 어떻게 되지요?”

“말을 듣고도 모르겠소?”

“네.”

“더겐햄 씨에게는 그것으로 통할 거요. 파이어요, 대문자 P, 그리고 y와 r 다 시 대문자 E요. 파이어(火葬燃料)와 발음이 같소. 파이어의 소재를 알아 냈다고 더겐햄 씨에게 연락해 주시오. 그 것을 손에 넣기 위해 그와 계약하려는 것이요 -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 포일이라는 사나이에게서 - 걸리버 포일.”

클리어는 메모용의 작은 은빛 진부를 꺼내더니 플레스타인의 명령을 녹음하여 그대로 말없이 모습을 감추었다.

플레스타인은 교환수에게 말했다.

“레지스 셰필드 씨를 불러 주게.”

레지스 셰필드 법률 사무소에 전화가 연결되고 10분 뒤에는 젊은 변호사가 플레스타인의 전용 조운트 대에 나타나 일단 조사를 받은 다음 미로로 안내되었다. 그는 얼굴이 토끼를 조금 닮았으며 밝은 느낌을 주는 젊은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플레스타인. 전화가 왔었다는 것을 시카고에서 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D급이므로 한 번에 5백 마일 밖에 조운트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오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네의 소장은 시카고에서 소송을 다루고 있나?”

“시카고, 뉴욕, 워싱턴에서 다룹니다. 오전에는 여기저기 재판소를 차례로 조운트해서 뛰어다니고 있지요. 소장님이 다른 재판소에 가 계실 때는 우리가 대신 합니다.”

“그에게 의뢰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영광입니다, 플레스타인. 그러나 셰필드 씨는 지금 매우 바쁘시기 때문에…….”

“파이어를 다룬다고 하면 바쁜 게 문제가 안될 걸세.”

“죄송합니다만, 지금 하신 말씀을 잘…….”

“이해 못 하겠지. 그러나 자네 소장은 알고 있네. 화장 연료와 발음이 같은 <파이어> 건이라는 것, 그리고 수수료를 말하기만 하면 되네.”

“얼마 정도인지요?”

“25만의 수수료와 보증금의 10퍼센트로서 25만.”

“셰필드 씨에게 의뢰하실 일은?”

“어떤 사나이의 신병(身柄)을 확보하여 육군, 해군, 그리고 경찰에 넘기지 않기 위한 모든 법적 수속을 준비해 주었으면 하네.”

“좋습니다. 그 인물은?”

“걸리버 포일.”

젊은 변호사는 휴대용 녹음구(錄音球)에 급히 녹음하고 그것을 귀에 넣어 다시 들어본 다음 가볍게 고개를 숙여보이고 사라졌다. 플레스타인은 서재를 나와 용단을 깔아놓은 층계를 올라가 딸의 방으로 갔다.

부유한 가정에서는 여자의 방을 창문도 출입문도 없이 밀폐시켜 놓고 가족들만이 조운트하는 장소를 만들어놓았다. 이렇게 하여 도덕이 유지되고 정조가 지켜졌던 것이다. 그러나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은 여느 사물이 보이지 않으므로 조운트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녀의 방에는 출입문이 있고, 플레스타인 집안의 제복을 입은 고풍스러운 하인이 엄중하게 지키고 있었다.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은 놀라울 정도로 화려한 알비노였다. 머리카락은 흰 비단실이었고, 살결은 흰 새틴, 손톱과 입술과 눈은 산호빛이었다. 기막히게 아름답고 놀라운 장님이었다. 적외선의 7천 5백 옹스트롬(1억분의 1 센티미터) 내지 1밀리미터의 파장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열파, 자장, 무선저파, 우주 탐지기 및 수중 탐지기의 전파, 그리고 전자장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자기 거실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다. 비단으로 짠 안락의자에 앉아 그녀의 시중을 받아 차를 마시면서 방 안에 서 있는 십수 명의 남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치 대리석과 산호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조각 같았다.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지만, 눈을 돌릴 때마다 반짝반짝 빛났다.

플레스타인은 올리비아가 초대하는 화가며 음악가며 멋쟁이 남자들에 대해 호의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오늘 아침에는 각계의 명사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 시어즈 루백, 질레트 집안의 한 사람, 코닥 집안에서 최고 지위에 있는 젊은 시드니 코닥, 후비겐트 집안의 한 사람, 뷔크 회사의 뷔크, 굉장한 권력이 있는 색스 김벨 집안의 통솔자 R. H. 메이시 16세 등이 모여 있었다.

플레스타인은 딸에게 말을 한 다음 집을 나섰다. 사륜마차를 타고 월 거리 99번지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로 향해 떠났다. 마부에게는 조수가 달려 있었으며 모두들 빨강, 검정, 파랑으로 된 플레스타인 재벌의 상표를 달고 있었다. 주황색과 감청색 바탕에 검게 떠오른 <P>자는, 하인츠 집안의 <57>이나 고대 롤스로이스 왕조의 <RR> 상표와 함께 가장 전통 있고 유명한 상표로서 취급되고 있었다.

플레스타인 재벌의 우두머리는 뉴욕의 조운트와는 오래 전부터 친한 사이였다. 무쇠같이 단단한 흰 머리카락에 잘생긴 얼굴, 나무랄 데 없는 옷맵시, 옛스러운 예의범절을 몸에 익힌 플레스타인 재벌의 플레스타인은 마부, 하인, 말구종, 마굿간 일꾼들을 두고 있었다. 여느 사람이면 조운트로 끝낼 볼일을 위해 말도 여러 필 기르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조운트를 거절함으로써 그 지위를 나타냈다. 대상사 회사를 새로 이어받은 사람은 일부러 값비싼 자전거를 탔다. 소형 스포츠카를 타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재벌은 일부러 옛날의 자가용, 고대의 벤츠나 캐딜락, 또는 키가 높은 라콘다 같은 것을 운전수에게 운전시켜 타고 다녔다. 재벌 집안의 직계 후계자로 지목되는 자는 대개 요트나 비행기를 탔다.

플레스타인 재벌의 총수 플레스타인은 수없이 많은 자동차, 요트, 비행기, 기차를 가지고 있었다.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40년이나 조운트를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조운트를 하면서도 부끄럽게 생각지 않는 더겐햄이나 세펠드 같은 신흥 재벌을 은근히 경멸하고 있었다.

플레스타인은 월 거리 99번지의 성벽에 총안이 나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곳이야말로 플레스타인의 거성이었다. 요원이 배치되어 유명한 조운트 경비를 하고 있었다. 모두들 플레스타인 제복을 입고 있었다. 플레스타인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갈 때의 걸음걸이는 그야말로 지배자답게 위풍당당했다. 플레스타인이 나타나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 관리가 혼잡한 진정자들 속에서 뛰쳐나왔다.

“플레스타인 씨!”

하고 관리는 말을 걸었다.

“나는 전 행성 징수세국의 직원입니다만,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뵙고 싶어서…….”

플레스타인은 냉혹한 눈초리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플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많이 있소. 그러나 나는 플레스타인의 플레스타인이오. 일족과 재단의 우두머리요. 나는 <플레스타인>이라 불리고 있소. <플레스타인 씨>가 아니고, 그냥 플레스타인이오.”

그는 그대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굿모닝, 플레스타인!”

플레스타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쩐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책상을 향해 앉았다. 그 때 조운트 경비원이 피리를 불고 북을 쳤다. 플레스타인은 사무 시작 신호를 했다. 한 직원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앞으로 나갔다. 플레스타인은 휴

대용 녹음구나 모든 기계적인 사무 장치를 멀리하고 있었다.

직원이 읽기 시작했다.

“플레스타인 동족기업에 관한 보고서. 보통주식. 높은값 - 201/2분의 1, 싼값 - 201/4분의 1. 평균 상장. 뉴욕, 파리, 실론, 동경.”

플레스타인은 지루하고 귀찮은 듯이 손을 내저었다. 직원이 바뀌어 간부가 나타났다.

“새로운 미스터 플레스트를 서임하실 순서입니다, 플레스타인.”

플레스타인은 지루함을 꼭 참고 플레스타인 각국 지부의 가게를 경영할 플레스타인 플레스트 조직의 4백 97번째 미스터 플레스트의 서임식을 끝냈다. 미스터 플레스트에 서임되는 인물은,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의 얼굴과 몸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몇 년에 걸친 주의 깊은 테스트와 교의에의 복종으로 플레스트 계급에 선택되어 그에 참가하게 되었다.

반년에 걸쳐 수술을 받기도 하고, 심리적인 세뇌 교육을 받아 그는 다른 4백 96명의 미스터 플레스트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온 세계 어디서나 물건을 사는 손님은 똑같은 플레스타인의 가게에 들어가서 똑같은 얼굴과 몸매의 지배인 미스터 플레스트의 접대를 받는 것이다. 코닥 재벌의 미스터 쿼크라든가, 몽고메리 병원의 잉클 몬티 같은 라이벌이 있지만, 결코 그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의식이 끝나자 플레스타인은 갑자기 일어나 일반 서임식은 끝났다고 말했다. 방 안에는 간부들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물러갔다. 플레스타인은 몸을 썩는 듯한 개운치 않은 기분을 누르며 돌아다녔다.

“포일…….”

그는 쉬어터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주 흔해빠진 여느 우주선원이야. 흙탕물, 쓰레기, 가난뱅이 쓰레기가 아닌가! 그런데 그 사나이가 나의…….”

“죄송합니다만, 플레스타인.”

간부장이 겁먹은 태도로 말을 걸었다.

“동부 표준시로 11시. 태평양 표준시로 8시입니다.”

“뭐라구?”

“죄송합니다만, 플레스타인, 태평양 표준시 9시에 진수식이 있습니다. 밴쿠버 조선소에서 할 예정입니다.”

“진수식?”

“새 수송선 플레스타인 <여왕> 호의 진수식입니다. 조선소와 3원방송을 한
다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테니까, 슬슬 시간이…….”

“직접 참석하겠네.”

“직접!”

간부장은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만, 한 시간 만에 밴쿠버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플레스타인. 나는…….”

“나도 조운트하겠네.”

플레스타인의 플레스타인은 소리쳤다. 매우 흥분해 있는 것이었다.

직원들은 놀라서 허둥지둥 준비했다. 메신저가 일제히 전국 플레스타인 사무실로 조운트하여 연락을 취해서, 전용 조운트 대가 준비되었다. 플레스타인은 뉴욕 사무실 안의 체송대로 안내되었다. 원형의 대로, 창문이 없고 검정 휘장이 쳐진 방이었다 - 부외자에게 이곳이 발견되거나 기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꾸밈과 차폐막이 마련되어 있었다. 같은 이유로 모든 가정과 사무실에는 일방 통행인 창문과 문 뒤에 미로가 나 있었다.

조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재지와 목적지를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도 살아서 도착할 수가 없다. 알지 못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치 않은 출발점에서 조운트할 수도 없다. 그러나 창문이나 문을 통해 한번 슬쩍 보기만 하면 그 장소의 L E S 좌표를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플레스타인은 체송대로 올라가 필라델피아 목적지의 통제지점을 머릿속에 그려 확실한 광경과 정확한 장소를 보았다. 침착하게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여 목표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통제했다. 그는 조운트했다.

순간 눈이 어두워지며 뿌옇게 흐려졌다. 뉴욕의 체송대가 초점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체송대가 초점에 뿌옇게 떠올라왔다. 낙하한 다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도착했다. 간부장이며 다른 직원들은 그에게 사양하여 바로 뒤에 도착했다.

1백 마일과 2백 마일의 조운트로 플레스타인은 태평양 표준시인 아침 9시에 꼭 맞추어 밴쿠버 조선소에 도착했다. 그는 오전 11시에 뉴욕을 출발했었다. 시차에 의해 두 시간의 이득이 있었다. 이러한 일도 조운트 시대에는 상식이 되어 있었다.

담장이 없는 조선소의 콘크리트 부지 - 어떤 담장도 조운트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었다 - 는 검은 동전이 흰 테이블 위에 나란히 배열되어 주욱 깔려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가까이 접근해 가면 동전같이 보이던 것이 순식간에 커져 온다. 그것은 땅 속에 깊이 파여진 시커먼 구멍의 지하고로, 깊이가 백 피트나 되었다. 둥근 지하고 주위에는 각기 콘크리트 건물, 사무실, 검사실, 매점, 갱의실이 있었다.

그 지하고들은 이착륙구, 독 및 조선소의 건설구였다. 바다의 선박처럼 우주선은 중력에 대해 그 자신이 자기의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인 지구상의 중력은 우주선의 용골을 달걀 껍질처럼 때려부수고 만다. 배는 깊은 지하고에서 만들어져 그물코와도 같은 좁은 통로와 건조대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다. 그 둘레에 쳐놓은 대 중력 스크린이 그것을 받치고 있다. 바로 그 지하고에서 이륙하고 대 중력 광선으로 수직으로 상승하여 마침내 로슈 한계점까지 도달하면,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제트 진행을 하는 것이었다. 착륙하는 우주선은 제트 추진을 정지하고, 같은 광선으로 정지하여 지하고로 들어간다.

플레스타인과 수행원들이 밴쿠버 조선소로 들어갔을 때, 어느 지하고가 조업 중인지 알 수 없었다. 몇몇 지하고에서 우주선의 꼬리며 동체가 쭉 튀어나와 있었다. 지하고의 작업원들이 우주선의 꼬리 부분을 특수한 작업대에 올려놓을 때는, 대 중력 스크린에 의해 4분의 1 또는 2분의 1이 지상에 모습을 보인다.

플레스타인의 V급 수송정 세 척 - <베거>, <베스타>, <보거>는 격납고 중앙 부근에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보거>의 주위에는 용접기의 불꽃이 튀며 개장이 한창이었다.

<입구>라고 씌어 있는 콘크리트 건물에서 플레스타인은 걸음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보았다.

<<경고! 위험하니 허가 없이 안에 들어가지 마시오!>>

방문자용 배지가 그들에게 나누어졌다. 플레스타인의 플레스타인도 그 배지를 받았다. 배지를 갖지 않고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두들은 그를 따라 여러 지하고를 돌아보고 <0-3>이라는 뜻말이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 지하고 입구에는 플레스타인 깃발로 장식된 작은 사열대가 마련돼 있었다.

플레스타인은 인사를 받고 각부문의 간부직원에게 답례했다. 플레스타인 악

단이 만든 경쾌하고 금속적인 곡이 연주되었는데, 갑자기 악기 하나가 이상한 소리를 냈다. 금속적인 높은 소리가 악단 전체와 놀라서 외치는 소리까지도 삼켜버렸다. 플레스타인은 그것이 악기 소리가 아니라 조선소의 경보임을 깨달았다. 신분 증명표, 또는 방문자 배지를 달지 않은 자가 조선소에 침입한 것이다. 경비 시설의 레이더 망이 그것을 포착하여 경보를 울린 것이다. 그 기분 나쁜 경보 소리 때문에 플레스타인은 경비원이 모두 사열대에서 조운트하여 콘크리트 부지에 있는 각자의 부서로 돌아가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의 직속 조운트 경비원들이 가까이에 몰려와 빈틈없이 경계했다.

갑자기 방위 지점을 지시하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자가 장내에 침입했음. 에드워드의 E9에 있음. 에드워드의 E9에서 걸어 서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음.>>>

간부장이 소리쳤다.

“누군가가 침입한 모양입니다.”

“알고 있네.”

플레스타인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리로 조운트해 오지 않는 걸 보아 틀림없이 적일 것입니다.”

“알고 있네.”

<<<적은 데이비드의 D5에 접근해가고 있음. 데이비드의 D5. 여전히 걷고 있음. 경계.>>>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요?”

간부장이 또 소리쳤다.

<<<적은 찰리의 C5로 접근하고 있음. 찰리의 C5에 접근하고 있음.>>>

간부장은 플레스타인의 팔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플레스타인, 얼른 피하십시오.”

“피하라고?”

“플레스타인, 전에도 암살 미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여기서 만일…….”

“나는 이 사열대 위에 올라가겠네.”

“플레스타인!”

“좀 도와 주게나.”

플레스타인은 아직도 히스테리컬하게 걱정하고 있는 간부장들을 데리고 사열대 위로 올라가 비상경계 중인 플레스타인 재벌의 힘을 지켜보았다. 눈 아래 흰 점퍼를 입은 작업원들이 정신없이 지하고에서 떼지어 나왔다. 경비원들이 중심

지역을 향해 멀리서부터 조운트해 오는 것이 보였다.

<<<적은 남쪽 베이커의 B3을 향해 가고 있음. 베이커의 B3.>>>

플레스타인은 B-3 지하고를 지켜보았다. 한 사나이가 나타나더니 재빨리 지하고로 돌진했다. 그러나 곧 방향을 바꾸어 앞쪽으로 달려갔다. 파란색의 정신 병 환자 옷을 입은 거인으로, 검은 머리카락을 흘뜨리고, 멀리서 보니 납빛 물감을 칠한 것 같은 일그러진 얼굴이었다. 방위 시설인 방어유도장장이 그에게 소각 광선을 퍼붓자 그 옷이 열광선을 내뿜는 것처럼 번들번들 빛났다.

<<<베이커의 B3, 경계하라, 베이커의 B3으로 접근하고 있음.>>>

고함 소리와 아득한 총소리—공기를 울리는 스크프 총의 소리가 들렸다. 흰 작업복을 입은 여러 명의 작업원들이 몸을 날려 침입자에게 덤벼들었다. 사나이는 그들을 하나 하나 가볍게 쓰러뜨리고 <보거>의 앞 끝이 내밀어져 있는 B-3 쪽으로 달려갔다. 작업원과 경비원들 사이를 번갯불처럼 빠져 나가 이리저리 몸의 방향을 바꾸어 던지고 차며 집요하게 돌진했다.

별안간 그는 걸음을 멈추고 불이 붙은 옷옷에 손을 집어넣어 검은 폭발물을 꺼냈다. 죽음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동물처럼 경련하는 듯한 몸짓으로 폭발물 끝을 입으로 물어뜯었다. 그것은 <보거>를 향해 커다랗게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졌다. 다음 순간 그는 때려눕혀졌다.

<<<폭발물, 대피하라, 폭발물, 대피하라.>>>

“플레스타인!”

간부장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플레스타인은 그를 밀쳐버리고 폭발물이 냉랭한 햇빛을 받아 <보거>의 끝을 향해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 것을 응시했다. 폭발물은 지하고의 가장자리에 서 대 중력 광선에 잡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엄지손가락 끝으로 튕겨진 것처럼 공중으로 날려갔다. 그것은 위로위로 소용돌이치며 올라가 백, 5백, 마침내 1천 피트에 이르렀다. 그 때 눈부신 섬광이 번쩍었다. 그리고 커다란 우레 소리가 귀를 때리며 지상의 것을 떨게 했다.

플레스타인은 일어서더니 사열대를 내려와 진수식대로 갔다. 그는 플레스타인 <여왕> 호의 발진 버튼에 손가락을 댔다.

“그 자가 살아 있거든 내게로 데리고 오게.”

그는 간부장에게 이르고 난 다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나는 명명한다 - 플레스타인 <위력> 호라고!”

제 4 장

플레스타인 성의 회의실은 타원형 방으로 상아 벽에 순금으로 만들어진 길다란 거울이 걸리고 뿌연 유리창이 달려 있었다. 그곳에는 티파니가 제작한 로봇 오르간 연주자가 딸린 금오르간, 서가 사다리에 로봇 도서관원이 있는 금으로 장식된 책장, 둥근 기록기 앞에 사람과 똑같이 생긴 비서가 앉아 있는 책상, 로봇 바텐더가 있는 미국식 바가 있었다. 플레스타인으로서의 인간 하인이 더 좋았지만, 로봇들은 비밀을 지키기 때문에 쓰고 있는 것이었다.

“앉으십시오, 요빌 대위.”

플레스타인은 정중하게 말했다.

“이쪽은 레지스 세펠드 씨입니다. 이 사건에서 나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지요. 그리고 저 청년은 세펠드 씨의 조수입니다.”

세펠드가 청년을 소개했다.

“바니는 이른바 나의 후대 법률백과입니다.”

플레스타인이 조종 장치에 손을 댔다. 회의실의 정물화에 생명이 불어넣어졌다. 오르간 연주자가 오르간을 치고, 도서관원이 책들을 분류하고, 비서가 타이프를 치고, 바텐더는 칵테일을 만들었다. 실로 장관이었다.

플레스타인은 요빌을 보며 이야기를 재촉했다.

“당신은 포일이라는 사나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지요, 요빌 대위?”

중앙 정보부의 피터 얀 요빌 대위는 저 위대한 맹자의 자손으로 내행성연합군(IPAF)의 중앙첩보국에 소속되어 있었다. 2세기에 걸쳐 내행성연합군은 첩보 활동을 중국인에게 맡겨왔다. 중국인들은 5천 년 동안 예민한 교활함을 몸에 익히고 놀라울 만한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얀 요빌 대위는 보도 협회의 무서운 일원이며, 미신 연구가로서 비밀어를 유창하게 말할 줄 알았다. 아무리 보아도 중국인 같지는 않았다.

얀 요빌 대위는 플레스타인의 금욕적이고 뺨 같은 얼굴을 지켜보았다. 세펠드는 얼굴 생김이 둔하지만, 공격적인 표정이었다. 바니라는 열성스러운 청년은 얼굴이 꼭 토끼 같았으며, 틀림없는 동양인이었다.

얀 요빌 대위는 우회 작전을 취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에게 15등친 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바니에게 만다린 사투리로 물어보았다.

“나는 땡자의 혈통입니다만…….”

“그럼, 우리는 대대로 구적이로군요.”

바니는 더듬거리면서 만다린 사투리로 대답했다.

“일찍이 강대함을 자랑했던 나의 선조는 기원전 3백 42년 땡자에 의해서 산동의 지사 자리를 쫓겨났으니까요.”

바니는 소리내어 웃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플레스타인이 끼어들었다.

“우리는 3천 년에 걸친 혈족간의 반목을 재인식한 셈입니다.”

얀 요빌 대위가 플레스타인에게 설명했다. 플레스타인은 무슨 이야기인지, 무엇 때문에 웃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몹시 기분이 상한 모양이었다. 그는 통명스럽게 물었다.

“포일의 이야기는 언제쯤 처리하시겠소?”

“무슨 포일입니까?”

세필드가 말참견을 했다.

“무슨 포일이라니, 뻔하지 않소!”

“플레스타인 일족과 관계 있는 포일은 자그마치 열 세 명이나 되더군요.”

“재미있는 숫자군요. 내가 미신학 박사라는 것을 아십니까? 언제고 거울에 묻는 요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에 찾아온 것은, 오늘 아침 플레스타인 씨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다는 포일에 대한 일 때문입니다.”

“<플레스타인>이오.”

플레스타인이 바로잡았다.

“나는 플레스타인 씨가 아니라 플레스타인의 플레스타인이오.”

“플레스타인에게는 세 번의 암살 미수가 있었지요.”

세필드가 말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 번이나? 그거 참, 바쁘셨군요.”

얀 요빌 대위는 일부러 한숨을 쉬어보였다. 세필드는 자기가 확실히 그의 적대자라는 것을 태도에 나타내고 있었다. 첩보부원이 말했다.

“<우리> 미스터 플레스트가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면 도움이 되겠는데…….”

“당신의 미스터 플레스트라고!”

플레스타인이 놀라며 소리쳤다.

“네, <덕>의 5백 명 미스터 플레스트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 첩보부원이라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좀 이상하군요. 나는 당신이 이미 발견하여 교란 작전을 개시한 줄로만 알았었습니다.”

플레스타인은 깜짝 놀란 모양이었다. 얀 요빌 대위는 다리를 포개며 활발하게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신도 모르게 필요 이상으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이 첩보 활동의 근본적인 약점이지요. 당신들로서는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지껄이는군.”

플레스타인이 급히 말했다.

“우리의 미스터 플레스트로서 걸리버 포일에 대해 알고 있는 자는 하나도 없소.”

“그렇다면 참으로 안됐습니다.”

얀 요빌이 미소지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일을 가지고 싶은 것입니다. 언제 그를 우리에게 내주시겠습니까?”

세필드는 플레스타인을 보고 눈썹을 찌푸리더니 얀 요빌에게 태도를 고쳐 강경하게 물었다.

“<우리>라니,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중앙 첩보부입니다.”

“그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당신이 여자와 자는 것은 옷을 벗기 전입니까, 아니면 뒤입니까?”

“퍽 실례되는 것을 묻는군요.”

“당신 질문이야말로 실례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포일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이유를 밝혀줄 때.”

“누구에게 말입니까?”

“나에게.”

세필드는 억세보이는 둘째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것은 민사상의 문제로 군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전략 물자, 전투원 또는 전시의 전략 전술에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91 지구법 공소 303조”

하고 바니가 말했다.

“<노매드> 호는 전략 물자를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노매드> 호는 화성 은행에 백금을 수송하고 있었소.”

플레스타인이 소리쳤다.

“만일 그 돈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필드가 말을 가로막고 안 요빌에게로 돌아앉았다.

“그 전략 물자라는 것의 이름을 들어보십시오.”

이 노골적인 도전에 안 요빌은 깜짝 놀랐다. <노매드> 호 사건의 중대한 점은, 20파운드의 파이어를 싣고 있었다는 일이다. 그것은 전세계의 수요를 충족하는 양으로, 발견한 이가 행방불명된 지금 굉장히 귀중한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또한 양측 모두 이 일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세필드가 당연히 알아차렸음을 깨달았다. 그는 세필드가 파이어를 싣었다는 사실을 덮어두고 싶어한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도 세필드는 이름을 들 수 없는 것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한 것이다.

계략에는 역시 계략으로 응수해야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럼, 그 이름을 들지요. <노매드> 호는 <파이어>라는 물자를 20파운드 수송하고 있습니다.”

플레스타인은 깜짝 놀랐다. 세필드가 그를 놀렸다.

“파이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플레스타인의 부하 미스터 플레스트로부터의?”

“아니, 그것은 그냥 단순히 말해 보았던 것일 뿐입니다.”

안 요빌 대위는 웃었으나, 순간적으로 자신을 억제했다.

“첩보부의 정보에 의하면 파이어는, 뒷날 행방을 감춘 어떤 인물이 플레스타인을 위해 만든 것입니다. 파이어는 합금으로 자연성 광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뿐입니다. 그 밖에도 막연한 보고가 몇 가지 들어와 있지요…… 유명한 기관으로부터 보내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보고입니다. 만일 우리의 추측에 잘못이 없다면, 파이어는 전쟁에 있어 승패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군! 지금까지 그만한 힘이 있는 전략 물자는 나타난 적이 없소.”

“없다고요? 1945년의 원자 폭탄. 2022년의 대 중력 장치. 2194년에 탈레가 발명한 전역(全域) 탐지 스크린은 어떻습니까? 물자는 가끔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적이 그것을 먼저 입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말입니다.”

“현재 그런 가능성은 없소.”

“파이어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고맙군요.”

“나는 아무 것도 인정하지 않았소. 모든 것을 부인하겠소.”

“중앙 첩보부로서는 교환을 신청할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남자 한 사람 대 남자 한 사람—파이어의 발명자를 걸리버 포일과 교환합니다.”

“그를 체포했습니까?”

세필드가 물었다.

“그렇다면 어째서 포일의 일로 우리를 으르대고 위협하는 거지요?”

“우리의 손에 들어온 것은 시체였기 때문입니다.”

얀 요빌이 분명히 말했다.

“외위성동맹의 사령관은 6개월이나 그를 러셀에 잡아놓고 그에게서 정보를 캐내려고 했습니다. 우리 군대가 이를 습격하여 그를 구출했지요. 그러나 79퍼센트에 이르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더구나 구출했을 때 그는 시체가 되어 있었지요. 외위성동맹군은 우리가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르며 시체를 끌어 낸 것을 알고서 지금쯤 배를 잡고 옷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적이 어느 정도까지 그에게서 정보를 알아 냈는지, 분하지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플레스타인은 이 말을 듣고도 태연히 의자에 앉아 있었다.

“플레스타인!”

요빌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이 중대한 위기를 모르겠소? 세필드 씨, 우리는 지금 절망적인 입장에 처해 있소. 당신은 이 비열한 흥정에서 플레스타인을 위해 무엇을 감추려는 거요? 당신은 자유당의 지도자요. 본디 지구의 애국자요. 그리고 플레스타인과는 옛날부터 정치상의 적이지요. 그가 우리를 배반하기 전에 그와 손을 떼시오! 알겠소?”

“요빌 대위.”

플레스타인이 냉담한 말투로 가로막고 나섰다.

“그 말에는 찬성할 수가 없군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파이어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필요하단 말ियो.”

얀 요빌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 20파운드의 파이어를 조사하여 합성법을 알아 낸 다음 전쟁 목적에 응용하는 것을 배워야만 하오. ……만일 외위성동맹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오지 않는 동안 그것을 전부 해야만 하오. 그런데 플레스타인

은 협력을 거부하고 있소. 어째서지요? 그것은 그가 여당에 대해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는 자유당의 이익이 되는 전쟁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는 거요. 플레스타인 같은 대부호는 결코 지는 일이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요. 눈을 뜨시오, 세필드 씨, 당신은 반역자에게 교묘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요. 당신은 대체 무엇을 할 작정이요?”

세필드가 대답하기 전에 신중히 회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솔 더 겐햄이 들어왔다. 더겐햄은 내행성연합 물리 연구소의 천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날카로운 직관력과 놀라운 기억력을 지녔으며 여섯 자리의 계산을 암산으로 해내는 두뇌를 가진 물리학자였다. 그는 타이코 사막에서 원자 폭발 사고를 만나 여느 사람이라면 죽었을 텐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 대신 그는 위험한 방사능을 받아 그 자신이 <위험물>이 되었다.

내행성연합 정부는 그에게 방사능을 뿌리지 않도록 약속시키고 1년에 2만 5천 €를 지급했다. 그는 하루에 5분 이상은 어떤 인물과도 면접하지 않기로 했다. 자기 방 이외의 장소에 하루에 30분 이상 있는 일도 없었다. 더겐햄은 정부로부터 격려 생활을 명령받고 보상금을 받았으므로, 연구를 단념하고 거대한 더겐햄 클리어 회사를 만든 것이다.

납빛 피부, 죽은 사람 같은 미소를 띤 몸집 작은 사나이가 회의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안 요빌은 자기가 졌다고 생각했다. 이 세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었다.

그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걸리버 포일에 대한 군사령부의 명령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첩보부에 관한 한 회담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전쟁 상태입니다.”

“요빌 대위께서 돌아가신다네!”

플레스타인은 더겐햄을 데리고 온 조운트 경비원에게 소리쳤다.

“미로로 해서 배웅해 드리게.”

안 요빌 대위는 그 사나이가 걸으로 가까이 와서 절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사나이가 정중히 문 쪽으로 안내했을 때, 안 요빌은 플레스타인을 향해 노골적으로 빈정거리는 미소를 돌렸다. 그 순간 희미한 소리와 함께 그의 모습이 사라지고 말았다.

“플레스타인!”

바니가 외쳤다.

“저자가 조운트했습니다! 이 방은 저자에게는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저자

는…….”

“하긴 그렇군.”

플레스타인은 냉랭하게 말했다.

“경비장에게 연락하게!”

그는 깜짝 놀라 멍하니 있는 경비원에게 명령했다.

“회의실의 좌표는 이미 비밀이 아니다. 24시간 안에 변경해야만 해. 그런데 더겐햄 씨…….”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더겐햄이 말했다.

“군사령부의 명령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양해를 구하지도 설명을 하지도 않고 그 역시 별안간 사라졌다.

플레스타인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중얼거렸다.

“이 회의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또 있었던가…… 그러나 그에게는 적어도 비밀이 공공연한 것이 될 때까지는 모른 채 할 만한 재치가 있었던 모양이군.”

더겐햄이 다시 나타났다.

“아무리 미로를 만든다 해도 쉽게 알아 낼 수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지금 워싱턴에서 명령을 하고 왔습니다. 안 요빌을 우리가 잡겠습니다. 두 시간이면 문제 없을 겁니다. 아니, 세 시간이 걸릴 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아무리 많이 걸려도 네 시간이겠지요.”

“어떻게 그를 잡지요?”

바니가 물었다.

더겐햄은 죽은 사람 같은 미소를 떠올렸다.

“더겐햄 클리어의 비각(飛脚) 표준 FFCC로. 즐거움(FUN), 공상(FANTASY), 혼란(CONFUSION), 파국(CATASTROPHE)이지요……. 우선 네 시간으로 보아 두도록 합시다. 아아, 당신의 인형이 파괴되어 버리는군요. 플레스타인!”

더겐햄의 강력한 방사능이 로봇의 전기 장치에 침투하여 별안간 그들이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곧 돌아갈테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포일에 대해서는?”

플레스타인이 물었다.

“아직 아무 것도.”

더겐햄은 이를 드러내보이며 죽음의 신 같은 얼굴로 히죽 웃었다.

“그 자는 참으로 이상하더군요. 별의별 약품과 치료법을 다 써보았지만 - 아무 것도 알아 내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한 우주인이지만 - 그 얼굴의 문신은 생각지 않기로 하고 말입니다만 - 내면으로는 강철같이 담력이 강하더군요. 어떤 까닭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도무지 그것을 털어놓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

세필드가 물었다.

“우리도 그것을 알아 내고 싶습니다만…….”

“방법은?”

“유감스럽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우주정은 준비되었습니까, 플레스타인?”

플레스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반드시 <노매드> 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것을 발견하려면 군을 앞질러야만 하니까요. 법적인 준비는 되었소, 세필드 씨?”

“염려 없습니다. 가능하면 법률상의 문제로 하고 싶지 않군요.”

“나도 같은 생각이요. 그러나 그것을 보증할 수는 없소. 아니, 괜찮을 거요. 이제부터 지시를 기다려 주시오. 이제부터 포일을 괴롭혀 주겠소.”

“어디에 감금했습니까?”

더겐햄은 고개를 저었다.

“이 방은 안전하지 못하군요.”

그리고 더겐햄은 사라졌다.

그는 신시내티, 뉴올리언즈, 몬트레이를 거쳐서 멕시코 시티로 조운트했다. 그리고 그는 종합지구대학의 거대한 병원 정신과에 나타났다. 병원으로서, 이 도시의 전부분을 차지하는 이곳을 단순히 <정신과>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적당하지 못했다. 더겐햄은 임상치료과인 43층으로 조운트하여 올라가 포일이 의식을 잃은 채 해매고 있는 격리 탱크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환자에게 붙어 있는 유명한 의사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잘 있었나, 프리츠!”

“어서 오게, 솔!”

“굉장하군 그래, 원장님께서 직접 환자 걱정을 하다니.”

“자네에게 굉장히 미안한 짓을 했으니까.”

“아직도 타이코 사막에서의 일을 생각하고 있나, 프리츠? 나는 벌써 잊었다네.”

“자네가 찾고 있는 것이 뭔가?”

“정보.”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 병원을 종교 재판소로 바꾸어야 할 것 아닌가?”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

“보통 약물을 써보면 어떨까?”

“벌써 해 보았네. 그러나 효과가 없었네. 이 자는 보통 인간이 아닐세.”

“그런 짓은 법률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겠지, 술?”

“알고 있네. 자네 마음이 달라졌나? 손을 떼었나? 25만이면 자네의 병원 설비를 두 배로 늘릴 수가 있을 텐데.”

“마음이 달라지다니, 천만에! 자네에게는 늘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그럼, 가세. 우선 악몽 극장으로 가세.”

복도로 탱크를 끌고 가서 백 평방 피트 넓이의 병실로 옮겼다. 악몽 극장이란 생활할 수 없는 장소에서 도망쳐온 치매 환자에게 공상의 세계를 줌으로써 충격 요법을 가하여 대상(對象)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환자의 감정에 충격을 주는 것은 잔혹한 일이며 그 효과도 의심스럽다고 생각되고 있었다.

정신 병원 원장은 더겐햄을 위해 입체 영사기의 먼지를 털어 전감각 영사기에 접속했다. 포일을 탱크에서 꺼내 소생 주사를 놓은 뒤 방 한가운데 누웠다. 탱크를 떼어 버리고 조명을 끈 다음 밀폐된 조작실로 들어갔다. 그림 영사기의 스위치를 넣었다.

모든 어린이들은 공상의 세계가 자기들의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병리학자는 개인의 공상 속의 기쁨이나 공포는 온 인류가 똑같이 이어받은 것임을 알고 있다. 공포, 죄책감, 수치심 등의 감정은 한 인간으로부터 다른 인간에게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어서, 아무도 그 차이를 깨닫지 못한다. 종합 대학의 치료부에는 수천 가지의 감정 테이프가 기록되어 있다.

포일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자신이 잠에서 깨어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뱀의 머리와 핏발이 선 눈을 가진 복수의 여신 손아귀에 있었다. 뒤쫓기고, 붙잡히고, 높은 데서 떨어뜨

려지고, 불에 태워지고, 가죽을 벗기우고, 목이 죄어 살해되고, 벌레가 덩벼들어 파먹혔던 것이다. 비명을 질렀다. 뛰었다. 악몽 극장의 레이더 보행 저지대가 그의 보행을 억제했다. 무서운 악몽 속에서 그는 둔한 동작으로 땀 수 밖에 없었다. 그가 이를 갈며 비명과 고뇌와 추적의 소리를 동시에 듣고 괴로워하는데 집요하게 한 가지 말이 되풀이해서 들렸다.

<<<<노매드> 호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노매드> 호를 버렸느냐? <노매드> 호는 어디 있느냐? <노매드> 호는 어디 있느냐? <노매드> 호는 어디 있느냐?>>>

“<보거>!”

포일이 중얼거렸다.

“<보거>…….”

그는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노매드> 호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노매드> 호를 버렸느냐? <노매드> 호는 어디 있느냐? <노매드> 호는 어디 있느냐?>>>

“<보거>—”

포일이 외쳤다.

“<보거>…… <보거>…… <보거>…….”

영사기를 다루던 정신병원장이 시계를 바라보았다.

“1분 45초일세, 술.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어떻게 해서든 비밀을 털어놓게 해야 하네. 마지막 실험에 착수해 주게.”

포일은 어둡고 깊은 장소로 운반되어 빛도 공기도 없는 어두운 밀실에 넣어졌다. 그는 천천히 질식되어 갔다. 멀리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노매드> 호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서 <노매드> 호를 버렸느냐? <노매드> 호가 발견되면 풀려날 수 있다. <노매드> 호는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 때의 포일은 이미 의식이 없었다. 빛과 공기가 없는 관(棺)에 들어간 채 <노매드> 호의 고물 갑판과 지붕 사이에 쾌적하게 누워 있었던 것이다. 몸을 태아처럼 동그랗게 오므린 자세로 잠들려 하고 있었다. 그는 만족해 있었다. 달아나는 것이다. <보거>를 발견하는 것이다!

“빌어먹을!”

더겐햄이 고함을 질렀다.

“전에 이 악몽 극장에서 견디어 낸 자가 있었나, 프리츠?”

“거의 없네. 확실히 자네 말이 맞네. 저 자는 보통 인간이 아닐세, 술.”

“어떻게 해서든 비밀을 털어놓게 해야 해. 됐어, 이젠 이제 안되겠네. 이번에는 과대망상법을 써보세.”

“준비는 되어 있네.”

“자아, 시작하세.”

과대망상법이란 과대망상증에 빠진 자들을 특정 종류로 분류하는 치료의 극적인 진단 기술이었다.

포일은 호화스러운 침대에서 잠이 깨었다. 빌로드 휘장을 둘러친 침실이었다. 그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부드러운 햇빛이 창문의 창살로 흘러들어왔다. 하녀가 조용히 옷을 펼치고 있었다.

“보시오…….”

포일이 말을 걸었다.

하녀가 뒤돌아보았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포마일 씨.”

“뭐?”

“아주 날씨가 좋은 아침입니다. 마침 갈색 옷과 코드방 구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요?”

“내가요?”

하녀는 이상하다는 듯이 포일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왜 그러시지요, 포마일 씨?”

“포마일이라고?”

“주인님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 포마일이라고?”

포일은 침대에서 허둥지둥 일어났다.

“나는 포마일이 아니라 포일ियो - 걸리버 포일.”

하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녀는 밖으로 한 걸음 나가 뭐라고 소리쳤다. 그런 다음 뭔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침실로 들어와서 침대 끝에 걸터앉았다. 그녀는 포일의 두 손을 잡더니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차 있었다.

“여보, 여보…….”

그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당신 또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건 아니겠지요? 또 병이 재발했다고 의사 말씀하셨답니다.”

“또 뭐가 재발했다고?”

“걸리버 포일의 꿈 이야기 말이에요. 당신이 우주선의 선원이라느니…….”

“나는 걸리버 포일이요. 그것이 내 이름이요, 걸리버 포일.”

“아니에요. 그것은 당신이 최근 몇 주일 동안 품어왔던 망상이에요. 당신의 과로한데다 너무 술을 많이 마신 거예요.”

“나는 태어난 뒤 지금까지 줄곧 걸리버 포일이었소.”

“네, 그래요, 여보. 당신은 그런 것처럼 생각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신은 제프리 포마일이요. 제프리 포마일. 당신은 - 아아, 당신께 이야기 해 봐야 무리겠지요. 자아, 옷을 입으세요. 아래층에 가야겠어요. 당신 사무실이 아주 야단이에요.”

포일은 하녀가 도와 옷을 입혀주자 비틀거리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분명 그를 숭배하고 있는 모양인 그 아름다운 여자는 이젤과 그리다만 캔버스가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거대한 스튜디오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책상, 서류함, 주식 상장표시기, 사무원, 비서, 직원들로 가득 찬 큰 홀로 끌려갔다. 그들은 유리와 크롬으로 된 천장이 높은 실험실로 들어갔다. 소연기(燒燃器)가 빛을 내며 웅웅 거렸다.

“대체 이게 뭐요?” 포일이 물었다.

여자는 팔걸이 의자에 포일을 앉게 했다. 그 곁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고, 이상한 부호가 붙은 재미있는 서류들이 널려 있었다. 포일은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제프리 포마일>이라고 당당한 필적으로 갈겨쓴 것이었다.

“아무래도 굉장한 오해로군.”

포일이 말했다.

여자가 가로막았다.

“리건 박사가 오셨어요. 선생님께 설명을 부탁드려야겠군요.”

활발하고 명확한 태도로 상당히 인상적인 신사가 포일에게 다가와, 맥박을 재어보고 눈을 살펴본 뒤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 좋습니다,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오래지 않아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포마일 씨, 그럼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포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과거의 일을 아무 것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기억 밖에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과로하신 때문입니다. 당신은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 여러 가지 요구가 너무 많았던 거지요. 당신은 한 달 전부터 지나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도 소용없습니다. 당신은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니까요.”

“나는—”

“그래서 자신이 저 유명한 제프리 포마일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자신을 <포일>이라고 하는 이름의 평범한 우주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걸리버 포일이라고요. 이상한 번호가 붙은…….”

“나는 걸리버 포일, AS-128/127:006. 이것이 나요. 그것이—”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것이 당신입니다.”

리건 박사는 투명한 유리벽을 통해서 보이는 이상한 사무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전의 기억을 쫓아내면 참된 기억이 되살아나게 마련입니다. 만일 우리의 힘으로 당신이 우주인이라는 꿈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 빛나는 현실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리건 박사는 마치 최면술이라도 거는 것처럼 안경을 반짝 빛내며 몸을 숙였다.

“당신의 잘못된 기억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쫓아내겠습니다. 어디서 우주선 <노매드> 호를 떠나셨습니까? 어떻게 달아나셨지요? 지금 <노매드> 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일은 지금 자기 수중에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로맨틱하고 매력적인 광경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머뭇거렸다.

“내가 <노매드> 호를 떠난 것은 확실하…….”

그는 문득 입을 다물었다.

리건 박사의 안경에 악마의 얼굴이 비쳤다. 일그러진 얼굴, <N^o7MAD>라고 문신된 무시무시한 호랑이의 얼굴이었다. 포일을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장이!”

그는 고함쳤다.

“내 이야기는 정말이요. 모두 엉터리 이야기요! 내 몸에 일어난 일은 사실이

란 말이오 나는 정말 나란 말이오!”

술 더겐햄이 실험실로 들어왔다.

“좋아!”

그는 외쳤다.

“또 당했군, 실패야.”

실험실, 사무실, 스튜디오의 굉장한 광경이 끝났다. 이 극의 배우들은 이제 두 번 다시 포일을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물러갔다. 더겐햄은 포일을 향해 죽은 사람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상당히 완강하군. 많이 변했어. 나는 술 더겐햄이오. 5분 동안 이야기 좀 해 봅시다. 정원으로 와주시오.”

병원 건물 옥상에 있는 정신 안정 정원은 치료 계획에 커다란 성공을 가져다 주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배경, 경치, 색채, 모든 장소가 적의를 부드럽게 하고, 반항심을 달래고, 노여움을 가라앉히고, 히스테리를 발산시키고, 우울과 침체를 흡수하도록 고안되어 있었다.

“앞으시오.”

더겐햄이 투명한 물소리가 들리는 풀장 옆의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다.

“조운트하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오—당신은 약을 먹었으니까. 나는 당신 곁에 너무 가까이 갈 수가 없소, 방사능을 띠고 있기 때문이오. 무슨 뜻인지 알겠소?”

포일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더겐햄은 타는 듯한 난초꽃 주위를 감싸듯이두 손을 내밀고 잠시 그대로 있었다. 이윽고 그가 말했다.

“이 꽃을 잘 보시오. ……나중에 알겠지.”

그는 오솔길을 서성거리다 갑자기 뒤돌아보았다.

“확실히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몸에 일어난 일은 사실이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소?”

“제기랄!”

포일이 고함쳤다.

“여보시오, 포일,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싶소.”

“죽어버려!”

“그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에는 솔직함과 용기가 있소. 당신은 원시인이오, 포일. 나는 당신을 조사해 왔소. 당신이 플레스타인 조선소에서 던진 폭탄은 아주 애교스럽더군. 당신은 돈이며 물자를 훔쳐내어 하마터면 종합육군병원을 파

산시킬 뻔 했소.”

더겐햄은 손가락을 꺾었다.

“로커를 약탈하고, 창문 없는 방에서 빠져 나와 약국에서 약을 훔쳤으며, 실험실 창고에서 기구를 훔쳤소.”

“죽어버려!”

“플레스타인에게 무슨 원한이 있소? 조선소를 폭파하려고 한 목적이 뭐요? 무엇을 할 생각이었소, 포일?”

“똥지라니까!”

더겐햄은 빙긋이 웃었다.

“이야기를 할 생각이라면 대답해 주어야지 곤란하오. 당신의 말은 아무래도 너무 간단해. <노매드> 호는 어떻게 되었소?”

“<노매드> 호를 내가 알게 뭐요!”

“<노매드> 호는 7개월 전에 마지막 보고를 보냈소. 당신이 단 한 사람의 생존자요? 그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소? 얼굴에 장식을 하고 있었소?”

“<노매드> 호의 일 따위는 아무 것도 모르오.”

“아니, 그러면 안되지, 포일. 그런 말을 해 봐야 소용없소. 그 얼굴의 <노매드>라는 문신이 증거가 되는 걸. 새로 뜬 문신이지않소. 첩보부의 조사 결과 <노매드> 호가 출발할 때 당신이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소. 걸리버 포일, AS 128/ 127.006, 삼등 기관사. 그런데 당신은 50년이나 옛날의 우주선을 타고 돌아왔소. 당신은 원자로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소. 첩보부는 이런 질문에 모두 대답해 주기를 바라고 있소. 중앙 첩보부가 피의자로부터 어떤 수단을 써서 대답을 끌어 내는지 생각해 보시오.”

포일은 깜짝 놀랐다. 더겐햄은 자신의 말이 포일의 급소를 찢은 것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 내 이야기를 들으시오. 우리는 정보가 필요하오, 포일. 나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려 정보를 얻으려고 했소. 그것은 인정하오. 그런데 당신이 너무 강하고 끈질겨서 실패했소. 그것도 인정하겠소. 그래서 이번에는 정당한 흥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오. 당신이 협력해 주면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겠소. 그것이 싫다면, 당신은 5년 동안 정보부 실험실에 갇혀 머리에서 정보를 뺏기우게 될 것이오.”

포일이 두려워한 것은 살해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를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언젠고 다시 <보거>를 만나 갈기갈기 찢어 알맹이

를 도려내어 복수해 줄 때 까지는 자유로와야 하는 것이다.

“흥정이라니, 무엇이요?”

“<노매드> 호에 무엇이 있었는데, 어디서 <노매드> 호를 떠났는가를 이야기 해 주시오.”

“어째서?”

“어째서라니, 우주선을 구조하기 위해서지요.”

“구조할 필요 없소. 파괴되어 버렸으니까. 그 뿐이요.”

“파괴되었다 해도 구조할 수 있소.”

“백 마일을 날아가 파편을 긁어모으겠다는 거요? 농담은 그만두시지.”

“중소.”

더겐햄이 성을 내며 말했다.

“실은 그 안에 짐이 있소.”

“<노매드> 호는 크게 파열되었소. 짐 같은 것이 남아 있을 게 뭐요!”

“당신이 모르는 짐이 있었소.”

더겐햄이 대답하듯 말했다.

“<노매드> 호는 백금을 화성 은행으로 수송하고 있었소. 은행은 자주 청산을 해야만 하오. 여느 행성 사이에 거액의 무역이 행해지고 있으니까 장부상으로 결산이 가능하오. 그런데 전쟁 때문에 통상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어 화성 은행은 플레스타인에게 2천 몇 만의 빚을 준 채 그 현금을 받을 길이 없게 되었소. 플레스타인은 그 돈을 고형의 백금으로 <노매드> 호에 실어보냈소. 그 백금은 주계관(主計官)의 금고에 넣어두었었소.”

“2천만…….”

포일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례로 몇천이라도 드리겠소. 그 우주선에는 보험이 걸려 있소. 그러나 그것은 보험업자 본즈 앤드 위그가 회수할 권리를 갖게 되오. 그들은 플레스타인보다 더 귀찮지요. 그러나 당신에게 사례를 하겠소. 그렇군…… 2만 크레디트면 어떻겠소?”

“2천만이라…….”

포일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적의 습격대가 <노매드> 호를 궤도 위에서 포착하여 공격했으나, 백금은 그대로 남겨 두었으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소. 그들은 그 우주선을 포획하지도 않았고 약탈도 하지 않았을 거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살아남았을 리가 없

소. 다시 말해서 주계관의 금고가 아직—내 말을 듣고 있는 거요, 포일?”

포일은 듣고 있지 않았다. 그는 2천만을 보고 있었다…… 2천이 아니다…… <보거>에 대한 복수 자금으로서의 2천만의 백금! 로커나 실험실의 약탈은 이제 그만두어도 된다. <보거>를 잡아서 파괴하기 위한 2천만의 자금이었다…

“포일!”

포일은 몽상에서 깨어났다. 그는 더겐햄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그는 말했다.

“나는 <노매드> 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요.”

“왜 그러시오, 대체? 어쩌서 또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지요?”

“<노매드> 호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르요!”

“상당한 사례를 내겠는지 않소? 우주인이라면 2만 크레디트라는 말만 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할 거요. 1년 동안이나 울지도 모르요. 그 이상 뭐가 필요하오?”

“나는 <노매드> 호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요.”

“당신은 우리나라 첩보부 둘 중 어느 쪽을 골라잡아야 하오, 포일.”

“당신은 첩보부에 나를 내주고 싶지 않은 모양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처럼 돈을 쉽게 내던지는 것은 하지 않을 거요. 그러나 아무튼 헛일이요. 나는 <노매드> 호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이 녀석이!”

더겐햄은 노여움을 누르려고 했다. 그는 이 교활한 야만인을 상대로 필요 이상 조금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낸 것이었다.

“당신 말이 맞소. 우리는 첩보부가 당신을 잡지 못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다 갖추었소.”

더겐햄의 목소리가 긴장되었다.

“당신은 입만 다물고 있으면 우리를 쫓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를 앞질러 <노매드> 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천만에!”

포일이 말했다.

“알겠소, 잘 들으시오. 뉴욕에 변호사를 대기시켜 놓았소. 그는 당신을 해적 행위로 고소했소. 우주에서의 해적 행위, 살인, 약탈. 당신에게 무기 징역을 구형할 거요. 플레스타인은 앞으로 24시간 안에 당신의 유죄 판결을 듣게 될 것이요. 당신에게 어떤 범죄 전과가 있으면, 두개골 절단을 하게 되고, 뇌수가 절개되어 두 번 다시 조운트할 수 없도록 뇌를 절반 태우는 것이요.”

더겐햄은 말을 끊고 가만히 포일을 지켜 보았다. 포일이 머리를 짓자 그는 말을 이었다.

“만일 당신에게 범죄 전과가 없다면, 우선 10년은 치료를 받게 되요. 이 문명 시대에서 죄인을 벌하는 일은 없으므로 치료는 벌보다 무겁지요. 당신은 동굴의 병원 어두운 지하고에 버려지게 되요.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영원히 암흑인 독 방에 갇히고 말 것이요. 당신은 형식 뿐인 주사며 치료를 받지만, 암흑 속에서 여위어가고. 말을 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갇혀 있는 것이요. 영원히 감금해 두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결심하십시오.”

“<노매드> 호에 대해선 아무 것도 모르요.”

포일이 말했다.

“종소!”

더겐햄이 침을 뱉었다. 갑자기 그는 두 손으로 감쌌던 난초꽃을 가리켰다. 꽃은 완전히 시들어 죽어 있었다.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요.”

제 5 장

스페인과 프랑스 국경에 가까운 생 지롱 근교 남쪽에 구프르 마르테르라는 프랑스에서 가장 깊은 동굴이 있었다. 그 동굴은 피레네 산맥을 따라 몇 마일이나 구불구불 이어진 지구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굴 병원이었다. 일찍이 그 암흑에서 조운트하여 밖으로 나온 환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자신이 있는 위치를 파악하거나, 캄캄한 병원의 깊은 지하고의 조운트 좌표를 익힐 수 있었던 환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앞이마 부분의 뇌절술(정신병 치료를 목적으로 뇌 조직에 단순히 상처를 주는 방법)을 빼놓고 사람에게서 조운트 능력을 빼앗는 방법은 단 세 가지 밖에 없었다. 그것은 머리를 세게 때려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는 것, 정신 집중 의욕을 감퇴시키는 것, 조운트 좌표를 은폐하는 것 등이었다. 조운트 시대에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은폐법이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다.

구프르 마르테르의 길고 구불구불한 동굴에 늘어선 감방은 자연석을 파서 만든 것이었다. 한 번도 조명이 켜진 일이 없었다. 통로도 마찬가지로였다. 적외선 조명빛이 암흑 속에 넘치고 있지만, 특제 렌즈로 된 감시 안경을 낀 경비원이나 그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밖에 보이지 않는다. 환자들에게는 구프르 마르테르의 어두운 침묵 속에서 지하수가 흐르는 소리만이 아득히 멀리 들릴 뿐이었다.

포일에게는 침묵과 흐르는 물소리와 나날의 병원 생활이 있을 뿐이었다. 8시 - 시간이 죽어서 정지되어 버린 이 심연에서는 몇 시든 마찬가지지만 - 에 벨 소리로 잠이 깬다. 일어나서 압축 공기관으로 독방에 보내져오는 아침 식사를 받는다. 곧 먹어야만 한다. 대용품 사기로 만들어진 그릇과 접시는 15분이 지나면 용해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8시 30분에 독방문이 열리고, 포일을 비롯한 수백 명의 환자들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땅을 단단히 밟으며 구불구불한 복도를 걸어 위생실로 간다.

암흑으로 닫혀진 이 병원에서 환자는 도살장의 쇠고기처럼 처리된다. 소독되고, 수염을 깎이고, X선 치료를 받고, 탈취되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다. 종으로 만들어진 제복은 벗기워져서 펄프를 만들기 위해 공장으로 보내진다. 그리고 새로운 제복이 지급된다. 이윽고 그들이 위생실에 가 있는 동안 자동적으로 소독된 독방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정오까지 포일은 독방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치료에 대한 이야기며 강

의, 도덕과 윤리 지도를 듣는다. 이윽고 또 다시 침묵이 찾아온다. 멀리서 물 흐르는 소리와 안경을 낀 경비원이 도로를 조용히 걷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오후에는 작업 요법이 있다. 각 방의 텔레비전이 켜지면, 환자는 그 화면에 손을 집어넣는다. 뭐든지 입체적으로 보이고, 방송된 물체며 도구를 손으로 느낄 수가 있다. 환자는 병원의 제복을 재단하여 바느질하고, 부엌용품을 만들어 식사 준비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 것도 만지지는 않으며, 그 동작은 원격 조작으로 작업장에 전달되어 작업을 한다. 이 짧은 기분 전환 뒤에 또다시 암흑과 침묵이 찾아온다.

그러나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쯤 - 아니, 1년에 한두 번일지도 모른다 - 멀리서 폭발음이 소리를 죽인 듯이 들려온다. 그 진동으로 침묵 속에서도 늘 불타오르는 복수에 대한 생각을 하며 포일은 문득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 그는 위생실에서 주위의 보이지 않는 사람 그림자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폭발은 뭐요?”

“뭔가 터지는 소리 말ियो. 펍 멀리서 들리는데.”

“저건 블루 조운트요.”

“뭐라고?”

“블루 조운트. 이따금 이곳 생활에 견딜 수 없게 된 사람이 조운트 하는 거지요. 그는 이제 다시는 이리로 돌아오지 않소. 미지의 푸른 저쪽으로 조운트해 갔으니까.”

“비참하군.”

“아암,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하니까 가는 곳도 모르지요. 암흑을 향해 블루 조운트를 하는 거요…… 그리하여 그들은 산 속에서 폭발해 버리고 말지요. 쿵 하고 말ियो. 그것은 바로 블루 조운트 하는 소리요.”

포일은 놀랐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다. 어둠과 침묵과 단조로움이 사람을 미치도록 몰아넣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고독감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구프르 마르테르 감방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서로 말을 소곤거리기도 하고 남의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아침의 위생 시간이 매우 기다려진다. 그러나 그것도 극히 짧은 시간뿐이고 다시 자포자기하게 되고 만다. 그리고 어느 틈에 또 먼 폭발음이 들리는 것이다.

때로는 위생실에서 환자들 사이에 흥포한 싸움이 벌어진다. 이런 일은 특수 안경을 낀 경비원의 중재로 곧 조용해진다. 그리고 아침 강의 시간에는 도덕 교

육 테이프로 인내의 미덕에 대한 신의 말씀을 듣게 된다.

포일은 그 테이프의 한 마디, 한 구절, 모든 잡음에 이르기까지 머리에 새겨 넣었다. 그는 그 강사들의 목소리를 미워하게 되었다. 치료의 단순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업 요법을 기계적으로 행하였으나, 끝없는 고독의 시간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노만으로는 고독을 깨뜨릴 수가 없었다.

날짜며 식사며 설교의 수를 잊어버렸다. 그는 이미 위생실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게 되었다. 정신이 떠돌기 시작하고, 정처없이 방황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노매드> 호로 되돌아가 살기 위해 다시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윽고 그는 이 넓은 환상을 안을 힘마져 앓고 깊이깊이 긴장병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자궁 속의 침묵과, 자궁 속의 암흑과, 자궁 속의 내부로.

꿈은 사라져갔다. 처음에는 천사가 그에게 허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다음에 천사는 조용히 노래 불렀다. 세 번째로 그에게는 천사가 마음을 도려내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아아아……>니, <우우우……>니, <오오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천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아갔다.

“출구가 있어요.”

천사는 다정하게 위로하는 듯이 낮게 말을 걸어왔다. 그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했으나, 그러면서도 노여움이 섞여 있었다. 격노한 천사의 목소리였다.

“출구가 있어요.”

그 목소리는 어디에서인지도 모르게 그의 귀에다 대고 소곤거렸다. 절망의 논리적 귀결로서 구프르 마르테르에도 어딘가에 출구가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하게 되었다. 이전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그렇다.”

그는 중얼거렸다.

“출구가 있을 거야.”

희미하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낮은 질문이 되었다.

“거기 있는 건 누구지요?”

“나밖에 없소.”

포일이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소.”

“어디에 있나요?”

“여기. 나는 언제나 여기에 있소.”

“하지만 아무도 안 보여요. 나밖에 없는 걸요.”

“나를 도와 주어 고맙군.”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면 좋지 않아요.”

분노의 천사는 가만가만 중얼거렸다.

“당신은 나에게 출구를 가르쳐주었소 - 블루 조운트!”

“블루 조운트! 어머니, 그럼 이것은 꿈이 아니군요. 당신은 빈민어로 말을 하시는군요. 당신은 현실의 사람이지요? 누구예요?”

“걸리버 포일.”

“하지만 당신은 내 감방에는 없어요. 가까이에도 없어요. 남자들은 구프르 마르테르의 북쪽 쿼드론에 있어요. 여자는 남쪽 쿼드론에 있어요. 나는 남-900에 있어요. 거기는 어디예요?”

“북-111.”

“4분의 1마일이나 떨어져 있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 아아, 그렇지 - 저음선이예요. 전설로만 생각했었는데…… 하지만 정말이군요. 당신과 나에게게는 저음선이 통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시작해야지.”

포일이 소곤거렸다.

“블루 조운트를 하겠소.”

“잠깐만, 포일. 저어, 블루 조운트에 대한 건 잊으세요.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기적이예요.”

“기적이라니, 뭐가요?”

“이 구프르 마르테르에서는 청각상의 이상통달이 일어나요. 지하 동굴에서 일어나요. 반향음이라든가 발걸음 소리가 지하도에 울리는 것 같은 이상통달이예요. 여기에 오래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저음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조금도 믿지 않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는 서로 저음선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둘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포일.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 탈출도 가능할 거예요.”

그녀의 이름은 지스벨라 매퀸이었다. 그녀는 열정적인 성질로 다른 사람에게 간섭받기 싫어하는 지적인 여성이었으나, 절도죄로 구프르 마르테르에서 5년 동안의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지스벨라는 포일에게 자신이 사회에 반역한 이유를 몹시 격분한 목소리로 설명했다.

“조운트가 여자에게 있어 어떤 것이었는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걸리. 덕분에 우리 여자들은 방에 갇혀 옛날처럼 후궁으로 물러나고 말았어요.”

“후궁이라는 게 뭐지요?”

“하렘, 남자들이 언제라도 잘 수 있도록 여자를 숨겨두는 장소지요. 문명이 시작되고 천 년이나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는 아직 그들의 재산이에요. 조운트는 여자의 정조와 가치에 대단한 위험을 미치기 때문에, 마치 순금으로 만든 접시처럼 금고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할 수가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장래성도 없어요. 그런 상태를 때려부수고 법률을 짓밟지 않으면 자유로와질 수가 없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야 했었다는 거요, 지즈?”

“나는 독립해야만 했어요. 나는 내 힘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집을 뛰쳐나와 나쁜 여자가 된 것도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스벨라는 자신의 무서운 반향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포일은 그녀에게 <노매드> 호와 <보거> 호에 대한 것, 자신이 품고 있는 증오며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신의 용모며 2천만의 백금이 행성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노매드> 호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스벨라가 물었다.

“그 더겐햄이라는 사나이가 말한 것 같은 일이 있었나요? 외위성의 습격대에 의해 폭파되었을까요?”

“글세, 모르겠소. 생각이 나지 않소.”

“폭발로 기억을 잃은 모양이군요. 충격! 게다가 반년 동안이나 혼자 있었으니까 더욱 그렇지요. 당신은 <노매드> 호에 뭔가 구해 낼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있는지 어떤지 아시나요?”

“아니, 모르오.”

“더겐햄이 말해 주지 않던가요?”

“그렇소.”

포일은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신을 구프르 마르테르에 처넣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틀림없이 <노매드> 호에 있는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 맞소, 지즈.”

“하지만 당신은 참 바보로군요. <보거> 호를 그런 식으로 폭파하려들다니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탓에 덤벼드는 야수 같아요. 강철에는 생명이 없어요. <보거> 호를 처벌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보거> 호는 나를 못 본 채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यो!”

“당신은 자신의 뇌수를 처벌해야만 해요. 걸리, 그런 계약을 꾸민 뇌수를 말이에요. 우선 누가 <보거> 호에 타고 있었는지 조사해 봐야 해요. 구하지 않아도 좋다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처벌하세요.”

“하지만 어떻게?”

“<노매드> 호의 항행이나 폭탄 장비를 이해할 수 있었던 머리라면 그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폭탄은 이제 안 돼요. 그 대신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든 <보거> 호에 탔던 승무원을 한 사람 알아 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승무원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더듬어가 보세요. 누가 명령했는지 알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을 처벌하세요. 하지만 시간이 걸리겠군요, 걸리…… 시간과 돈이.”

“나는 죽을 때까지 해 내겠소.”

몇 시간이나 저음선으로 목소리를 죽여 소곤소곤 이야기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바로 귓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각 감방에는 다른 방의 이야기가 들리는 특별한 장소가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기적을 발견하려면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잃었던 때를 회복했다. 그리고 지스벨라는 포일을 교육시켰던 것이다.

“걸리, 만약 우리가 구프르 마르테르를 탈주한다면 둘이 함께 행동해야 해요. 하지만 나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기댈 수가 없어요.”

“누가 배우지 못했소?”

“당신이지요.”

지스벨라는 서슴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했다.

“나도 절반쯤 빈민어를 써야 하지 않겠어요?”

“나도 읽고 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소.”

“하지만 그 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외에는 당신은 전혀 무능해요.”

그는 항복했다. 그녀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탈주 목적뿐만 아니라 <보거> 호 탐색을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했다. 지스벨라는 건축가의 딸로 교육도 받았다. 이따금 그는 힘든 공부가 싫어져서 낮은 목소리로 둘이 싸움을 했지만, 결

국은 그가 빌고 끝이 났다. 또 때로는 지스벨라가 가르치는 데 싫증이 나서 끝 없이 이야기를 계속하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서로 꿈을 꾸기도 했다.

“우린 서로 사랑하게 되었군요, 걸리.”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지즈.”

“나는 보기 흉한 노파예요, 걸리. 1백 5살이에요. 당신은 어떻게 생겼을까?”

“굉장히 놀랄 거요.”

“무엇 때문에?”

“내 얼굴이.”

“당신 이야기는 로맨틱하군요. 오히려 남자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상처라도 나 있는 모양이지요?”

“그렇지 않소. 만나보면 알겠지.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 - 지즈, <만나 보면> 아니라 우리는 꼭 만나는 거요.”

“그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걸리.”

하는 지스벨라의 먼 목소리가 활발하고 생기있으며 사무적이 되었다.

“하지만 우린 꿈에 정신이 빠져 들뜨지 말고 일에 착수해야만 해요. 계획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스벨라는 구프르 마르테르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아직 아무도 동굴 병원 밖으로 조운트해 나간 사람은 없었지만, 지하 조직이 수십 년에 걸쳐 병원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탈주 이야기를 꺼냈던 것이다.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돼요. 이곳의 경비 시설에는 열 개쯤의 탈출구가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소.”

“둘이 협력하여 찾은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는 정보를 모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이미 위생실에 갖다오는 길에 비틀비틀 걷는 일이 없게 되었다. 복도의 벽에 닿아 보기도 하고, 문이며 실내의 직물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고, 세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추측해 보기도 하여 보고했다. 위생실 안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하여서 지스벨라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자기 주위에서 사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독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질문을 하여 교묘하게 목적을 달성했다. 지스벨라와 포일은 구프르 마르테르의 일과와 그 경비 시설의 상황을 머릿속에 새겨넣었다.

어느 날 아침 위생실에서 돌아와 독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불러세우는 사람이 있었다.

“그대로 서 있어, 포일!”

“여기는 북-111호, 여기는 내 방이오.”

“그대로 서 있어!”

그는 두려움을 느꼈다.

“나를 다른 방으로 옮기려는 거요?”

“면회다.”

북쪽 통로 끝까지 걸어갔다. 그 곳에서는 다른 세 줄기의 큰 통로가 교차하여 거대한 십자로가 되어 있었다. 그 십자로 한가운데에 본부와 작업장, 그리고 진료소, 식물원 등이 있었다. 포일은 독방과 똑같은 어두운 방에 넣어졌다. 뒤에서 문이 닫혔다. 그는 어둠 속에 희미하나마 뿌영게 빛나는 물체가 있음을 깨달았다. 몽롱한 몸과 죽은 사람의 얼굴을 한 화신이였다. 뼈와 가죽만 남은 얼굴 위에 붙어 있는 두 개의 원반은 눈구멍이거나 적외선 안경 둘 중 하나일 것이었다.

“안녕하시오!”

술 더겐햄이 말했다.

“당신이었군!”

포일이 소리쳤다.

“그렇소, 5분 동안의 시간이 있소. 자아, 앉으시오. 뒤에 의자가 있소.”

포일은 손으로 더듬어 의자를 찾아 천천히 걸터앉았다.

“생활이 즐겁소?”

더겐햄이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소?”

“많이 달라졌군.”

더겐햄이 싸늘하게 말했다.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는 나보고 뒤통수라고 했는데…….”

“그럼, 뒤통수. - 이제 마음이 후련하오?”

“대답도 좋아졌구로. 이야기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는데.”

더겐햄이 말했다.

“눈이 매우 빨리 작용하게 되었소. 나로서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소. 어떻게 된 거요?”

“나는 야학에 들어갔소.”

“당신은 여기에 10개월이나 있었소.”

“10개월!”

포일이 놀랐다.

“그렇게 되었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10개월을 지냈소. 고독의 10개월-행복했겠지요?”

“아아, 행복했소, 정말!”

“당연히 울상을 짓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 생각했던 대로군.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오. 이런 형편이라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군. 그러나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소. 여기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소.”

“좋소, 하시오.”

“<노매드> 호에 실린 백금의 10퍼센트, 2백만을 주리다.”

“2백만!”

포일이 외쳤다.

“어째서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요?”

“당신의 기량을 몰랐으니까. 어떻소?”

“좋소. 그러나 아직…….”

“그 밖에 또 뭐가 있소?”

“구프르 마르테르를 나가게 해 주시오.”

“물론이오.”

“나말고 내 주어야 할 사람이 또 있소.”

“그것도 약속하겠소.”

더겐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 밖에 아직 또 있소?”

“플레스타인의 서류를 보여 주시오.”

“그건 불가능하오. 당신 지금 제정신이오? 적당히 해 두시오.”

“그의 우주선에 탔던 승무원의 명단이 필요하오.”

“아아!”

더겐햄이 다시 열성을 되찾았다.

“그거라면 내가 수배해 주리다. 그 밖에 또 있소?”

“없소.”

“그럼, 이야기는 끝났소.”

더겐햄은 기뻐했다. 유령과도 같은 몽롱한 빛이 의자에서 일어났다.

“여섯 시간 뒤에 석방하겠소. 당신 친구도 곧 수배하겠소.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것은 유감이지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소, 포일.”

“당신은 어쩌서 나 있는 곳으로 오는데 정신 감응을 쓰지 않았소? 뭔가 감정이 흥분되어 있어 정신 감응을 할 수 없었던 모양이지요?”

흐리멍덩한 빛이 방 안에서 빛나더니 포일을 비추었다. 더겐햄이 말했다.

“당신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소. 무엇을 찾고 있는 거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요?”

그리고 나서 그는 두 손을 저었다.

“허어 참, 나도 어지간히 어리석군.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오. 여느 우주인이 아니오. 대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소?”

포일은 더겐햄의 손을 뿌리쳤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구프르 마르테르에 수용되어 있는 친구를 구하려고 애쓰고, 자신을 구하려고 필사적이지 않소? 하마터면 속을 뻔 했군, 포일. 얀 요빌 대위에게 내 축복의 말을 전해 주시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부하를 갖고 있군.”

“얀 요빌이라는 이름 따위는 들어본 일도 없소.”

“당신과 당신 동료들 여기서 썩어 없어지게 해 주지. 그리고 조금 전의 이야기는 취소하겠소. 이 병원에서 가장 나쁜 감방에 넣겠소. 구프르 마르테르의 밑 바닥까지 가라앉게 해 주지 - 경비원, 경비원!”

포일은 더겐햄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그를 마룻바닥에 쓰러뜨린 뒤 바닥돌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했다. 더겐햄은 한 번 버둥거렸으나 곧 조용해졌다. 포일은 그에게서 안경을 빼앗아 끼었다. 시력이 회복되자 부드러운 빨간색과 장미빛 광선, 그리고 그림자가 보여왔다.

그가 있던 곳은 응접실로, 테이블과 의자 두 개가 있었다. 포일은 더겐햄의 옷을 벗겨 두 팔을 힘차게 집어넣다가 어깨가 찢어졌다. 더겐햄의 모자가 테이블 위에 얹혀 있었다. 모자 테를 깊숙이 내려서 얼굴을 가리듯이 썼다.

반대쪽 벽에 문이 두 개 있었다. 그는 그 문 하나를 조금 열었다. 문을 북쪽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다. 그 방은 조운트를 방해하는 미로로 통해 있었다.

그는 그 방을 뛰어서 빠져 나와 미로로 들어갔다. 곧 길을 잃고 말았다. 빙글 빙글 길을 뛰어다니다 보니 어느 틈에 다시 그 응접실로 돌아와 있었다. 더겐햄은 일어나려고 벅둥거리고 있었다.

포일은 다시 미로로 돌아갔다. 뛰었다. 닫혀진 문에 이르자 그것을 밀어서 열었다. 그 곳은 보통의 조명이 켜진 커다란 작업장이었다. 기계 의자에 앉아 작업을 하던 두 기술자가 깜짝 놀라 눈을 들었다.

포일은 큼직한 해머를 와락 낚아채어 원시인처럼 그들을 때려눕혔다.

아득히 먼 뒤쪽에서 더겐햄의 외침 소리가 들렸다. 거칠게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막다른 골목에 와있음을 알고 두려움을 느꼈다. 작업장은 L자 형이었다. 포일은 급히 모퉁이를 돌아 다음의 조운트 방해 도어를 뚫고 나갔으나, 또 길을 잃고 말았다. 구프르 마르테르의 경보 장치가 울리기 시작했다. 포일은 큰 해머로 미로의 벽을 마구 두들겨 얇은 플라스틱 가리개를 부셨다. 그제야 포일은 자신이 여자들을 수용하는 쿼드론의 적외선이 빛나는 남쪽 통로에 와 있음을 깨달았다.

여경비원 둘이 당황해서 뛰어왔다. 포일은 해머를 휘둘러 그녀들을 때려눕혔다. 조금만 더 가면 복도 끝에 닿을 것 같았다. 앞쪽에는 감방문이 나란히 이어져 있었다. 그 문들에는 모두 빨강색 빛나는 번호가 달려 있었다. 복도의 천장에도 빨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포일은 몸을 똑바로 펴고 발 끝으로 서서 머리 위의 조명을 때려부셨다. 소켓까지 파괴하고 전선도 끊어버렸다. 복도는 안경을 쓰고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것으로 피장파장이로군. 모두가 새카맣게 되었으니.”

포일은 숨을 헐떡이고 손으로 벽을 더듬으면서 복도를 뛰었다. 그는 감방의 문을 세었다. 지스벨라는 전에 남쪽 쿼드론의 모습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는 남-900으로 전진해 갔다. 여기서 또 여경비원과 부딪쳤다. 그는 그녀를 향해 해머를 내리쳤다.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여한자들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포일은 번호를 세는 것을 잊고 계속 달렸다.

“지즈!”

그는 고함을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또 경비원과 부딪쳤으나, 이것도 해치우고 지스벨라의 감방에 이르렀다.

“걸리, 부탁이에요…….”

“뒤로 물러나, 뒤로!”

그는 해머로 문을 세 번 때려 안쪽으로 밀어 열었다. 방 안으로 허우적거리며 들어가자 누군가와 부딪쳤다.

“지즈?”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미안해…… 좀 들어가려고…….”

“걸리, 당신은…….”

“이런 데서 만나다니, 굉장하잖소? 밖으로 나가는 거요. 자아, 빨리!”

그는 그녀를 감방에서 끌어냈다.

“사무실을 지날 수는 없소. 내가 되돌아가면 큰 소동이 날 테니까. 당신의 위생실 병동은 어느 쪽이요?”

“걸리, 당신 정신이 돌지 않았어요?”

“모든 쿼드론이 캄캄해져 있소. 전선을 끊었으니까 탈출할 가능성이 있소. 자아, 갑시다. 어서!”

그는 여자를 힘껏 밀었다. 그녀는 통로로 나가서 여성위생구치소의 자동 개폐실로 그를 안내했다. 자동 기계가 제복을 벗기고 비누칠을 하고 물에 적셔 살균하고 있는 동안 포일은 더듬더듬 손으로 더듬어 의료관찰창의 유리판을 찾았다. 그는 해머를 위둘러 그것을 부셨다.

“이리로 들어가오, 지즈.”

그녀를 창문으로 던져넣고 뒤를 쫓았다. 둘 다 알몸으로 비누를 칠하고 있었으므로 상처가 나 피가 흘렀다. 포일은 어둠 속을 구르듯이 달려 의무관의 통용문을 찾았다.

“문이 보이지 않소, 지즈. 진료소로 나가는 문이. 나는…….”

“싹!”

“그렇지만…….”

“말하지 말아요, 걸리!”

비누묻은 손이 그의 입을 찾아 가볍게 막았다. 그녀가 그의 어깨를 짊어 안았으므로 손톱이 살갓에 파고들었다. 동굴 병원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바로 가까이에서 들렸다. 경비원들이 무턱대고 위생실을 뛰어다니고 있는 모양이었다. 적외선 조명은 아직도 수리되지 않았다.

“창문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지스벨라가 낮게 짓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요.”

두 사람은 마루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허둥거리는 발소리가 병동 안으로 이어져갔다. 이윽고 말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이젠 아무도 없어요.”

지스벨라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곧 탐조등을 켤 거예요. 자아, 걸리, 우리 빨리 나가요.”

“그렇지만 진료소가 가는 문이…… 지즈, 나는 여기에…….”

“문 같은 것은 없어요. 나선형 층계를 올라가야 해요. 그 사람들도 이리로 달아나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탁용 엘리베이터를 타야 해요. 잘 되면 좋을 텐데…… 아아, 걸리, 당신은 바보예요. 정말 바보예요.”

두 사람은 관찰창을 지나 병동 안으로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 엘리베이터를 찾았다. 그들에게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가 느닷없이 큰 동굴 안에 울려 퍼져 모든 소리를 지워버렸다. 숨막히는 정적이 찾아들었다.

“우리의 뒤를 쫓기 위해 G폰을 쓰고 있어요, 걸리.”

“뭐라고?”

“지중 탐지기에요. 반 마일이나 되는 굳은 바위를 통해 사람의 속삭이는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그러기 위해 사이렌을 울려 모두들을 조용하게 한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보이지 않아요.”

“좋아, 따라오오!”

“어디로?”

“달아나는 거요.”

“어디로?”

“그건 알 수 없지만, 나는 경솔하게 붙잡힐 짓은 하지 않소. 자아, 빨리, 조금 운동하는 편이 당신을 위해서도 좋을 거요.”

다시 지스벨라를 앞으로 밀어내고 두 사람은 캄캄한 어둠 속을 혈떡이고 발끝이 걸려 떨어지면서 남 쿠아드론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뛰어갔다. 지스벨라는 두 번이나 통로 모퉁이에 부딪쳐 넘어졌다. 포일은 20파운드 짜리 큰 해머를 자루가 안테나처럼 앞으로 쭉 내밀어지게 손에 들고 앞장서서 달렸다. 이윽고 입구 없는 벽에 닿자 마침내 복도 끝까지 왔음을 알았다. 또다시 함정에 빠지고 만 것이다.

“어떻게 하지요?”

“글세, 내 계획도 막혀버린 모양이오.”

“아아, 걸리!…… 걸리!…….”

“당신은 나에게 폭탄을 쓰지 말라고 했었지? 지금 폭탄이 하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 잠깐만.”

그는 두 사람이 기대어 있던 벽을 만져 보았다. 물이 배어 있었다. 창살 모양의 모르타르 이음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건 자연적인 동굴벽이 아니오. 인공적으로 만든 벽돌과 돌이오. 만져 보오.”

지스벨라는 벽에 손을 댔다.

“그래서요?”

“이 통로는 여기서 막혀 있지 않다는 것이지. 이어져 있소. 도중에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요.”

그는 지스벨라를 통로로 밀어내고 바닥에 손을 문질러 비눗기를 없앤 다음 해머로 큰 벽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신음 소리와 혈떡임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다.

“그들이 와요.”

지스벨라가 말했다.

“발소리가 들려요.”

해머를 내려치는 둔한 소리와 벽이 깨지는 소리가 함께 울렸다. 처음에는 낮은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 깨진 모르타르에서 작은 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포일은 힘껏 내려쳤다. 갑자기 깨지는 소리가 나고 차디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얼굴에 닿았다.

“뚫렸어!”

포일이 중얼거렸다.

그는 난폭하게 벽에 뚫린 구멍의 가장자리를 두들겨 보았다. 벽돌, 돌, 깨진 모르타르가 사방으로 튀었다. 포일은 두드리는 것을 멈추고 지스벨라를 불렀다.

“빠져 나가보오, 지즈!”

그는 해머를 버리고 그녀를 안아 가슴 높이의 구멍으로 밀어 올렸다. 그녀는 날카로운 가장자리에서 허위적거리다 너무나도 아픈 나머지 비명을 질렀다. 포일은 힘껏 그녀를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밀어 넣어버렸다. 그녀의 두 다리에서 손을 떼자 그녀가 저쪽으로 나동그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포일은 용기를 내어 툇니처럼 생긴 벽의 구멍으로 뛰어들었다. 허물어진 벽 돌과 모르타르 덩어리 속에 쓰러지자 지스벨라가 손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아무도 없는 구프르 마르테르의 동굴 속 차디찬 암흑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 몇 마일이나 이어진,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동굴 속으로.

“우린 틀림없이 빠져 나갈 수 있소.”

포일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지스벨라는 추위로 떨고 있었다.

“정말 출구가 있을까요, 걸리? 이곳에도 모두 막다른 골목뿐일지 몰라요. 병원에서 벽으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출구는 있을 거요.”

“찾아 낼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 내야 하오. 자아, 갑시다!”

두 사람은 암흑 속을 앞으로 나아갔다. 포일은 이제 필요 없게 된 안경을 벗었다. 그들은 바위 선반이며 바위 모퉁이며 울퉁불퉁한 천장에 계속 부딪혔다. 언덕길과 가파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면도칼등 같은 능선을 넘어 평지에 올라가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발이 허공을 밟고 굴러 떨어졌다. 두 사람은 유리 같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포일은 그것을 손으로 더듬어보고 혀로 훑아보았다.

“얼음이군.”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이건 길조요. 우리는 얼음 동굴 속에 있소, 지즈. 지하의 빙하 속에.”

두 사람은 와들와들 떨면서 일어나 몇천 년 전부터 구프르 마르테르의 깊은 못에 있었던 얼음 위를 필사적으로 걸었다. 작은 바위숲으로 올라갔다. 숲 끝에서 포일은 걸음을 멈추고 손을 뻗쳐 석순을 꺾었다. 금속적인 음향이 들렸다. 그는 지스벨라의 손을 잡아 끝이 가늘고 긴 석순을 쥐어 주었다.

“지팡이요.”

또 한 개를 두들겨 꺾어들고 두 사람은 장님처럼 어둠 속을 더듬더듬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걸어나갔다. 공포의 힘찬 울림 - 거친 숨소리와 심장의 고동 소리, 돌지팡이 소리,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구프르 마르테르의 지하수가 흘러가는 먼 소리 이외에는 아득히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로 가면 안되요.”

포일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좀더 왼쪽으로.”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알아요?”

“아래쪽 - 내리막길을 따라가는 거요.”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요?”

“물론. 굉장해, 아주 굉장하단 말이야 - 폭탄 대신 머리를 쓴다는 것은!”

“머리를 쓴다고요!…….”

지스벨라는 미친 듯이 높은 웃음소리를 냈다. 그녀는 지독히 바웃는 것처럼 소리쳤다.

“해머를 들고 남쪽 쿠아드론에 침입한 주제에 폭탄 대신 머리를 썼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에요!”

참을 수 없게 된 포일은 그녀를 붙들고 힘껏 흔들었다.

“조용히 하오, 지즈. G폰으로 우리를 뒤쫓아오고 있으면 어쩌겠소. 당신의 목소리는 화성에서도 들리겠소.”

“미안해요, 걸리. 정말 미안해요. 나,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어째서 밑으로 가지요?”

“강, 우리가 늘 그 물소리를 듣고 있던 강이 있기 때문이지. 가까울 거요. 아마도 빙하가 녹은 거겠지.”

“강?”

“단 하나의 확실한 출구요. 이 산 어딘가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유일한 출구요. 우리는 해엄을 쳐야 해.”

“걸리, 당신은 정신이 나간 모양이군요!”

“왜? 당신은 해엄칠 줄 모르오?”

“아니, 해엄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해 봐야지. 절대로 해 봐야 하오, 지즈. 자아, 갑시다!”

두 사람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강물 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지스벨라는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걸음을 멈추었다.

“걸리, 난 쉬어야겠어요.”

“여긴 너무 추워. 계속 걸어야 하오.”

“못 걷겠어요.”

“계속 걸어야 해!”

그는 그녀의 팔을 잡으려고 손으로 더듬었다.

그녀가 거칠게 소리쳤다.

“손 치워요!”

순간 그녀는 심한 노여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깜짝 놀라 손을 놓았다.

“왜 그러는 거지? 진정하오, 지즈, 나는 당신을 의지하고 있소.”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했지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 탈주할 때는. 그런데 당신 덕분에 이런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내가 올라가미에 걸렸기 때문이오. 더겐햄은 내 독방을 바꾸려고 했소. 그러면 이제 그 저음선을 쓸 수 없게 돼. 그래서 강행해야만 했던 거요, 지즈. - 게다가 우리는 이렇게 탈출했잖소?”

“어디로 탈출했나요? 구프르 마르테르 속을 헤매다니고 있을 뿐인데요? 강을 찾아 내어 빠져 죽으려 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리석어요, 걸리. 이런 계략에 걸리다니, 나도 바보였어요. 분해! 당신은 뭐든지 자신의 낮은 수준에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나까지 함께. 달리고, 싸우고, 때리고 -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그 뿐이에요. 치고 부수고 폭발하고 죽이고 - 걸리!”

지스벨라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어둠 속에서 돌들이 와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의 비명은 밑에서 통겨오는 물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그는 외쳤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점점 더 작아져갔다. 흐르는 물소리가 한층 더 커지더니 별안간 그는 작은 폭포수가 흘러 들어가는 못 속으로 나동그라졌다. 깊은 못 밑바닥까지 말려 들어갔다. 필사적으로 수면에 떠오르려고 몸부림쳤다. 소용돌이치는 물이 매끄러운 바위벽에 떠밀리고 있는 차디찬 몸에 그의 몸을 얹히게 했다.

“지즈!”

“걸리! 기빠요!”

두 사람은 짧은 순간 서로 끌어안았다. 그 사이에도 물은 세차게 그들 몸에 부딪쳤다.

“걸리!”

지스벨라가 기침을 했다.

“여기를 지나고 있어요.”

“강이?”

“네.”

그는 그녀를 앞질러 바위벽에 몸을 지탱하면서 지하수 터널의 입구를 손으로 더듬었다. 흐르는 물은 두 사람을 세차게 끌어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포일은 가

쁜 숨을 내쉬었다. 양옆을 조사했다.

“이곳을 올라가서 나갈 수는 없소. 터널을 빠져 나가야만 해.”

“공기가 없어요, 걸리! 물이 터널에 가득 흐르고 있는 걸요.”

“숨을 멈추면 되겠지.”

“하지만 이 터널이 길지도 몰라요.”

“하늘에 운을 맡기는 수 밖에 없소, 지즈.”

“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해야 해, 그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폐를 크게 열어 숨을 들이마셔요, 나를 단단히 붙잡고.”

두 사람은 물 속에서 서로 몸을 지탱하며 숨을 크게 쉬어 힘껏 공기를 들이마셨다. 포일은 지스벨라를 지하수 터널로 가볍게 밀어 넣었다.

“먼저 가오, 나도 곧 뒤따라갈 테니까……. 만일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돕겠소.”

“아아, 하느님!”

지스벨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이 흐르는 대로 몸을 맡기고 터널 입구로 빨려 들어갔다. 포일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표면이 유리처럼 매끄러운 터널을 오른쪽 왼쪽으로 부딪치면서 급류를 타고 흘러 내려갔다. 포일은 머리와 어깨에 지스벨라의 발이 닿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의 바로 뒤를 헤엄쳤다.

가까스로 터널을 빠져 나오자 폐는 크게 숨을 토해 내고, 눈도 보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다시 물소리가 크게 들리고, 수면에 나와 호흡할 수가 있었다. 미끈미끈한 터널 벽이 없어지고 대신 거칠거칠한 바위가 나타났다. 포일은 지스벨라의 다리를 움켜쥐고 강 옆으로 내밀어진 돌을 붙잡았다.

“올라가!”

그가 소리쳤다.

“네?”

“올라가서 나가지 않으면 안되오. 앞쪽에 요란한 물소리가 들리지? 저것은 폭포의 급류요. 저기에 휩쓸려들면 산산이 부서지고 말 거요. 자아, 올라가오, 지즈!”

그녀는 너무도 기운이 없어 물에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바위 위로 던져 올리고 뒤를 따랐다. 이윽고 그는 가까스로 일어났다.

“앞으로 나갑시다.”

그가 말했다.

“강을 따라서…… 알겠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억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의 기운을 복돋아 주었다. 두 사람이 지나는 바위는 묘비처럼 무수히 흠어져 있어 미로를 이루었다. 그 사이를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동안 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강물 소리는 들렸다. 그러나 강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어디로도 갈 수 없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소.”

하고 그가 말했다.

“아무래도 난 큰 바보야. 나는 당신도 나도 조운트할 수 없는 장소로 나오고 말았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머리를 쓴다는 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 짓이었소.”

그는 머뭇거렸다.

“다시 온 길을 더듬어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겠지, 지즈?”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 그들은 G폰으로 우리 뒤를 밟아올 테니까.”

“그런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또 들린다 해도 우리는 죽은 뒤에야 발견될 거예요.”

“아아, 이게 무슨 꼴이람!”

그는 몸을 굽혀 눕더니 머리를 부드러운 풀숲 위에 얹어놓았다.

“적어도 나에게는 <노매드> 호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소, 블루 조운트하여. 식량도 있고, 내가 가는 길을 눈앞에 떠올릴 수도 있소. 나는 이제…….”

그는 말하다 말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지즈!”

“쓸데없는 말은 그만두세요, 포일!”

그는 땅바닥에 손을 뻗어 잔디와 풀을 긁어모았다.

“이 냄새를 맡아보오, 지즈!”

그는 웃었다. “우리는 구프르 마르테르의 밖에 나와 있는 거요.”

“네?”

“지금은 밤이오. 그래서 어두운 거요. 우리는 동굴에서 나왔어. 그러나 깨닫지 못한 거요. 우리는 밖으로 나왔소!”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고 듣고 냄새를 맡았다. 확실치는 않았으나 부드러운 밤바람 소리가 들리고 달콤한 식물의 향기가 코를 찔렀다. 아득히 먼 곳에서 개가 짖었다.

“아아, 걸리!”

지스벨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낮게 외쳤다.

“우리는 구프르 마르테르에서 나왔어요! 지금은 다만 날이 밝기를 기다리면 될 뿐이에요.”

그녀는 웃었다. 그녀는 그에게 와락 달려들어 키스했다. 그는 그녀를 힘차게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다시 풀 위에 힘없이 누웠다. 그러나

“걸리, 다정한 걸리, 우리는 간신히 살아났군요.”

“지즈!”

“난 당신에게 언젠가 만날 거라고 했지요? …… 언젠가 가까운 날에. 걸리, 오늘이 바로 그 날이에요.”

“밤이오.”

“네, 밤이요. 하지만 이제는 저음선으로 소곤거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 밤은 우리에게 밤이 아니에요.”

문득 두 사람은 자기들이 발가벗은 몸을 찰싹 밀착시키고 누워서 이미 떨어질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지스벨라는 조용해지더니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포일은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거칠게 그녀의 몸을 끌어안았다. 그녀에게도 똑같은 욕망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새벽이 찾아와 그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불그스름한 머리카락에 다정한 입매, 키도 크고 늘씬했다.

그러나 새벽이 찾아왔을 때 그녀도 그의 얼굴을 보았다.

제 6 장

의사 해리 베이커는 몬태나 오레곤 지구에서 조그만 전과 진료소를 개업하고 있었다. 사하라에서 유행하는 포도 채취 트랙터 경쟁 대회에 겨우 주말에나 참가하여 소비하는 디젤 오일의 비용을 마련하는 정도의 수입밖에 없었다. 정말 수입은 트랜트에 있는 성형외과 병원에서 얻고 있었다. 베이커는 월, 수, 금요일 야간에 조운트하여 그 병원에서 일을 보았다. 펍 많은 진찰료가 들어왔다. 구경거리 괴물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지하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 피부며 근육이며 뼈를 개조했다.

베이커는 스포케인에 있는 자택의 서늘한 베란다에 편히 앉아서 지스벨라 매켄이 탈출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일단 구프르 마르테르 밤의 평지로 나오자 그 다음은 쉬웠어요. 사냥꾼의 오두막을 찾아 내어 몰래 들어가 옷을 슬쩍했지요. 엽총도 있었어요……. 폭약으로 쏘아 죽이는 그리운 강철제로 된 옛날 물건이었어요. 우리는 그 총을 가져가서 시골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런 다음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조운트 대로 가기로 했어요.”

“어디지요?”

“비알리츠예요.”

“밤에 여행했겠군요?”

“물론이지요.”

“포일의 얼굴은 어떻게 했소?”

“변장을 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 끔찍스러운 문신이 말갈게 비쳐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검은 대용 피부를 사서 붙여보았어요.”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스벨라는 성난 사람처럼 말했다.

“그것은 아무튼 얼굴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니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용 피부가 갈라져서 벗겨지거든요. 포일은 자기를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절대로 못해요. 아무튼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는 어디에 있소?”

“샘 콰트가 돌보아 주고 있어요.”

“샘은 벌써 일에서 손을 뗐을 텐데?”

“네, 그래요.”

지스벨라는 우울한 투로 말했다.

“그래도 그는 나에게 갚아야 할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포일의 시중을 들어 주게 되었지요. 경찰관에게 눈치 채이지 않도록 샘의 부하가 조운트해 돌아다니며 경비에 임하고 있어요.”

“재미있군.”

베이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신을 한 인간을 본 적이 없소. 이미 사라진 예술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를 나의 컬렉션에 넣고 싶소. 내가 골동품을 수집한다는 것을 알지요, 지즈?”

“트렌튼에 있는 당신 동물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베이커. 무시무시한 동물원이지요. 하지만 포일을 동물원에 넣는 것은 사절하겠어요. 포일의 얼굴은 성형이 가능할까요? 종합병원에서도 잘 안된 모양이지만…….”

“그 병원 사람들은 나만큼 경험이 없소. 흠…… 어디선지 읽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뭐였더라? …… 잠깐만 기다리시오.”

베이커는 일어나 희미한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20분 뒤 그는 다 낡은 책을 들고서 의기양양한 표정을 얼굴 가득히 담고 되돌아왔다. 그가 말했다.

“알아 났소. 3년 전 칼텍 도서관에서 읽은 기억이 났소. 굉장하지요, 내 기억력은?”

“포일의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될 거요.”

베이커는 그 책의 페이지를 넘기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응, 문제 없소. 이황산 인디고로군. 이것을 합성해야 되겠는데…….”

베이커는 책을 덮고 고개를 끄덕였다.

“해 봅시다. 당신 말대로 진기한 문신이라면, 귀한 얼굴을 성형하는 게 유감이지만.”

“우리가 이대로 구프르 마르테르 밖에 있을 것 같은가요? 포일은 지금 그 문신을 한 얼굴로 도망다니고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 것도 즐거울 거요.”

베이커는 설득하듯 말했다.

“보호를 받는 셈이니까. 나는 그를 외눈박이 여자 옆의 우리에 넣겠소.”

“제발 그만두세요!”

“당신은 그 사나이에 대해 무엇 때문에 것처럼 걱정하오? 아무 관계도 없을 텐데?”

“당신이야말로 어쩌서 내가 염려하는 것을 걱정하시지요? 나는 수술을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수술비도 지불하겠어요.”

“수술비는 비싸요. 나는 당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을 내버리게 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거요.”

“그만두세요.”

“나에게도 호기심은 있소.”

“그는 나를 구해 주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그를 구해 주려는 거예요.”

베이커는 비웃음이 담긴 미소를 흘렸다.

“그렇다면 최신식 얼굴인 그대로 두는 편이 좋을 텐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의 얼굴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깨끗이 해 주고 싶은 거겠지요?”

“제발 그만두세요, 베이커! 수술을 하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수술비는 5천이요.”

“설명해 주세요.”

“산합성에 1천, 수술에 3천, 그리고 1천이…….”

“호기심 값인가요?”

“아니요.”

베이커는 또 히죽 웃었다.

“마취료.”

“어쩌서 마취를 하나요?”

베이커는 헐어빠진 책을 펼쳤다.

“문신을 지우려면 얼굴의 문신 자국에 주사로 인디고를 주입시켜야 하는데, 아마도 몹시 아플 거요.”

지스벨라는 눈을 빛냈다. 그녀는 물었다.

“마취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야 있지만, 그가…….”

“포일 따위는 아무래도 좋아요. 내가 지불하는 돈은 4천이에요. 마취하지 않고, 포일을 괴롭혀 주세요.”

“지즈! 당신은 그가 얼마나 아플지 모르므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괜찮아요, 괴롭혀 주겠어요.”

그녀가 너무 거칠게 웃었기 때문에 베이커는 놀랐다.

베이커의 성형 수술실은 벽돌로 지은 원형 3층으로, 전에는 교외선 역으로 쓰이던 낡은 건물이었다. 트랜트 우주항의 출입구 옆에 있으며, 뒤쪽 창문으로 는 대 중력 광선을 내뿜고 있는 지하고 입구가 보였다. 베이커의 환자는 우주선이 광선을 타고 조용히 오르내리고, 현창을 빛나게 하고, 인식 신호를 깜박거리고, 거대한 선체가 경련하듯 진동하는 것을 보며 기뻐했다.

진료실 아래층은 돈으로 사기도 하고 말없이 슬쩍 하기도 하여 모은 진기한 동물, 자연의 변이나 괴물들의 동물원으로 되어 있었다. 2층에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병실, 실험실, 직원실, 조리실이 있었다.

여느 때는 망막 실험에 사용되었던 수술실 가운데 하나에서 베이커는 포일의 얼굴을 수술하기 시작했다. 강력한 조명 아래에서 작은 강철 해머와 백금 주사 바늘을 써서 세밀한 수술을 했다.

베이커는 얼굴의 문신을 더듬어 피부 속의 미세한 상흔을 하나 하나 찾아 내 어 바늘을 그 속에 찔러 넣었다. 포일의 머리는 단단히 붙들어매져 있었으나 몸 은 묶여 있지 않았다. 그의 근육은 강철 해머를 두드릴 때마다 몸부림쳤으나, 결코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는 수술대 옆을 손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포일은 비스듬한 위치에 있는 지스벨라의 성난 듯한 얼굴을 흘끗 쳐다보았다. 베이커는 바늘을 찌르고 주사를 계속 했다.

“샘.”

포일이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은 전용 우주선을 갖고 있다지요? 지즈에게서 들었소. 나쁜 일은 이익이 있는 모양이더군요. 그렇지요?”

“4인승 쌍발 제트선이요. 토성 주말용이지요.”

옆에 있던 샘 콧대가 말했다.

“토성 주말?”

“토성의 주말은 90일이나 되니까요. 3개월 분의 식량과 연료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어 있대요.”

“그렇다면 안성맞춤이군.”

포일이 중얼거렸다.

“샘, 그것을 좀 빌려 주지 않겠소?”

‘무엇 때문에?’

“좀 위태로운 일이지만…….”

“합법적인 일ियो?”

“아니.”

“그렇다면 안되겠는데요. 요즘에는 전혀 용기가 없어졌소. 경찰이 두려워서 라기보다, 당신 일로 조운트하고 다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자신을 깨달았소. 나는 이미 깨끗이 손을 떼었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은 평화뿐이요.”

“5만 내겠소. 갖고 싶지 않소? 월요일에는 충분히 그 돈을 셀 수가 있을 거요.”

바늘을 냉혹하게 계속 찔렀다. 포일의 몸은 바늘을 찌를 때마다 흠칫흠칫 움직였다.

“5만 정도라면 이미 갖고 있소. 현금으로 그 열 배의 돈을 빈 은행에 예금해 놓고 있지요.”

샘 콧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반짝거리는 방사능 열쇠 고리를 꺼냈다.

“자아, 보시오. 이것이 은행 열쇠요. 이것은 요브르그에 있는 내 집 열쇠고, 스무 개의 방이 있는 20에이커의 저택. 이것은 몬토크에 있는 <주말> 호 열쇠요. 나를 유혹하려고 해봐야 소용없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도록 일찍 그만두기로 했소. 요브르그로 조운트해 돌아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즐겁게 보낼 생각이요.”

“나에게 <주말> 호를 빌려주오. 당신은 요브르그에서 돈을 세고 있으면 되지 않겠소?”

“언제쯤 돈을 셀 수 있지요?”

“내가 돌아오면.”

“신용 대부로 하고 나중에 돈을 받을 약속으로 하고 싶소?”

“보증이 있소.”

샘 콧트는 코방귀를 뀌었다.

“어떤 보증이지요?”

“행성에서 샬베지 작업을 하겠소. <노매드> 호라는 우주선이요.”

“그 <노매드> 호에 뭐가 있소? 그 우주선을 인양하여 어떤 이득이 있다는 거요?”

“그건 아직 모르오.”

“거짓말이로군.”

“아직 모르오.”

포일은 낮은 목소리로 완고하게 말했다.

“그러나 가치 있는 것이 있을 거요. 지즈에게 물어보시오.”

“당신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일이 있는데…….”

샘 콰트가 말했다.

“일은 합법적으로 해야 하는 법이오. 알겠소?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지 나는 알 수 있소. 꽤나 엉뚱한 일을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러나 아무에게도 끼어들게 하고 싶지는 않소. 남의 친절을 목표로 해서…….”

포일은 바늘 밑에서 몸부림치면서도 심한 집착에 사로잡혀 되풀이했다.

“지즈에게 물어보시오.”

“착실한 거래를 할 생각이라면, 착실하게 의논하십시오!”

샘 콰트가 성난 듯이 말했다.

“당신에게 친구라고는 우리 둘 밖에 없소. 사람을 속이는 약삭빠른 짓은 그만두십시오.”

포일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외침 소리로 샘 콰트의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베이커 의사가 말했다.

“움직이면 안 되오! 당신이 머리를 움직이면 바늘을 잘 움직일 수가 없소.”

그는 지스벨라에게 강한 눈길을 보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돈지갑을 열어 5백¢ 지폐를 꺼냈다. 그녀는 지폐를 베이커 옆에 놓았다.

그녀가 말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녀는 홀에서 정신을 잃었다. 샘 콰트는 그녀를 끌다시피하여 의자에 앉힌 다음 간호원을 불렀다. 간호원은 암모니아를 냄새맡게 했다. 정신을 차리자 그녀가 너무 심하게 울기 시작했으므로 샘 콰트는 몹시 놀랐다. 그는 간호원을 돌려보내고 나서 지스벨라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거요, 지즈? 그 돈에 대체 어떤 뜻이 있었소?”

“더없이 귀중한 돈이었어요.”

“더없이 귀중한 돈?”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기운이 나오?”

“아니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있소?”

한참 동안 서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윽고 지스벨라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걸리와 그 이야기를 결정할 생각인가요?”

“아니, 실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위험한 일인 것 같소.”

“<노매드> 호에는 뭔가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이 실려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더겐햄이 걸리를 저토록 쫓아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나로선 전혀 흥미가 없소. 당신은 어떻소?”

“나도 흥미는 없어요. 이제 다시는 걸리버 포일과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가 끊어졌다. 잠시 뒤 샘 콧가 물었다.

“나는 이제 돌아가도 되지요?”

“당신에게 수고를 끼쳤군요, 샘.”

“문신한 호랑이를 하루 종일 돌보노라니 살아 있는 것 같지가 않았소.”

“미안해요, 샘.”

“당신이 맨피스에서 체포되었을 때 내가 크게 도움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나도 체면이 좀 선 셈이구요.”

“그 경우에는 나를 그냥 두고 달아난 것도 당연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당연하지— 다만 가끔 해서는 안될 일을 하고 말지만.”

“그래요, 샘. 나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한평생 그 보상을 치르게 되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 밤 당신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었소. 그러니 이제 돌아가도 되겠지요?”

“요브르그로 돌아가서 즐겁게 살 건가요?”

“글세…… 그럴 생각이요.”

“아직 나를 혼자 있게 하지 말아주세요, 샘. 나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째서?”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요. 하지만 잠깐 동안 이 근처에 있어줘요. 당신의 즐거운 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뭐가 그렇게 즐겁지요?”

“이야기를 해 줄까?”

샘 콧가가 말했다.

“나는 지금 어렸을 때 갖고 싶었던 것을 다 가지고 있소. 15살 때 갖고 싶었

던 것들을 50살에 모두 손에 넣을 수 있었으니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요. 그런데 나는 15살 때…….”

샘 콧트는 소년 시절 마음 속에 남몰래 감추어 두었던 이상이며 야심과 실패 따위를 이야기했다. 조금 뒤 베이커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끝났나요?”

지스벨라가 열심히 물었다.

“끝났소. 마취를 한 다음부터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소. 얼굴에 붕대를 감고 있지만, 이제 곧 회복될 거요.”

“지쳐 있나요?”

“물론이지요.”

“얼마쯤 지나면 붕대를 풀 수 있을까요?”

“6 7일 쯤.”

“얼굴이 깨끗해질까요?”

“당신은 그의 얼굴에 대해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깨끗해질 거요. 나의 기술을 칭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यो, 지스벨라…… 그리고 나의 현명함도. 나는 포일의 샬베지 여행에 동행할 생각이요.”

“뭐라고요?”

샘 콧트가 웃었다.

“당신은 가망도 없는 일에 걸려들려는 거요, 베이커? 좀 더 영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물론 영리하지요. 포일은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마취하자 곧 모든 것을 이야기했소. <노매드> 호에는 백금 2천만이 실려 있다고 하오.”

“2천만!”

샘 콧트의 얼굴이 흐려지더니 지스벨라에게도 핵 돌려졌다. 그러나 그녀도 분노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샘. 나도 몰랐어요. 나에게까지 감추고 있었어요. 더겐햄에게 쫓겨다니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는 바로 더겐햄이 그에게 해 준 것이요.”

베이커가 말했다.

“부주의해서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던 것이요.”

“죽여 줄 테예요!”

지스벨라가 외쳤다.

“이 손으로 그를 갈기갈기 찢어 줄 테예요! 저런 자는 당신의 동물원에 처넣어야 해요. 베이커, 당신의 동물원에 처박아 주세요. 나쁜 녀석!”

수술실 문이 열리더니 보조원 두 사람이 건들건들 움직이고 있는 포일을 운반대에 싣고 나왔다. 머리를 온통 붕대로 감아 흰 공처럼 보였다.

“의식이 있소?”

샘 콧대가 베이커에게 물었다.

“뒷일은 내가 맡겠어요.”

별안간 지스벨라가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에게!”

포일은 붕대 마스크를 통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스벨라가 거칠게 덤벼들려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을 때 병원의 벽이 한쪽 획 없어지더니 천둥소리 같은 음향이 울리며 그들의 온 몸을 진동케 했다. 건물 전체가 몇 번이나 거듭 되어 일어나는 폭발로 흔들렸다. 이윽고 까마귀가 싸움터에 흩어져 있는 죽은 사람의 내장에 덮치듯 제복을 입은 사나이들이 밖의 길에서 벽의 깨진 틈을 통해 속속 안으로 조운트해 왔다.

“습격이다!”

베이커가 말했다.

“습격이다!”

“빌어먹을!”

샘 콧대가 떨며 말했다.

제복의 사나이들은 건물 여기저기에 떼지어서 불러대고 있었다.

“포일! 걸리버 포일, 포일!”

베이커가 희미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보조원도 포일을 내버려 두고 조운트해 갔다.

“꽤 씹힌 습격이로군!”

샘 콧대는 지스벨라를 힘껏 흔들었다.

“달아나야 하오, 지즈! 달아나야 해!”

“포일을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지스벨라가 외쳤다.

“하는 수 없잖소, 달아나는 거요!”

“이 사람을 남겨 두고 달아날 수는 없어요.”

지스벨라는 운반대를 움켜쥐고 복도를 달렸다. 샘 콧대는 쿵쿵거리며 그녀의

걸을 걸었다. 병원 안의 외침 소리가 점점 더 커져갔다.

“포일! 포일!”

“지즈, 이런 자는 못 본 체 해 버리요.”

샘 콧트가 재촉했다.

“저자들 앞에 내던져버리도록 하오.”

“싫어요!”

“우리가 잡히는 날에는 마지막이요, 무서운 일이 돼.”

“하지만 이 사람을 두고 달아날 수는 없어요.”

모퉁이를 돌았다. 수술을 받은 뒤의 환자들 -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조인, 물 개처럼 기어다니는 인어, 양성인 거인, 난쟁이, 머리가 둘 달린 아이, 반인반마 수, 울어대는 인면사신 등의 무리가 큰 소란을 떨고 있는 속으로 들어가버렸다. 떨고 있는 지스벨라와 샘 콧트를 향해 동물들이 밀고 밀리면서 다가왔다.

“포일을 운반대에서 내려줘요, 샘!”

지스벨라가 외쳤다.

샘 콧트는 포일을 운반대에서 끌어내렸다. 포일은 일어나려고 하다가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지스벨라는 샘과 힘을 합쳐 그의 팔을 잡고 들어올려 베이커의 괴물 동물원에 던져 넣었다. 기형의 괴물들은 가속된 시간 감각을 갖고 있으므로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병동을 날아다니며 귀청이 뚫어질 듯한 박쥐의 높은 외침 소리 못지 않게 떠들어댔다.

“조운트해서 그를 데리고 나가줘요, 샘!”

“저자가 우리를 배반했는데도?”

“죽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샘. 당신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조운트해서 케이스터에게로 피하세요.”

지스벨라는 샘 콧트를 도와 포일을 그의 어깨에 둘러메 주었다. 괴물들은 계속 무시무시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병동의 문이 열렸다. 기압중에서 뿜어진 10여 가닥의 섬광이 순식간에 웅 소리를 내며 밀고 밀치는 괴물들을 옆으로 쓰러뜨렸다. 샘 콧트는 벽에 쿵 내던져지면서 포일을 떨어뜨렸다. 검정과 파란색이 섞인 상처가 그의 관자놀이에 나타났다.

“빨리 피하시오, 지즈.”

샘 콧트가 소리쳤다.

“나는 틀렸소.”

“샘!”

“난 안 되겠소. 조운트할 수가 없어. 어서 달아나오, 지즈!”

샘 콰트는 조운트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뇌진탕을 막으려고 몸을 똑바로 세웠으나, 병동으로 물밀 듯 밀려드는 제복의 사나이들에게 부딪쳐 쓰러졌다. 지스벨라는 포일의 팔을 끌고 병동 뒤꼍으로 달아났다. 식량창고, 진료소, 세탁용품 창고를 지나서 덜컹거리는 층계를 내려와 흰개미가 마구 먹어 흘뜨린 먼지 속으로 들어갔다.

지하 식량 창고로 달아났다. 베이커의 괴물들은 우리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고 적의 등지를 공격하여 꿀을 빨아먹는 꿀벌들처럼 지하실에 떼지어 있었다. 외는 박이 여자는 손을 통에 처박아 버터를 떠서 입에 처넣고 있었다. 코 위에 붙은 애꾸눈이 지스벨라와 포일을 흘끗 쳐다보았다.

지스벨라는 포일을 질질 끌다시피하여 지하 식량 창고를 빠져 나가 빗장이 걸려 있는 마루문을 발견하자 발로 걷어차서 열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들은 부서진 층계를 굴러 떨어져 전에 석탄 창고였던 곳으로 나왔다. 머리 위의 진동과 부르짖음 소리가 차츰 더 깊고 공허하게 울려왔다. 석탄창고 한쪽 옆에 있는 투입구는 무쇠입이 달린 문짝으로 막혀 있었다. 지스벨라는 포일과 힘을 합쳐 그 문짝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성형외과병원 밖으로 나오자 뒤꼍 벽에 몸을 찰싹 붙이고 주위를 살폈다. 두 사람의 앞에는 트랜트 로켓 발착장의 지하실이 있었다. 그들이 가까스로 숨을 가다듬었을 때, 지스벨라는 수송정이 대 중력 광선을 타고 지하실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현창이 번쩍번쩍 빛나고, 인식 신호는 무서운 네온사인같이 깜박 깜박하며 병원 뒤꼍 벽을 비추었다.

사람 그림자가 하나 병원 지붕에서 훌쩍 뛰어내렸다. 샘 콰트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던 것이다. 떨어지는 물체의 충동을 완화시켜주는 대 중력 광선이 닿는 범위에 들어가려고 팔다리를 버둥거리면서 공간으로 뛰어내린 것이다. 지상 70피트 지점에서 그는 광선의 줄기 속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작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는 곧장 떨어져서 지하실 입구 가장자리에 나동그라졌다.

지스벨라는 흐느껴 울었다. 그녀는 아직도 무의식적으로 포일의 팔을 움켜잡은 채 콘크리트를 달려 샘 콰트의 시체 곁으로 갔다. 포일에게서 손을 떼고 샘 콰트의 머리에 다정하게 손을 댔다. 손가락이 피로 더러워졌다. 포일은 눈 부분을 가린 붕대를 찢어 거즈를 통해서 보이도록 구멍을 만들었다. 지스벨라의 울음소리와 뒤쪽 베이커의 병원에서 나는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달아나야 해…… 여기서 탈출해야 하는 거야. 우리는 발견되었어.”

지스벨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포일은 온 몸의 힘을 쥐어짜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타임즈 스퀘어! 조운트해, 지즈!”

누군지 알 수 없는 자들이 일시에 주위에 몰려들었다. 포일은 지스벨라의 팔을 놓고 타임즈 스퀘어로 조운트했다. 거대한 체송대 위에서 조운트하는 사람들이 느닷없이 머리에 흰 붕대를 감고 나타난 거한을 보자 놀란 듯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이 체송대는 축구 경기장을 두 개 합친 정도의 넓이었다. 포일은 붕대의 구멍을 통해 가만히 주위를 둘러 보았다. 지스벨라가 있는 눈치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엔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소리높이 외쳤다.

“몬토크요, 지즈, 몬토크! 아방대로!”

포일은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운트했다. 착운 북동풍이 블록 아일랜드에서 불어 중세의 옛 건물 자리에 마련된 조운트 대에 부서지기 쉬운 얼음 덩어리를 실어다 주었다. 또 한 사람의 모습이 대 위에 나타났다. 포일은 바람과 눈 속을 휘청거리면서 다가갔다. 지스벨라였다. 그녀는 꿈꿨던 언데다 길을 잃은 듯이 보였다.

포일이 중얼거려듯 말했다.

“됐소! 됐어. 샘은 <주말>호를 어디에 넣어 두었소?”

그는 지스벨라의 팔을 움켜잡고 흔들었다.

“샘은 어디에 <주말>호를 넣어두었소?”

“샘은 죽었어요.”

“어디에 <주말> 호를, 토성의 <주말> 호를 놓아 두었느냐 말시오!”

“샘은 이제 죽고 없어요, 그에 대해서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주선은 어디에 있소, 지즈?”

“등대 뒤쪽 광장에.”

“갑시다.”

“어디로?”

“샘의 우주선으로.”

포일은 큰 손을 지스벨라의 눈앞에 쑥 내밀었다. 번쩍이는 열쇠가 손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의 열쇠를 받아왔지. 자아, 갑시다.”

“그에게서 받았나요?”

“시체에서 슬쩍한 거요.”

“구르(시체를 먹는 귀신)!”

그녀는 감정이 격렬해져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거짓말장이…… 색정광…… 타이거…… 구르…… 살아있는 암…… 걸리버 포일!”

그러나 그녀는 그를 따라 눈보라치는 몬토크 항공대로 향했다.

솔 더겐햄은 <가발>을 쓴 공예사 셋, 큰 뱀을 가진 네 미녀, 금빛 고수머리에 빈정대는 입매를 지닌 어린 아이 하나, 중세의 갑옷을 입은 결투 선수 하나, 속에 금붕어가 들어 헤엄치는 유리 의족을 단 사나이 하나를 모아놓고 말했다.

“좋아, 이제 작전을 끝났어. 다들 해산하여 모두에게 클리어 본부에 연락하도록 전달하게.”

이 쇼에 출현하는 사람들은 일제히 조운트하여 모습을 감추었다. 레지스 세필드가 눈을 비비며 물었다.

“저 미치광이 같은 사람들은 뭐요, 더겐햄?”

“우리 회사의 자랑인 FFCC 작전의 일부이지요—즐거움, 공상, 혼란, 파국.”

더겐햄은 플레스타인을 향해 죽은 사람 같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만약 바라신다면 수수료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플레스타인.”

“설마 손을 떼려는 건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즐기고 있으니깐요. 무료라도 일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한 번도 포일 같은 사나이를 상대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참으로 특이한 인물입니다.”

“어떤 점에서 특이하요?”

세필드가 따져물었다.

“나는 그가 구프르 마르테르에서 탈출하도록 교묘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잘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상한 방법으로 탈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혼란과 파국 속에서 그가 경찰에 체포되지 않도록 손을 써 두었습니다. 그는 경찰의 손을 빠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가 예상했던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법으로 달아났습니다. 즐거움과 공상으로 중앙 첩보부에 체포되지 않도록 나는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가 첩보부의 손에 체포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의 방법으로 달아났습니다.

<노매드> 호에 가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나는 그를 멀리 돌게 해서 우주선에 타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 돌지 않았습니다. 어디선지 자신이 직접 우주선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지금 출발하는 중입니다.”

“뒤쫓을 생각이오?”

“물론이지요.”

그러나 더겐햄은 잠시 머뭇거리는 빛을 보였다.

“그런데 그는 베이커 병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형 수술을 했겠지요.”

세필드가 은근히 비쳤다.

“새로운 얼굴로?”

“설마…… 베이커는 솜씨가 좋지만, 그렇게 빨리 수술할 수는 없을 거요. 작은 수술을 한 모양입니다. 포일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지요.”

“그 문신이오.”

플레스타인이 말했다.

더겐햄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입매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것이 걱정입니다, 플레스타인. 베이커가 그 문신을 성형했다면, 우리는 포일을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고 그의 얼굴이 달라지겠소?”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 문신을 한 얼굴밖에는.”

“나도 그 사나이를 본 일이 없는데…….”

세필드가 끼어들었다.

“그 문신이란 어떤 것이었소?”

“호랑이를 닮았습니다. 나는 포일과 두어 번 오랜 시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테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그 문신뿐입니다.”

“어이가 없군!”

“그렇게 말할 수만은 없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는 우리를 <노매드> 호로 안내해 줄 테니까요. 당신의 백금과 파이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줄 겁니다, 플레스타인. 이제 머지않아 결말이 날 테지만, 나도 조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거의 결말이 났다고 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매우 즐겼습니다. 그 사나이는 정말 보기 드문 인물이었지요.”

제 7 장

토성 <주말> 호는 오락용 요트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네 사람이 넉넉히 탈 수 있을 만했으며, 둘이서는 조금 넓은 듯 싶었다. 그러나 포일과 지스벨라에게는 그다지 넓게 여겨지지 않았다. 포일은 주선실에서 잤다. 지스벨라는 선장실을 점령하고 있었다.

“붕대를 떼어 내야 해요, 구르.”

포일은 시무룩하니 커피를 끓이고 있다가 갤러리를 나가 욕실로 들어갔다. 지스벨라가 따라들어가 세면소의 거울 앞에 섰다. 지스벨라는 세면기 위로 몸을 내밀 듯이 하고 에테르의 캡슐을 열어 거친 솜씨로 적신 다음 붕대를 떼어 내기 시작했다. 가늘고 긴 거즈가 천천히 벗겨졌다. 포일은 괴로운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베이커의 수술이 잘 되었을까?”

대답이 없었다.

“빼놓은 곳은 없을까?”

그녀는 붕대를 떼는 작업만 계속하고 있었다.

“아픔은 이틀 전에 멎었는데…….”

역시 대답이 없었다.

“지즈, 아직 화난 거요?”

지스벨라의 손의 움직임이 멎었다. 포일의 붕대를 감은 얼굴로 증오의 눈길을 돌렸다.

“당신은 어떤가요?”

“내가 물었잖소.”

“그래요, 화나 있어요.”

“어째서?”

“당신은 알 리가 없어요.”

“가르쳐주요, 지즈!”

“그만뒤요.”

“나에 대해 화내고 있다면 어째서 따라왔소?”

“샘과 내 몫을 받으려고.”

“돈?”

“시끄럽군요.”

“따라올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믿어 주면 되었을 거요.”

“당신을 믿는다고요? 당신을?”

지스벨라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다시 붕대를 떼어 내기 시작했다. 포일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하겠어.”

그녀는 붕대를 감은 그의 얼굴에 따귀를 날렸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조용히 있는 거예요, 구르!”

그녀는 계속 붕대를 떼어 내고 있었다. 가느다란 긴 거즈가 벗겨지고 포일의 눈이 나왔다. 그 눈은 어둡고 우울하게 지스벨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꺼풀은 깨끗해져 있었다. 콧날도 깨끗해져 있었다. 가느다란 거즈가 포일의 턱에서 벗겨졌다. 그 곳은 거무스름했다. 포일은 거울을 들여다 보더니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숨을 헐떡였다.

“턱을 빼놓았군! 베이커가 속였어!”

“정말 시끄럽게 구는군요.”

지스벨라가 짧게 대답했다.

“수염이잖아요.”

마지막 거즈가 재빨리 벗겨져서 뺨과 입, 그리고 이마가 나왔다. 눈에서 뺨에 걸쳐 깨끗해져 있었다. 그 밖의 부분은 7일 동안에 자라난 거무스름한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면도하세요.”

지스벨라가 명령했다.

포일은 물을 꺼내 얼굴을 적시고 면도용 크림을 바른 뒤 수염을 깎았다. 그리고 나서 얼굴을 거울에 가까이 대고 살펴보았다.

너무나도 뚫어지게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스벨라가 바로 가까이로 얼굴을 들이민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문신의 흔적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았다. 두 사람 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깨끗해.”

포일이 말했다.

“완전히 없어졌어. 아주 잘해 주었군.”

문득 그는 더욱 몸을 숙이고 좀 더 찬찬히 조사했다. 지스벨라로서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으며, 동시에 자기에게도 전혀 새롭게 보였다.

“나는 변했어. 이런 얼굴이었던 기억이 없는데……. 그는 내가 본디부터 이런

얼굴이었으리라 생각하고 수술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지스벨라가 말했다.

“당신이 변해버린 것은 내면이에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거짓말쟁이, 허풍장이, 사기꾼, 구르예요.”

“지즈, 그만두지 못해! 제발 나에 대해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 줘!”

“구르!”

지스벨라는 번쩍번쩍 눈을 빛내면서 포일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되풀이했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포일은 그녀의 어깨를 짊 움켜쥐고 층계 위로 집어던졌다. 그녀는 휴게실에 나가떨어졌는데, 가까스로 기둥에 매달려 몸이 한 바퀴 돌았다.

“구르!”

그녀가 소리쳤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구르! 색정광! 야수!”

포일은 그녀를 쫓아가 또다시 몸을 움켜쥐고 세차게 흔들었다. 붉은 머리카락이 그것을 묶었던 클립에서 풀어져 인어의 머리카락처럼 흘러내렸다. 그 불타오르는 듯한 머리의 표정이 포일의 노여움을 정열로 바꾸었다. 지스벨라는 그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색정광!”

지스벨라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동물…….”

“지즈!”

“불을 꺼줘요.”

지스벨라가 소곤거렸다.

포일은 멋대로 짐작하여 스위치 쪽으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것을 눌렀다.

토성 <주말> 호는 현창을 어둡게 한 채 아득한 행성 무리를 향해 곧장 나아가고 있었다.

몇 시간이나 쾌적한 기분으로 즐다가 낮은 목소리로 소곤거리기도 하고, 다정하게 서로를 어루만지면서 두 사람은 선실에 있었다.

“가엾은 걸리…….”

지스벨라가 속삭였다.

“가엾은 걸리…….”

“가난하지는 않아.”

그가 말했다.

“부자가 될 거야…… 이제 곧.”

“그래요, 부자이면서도 공허해요. 당신 속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걸리…… 증오와 복수밖에는.”

“그것이면 충분하오.”

“지금은 충분하지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은 그 때 사정에 따라 어떻게 되겠지.”

“당신의 내면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걸리. 당신이 잡는 것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 내 장래는 내가 제거하는 것에 의해 결정되는 거요.”

“걸리, 구프르 마르테르에서 왜 나에게 감추었지요? 어쩌서 <노매드> 호에 백금이 있다는 말을 해 주지 않았지요?”

“할 수가 없었소.”

“나를 믿지 않았었군요?”

“그게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소. 내 내면에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제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것 같소, 틀림없이. 억제라는 것이 몸에 익지가 않아, 지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안돼.”

“해 볼 생각인가요?”

“물론. 정말이오. 그러나 여차할 때면 내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

“호랑이처럼 덤벼드는군요.”

“당신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다면 좋겠어, 지즈. 나에게 주의를 주고, 나를 붙잡아 줄 테니…….”

“그런 일은 아무래도 해드릴 수 없어요, 걸리. 자신이 몸에 익혀야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는 그 말을 음미했다. 조금 뒤 그는 머뭇거리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지즈, 돈에 대한 일인데…….”

“돈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주었으면 좋겠소.”

“어머나, 걸리!”

“내가 지즈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오. <보거>에 대한 일만 없다면 당신이 필요로 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은 뭐든지 주겠는데…… 뭐든지 말이오! 내가 죽을 때는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지만 나는 두려워, 지즈. <보거>는 강해…… 아무튼 플레스타인과 더겐햄과 변호사 셰필드가 상대니까. 아무리 적은 돈일지라도 소중히 해야 하오, 지즈. 만일 당신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다면 <보거>와 내 힘에 차이가 생길 거요.”

“당신은 완전히 사로잡혀 있군요.”

그녀는 지긋지긋한 듯이 말했다.

“일부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가.”

“그렇지 않소, 지즈.”

“아니에요, 걸리,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내 몸을 사랑한 것은 다만 피부로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보거>만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앞쪽 조종실의 레이더 경보가 불쾌한 경고를 울렸다.

“목표 제로.”

포일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어느새 침착성을 잃고 다시금 신들린 사람처럼 되어 있었다. 그는 조종실로 뛰어 들어갔다.

이리하여 그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행성대에 있는 사가소 소행성으로 돌아온 것이다. 암석과 표류물, 그리고 과학인들이 회수한 난파된 배의 잔해로 만들어진 소행성. 자기 얼굴에 <노매드>라고 문신을 한데다 과학적으로 그를 모이라라는 여자와 결혼시킨 적 조제프와 그의 민중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포일은 갑자기 야만스러운 격분을 느껴 행성을 향해 무섭게 달려들었다. 우주에서 날아와 전진용 제트에서 튀어나오는 불꽃의 거품으로 제동을 걸고, 그 잡동사니 소행성 주위에 가까이에 접근하여 빙빙 돌았다. 커다랗게 돌면서 어두운 입구, 조제프와 과학인들이 공간에 떠도는 우주선의 잔해를 모으기 위해 나오는 커다란 승강구, 포일이 지구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행성의 측면에 뚫어 놓은 새로운 하늘 등의 위를 지나쳤다. 행성 온실의 거대한 창문을 이어 붙이는 작업장을 서둘러 통과했을 때, 문신으로 작은 반점이 여기저기 있는 수백 명 인간들이 얼굴을 내밀고 우주선을 올려다보는 것이 보였다.

“거봐, 나는 저자들을 죽이지 않았소.”

그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저자들은 소행성으로 달아났거든. ……아마도 다른 부분의 수리가 끝날 때 까지 내부 깊숙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겠지.”

“저 사람들을 도울 생각이예요, 걸리?”

“어째서?”

“손해를 주었으니까요.”

“저자들이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오. 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소. 그러나 이것으로 마음이 놓이는군. 저들은 이제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거요.”

그는 다시 한 번 행성 주위를 돌고 나서 <주말> 호를 새로운 입구에 착륙시켰다.

“여기서부터 일을 시작하기로 합시다. 우주복을 입어요, 지즈. 자아 됐소? 갑시다.”

그는 미친 사람같이 조바심하면서 그녀를 재촉했다. 그리고 자신도 서둘렀다.

두 사람은 우주복을 입고 <주말> 호를 떠나 입구 구멍 속의 잔해 사이를 허우적거리며 빠져 나가 황폐한 행성의 내부로 들어갔다. 거대한 곤충의 구멍을, 기복이 있는 터널을 허우적거리면서 지나는 것 같았다. 포일은 우주복의 극초단파 장치에 스위치를 넣고 지스벨라에게 말했다.

“길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오.”

“어디로 가나요, 우리는?”

“<노매드> 호를 찾으려. 나는 달아날 때 저들이 <노매드> 호를 이 행성에 시멘트로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거든. 장소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노매드> 호를 찾아야 해.”

통로에는 공기가 없어 두 사람의 발소리가 울리지 않았으며, 진동이 직접 금속과 바위로 전달되었다. 두 사람은 심호흡을 하기 위해 고대 전함의 움푹 들어간 선체 옆에서 한번 걸음을 멈추었다. 거기에 기대서자 안에서 울동적인 신호의 울림이 전달되는 것이 느껴졌다.

포일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었다. 그는 말했다.

“이 속에 조제프와 과학인들이 있소. 간단한 응답을 요구하고 있군. 아무렇게나 대답해 주어야지.”

그는 선체를 두 번 세게 쳤다.

“자아, 이번에는 <내 아내>에게 보내는 사신이다!”

포일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화난 듯이 마구 두드리고서 뒤돌아보았다.

“자아, 갑시다, 지즈.”

그러나 두 사람이 수사를 하는 동안에도 그 신호는 계속 뒤쫓아왔다. 행성의 외부가 내버려져 있음은 똑똑히 알 수 있었다. 이 종족들은 내부로 들어간 것이다. 한참 지난 뒤 알루미늄으로 된 세로로 뚫린 구멍 밑에서 문이 열리고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곧 조제프가 유리 섬유로 만든 고대 우주복을 입고 나타났다. 그 악마 같은 얼굴의 눈길이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탄원하듯이 두 손을 마주 잡고 악마의 입을 움직였다.

포일은 무섭게 노인을 노려보며 그에게로 걸어가 걸음을 멈추고 주먹을 불끈 움켜쥐더니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목을 울렸다. 그러한 포일의 모습을 본 지스벨라는 두려운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그 전의 문신이 포일의 얼굴에 다시 나타났던 것이다. 창백한 피부에 피같이 붉은 빛과 검정 대신 주홍색이 떠오르더니 무늬도 색깔도 호랑이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걸리!”

그녀가 소리쳤다.

“아아, 당신의 얼굴!”

포일은 그녀의 말을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조제프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조제프는 애원하는 듯한 몸짓을 하며 행성 속으로 들어오라고 두 사람을 손짓해 부른 뒤 사라졌다. 그 때 포일이 지스벨라를 향해 물었다.

“지즈, 왜 그러지?”

투명한 우주모를 통해 그녀는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포일의 내부에 생긴 분노가 점점 사라져감에 따라 지스벨라에게는 핏빛같이 붉은 문신이 얇게 사라져 가는 게 보였다.

“저 못된 늙은이를 보았소?”

포일이 물었다.

“저자가 조제프요. 나에게 그런 짓을 하고서, 이번에는 탄원하고 있는 거요. 알았소? 당신 아까 뭐라고 했소?”

“당신의 얼굴 때문이에요, 걸리. 당신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았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자신을 억제해 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었지요, 걸리? 이제 당신에

게는 그것이 있어요. 당신의 얼굴, 그것이…….”

지스벨라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을 익히지 않으면 안 돼요, 걸리. 이제 당신은 결코 감정에 저서는 안 돼요…… 어떤 감정이라도 왜냐 하면…….”

그러나 포일은 그녀에게서 눈을 돌리더니 별안간 알루미늄의 세로 구멍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다. 열린 문 앞의 대 위로 훌쩍 내려서서 그는 의기양양하게 고함치기 시작했다. 그 문은 가로 4피트, 세로 4피트, 높이가 9피트쯤 되었는데, 도구용 로커로 통해 있었다. 로커 안에는 선반이 몇 개 달려 있고, 여기저기서 모아다놓은 오래된 식량과 내버린 그릇 등이 흩어져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노매드> 호에 있던 포일의 관이었다!

조제프와 그의 부하들은 포일이 탈주한 뒤 대파괴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기 전에 <노매드> 호의 잔해를 이 행성에 고착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 내부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포일은 지스벨라의 팔을 잡고 급히 우주선 안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주계관의 로커에 이르렀다. 포일은 난파물과 파편들을 양 옆으로 헤쳐 마침내 무표정하고 차디찬 큰 강철 뚜껑을 노출시켰다.

“어느 쪽이 좋을까 골라잡아야 하오.”

그는 가쁘게 숨을 헐떡였다.

“이 금고를 떼어 내 작업을 할 수 있는 지구로 싣고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열어볼 것인가 - 나는 여기서 열어보고 싶소. 더겐햄이 거짓말을 했을 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샘이 <주말>호에 어떤 도구를 준비해 두었는지가 문제요. 다시 돌아갑시다, 지즈!”

<주말>호로 돌아오자 그는 급히 도구를 찾았다. 그는 그때까지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다는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안타깝게 소리쳤다.

“아무 것도 없어! 해머도 드릴도 없어! 병이나 깡통을 따는 도구밖에 없군.”

지스벨라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잠시도 눈길을 떼지 않았다.

“왜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소?”

포일이 물었다.

“매혹되어 버렸어요.”

지스벨라가 천천히 대답했다.

“무엇에?”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요, 걸리.”

“뭔데?”

“내가 얼마나 당신을 경멸하고 있는가 하는 것.”

지스벨라는 그의 얼굴을 세 차례나 때렸다. 느닷없이 얻어맞자 포일은 거친 태도로 벌떡 일어났다. 지스벨라는 거울을 집어들어 그의 앞으로 내밀었다.

“얼굴 좀 보세요, 걸리.”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 얼굴을.”

그는 보았다. 전의 그 문신한 얼굴이 피부 밑에 핏빛같이 붉게 타올라 자신의 얼굴을 붉은 빛과 흰빛의 호랑이의 얼굴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보았다. 너무나도 끔찍스러워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끼쳤다. 그와 동시에 노여움이 사라지고, 그 무늬도 없어졌다.

“아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아아, 이게 무슨 꼴이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화를 내게 해야 했던 거예요.”

지스벨라가 말했다.

“어떻게 된 거요, 지즈? 베이커가 수술할 때 잘못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피부 밑에 상처가 있는 게 아닐까요, 걸리? 처음에 문신을 한 다음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낸 바늘 상처 말이에요. 어느 때는 그 무늬가 나타나지 않지만, 감정이 치밀어 흥분하고 심장이 피를 내보내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거예요……당신이 크게 화를 내거나, 공포를 느끼거나, 정열적이 되거나, 뭔가에 열중할 때…… 아시겠지요?”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직도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놀란 듯이 손을 대고 있었다.

“당신은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주의를 주도록 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지요? 그보다 좋은 것이 생긴 셈이에요, 걸리. 아니 좀 더 나쁜 것일지도 모르겠군요. 가없는 사람…… 당신은 자신의 얼굴을 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아, 절대로!”

“이성을 잃어선 안 돼요, 걸리. 이제 당신은 절대로 지나치게 마시거나, 지나치게 먹거나,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지나치게 미워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꼭 눌러 참아야 해요.”

“그렇지 않아!”

그는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이까짓 흥터쯤 고칠 수 있어. 베이커도 고칠 수 있고, 다른 자라도 고칠 수 있을 거요. 자신이 괴물이 되거나 앓을까 겁을 먹으면서 돌아다니다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소!”

“나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걸리.”

“피부를 이식하면—.”

“안 돼요, 피부를 이식해도 흥터가 너무 깊어서 안 돼요. 당신은 절대로 이 흥터를 지울 수 없어요. 이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만 해요.”

포일은 별안간 화를 벌컥 내며 거울을 집어던졌다. 피처럼 붉은 무늬가 얼굴에 온통 나타났다. 그는 미친 듯이 주선실에서 뛰쳐나가 승강문으로 가더니 우주복을 끌어내려 입기 시작했다.

“걸리, 어디로 가는 거지요? 무엇을 하려는 거예요?”

“도구를 가져와야지.”

그가 소리쳤다.

“금고를 열 도구 말이오.”

“어디로요?”

“행성 내부. 그들에게는 난파선에서 가져온 도구로 가득 찬 창고가 잔뜩 있소. 드릴이며 내가 필요한 것은 뭐든지 있을 거요. 나를 따라오지 마오. 귀찮은 일이 생길 지도 모르니까. 지금 내 얼굴을 어떻게 되어 있소? 그 무늬가 나타나 있소? 빌어먹을!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 아니지!”

그는 우주복을 잠그고 행성 내부로 들어갔다. 인간이 사는 곳과 아무도 없는 외부를 경계짓는 해치를 발견했다. 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잠깐 기다렸다가 또 두들겼다. 그리고 거만한 태도로 계속 불러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손이 쑥 나와 그를 끌어넣더니 문이 닫혔다. 거기에는 기압실이 없었다.

밝은 빛을 받아 눈을 깜박이면서 그는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조제프와 얼굴에 무시무시한 장식을 한 사람들을 격노하여 바라보았다. 조제프가 깜짝 놀라 그 악마의 입이 <노매드>라고 발음하는 모양을 보고 자신의 얼굴이 빨갛고 희게 타올라 있음을 알았다.

포일은 사람들 속을 성큼성큼 지나가며 우악스럽게 그들을 밀쳐냈다. 우주복 손등으로 조제프를 때려눕혔다. 뿌옇게 떠올라 보이는 통로를 헤매 다니다가 마침내 절반은 동굴이고 절반은 고대의 선체로 만들어져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에 도구가 있었다.

드릴, 다이아몬드 절단기, 산, 테르미트 소이제(적을 태워 죽이거나 도시, 건물, 항공기 등을 태워 없애는 약제), 결정 파괴기, 다이어마이트, 퓨즈 등을 찾아내어 한데 모았다. 조용히 회전하고 있는 행성 내부에서는 기구를 모두 합해봐야 무게가 고작 백 파운드 정도밖에 안되었다. 용구를 한데 모아 전기줄로 둘둘 묶어가지고 방을 나왔다.

조제프와 과학인들은 마치 늑대를 기다리는 벼룩처럼 몸을 도사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일제히 덩벼들어 왔으나 그는 기쁨과 잔혹함을 느끼며 그들을 짓밟고 닥치는 대로 쓰러뜨렸다. 우주복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었다. 그는 외부로 나가는 해치를 찾으려서 통로를 달렸다.

흥분한 지스벨라의 목소리가 이어폰에 쉿소리를 내며 들려왔다.

“걸리, 들려요? 지즈예요. 걸리, 큰일났어요.”

“왜 그러지?”

“2분 전에 다른 우주선이 나타났어요. 행성 반대쪽을 떠돌고 있어요.”

“뒤편!”

“별과 같은 노란색과 검정색 마크가 있어요.”

“더겐햄의 표시로군!”

“역시 뒤를 밟았군요.”

“그밖에는? 더겐햄은 우리가 구프르 마르테르를 탈주한 뒤 줄곧 눈을 떼지 않고 있었던 거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니, 큰 실수였군. 서둘러 작업을 끝내야겠소, 지즈. 우주복을 입고 <노매드>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주계관의 방이요. 알겠소?”

“하지만 걸리…….”

“연락을 끊어요! 저쪽에서 우리의 전파를 포착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자아, 거기서 기다려요!”

행성의 내부를 걸어나와 닫힌 문에 이르자 그 앞에 있던 위병을 쓰러뜨리고 힘껏 열어 외부 통로의 공허한 내부로 들어갔다. 과학인들은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으므로 해치를 닫아 그를 막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뒤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노하여 미쳐 날뛰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길과 모퉁이를 지나 <노매드>의 잔해로 도구를 운반했다. 지스벨라는 주계관의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초단파 수신기의 스위치를 넣으려고 했으나 포일이 이를 말렸다. 그는 우주모를 그녀에게로 가까이 대고 소리쳤다.

“단파를 쓰면 안 돼! 저쪽에 우리의 위치를 알려 주고 말 테니까. 이렇게 말해도 들리겠지?”

그녀가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좋아. 아마 앞으로 한 시간 정도는 더겐햄에게 발견되지 않을 거요. 조제프와 이곳의 폭도들이 우리를 습격하는 것도, 아직 한 시간의 여유는 있소. 우리는 대단히 위급한 상황에 있소. 급히 서둘러 일을 해치워야만 해.”

그녀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금고를 열고 백금을 운반할 여유가 없소.”

“정말 들어 있을까요?”

“더겐햄이 쫓아온 것이 들어 있다는 증거요. 금고 전체를 <노매드> 호에서 떼어내어 <주말>호에 실어야 해. 그리고 떠나는 거요.”

“하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오, 지즈. <주말>호로 돌아가서 내부를 치워줘. 필요 없는 것은 모두 버려요. 비상 식량만 빼고 모두.”

“어째서요?”

“이 금고의 무게가 몇 톤이 될 지 모르는데다 중력권에 돌입했을 경우 저 우주선으로는 운반할 수 없게 될 지도 모르니, 미리 생각해 두어야만 하는 거요. 돌아가는 것은 괴롭겠지만, 그만큼 얻는 바도 있을 거요. 무거운 것은 버릴 것! 자아, 빨리!”

그는 그녀를 밀어내고는 두 번 다시 눈길을 주지 않고 금고를 떼어내기 시작했다. 강철 속에 박아넣어져 있었다. 지름이 4피트도 넘어보이는 큼직한 강철구체였다. 그것은 <노매드> 호의 밑바닥 판자와 용골에 열두 군데나 용접되어 있었다. 포일은 산, 드릴, 소이제, 냉각제를 써서 그 용접된 곳을 하나하나 떼어냈다. 구조장력의 이론에 의거해서 작업을 했다 - 즉 결정 구조에 틈이 생겨 물리적 파괴가 될 때까지 열을 가하고 냉각시키고 침식했던 것이다. 이윽고 금속이 물러지기 시작했다.

지스벨라가 돌아왔을 때 포일은 이미 44분이 지났음을 알았다. 소이제를 뿌리고 흔들자 금고는 열 두 개의 뿔을 표면에 내민 채 허공에 뿔뿔히 찢어졌다. 포일은 얼른

지스벨라를 불러 둘이 힘을 합쳐 금고를 잡아당겼다. 두 사람이 매달려도 그 덩어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지칠 대로 지쳐 털썩 주저앉았을 때, <노매드> 호의 선체에 난 틈새에서 새어나오던 햇빛이 재빨리 그림자로 가려졌다. 두 사람은 눈을 들었다. 우주선이 행성으로부터 4분의 1도 못되는 곳을 순회하고 있었다.

포일은 우주모를 지스벨라에게 가까이 댔다.

“더겐햄 녀석!”

그는 숨을 헐떡였다.

“우리를 찾고 있군. 아마 승무원을 내려보내 수색하고 있는 모양이요. 조제프에게 사정을 듣고 곧 이리로 오겠지.”

“아아, 걸리…….”

“아직 기회는 있소. 앞으로 두서너 번 돌 때까지 <주말>호는 발견되지 않아요. <주말>호는 동굴에 감추어져 있으니까, 그 안으로 금고를 옮길 수 있지 않겠소?”

“어떻게요, 걸리?”

“제기랄, 알 게 뭐야. 쳇!”

그는 매우 난처하여 주먹으로 손바닥을 쳤다.

“나는 이제 틀렸어!”

“폭발시켜 절단할 수는 없을까요?”

“폭발? 머리를 쓰는 대신 폭탄을 쓰라는 거요? 머리가 좋은 지스벨라 답지 않은 말을 하는군.”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폭발물로 절단해 보세요 - 로켓 분사 같은 작용을 하니까.”

“좋아, 알았소. 하지만 그 뒤에는? 그것을 어떻게 우주선에 싣지? 폭발을 계속할 수는 없소, 시간이 없으니까.”

“우주선을 금고 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뭐라고?”

“금고를 우주 속으로 날려버리세요. 그런 다음 우주선을 가지고 와서 금고를 메인 해치에 끌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도 이해할 수 있었다.

“과연 그렇군, 지즈, 그렇게 하면 되겠소.”

포일은 도구를 묶어놓은 곳으로 달려가 다이너마이트와 퓨즈와 캡을 고르기

시작했다.

“단파를 써야겠소. 한 사람은 금고 곁에 있고, 또 한사람은 우주선을 조종하는 거요. 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에 위치를 알려주도록 - 알겠소?”

“네, 조종은 당신이 하는 것이 좋겠어요, 걸리 - 내가 위치를 알릴 테니까.”

포일은 고개를 끄덕이고 폭약을 금고 정면에 장치한 뒤 캡과 퓨즈를 연결했다.

“진공 퓨즈요, 지즈. 시한은 2분. 단파로 신호하거든 퓨즈 끝을 당기고 곧 달아나도록 하오. 알겠소?”

“알았어요.”

그는 여자의 어깨를 가볍게 밀고는 <주말>호로 돌아왔다. 바깥쪽 문을 열고 기갑실 내부의 문도 열어놓았다. 우주선 안에는 공기가 없었다. 공기가 없어진 데다 지스벨라에 의해 배에 실었던 물건들이 처분된 <주말>호는 음침하고 황폐한 느낌이었다.

포일은 곧 조종실로 가서 앉아 초단파 통신기에 스위치를 넣었다.

“대기.”

그는 짧게 말했다.

“자아, 가오!”

제트에 점화하고 3초 동안 분사한 다음 전진했다. <주말>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위로 올라가서 고래가 바다 위에 모습을 나타내듯 등이며 동체에서 처분한 물건을 떨어버렸다. 일단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포일이 소리쳤다.

“다이너마이트, 지즈! 지금 빨리!”

폭발음은 없었다. 번쩍하는 섬광도 보이지 않았다. 눈 아래의 행성에 새로운 구멍이 입을 벌리고 작은 돌들이 꽃처럼 위쪽으로 확 퍼져 빙글빙글 회전하여 둔하게 빛나면서 천천히 날아오는 강철구를 급속히 앞질렀다.

“속도를 늦춰요.”

지스벨라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냉정하게 울렸다.

“너무 빨라요. 아아, 그리고 지금 일이 귀찮게 되었어요!”

그는 후부 제트로 제동을 걸고 놀라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행성 표면에는 노란색의 큰 별무리들이 떼지어 있었다. 노랑과 검정 줄무늬 우주복을 입은 더겐햄의 부하 승무원들이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은 한 사람의 둘레에 몰려서 있었다. 흰 옷의 그림자는 몸을 비끼기도 하고 이리저리 돌기도 하면서 교묘히 적을 피하고 있었다 - 지스벨라였다.

“그대로 나가세요.”

지스벨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녀의 괴로운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좀 더 속도를 떨어뜨리고…… 옆으로 22, 3도 기울여주세요.”

그는 눈 아래의 투쟁을 주시하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그녀의 명령에 따랐다. 금고가 접근함에 따라 <주말>호의 동체에 가려져서 그 궤도가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지스벨라와 더겐햄의 부하는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우주복 로켓에 점화했다. 작은 불꽃이 그녀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지스벨라는 행성 표면에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더겐햄이 부하들도 일제히 그녀를 추적해 왔다. 그중 몇 명은 지스벨라의 추적을 중지하고 <주말>호를 쫓아 위로 올라왔다.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요, 걸리.”

지스벨라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다.

“더겐햄의 우주선이 반대쪽에서 내려왔어요. 하지만 부하가 신호로 연락해서 당신 쪽으로 갈지도 몰라요. 틀림없어요. 거기에 있어요, 걸리. 이제 10초 남았어요.”

노란 별떼들이 작은 흰 옷에 접근하여 에워쌌다.

“포일! 들리나, 포일?”

더겐햄의 목소리였다. 처음에는 쉼 듯 했으나 이윽고 또렷해졌다.

“여기는 더겐햄이다, 당신 파장에 맞추어 부르고 있다. 나오라, 포일!”

“지즈! 지즈! 그들을 피할 수 있겠소?”

“거기에 있어요, 걸리!…… 가겠어요. 금고가 입구에 들어갔어요.”

금고가 천천히 메인 해치로 돌입했을 때의 큰 진동으로 <주말>호는 몹시 흔들렸다. 동시에 흰 우주복이 노란 별떼 속에서 빠져 나왔다. 그녀는 맹렬한 추적을 당하면서 <주말>호를 향해 로켓으로 돌진해 왔다.

“힘을 내오, 지즈! 힘을 내!”

포일이 소리쳤다.

“조금만 더!”

지스벨라가 <주말>호의 동체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되자 포일은 조종 장치를 정비하여 전속력을 낼 준비를 했다.

“포일, 대답하라, 여기는 더겐햄이다.”

“더겐햄, 누워서 잠이나 주무시지!”

하고 그는 소리쳤다.

“땀겨든 알려줘, 지즈! 그리고 그대로 가만 있어!”

“안되겠어요, 걸리!”

“힘을 내!”

“탈 수가 없어요. 금고가 입구를 막고 있어요. 도중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지즈!”

“입구가 없어요.”

그녀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는 거칠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겐햄의 부하들이 속속 <주말> 호의 선체에 올라오고 있었다. 더겐햄의 우주선은 똑바로 이쪽을 향해 행성의 짧은 지평선 위로 떠올라왔다. 그는 머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포일, 이젠 틀렸다. 당신도 여자도! 그러나 여기서 제안을 하겠다…….”

“걸리, 살려줘요, 걸리, 나 이제는 의식이…….”

“보거!”

포일은 짓눌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눈을 감고 조종 장치에 손을 댔다. 후부 제트가 요란한 소리를 냈다. <주말> 호는 크게 동요하고 흔들리면서 전진했다. 더겐햄의 부하도 지스벨라도 그대로 내버려둔 채. 포일은 조종석에 쓰러져 <중력+G>의 가속도를 받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이 가속도도 그를 몰아대고 있는 정열보다는 약하고 고통스럽지 않았으며, 흥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의식이 멀어지고 눈앞이 희미해져오자 그의 얼굴에는 피처럼 빨간 그늘들린 것 같은 흉터가 나타났다.

제 2 부

가슴속 깊이, 나를 지배하는
성난 꿈을 남몰래 감추고
타오르는 창과 용맹한 말을 타고
나는 달린다, 죽음의 광야를.

유령과 그림자의 기사로서
나를 부르는 죽음의 시합,
세상 흔히 있는 여행이 아니라
아득한 세계의 끝을 가노라.
툼 아 베드럼

제 8 장

역병(유행성 질병)이 행성 무리를 해치며 묵은해는 죽어갔다. 전쟁은 가속도가 붙은 듯, 지금까지의 이야깃거리가 되어왔던 습격이나 우주 간의 작은 전투 등에서 자기 주변의 생산시설을 크게 파괴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세계 대전이 종말에 이르고, 태양계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교전국들은 앞으로 닥칠 대파괴에 대비하여 인원과 자제를 동원했다. 외위성 동맹군은 일반 징병법을 시행하고, 내행성연합군도 이에 따랐다. 공업, 무역관계, 과학자, 기술자, 두뇌노동자가 징용되었으며 통제와 탄압이 그 뒤를 이었다. 육군과 해군은 징발과 지배에 손을 뻗었다.

산업은 복종했다. 왜냐 하면 이 전쟁은 -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산업 투쟁이 전화(轉化)된 상태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들은 반항했다. 징병을 기피하는 조운트며 노동자의 취업을 기피하는 조운트가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스파이와 침략에 대한 공포가 퍼져나갔다. 히스테리 환자가 밀고자로 변하여 여기저기서 린치가 성행했다. 바뀐 아일랜드에서부터 포클랜드에 이르는 전국의 모든 가정들은 불길한 전조에 몸을 떨었다. 생기를 잃어가기 시작한 이 해에 포(4)마일 서커스가 나타나 그나마 가까스로 숨을 돌린 것 같았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큰 행성 셀레스에서 온 부유한 젊은 어릿광대 조프리 포마일과 그의 기괴한 수행원들에게 붙여져서 유명해진 별명이었다. 셀레스의 포마일은 굉장한 부호였으며 또 매우 유쾌한 사람이었다. 어느 시대에도 있기 마련인 벼락부자의 전형이었다.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에 도착한 그들 일행은, 일정한 목적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랑 서커스와 불가리아 소군주의 희극적인 신하들을 한데 섞어놓은 것 같은 무리였다.

아침 일찍 법률가의 신분을 나타내는 통 모양의 모자를 쓴 한 변호사가 손에 캠프 부지의 예정표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는 미시간 호반에 면한 4에이커의 목장을 빌기로 결정하고 터무니없는 땅값을 지불했다. 메이슨 앤드 딕슨 재벌의 측량사들이 그에게로 왔다. 20분 뒤 측량사는 캠프 부지를 결정하고, 포마일 서커스가 도착했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위스콘신, 미시간, 미네소타의 각 지방 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텐트 꾸러미를 짊어진 스무 명의 인부가 조운트해 왔다. 명령하는 고함소리, 외침, 압축공기의 굉음 등 요란한 전주곡이 연주되었다. 스무 개의 거대한 텐트

가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고 저녁 햇빛을 받아 락과 유액을 칠한 표면이 빛났다. 구경꾼들이 일제히 환성을 질렀다.

여섯 대의 헬리콥터가 날아와 거대한 부지 위를 낮게 떠돌았다. 헬리콥터의 동체가 열리더니 자재들이 폭포수처럼 떨어졌다. 하인, 심부름꾼, 요리사, 급사가 몇 명이나 조운트해 왔다. 그들은 텐트에 가구를 들여놓고 장식을 했다. 조리장에서는 연기가 오르며 프라이를 하고 고기와 빵을 굽는 냄새가 캠프에 진동했다. 포마일의 사설경관이 근무하기 시작하여 4에이커에 이르는 땅을 순찰하며 구름같이 몰린 구경꾼들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윽고 항공기, 자동차, 버스, 트럭, 자전거, 그리고 포마일의 수행원들이 조운트해 왔다. 도서관 직원과 서적, 과학자와 실험실, 철학자, 시인, 운동가들이 속속 도착했다. 도검과 사벨걸이가 세워지고, 유도를 위한 다다미, 권투의 링이 설치되었다. 50피트의 풀장이 만들어지고, 호수에서 펌프로 물을 퍼올려 채웠다.

음악가, 배우, 요술사, 곡예사가 도착했다. 소동은 귀가 멍해질 정도였다. 기계공들이 포마일의 디젤 수확기에 기름을 치고 발동기의 회전수를 늘리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캠프의 뒤를 쫓는 사람들이 왔다. 아내, 딸, 첩, 매음부, 거지, 사기꾼 등. 낮이 가까워질 무렵 서커스의 힘찬 울림이 포(4)마일 떨어진 곳에서 들렸다. 이 별명은 이로 인해 생겨난 것이었다.

낮이 되자 셀레스의 포마일은 더없이 호화스럽게 꾸며진 탈것으로 도착했다. 거대한 수륙양용기가 남쪽으로부터 폭음을 울리며 날아와 호수에 내렸다. 항공기 속에서 상륙용 소형배가 나타나 요란한 소리를 내며 기슭으로 달려왔다. 소형배 앞쪽 벽이 쓰러져 다리가 되자 20세기 시대의 군용차가 나왔다. 구경꾼들이 보기에 놀라운 것들이 차례 차례 나타났다. 군용차는 약 20야드를 달려 캠프 한가운데에서 멈춰섰다.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자전거?”

“아니, 롤러 스케이트일 거야.”

“죽마를 탄 사람이 올 거야.”

그러나 포마일은 구경꾼들의 예상을 보기 좋게 뒤엎었다. 군용차에서는 서커스의 대포 포구가 나타났던 것이다. 검은색 화약이 폭발하는 가운데 셀레스의 포마일이 대포에서 발사되어 아름다운 반원을 그리며 네 사람의 하인이 그물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텐트 위에 내렸다. 그를 맞이하는 박수 소리가 6마일 앞에서도 들렸다. 포마일 서커스의 힘찬 연주는 최고조에 달했다. 음악이 끝없이 계속되었다. 음악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포마일은 텐트 안에서 옷을 갈아입었다가는 마음이 달라져 또 새로운 옷으로 바뀌 입었다. 그리고는 또 벗어버리고 하인을 건너차며 매우 잠잠지 못한 프랑스 어와 런던 사교계의 말을 섞어 쓰면서 거드름스러운 태도로 옷 만드는 기술자를 불렀다. 새 옷을 절반쯤 입었을 때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났다. 옷만드는 기술자를 건너차고 풀장에 향로 10갤런을 섞도록 명령했을 때, 시적인 영감이 떠올랐다. 그는 어용 시인을 불렀다.

“이것을 써두게.”

포마일이 명령했다.

“왕은 죽었도다 - 잠깐만, 달에 붙은 운이 무엇이었나?”

“준(6월, June)입니다.”

시인이 대답했다.

“클룬(口吟), 쏘(이제 곧, soon), 둔(모래 언덕, dune), 룬(시골 사람), 눈(정오, noon), 룬(고대 게르만 문자, rune), 톤(음조, tone), 분(은혜, boon), ……”

“아아, 실험을 깜박 잊었군!”

포마일이 소리쳤다.

“보온 박사! 보온 박사!”

그는 반쯤 발가벗은 채 허둥지둥 실험대로 달려갔는데, 화학자 보온 박사와 부딪쳐 두 사람은 텐트 중간까지 굴렀다.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화학자의 목을 아플 정도로 세계 죄며 포마일이 외쳤다.

“노구찌! 이봐, 노구찌 없나! 나는 유도의 새로운 목조르기 방법을 발명했네.”

포마일은 벌떡 일어나 정신을 잃은 화학자를 질질 끌고 유도용 다다미 방으로 조운트했다. 몸집이 자그마한 일본인이 그 재주를 살펴보고 머리를 저었다.

“좋지 않은데요.”

일본인은 점잖게 잔소리를 했다.

“후후…… 목을 조르는 것이 반드시 숨이 끊어지는 원인이 되진 않습니다. 후후…… 보여드리지요.”

그는 기절한 화학자를 붙잡아 책 돌리더니 자기 스스로 언제까지나 목을 조르는 것처럼 하여 다다미 위에 놓았다.

“자아, 보십시오. 포마일!”

그러나 포마일은 이미 도서관에 가서 플로포의 <성생활>이라는 책 - 8판운드 9온스 - 으로 도서관 직원의 머리를 때리고 있었다. 그 불행한 사나이는 무한 활동기 제조에 대한 책을 한 권도 써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포마일

은 물리 실험실로 날아가 거기서 톱니바퀴 실험을 하기 위해 값비싼 정밀 시계를 부수었다. 그리고 어느 틈에 악단 무대로 가서 지휘봉을 움켜쥐고 관현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 그런 뒤 스케이트를 신은 채 향료를 넣은 풀장에 떨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끌어올려졌다. 그제야 겨우 모두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했다.

“나는 혼자 생각할 일이 있어.”

포마일은 주위에 있는 자들을 낚다 걷어챘다. 모두들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문으로 향했는데,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그는 벌써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이 들었다.

코고는 소리가 멎고 포마일은 일어났다.

“이제 오늘은 저자들도 나를 방해하러 오지 않겠지.”

그는 나직이 중얼거리면서 화장실로 뛰어 들었다. 거울 앞에 서자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 보며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그대로 있었다. 1분 있다가 숨을 내쉬었으나 아직도 얼굴에는 그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숨을 멈추고는 맥박과 근육을 세계 누르며 무쇠같은 냉정함으로 긴장을 높였다. 2분 20초가 지나자 핏빛같이 빨간 흉터가 나타났다. 포마일은 숨을 토해냈다. 호랑이 무늬는 없어져갔다.

“전보다 좋아졌군.”

그 얼굴에게 중얼거리듯 그는 말했다.

“상당히 좋아졌어. 불도를 닦던 노인의 말이 맞아. 관행이 상응하는 철리(哲理) - 요가야. 억압하는 것이지. 맥박, 호흡, 내장, 두뇌를 억압하는 것!”

그는 옷을 벗고 몸을 조사했다. 건강 상태는 기막히게 좋았지만 피부에는 아직 목에서부터 발꿈치에 이르기까지 자잘한 은빛 줄기가 그물코처럼 나타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포일의 근육에 신경 조질의 아우트라인을 새겨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 은빛 줄기는 아직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수술 자국이었던.

포일은 화성습격여단의 주임외과의사에게 2백만 \$의 돈을 집어주고 매우 전투적인 육체가 되는 수술을 받았다. 모든 신경총(두 가닥 내지 여러 가닥의 신경 섬유가 서로 얹혀 이루는 그물 모양의 조직)이 바뀌 놓여지고, 현미경적인 트랜지스터와 변압기가 근육과 뼈속에 넣어졌으며, 섬세한 백금이 척추의 기반에 삽입되어 있었다. 포일은 여기에 콩알만한 크기의 에너지 상자를 달고 스위치를 넣었다. 무쇠의 육체는 거의 기계적으로 내부에서 전자 진동을 시작했다.

‘인간이라기보다 기계에 훨씬 더 가깝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옷을 입었다. 셀레스의 포마일이 입는 사치스러운 옷이 아니라 검정 전투복을 택했다. 그는 위스콘신 주의 소나무 숲에 있는 낡은 건물 속 로빈 웬즈버리의 아파트로 조운트했다. 포마일 서커스가 그린베이에 나타난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는 암흑과 아무 것도 없는 공간 속에 도착하여 굴러 떨어졌다.

‘좌표가 틀렸군!’

그는 생각했다.

‘조운트를 실패했나?’

그는 부패한 시체들이 덩굴고 있는 부서진 바닥 위에 쿵 하고 나동그라졌다.

포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급격한 반동으로 필쩍 뛰어올랐다. 그는 곧 오른쪽 위 어금니를 혀로 짹 눌렀다. 몸의 절반을 전력 기계로 변형하는 수술을 받을 때 그 속에 억제 장치를 넣어두었던 것이다. 포일이 혀로 이를 누르자 망막의 말초 신경이 자극되어 연한 빛을 냈다. 파르스름한 두 줄기 광선이 뿔어 나오는 눈길을 그 시체에게로 떨어뜨렸다.

시체는 로빈 웬즈버리의 아파트 아랫방에 쓰러져 있었다. 내장이 파헤쳐져 있었다. 포일은 눈을 들었다. 전에는 로빈의 거실이었던 자리에 지름 9피트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건물 전체에 불과 연기와 썩은 냄새가 가득 찼다.

“습격을 받았군.”

포일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습격을 받은 거야. 무슨 일이 있었을까?”

조운트 시대에는 온 세계의 부랑자와 방랑자 등이 새로운 계급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밤마다 수확물을 찾아 재해를 만난 뒤 버려진 물건이며 썩은 고기를 찾아 동부에서 서부로 암흑 속을 이동했다. 지진으로 창고가 파괴되거나 하면 다음날 밤 연락없이 그곳을 습격했다. 불이 나서 집이 활짝 열려 있거나, 폭 발로 상점의 경비시설이 없어지면 일제히 조운트하여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스스로 <조운트 습격단>이라 일컫고 있었다. 승냥이와 마찬가지로였다.

포일은 파괴된 건물 속을 올라가 위층 복도로 나왔다. 조운트 습격단은 거기서 캠프하고 있었다. 송아지를 통째로 굽는 중이었다. 그 불은 파괴된 지붕을 뚫고 하늘 높이 불꽃을 뿌리고 있었다. 불을 에워싸고 십여 명의 사나이와 세 명의 여자가 둘러앉아 있었다. 거칠고 흉포한 얼굴로 런던 사투리가 섞인 속어

를 쓰며 마구 지껄여 대고 있었다. 어울리지도 않는 옷을 입고 삼페인 글라스로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검정 옷을 입은 몸집 큰 사나이 포일이 잡동사니 속을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노여움과 공포의 불길한 무늬가 나타나 굉장한 힘이 감추어져 있는 눈에서 파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일어나는 승냥이들 속을 조용히 빠져 나와 로빈 웬즈버리의 아파트 입구로 갔다. 무쇠 같은 억제,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녀가 죽었다면-’

그는 생각했다.

‘나는 끝장이다. 그녀를 이용해야 하는데. 만일 그녀가 죽었다고 한다면……?’

로빈의 방도 완전히 어질러져 있었다. 거실 바닥에는 가장자리가 툭니바퀴처럼 거친 타원형의 구멍이 커다랗게 뚫려 있었다. 포일은 시체를 찾아다녔다.

침실 침대 위에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상대로 한창 뭔가 하고 있는 중이었다. 사나이들은 포일을 보자 놀라서 마구 욕설을 퍼부었다. 여자는 발가벗은 채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등을 곳곳이 굳히고 뒤로 발랑 누워 있더니 포일의 모습을 보자 허둥지둥 몸을 감추면서 비명을 질렀다. 사나이들이 포일을 향해 덤벼들었다.

포일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혀로 위 앞니를 짹 눌렀다. 모든 신경 계통이 힘찬 울림소리를 내며 활동을 시작하여 몸 속의 온갖 감각과 반사가 오관의 하나에 의해 가속되었다.

그 효과는 외부세계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슬로우 모션화하는 것이었다. 소리가 매우 잘게 분해되었다. 주위는 온통 빨갛게 되어 버렸다. 습격하던 두 사람은 꿈속에서처럼 나른하고 활발하지 못한 동작으로 그를 향해 등실등실 떠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외부의 모든 행동이 완만해짐에 따라 포일의 활동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다. 그는 자기를 향해 조금씩 다가오는 타격을 피하며, 그 사나이의 등 뒤로 돌아가 붙잡아서 거실 구멍을 향해 집어던졌다. 또 한 사나이라도 집어던졌다. 포일의 가속된 감각으로는 사나이들의 몸이 허공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더욱이 허공으로 등실 내던져지자 손을 조금씩 앞으로 내밀며 무겁고 굳어진 소리를 지른 것 같았다.

포일은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지 않게 분해되어 나왔다.

“시, 체, 는, 어, 디, 예, 있, 지?”

여자가 비명을 질렀다.

포일은 다시 앞니를 눌러 가슴을 멈추었다. 외부세계가 슬로우 모션에서 일상상태로 돌아왔다. 소리와 빛깔도 그전과 같이 돌아갔으며, 두 승냥이는 구멍으로 사라져 아래층 방에 떨어졌다.

“시체가 있었나?”

포일이 조용히 되풀이했다.

“흑인 여자인데……”

상대방 여자에게는 질문이 이해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여자는 흰 유방과 아랫배를 가렸다. 그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휘둘러 거실 바닥의 구멍으로 집어던졌다.

로빈의 일을 알아 낼 단서를 찾고 있는데, 홀에서 우르르 몰려나온 폭도들에 의해 방해로 받았다. 그들은 핫볼과 무기를 대신할 물건을 움켜쥐고 있었다. 조운트 습격단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전문은 아니었다.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혀 죽게 할 뿐이었다.

“방해하지 마라!”

포일은 조용히 경고하고 선반과 뒤집힌 가구 밑을 조사하고 다녔다. 밉크 코트를 입고 삼각모자를 쓴 우두머리 사나이가 소리쳐 야단치자 모두들 한 발자국씩 다가들었다. 삼각모자의 사나이가 별안간 포일에게 핫볼을 던졌다. 불이 붙었다. 그는 다시 가슴을 행했으므로 조운트 습격단이 순식간에 살아있는 조각이 되었다. 포일은 의자를 집어들어 행동이 느린 그들을 내려쳤다. 그들은 그대로 몸을 곧게 하고 섰다. 그는 삼각모자의 사나이를 바닥에 던져 쓰러뜨리고 말타듯 그 위에 올라타 앉았다. 그리고 다시 앞니를 눌렀다.

이윽고 외부 세계가 되살아났다. 승냥이들은 오고 있는 동안에도 픽픽 쓰러졌다. 삼각모자의 사나이가 신음 소리를 냈다.

“여기에 시체가 있었나?”

포일이 물었다.

“흑인여자다. 키가 매우 크고 굉장한 미인이야.”

삼각모자의 사나이는 신음하면서 포일의 눈을 후벼파려고 했다.

“너희들은 시체 꿈무늬만 좇아다니지 않나?”

포일이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 가운데는 살아 있는 여자와 그걸 하는 것보다 죽은 여자를 범하는 것을 좋아하는 녀석도 있을 거야. 여기서 그 여자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나?”

만족한 대답을 얻을 수 없었으므로 그는 햇불을 들어 밉크 옷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허둥지둥 달아나는 조운트 습격단의 우두머리를 쫓아 거실로 갔다. 그 사나이는 비명을 지르며 구멍 가장자리에서 비틀거리다가 밑의 어둠 속으로 떨어졌다.

“시체가 있었나?”

포일이 조용히 밑을 향해 외쳤다.

대답으로 사나이는 머리를 내저었다.

“잘 안 되는데.”

포일이 중얼거렸다.

“정보를 실토하게 하는 방법을 익혀야겠군. 더젠햄이라면 한두 가지쯤 가르쳐줄 텐데.”

그는 전자 계통의 스위치를 끄고 조운트했다.

그는 그린베이로 돌아갔다. 머리카락이 탄 냄새며 살이 탄 고약한 악취가 나서 냄새 없애는 약을 사러 플레스타인의 지점 - 보석, 향수, 화장품, 이온, 일용품 판매 - 으로 갔다. 그런데 이 지점의 미스터 플레스트는 포마일 서커스의 도착 광경을 보고 있었던 듯 곧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렸다. 포일은 재빨리 셀레스의 포마일이 되었다. 장난을 치기도 하고 팔딱팔딱 뛰어다니기도 하며, 1온스에 백¢이나 내고 12온스들이 5호병을 사서 몸에 가볍게 뿌린 뒤 미스터 플레스트가 재미있어하도록 그 병을 길에다 버렸다.

군(郡) 등기국(登記局) 기록계 직원은 포일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으며, 매우 완고하고 비타협적이었다.

“거절하겠습니다. 군의 기록은 정당한 이유에 의한 법원의 명령이 없는 한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포일은 재빨리 이 사나이를 조사했다.

‘허약 타입이군.’

그는 확인했다.

‘여위고 뼈가 길고 힘이 없어. 걸핏하면 성을 잘 내는 타입. 제멋대로이며 현학적이고 고집스럽고 완고하다. 매수하기 어렵겠는데. 너무 음울하며 근엄강직. 그러나 억압된 것이 있다 - 이것이 약점이야.’

한 시간 뒤 포마일 서커스에서 여섯 명의 여자가 몰려가 기록계 직원을 기다렸다. 그녀들은 말쑥씨가 기막혀 설득력이 있었고, 나쁜 일에 대해서도 굉장한 재능이 있었다. 두 시간 뒤 기록계 직원은 육체적 욕망과 악덕에 현혹되어 완전

히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다. 그 아파트 건물은 2주일 전에 가스 폭발을 일으켜 조운트 습격단이 소란스럽게 하는 대로 내버려두었다는 것이었다. 방을 세들었던 사람들은 쫓겨났으며, 로빈 웬즈버리는 철광산(鐵礦山) 시험소 가까이에 있는 자선 병원에서 보호 중이라고 했다.

“보호감금인가?”

포일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무엇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했을까?”

포마일 서커스는 30분 걸려 크리스마스 파티 위문단을 만들었다. 위문단의 구성원은 음악가, 가수, 배우, 어릿광대 등으로 철광산의 좌표를 모두들 잘 알고 있었다.

위문단장의 인솔로 음악과 불꽃과 불꽃술 등 선물을 잔뜩 갖고 일제히 조운트 했다. 그들은 시험소의 경비 장치인 레이더에 걸렸으나, 직원들은 웃음을 터트리면서 통과를 허용했다. 셀레스의 포마일은 산타클로스로 변장하여 어깨에 커다란 자루를 메고, 그 속에서 지폐를 꺼내 뿌리면서 소리지르고 춤을 추었다. 모두들은 그를 따라 자선병원으로 밀려 들어갔다.

산타클로스는 간호원들에게 키스하고, 보조원들에게 술을 퍼 먹이고, 환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복도에 돈을 마구 뿌려대는 등 즐거운 소동을 벌였다. 소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그가 사라졌다. 그리고 훨씬 뒤에야 환자가 한 사람 실종된 것이 밝혀졌다. 그녀는 그 때까지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며 조운트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산타클로스의 자루 속에 들어가 병원에서 탈출했던 것이다.

포일은 그녀를 짊어진 채 병원 뜰에서 조운트했다. 추운 하늘의 아래 조용한 소나무 숲 속에서 그녀를 자루 속으로부터 꺼내놓았다. 그녀는 간소한 흰 환자복을 입고 있었으나 아름다웠다. 그는 자기의 옷을 벗었다. 그리고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기를 기억해 낼 것인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몹시 놀라며 당황해 했다. 그녀의 감응 전달이 번갯불처럼 빛났다.

<<어머나, 누굴까? 어떻게 된 걸까? 음악, 큰 소란스러움. 어쩌서 나를 자루 속에 넣어 유괴했지? 주정뱅이가 트럼본을 장난하고 있군! 그래, 맞아. 베지니아, 여기 있는 것은 산타클로스야. 그런데 내게 무슨 불일이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은 누구일까?>>

“나는 셀레스의 포마일이오.”

하고 포일이 말했다.

<<누구요? 포마일? 아아, 그렇군요. 어릿광대, 벼락부자, 신사, 속악(俗惡), 저열, 외설, 포마일 서커스, …… 어머니, 나는 정신 감응을 하는 것일까? 당신 들려요?>>

“들리고말고요, 웬즈버리 양.”

포일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는 거지요? 어쩌서 나를…… 나를 어찌려는 거지요? 나는…….”

“보고 있어요.”

로빈은 혼란된 정신을 억제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로 눈길을 들었으나 누군지 알 수 없었다.

<<얼굴이지. 이런 얼굴은 몇 번이나 보았어요. 남자들의 얼굴! 남자들의 표정. 발정난 남자는 언제나 이래요. 신께서는 열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내 발정기는 끝났소, 웬즈버리 양.”

“들려서 안됐군요. 하지만 난 무서워요. 나는…… 당신은 나를 아시는군요?”

“알지요.”

“전에 만난 일이 있었던가요?”

그녀는 똑똑히 확인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직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포일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승리를 자랑하는 감정이 끓어올랐다. 피와 뇌와 얼굴을 억누르고 있는 한 이 여자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만난 일은 없소.”

그가 말했다.

“나는 당신의 소문을 들었을 뿐이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소. 그래서 여기에 데리고 온 거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일 내 이야기가 싫거든 병원으로 돌아가도 좋소.”

“나에게 물어볼 일이 있다고요?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 것도 없는데…… 아무 것도. 굴욕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 - 아아, 어쩌서 자살이 실패했을까? 어쩌서 하지 못했을까? ->>”

“으음, 그랬었군!”

포일은 조용히 여자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자살하려고 했었군. 그렇지요? 그래서 가스가 폭발하여 건물이 파괴되었군……. 그래서 그 뒤로 보호 구금된 셈이군. 자살 미수라…… 그런데 폭발

로 다치지 않았으니, 어떻게 된 일ियो?”

“무척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죽은 사람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요. 운이 나빴던 거예요. 나는 태어난 뒤 한 번도 운이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어째서 자살하려고 했소?”

“너무 지쳤어요. 나는 틀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의심받고, 감시받고, 보고되고 있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왜 자살하려고 했느냐고요? 자살하는 것 말고는 어떻게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옆에서 일해 주시오.”

“어머나, 뭐라고요?”

“나를 위해 일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소, 웬즈버리 양.”

그녀는 히스테리컬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을 위해서? <<서커스 캠프를 따라 다니는 여자들처럼 되라는 건가요?>> 당신을 위해 일을 하라고요, 포마일?”

“당신은 섹스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모양이군.”

그는 상냥하게 말했다.

“나는 매음부를 찾고 있는 게 아니요. 대개는 여자 쪽에서 내 주위에 모여오니까.”

“나는 <<나는 자신을 파멸하게만 한 잔인성에 사로잡혀 있나 봐.>> 그럼, 최소한 이해하도록 애써보겠어요.”

로빈 웬즈버리는 자신을 억제했다.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당신은 나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 나를 병원에서 데려왔어요. 내 전문은 감응 전달이에요.”

“게다가 매력도 있소.”

“네?”

“당신의 매력을 사고 싶은 거요. 웬즈버리 양.”

“무슨 말씀이에요?”

포일은 조용히 설명했다.

“잘 들어보시오. 당신에게는 간단한 일일 거요. 나는 어릿광대요. 그야말로 <속악>하고 <저열>하고 <외설>된 자요. 이런 짓을 얼른 그만두어야겠는데…… 그래서 당신이 내 사교 비서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거요.”

“내가 그런 말을 믿을 줄 아시나요? 당신이라면 사교비서를 백 명, 아니, 천

명이라도 둘 수 있을 거예요 - 자신의 돈으로. 나만이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라는 건가요? 또 나를 손에 넣기 위해 일부러 보호 구금 상태에서 유괴해 낸 것도 그 때문이라는 건가요?”

포일은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 말이 맞소. 그러나 몇천 명이 있어도 정신 감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한 사람뿐이오.”

“그래서요?”

“당신은 복화술사가 되어주시오. 나는 당신이 조종하는 인형이 되겠소. 나는 상류 사회에 대한 것을 모르지만, 당신은 알겠소. 상류 사회에는 상류 계급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고 농담이 있고 예의 범절이 있소. 만약 상류 사회에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면 상류 계급의 말을 배워야 되지 않겠소? 나는 그것을 못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소. 직접 당신이 나 대신 말을 해 주어서……”

“하지만 당신도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오. 게다가 매력이란 아무리 익히려고 해도 몸에 배지 않는 법이오. 나는 당신의 매력을 사고 싶은 거요, 웬즈버리 양. 그건 그렇고, 급료 말인데, 한 달에 1천 드리겠소.”

그녀의 눈이 커다랗게 뜨여졌다.

“무척 너그러우시군요, 포마일.”

“자살 미수죄를 깨끗이 해 주겠소.”

“뭐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군의 위험 인물 리스트에서 당신을 제외하도록 힘쓰겠소. 내 일이 끝날 무렵까지는 결백한 몸으로 만들어주겠소. 당신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요. 다시 한 번 살기 시작하는 거요.”

로빈 웬즈버리의 입술이 떨리더니 울기 시작했다. 포일은 그녀를 달래면서 물었다.

“자아, 내 부탁을 들어주겠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시다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폭발이 일어나 그 둔한 진동으로 포일의 몸이 굳어졌다. 그는 공포에 질려서 외쳤다.

“아아! 또 블루 조운트다! 나는……”

“아니예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블루 조운트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저건 시험소에서 나는 소리에
요. 그들은……”

그녀는 포일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비명을 질렀다. 폭발에 의한 갑작스러운
충동과 생생한 연상이 작용했기 때문에 억제가 풀어졌던 것이다. 핏빛같이 빨간
문신 자국이 피부 밑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아직도 겁먹은 얼굴로 그를 뚫어지
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면서 공포에 질려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곧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린 다음 그 손을 마주잡고 그녀를 위협하는
시늉을 해보였다.

“보였지, 그렇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며 그는 중얼거렸다.

“조금 긴장이 풀렸던 모양이군. 구프르 마르테르로 돌아가 블루 조운트 소리
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혔던 거요. 알겠소? 나는 포일이요. 당신을
파멸시킨 잔인한 놈이지. 언제고 알려 줄 생각이었지만, 좀더 나중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포일이 돌아온 거요. 암전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소.”

그녀는 미친 듯이 머리를 내저으며 그의 팔에서 달아나려고 버둥거렸다. 그
는 냉정하게 그녀의 얼굴을 한 대 후려쳤다. 그녀는 곧 축 늘어졌다. 포일은 그
녀를 일으켜 자기 옷속에 싸서 두 팔로 꼭 끌어안고 의식이 회복되기를 기다렸
다. 그녀의 눈가풀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는 다시 말을 걸었다.

“움직이지마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번 뺨에 해 주겠소. 이번의 것은 더 아
플 거요.”

<<잔인한……짐승>>

“좀 더 다른 방법이 있었소. 당신을 협박할 수도 있었소. 당신 어머니와 동생
들이 칼리스트에 있다는 것, 당신이 적성 외국인과 관계 있다고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 사실로 블랙 리스트에 올랐소. 그렇지? - 그
사실로 우리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중앙 정보부에 연락하면 되는 거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단순한 용의로써 끝날 수 없지요. 첩보부는 열 두 시간 안에 당신
의 몸 속에서 정보를 꺼낼 테니까.”

그녀가 와들와들 떠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소 - 나는 당신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
니까. 사실을 이야기 해 주겠소. 당신 어머니는 내행성연합에 있소 - 내행성연

함에.”

그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지구에 있을지도 모르겠소.”

“무사하신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나를 놓아주세요.”

“아주 냉정해졌군.”

“놓아주세요.”

포일은 그녀를 앉게 했다.

“당신은 나를 파멸로 몰아넣었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이번에도 또 나를 파멸시킬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소. 자아, 들어보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우주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던 일이 있소. 반년 동안 - 죽어서 썩으려고 했지. 그 때 나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었을 우주선이 나타났소. 그런데 그 우주선은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쳤소. 뻔히 죽음을 당하게 된 나를 보고만 있었던 거요. <보거> 호라는 우주선 - <보거 T 1339호>였소. 당신은 뭔가 알고 있는 게 없소?”

“없어요.”

“지스벨라 매퀸 - 내 친구로서 지금은 이미 죽고 없소만 - 은 <보거> 호가 나를 못 본 체 내버리고 가게 된 이유를 조사해 보라고 말한 일이 있소.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하면 누가 그 명령을 내렸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보거> 호에 관한 정보를 돈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지. 어떤 정보라도 돈을 냈소.”

“그것이 우리 어머니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튼 들어보시오. 정보를 돈으로 사는 것은 어려웠소. <보거> 호의 기록은 본즈 앤드 위그의 서류장에서 어디론지 옮겨졌소. 나는 갓은 고생 끝에 세 승무원의 이름을 알아 냈소……. 장교 네 명과 열 두명의 일반 상시(常時) 승무원 가운데 세 사람이요. 그러나 모두 아무 것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전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나는 이것을 찾아냈소.”

포일은 은빛 목걸이로 된 로켓을 주머니에서 꺼내 로빈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보거> 호의 누군가가 이것을 전당포에 맡긴 것이요. 내가 찾아낸 것은 이것뿐이었소.”

로빈은 짧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떨리는 손 끝으로 로켓을 열었다. 그 속에는 그녀와 다른 여자 둘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로켓을 열자 입체사진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마마, 로빈으로부터 안녕…… 마마, 폴리로부터 안녕…… 마마, 웬디로부터 안녕……”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것이예요.”

그녀는 울며 말했다.

“이것은…… 어머니는…… 부탁이에요.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지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글쎄, 잘 모르지만……”

하고 포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짐작은 할 수 있소. 당신 어머니는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했을 거요…… 어찌되었든.”

“그리고 동생들도. 어머니가 동생들에게서 떠날 리 없어요.”

“아마 그들도 함께 있겠지. 나는 <보거> 호가 카리스트에서 피난민을 운반했다고 생각하오. 당신 가족들은 내행성으로 가기 위해 금이나 보석들을 낸 것이요. 그래서 <보거> 호의 승무원 가운데 누군가가 이 로켓을 저당잡혔던 모양이요.”

“그래, 모두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건 모르겠소. 아마 화성이나 금성에 내려졌겠지. 달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팔렸을 가능성도 크오. 그러니까 당신에게 연락을 취할 수 없었던 거요. 그 사람들의 소재는 알지 못하지만, <보거> 호를 조사하면 알 수 있소.”

“정말이지요? 나를 속이는 건 아니겠지요?”

“그 로켓이 거짓말이요? 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나는 그 자들이 나를 보고도 못 본 체 죽게 내버려둔 이유와, 누가 그것을 명령했는지를 알아 내고 싶소. 그 명령을 내린 자가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의 소재를 알고 있을 거요. 당신은 그 자에게서 알아 낼 수 있을 거요. 내가 그 자를 죽이기 전에. 그 자에게는 시간이 충분히 있소 - 죽이는 데 천천

히 시간을 많이 써줄 테니까.”

로빈 웬즈버리는 무서운 듯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를 덮친 격렬한 감정이 또다시 그의 얼굴에 붉은색 홍터를 돌아나게 했다. 몰래 살의를 감추고 접근하는 호랑이 새끼처럼 보였다.

“나는 굉장한 재산을 얻었소……. 어떻게 해서 그것을 손에 넣었나 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요소. 나는 석 달 안에 일을 끝내겠소. 충분히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개연성을 계산할 수 있지. 석 달 이내에는 셀레스의 포마일이 걸리버 포일이라는 것을 알 리가 없소. 90일 - 정월 초하루부터 만우절까지요. 내 동료가 되지 않겠소?”

“당신의 동료?”

그녀는 혐오의 빛을 보이며 소리쳤다.

“당신의 한때로?”

“이 포마일 서커스는 단순한 위장에 지나지 않소. 어릿광대를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리하여 나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하고 배웠소. 준비를 해온 거요.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 뿐이요.”

“어째서지요?”

“나는 내가 조사해야 할 장소를 아직 모르오……. 상류 사회인지 빈민굴인지. 따라서 양쪽 다 준비해야만 하오. 빈민굴이라면 나 혼자서 할 수도 있소. 빈민굴은 잊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상류 사회라면 당신이 필요한 거요. 함께 해 주겠소?”

“너무 심하게 잡지 마세요.”

로빈은 포일이 움켜진 손을 비틀어 뺐다.

“미안하오. <보거>에 대한 생각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냉정을 잃고 말거든. 내가 <보거>와 당신 가족을 찾는 것을 도와 주겠소?”

“나는…… 당신이 싫어요.”

로빈이 뜻밖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경멸하고 있어요. 당신은 썩었어요. 자기 손에 닿는 것은 뭐든지 파멸시켜요. 나는 언제고 당신에게 보복을 해 줄 생각이예요.”

“하지만 정월 초하루부터 만우절까지는 협력하기로 합시다.”

“네, 협력하겠어요.”

제 9 장

설날 그믐날, 셀레스의 조프리 포마일은 상류 사회의 파티에 나타났다. 12시 30분전에 우선 캄벨라 정부에서 주최한 무도회에 참석했다. 이 모임은 해마다 어김없이 행해지는 공식행사로, 눈부시게 호화스러운 옷차림으로 혼잡한 소동을 벌이는 것이었다. 왜냐 하면 이 파티에 참석한 각 재벌들은 일족이 창립한 시대나 상표가 특허를 받은 연대에 유행했던 야회복을 입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르스 재벌(전신 전화)은 19세기의 프록코트를 입고 있었고, 부인들은 빅토리아왕조시대의 후프 스커트를 입었다. 스코다 재벌(총포화약)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 18세기 끝 무렵의 섭정(攝政) 타이츠와 클리노리드를 입었다. 피네문데 재벌(로켓, 원자로)은 1920년대 즈음의 텍시도, 그 부인들은 고풍스러운 가운의 데콜레(가슴과 어깨를 드러낸 옷) 차림으로 두려운 빛도 없이 다리며 팔이며 목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셀레스의 포마일은 매우 모던한 검은색 야회복을 입고 나타났다. 시얼리스 재벌(셀레스)의 상표인 순백색 아침해만이 어깨에 떠올라 있었다. 로빈 웬즈버리가 눈부신 순백의 가운을 입고 동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가는 허리는 고래뼈로 죄어져 있었다. 가운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날씬하고 쪽 곤은 등과 우아한 걸음걸이를 멋지게 인상지어 주었다.

검정과 흰색의 대조가 너무도 사람의 눈을 끌었으므로 귀족명감이나 특허 연감에서 그 아침해 상표를 조사해 보도록 하인들이 심부름보내졌다. 하인들은 시얼리스, 파로스, 베스터의 광물자원개발을 위해 2250년에 설립된 셀레스 광업의 등록 상표라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결국 그 자원은 나타나지 않아 셀레스 재벌은 쇠퇴의 길을 더듬었으나, 소멸되지는 않았다. 분명히 그 재벌이 또다시 부흥된 모양이다.

“포마일? 어릿광대라고?”

“그렇다네, 포마일 서커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의 소문뿐이라네.”

“저 사람이 그 장본인인가?”

“그렇지는 않겠지. 점잖은 사람 같은데.”

상류 사회 사람들은 신기한 듯이, 그러나 빈틈없이 포마일을 지켜보았다.

“자아, 본거지에 들어왔소.”

포일은 로빈에게 낮게 중얼거렸다.

<<진정하세요. 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접근하고 싶어할 뿐이에요. 재미있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지요. 굳어버리지 말고, 마음을 놓아요.>>

“당신이 그 서커스에 계신 무서운 포마일 씨인가요?”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미소를 지어 보이세요.>>

“그렇습니다, 부인. 빗하시면 나를 만져보십시오.”

“어머나, 당신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당신은 자신의 악취미가 자랑인가요?”

<<요즘에는 아무튼 뭐든지 취미를 갖는 일이 중요하지요.>>

“요즘에는 아무튼 뭐든지 취미를 갖는 일이 중요하지요. 나는 자신의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은 좋은 모양이지만, 점잖지 못하시군요.”

“점잖지는 못하지만, 지루한 사람은 아닙니다.”

“무섭지만 유쾌한 분이군요. 어째서 당신은 춤을 추지 않으시나요?”

“아름다운 부인 곁에 있으면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어서요, 부인.”

“어머나, 당신 취하셨군요. 나는 슈라프넬 부인이예요. 언제쯤 취기가 깨어날까요?”

“부인의 매력에 감탄하고 있으니까 도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슈라프넬 부인.”

“어머나, 말씀도 아주 잘하시군요. 찰즈, 찰즈, 이리로 와서 포마일 씨를 좀 도와드리세요. 난 이분을 괴롭히고 있는 참이에요.”

<<저 사나이가 RCA 빅터의 빅터예요.>>

“포마일씨지요? 처음 뵈겠습니다. 당신은 수행원에게 돈을 얼마나 주십니까?”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4만입니다, 빅터 씨.”

“1주일예요?”

“아니, 하루에 4만입니다.”

“하루에! 대체 당신은 무엇 때문에 그런 돈을 쓰십니까?”

<<진실을 말하세요.>>

“악명을 높이기 위해서지요.”

“정말이요?”

“보세요, 이이는 나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찰즈?”

“대단히 호기롭구먼. 클라우스, 잠깐만 와보게. 이 뻔뻔스러운 청년이 하루에 4만이나 쓴다는군 - 악명을 높이기 위해서.”

<<스코다의 스코다예요.>>

“안녕하시오, 포마일씨. 나는 당신 가문의 이름이 부활된 데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소. 당신은 아마 셀레스 회사 창립위원의 방계 자손이겠지요?”

<<진실을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코다 씨, 이름을 샀습니다. 회사째 몽땅 사버렸답니다. 나는 벼락부자입니다.”

<<좋아요, 언제나 대담하게 행동하세요.>>

“아아, 그랬군요. 포마일씨. 당신은 아주 솔직하군요.”

“그러니까 뻔뻔한 젊은이라고 말하지 않던가? 꽤 기본 좋은 젊은이군. 이 부근에도 신흥재벌이 많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하려들지는 않는다고. 엘리자베드, 셀레스의 포마일 씨를 소개하지.”

“포마일 씨, 나는 당신께 소개해 달라고 싶어 혼났어요.”

<<엘리자베드 시트로엔 부인이에요.>>

“당신이 포터를 칼리지를 갖고 여행하신다는 게 정말인가요?”

<<톡 털어놓고 말하세요.>>

“포터블 하이스쿨입니다, 시트로엔 부인.”

“그건 대체 어째선가요, 포마일 씨?”

“아아, 요즘에는 돈을 쓰기도 아주 어렵더군요. 가장 바보 같은 구실을 찾아야만 한답니다. 누구든 새로운 사치품이라도 발명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포터블 인벤터를 데리고 다니시면 좋을 텐데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지, 로빈? 그러나 이 사나이는 무한 운동에 정신을 빼겨 새로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서 탈이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자고 함께 있어줄 방탕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젊은 자제분을 나에게 맡겨 주실 분은 안 계십니까?”

“무한 운동의 낭비가만으로는 불충분한 모양이지요?”

“네, 놀라운 금액을 낭비하고 있습니다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사치의 요점은 어릿광대처럼 행동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무한 운동의 어디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열역학 엔트로피(물체의 열역학적 상태를 나타내는 양) 속에 사

치가 있습니까? 하찮은 일에 대해서라면 몇백만이라도 아깝지 않습니다만, 열역학을 위해서라면 단 1센트도 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슬로건입니다.”

모두들 웃었다. 포마일의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 모두들 즐기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장난감이었다.

이윽고 정각 12시 - 큰 시계가 새해를 알리자 모두들 새로운 해가 시작됨과 동시에 심야의 세계일주 조운트를 준비했다.

“우리와 함께 자바로 가요, 포마일 씨. 레저스 세펠드가 기막힌 범블 파티를 열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콩이 좋아요, 포마일 씨.”

“동경이 좋습니다, 포마일 씨. 홍콩은 비가 오고 있거든요. 동경으로 갑시다. 당신 서커스를 데리고 말시오.”

“모처럼의 말씀이지만, 안되겠습니다. 나는 상해로 간답니다. 소비에트 교회지요. 두 시간 뒤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갑시다, 로빈.”

<<조운트에선 안 돼요. 버릇없어 보이니까요. 걸어서 나가세요. 천천히 조금 지친 듯한 태도를 지어 보이면 멋있어요. 지사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검찰청장에게도…… 부인들에게도…… 자아, 이제 됐어요. 하인에게 팁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바보! 그 사람은 부지사예요. 됐어요,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인정받았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지요?>>

“이제부터 캄벨라에 온 목적에 착수합니다.”

“무도회에 왔잖아요?”

“물론 무도회에 참석했지만, 목적의 사나이를 알아 내려고 온 거요.”

“누구지요?”

“벤 포레스트. <보거> 호의 승무원이었소. 나를 죽도록 못 본 체 내버려두라고 명령한 자를 알아 낼 단서를 세 가지 잡았소. 세 남자가 그것이요. 안젤로 포기라는 이름의 로마인 요리사, 세르게이 오렐이라는 이름의 상해 사람인 돌팔이 의사, 그리고 바로 이 사나이 포레스트. 양면 작전 - 사교계와 수색이요. 알겠소?”

“알겠어요.”

“포레스트가 말을 할 때까지의 시간을 두 시간으로 잡읍시다. 오시이 통조림 공장이 있는 곳을 아요? 그 거리에는 이 회사만이 있소.”

“난 당신의 <보거> 복수를 응원할 생각은 없어요. 나는 가족을 찾고 있어요.”

“이것은 양면 작전이라구…… 모든 점에서!”

너무나도 거침없이 야만스러운 말을 내뱉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가 질려서 곧 조운트했다. 포일이 저비스 비치의 포마일 서커스 전용 텐트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여행복으로 갈아입으려 하고 있었다. 포일은 그녀를 보았다. 그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강제로 그녀를 자기 텐트에서 살도록 했으나, 두 번 다시 그녀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로빈은 그의 눈길을 알아차리고 옷 갈아 입는 것을 그만두고 기다렸다.

“그런 일은 이미 완전히 끝났소.”

하고 그는 머리를 내저었다.

“어머나, 재미있군요. 강간은 이제 단념했나요?”

“어서 옷을 입어요.”

그는 자신을 억제하면서 말했다.

“캠프를 상해로 옮길 때까지 앞으로 두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모두들에게 말해 주시오.”

포일과 로빈이 오시이 통조림 공장이 있는 시의 정면 사무실에 도착한 것은 12시 39분이었다. 신분증명 뱃지를 신청하자 시장이 직접 인사를 하러 나왔다.

시장은 노래하듯 말했다.

“새해를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태워드리는 것은 영광입니다. 내가 직접 조종하지요.”

그는 두 사람을 푸른색 헬리콥터에 태우고 육지를 떠났다.

“오늘 저녁에는 방문객이 아주 많습니다. 이곳은 아주 우호적인 도시니까요. 세계 제일의 우호적인 회사시(會社市)랍니다.”

헬리콥터는 거대한 건물 주위를 빙빙 돌았다.

“저것은 이 시의 얼음 궁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수영장. 커다란 돌이 스키 점프대입니다. 일년 내내 눈이 오거든요. ……저 유리 지붕 밑은 열대 식물 원입니다. 종려나무, 앵무새, 난초, 과일이 있지요. 저기가 시장이고…… 저것은 극장…… 방송국도 있습니다. 입체오원(五元) 방송이지요. 축구 경기장을 보아 주십시오. 우리 시 출신의 두 청년이 올해 전미국 팀에 뽑혔답니다.”

“좀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포일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일부러 즐거움을 찾아 온 세계를 조운트하고 다닐 필요가 없지요. 오시이 통조림 공장이 그대로 세계니까

요. 우리 시는 우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소우주입니다.”

“부채자 문제가 있겠군요.”

시장은 자랑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다.

“거리를 보십시오. 자전거가 보이지요? 오토바이와 자동차도 보이지요? 우리는 지구의 어떤 도시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아주 사치스러운 수송기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 주택가를 보십시오, 별장입니다. 시민들은 부유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복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러나 내내 머물러 있지는 않겠지요?”

“무슨 뜻입니까? 아아, 물론 우리로서는…….”

“사실을 말해 주십시오. 우리는 투자할 생각으로 온 게 아니니까요. 시민을 여기에 붙잡아둘 수 있소?”

“반년 이상은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시장이 볼멘소리로 말했다.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온갖 것을 다 주지만, 그들은 방랑욕을 안고 조운트하지요. 부채주의 덕분에 생산이 12퍼센트나 줄었습니다. 우리는 순조롭게 고용원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라고 하셨지요? 여깁니다.”

시장은 1에이커쯤 되는 정원 속의 스위스식 오두막 앞에 두 사람을 내려놓고 뭔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이룩했다. 포일과 로빈은 그 집 입구로 가서 누군가가 맞으러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별안간 문이 빨개지더니 두개골과 열십자로 포겐 뼈가 그 위에 나타났다. 강통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말했다.

<<주의. 이 집은 스웨덴 치사(致死) 경비회사의 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R 77-23. 법적통보 완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포일이 중얼거렸다.

“오늘은 설날 그믐인데……. <우호적>인 도시라니, 기가 차는군. 뒤로 돌아가봅시다, 로빈.”

두 사람이 오두막을 돌아가자 두개골과 십자의 뼈가 깜박깜박 빛나며 강통 속의 경고 말이 뒤쫓아왔다. 한쪽에 밝은 조명이 켜진 지하실 창문 윗부분이 보이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

“지하실 크리스찬이로군!”

포일이 소리쳤다.

그들은 창문으로 들여다보았다. 갖가지 신앙을 가진 예배자들이 30명쯤 섞여 앉아 매우 불법적인 의식으로 새해를 축하하고 있었다. 24세기는 아직 종교를 철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종파라는 것은 없어졌다.

“과연 이 집은 텃이군.”

포일이 말했다.

“저런 고약한 짓을 하고 있으니. 저기를 보오. 카톨릭 사제도 있고 유대교 사교도 있소. 저들 뒤에 있는 것이 십자가요.”

“당신은 예수니 그리스도니 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지금은 그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겨를이 없소.”

포일이 조금하게 말했다.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아, 갑시다!”

집 뒤는 단단한 유리벽, 빛나는 창문으로 된 거실이었으며 아무도 없었다.

“엎드려!”

포일이 명령했다.

“내가 들어갈 테니까.”

로빈은 대리석 뜰에 엎드렸다. 포일은 몸의 장치를 이용하여 번개같은 가속력으로 유리벽에 구멍을 뚫었다. 낮고 둔한 진동음이 아득히 울려왔다. 총소리였다. 뭔가가 쏠살같이 그를 향해 날아왔다. 포일은 바닥에 엎드려 귀를 모으고 저음으로부터 초음에 이르기까지 찾다가 텃의 제어 장치에서 나오는 진동음을 포착했다. 그는 조용히 머리를 돌려 위치를 확인하고 총알이 날아온 길을 더듬어 그 장치를 파괴했다. 이어서 속도를 줄였다.

“자아, 빨리 들어오오, 로빈.”

로빈은 떨면서 그와 함께 들어갔다. 지하실의 그리스도 교도들은 이 집 안 어디엔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기다리오.”

포일이 내던지듯 말했다.

그는 가속했다. 온 집 안을 몽롱한 상태로 만들고, 지하실의 그리스도 교도들은 공포로 얼어붙게 만든 뒤 그 속을 누비고 다녔다. 그는 로빈에게로 돌아와서 다시 감속했다. 그리고 보고했다.

“저 속에 포레스트는 없었소. 2층에 있을지도 모르지. 저들이 정면으로 나가
는 동안 뒤로 나갑시다. 자아, 빨리!”

두 사람은 뒤층계를 뛰어올라갔다. 층계참에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걸음을
멈추었다. 포일이 중얼거릿듯 말했다.

“빨리 서둘러야하오. 총소리와 의식의 소란으로 모두 왁자지껄 떠들면서 조
운트하여 돌아가고 있을테니까.”

그는 말을 끊었다. 층계 위의 문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포일
은 뉘새를 맡았다. 그는 소리쳤다.

“포레스트 같은데! 이게 무슨 꼴이람! 지하실에서는 종교, 2층에서는 마약이
라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주겠소. 여기요. 마약으로 흥포해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는
데…….”

포일은 디젤 트랙터처럼 문을 쳐부수고 들어갔다. 큼직하고 살풍경한 방이었
다. 굵은 로프가 천장으로부터 늘어져 있었다. 알몸의 사나이가 한 사람 그 로
프에 묶여 대롱대롱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사나이는 구불구불 몸부림치며 로프
아래로 미끄러졌다가는 다시 올라가곤 했다. 그리고 우는 듯한 목소리를 내며
곰팡내를 풍기고 있었다.

“뱀사나이요.”

포일이 말했다.

“실패했는데. 걸으로 다가가지 마오. 만지면 뼈가 부러지고 마니까.”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포레스트, 어째서 총을 쏘았나? 새해를 축하해, 포레스트! 축하는 어디서 하
고 있나?”

“저들이 올라오는군.”

포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나이를 여기서 조운트시켜 밖으로 내보내야 해.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로빈. 어서!”

포일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로프를 끊고 버둥거리는 사나이를 어깨에 둘러
멘 채 조운트했다. 로빈은 한 발 먼저 아무도 없는 바닷가에 와 있었다. 포일은
얼룩뱀처럼 목이며 어깨에 구불구불 감겨서 무서운 힘으로 죄고 있는 사나이와
함께 도착했다. 빨간 흉터가 포일의 얼굴에 나타났다.

“신밧드요!”

그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말했다.

“바다의 노인이오! 오른쪽 주머니 세 번째 밑에 주사 앰풀이 두 개 있소. 어디든 좋으니 이 녀석에게 빨리 주사해 주오!”

목소리가 멎었다.

로빈은 주머니 속에서 유리알 꾸러미를 찾아냈다. 그 유리알에는 각각 끝에 별의 침 같은 것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그 침을 뱀사나이의 목에 찔렀다. 사나이는 곧 쓰러졌다. 포일은 어깨에서 뱀사나이를 떨쳐버리고 모래바닥에서 일어났다.

“아아, 살았다!”

그는 목을 쓰다듬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냉정한 태도를 되찾으면서 말했다.

“억제해야지.”

그의 얼굴에서 붉은빛 문신이 사라졌다.

“그 무서운 것은 대체 뭐지요?”

로빈이 물었다.

“정신병자에게 주는 치료마약이오. 위법이지만 하는 수 없지. 경련으로 좀 침착해져서 원시인으로 돌아가는 거요. 특별한 종류의 동물과 합치되는 것이 오—고릴라, 곰, 황소, 늑대…… 마약을 써서 자기가 숭배하는 동물로 바뀌는 거지. 포레스트가 뱀이라니, 기묘하군. 확실히 뱀으로 보이기는 했지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잘 아세요?”

“지금까지 공부해 왔다고 말했잖소? ……<보거>에게 보복해 줄 준비를 했었다고. 이것도 공부한 것 가운데 하나요. 당신이 무서워하지만 않는다면 이 밖에도 내가 공부한 것을 보여주지, 이 자의 경련을 없애주는 방법을.”

포일은 전투복의 또 다른 주머니를 열고 포레스트의 의식을 회복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로빈은 한참 보고 있더니 갑자기 무서운 비명을 지르며 바닷가로 달려갔다. 그녀는 멍하니 그곳에 선 채 파도와 별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울음소리와 경련이 끝나자, 포일이 그녀를 향해 말을 걸었다.

“이제 와도 괜찮소, 로빈.”

로빈이 돌아와보니 마약에서 깨어난 사나이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나른한 눈으로 포일을 보고 있었다.

“자네는 포레스트자?”

“당신은 누구요?”

“자네는 벤 포레스트, 뛰어난 우주인일세. 전에 플레스타인의 <보거> 호에 탔었지.”

포레스트는 공포의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자네는 2436년 9월 15일에 <보거> 호를 타고 있었어.”

사나이는 소리내어 울면서 머리를 내저었다.

“9월 16일에는 자네는 난파 우주선을 보고도 못 본 체 지나가 버렸어. 행성 대 가까이에서. 자매선 <노매드> 호의 난파를 보고도…… <노매드> 호는 조난 신호를 냈지. 그런데 <보거> 호는 그냥 지나갔어. <노매드> 호가 우주를 떠돌다 죽어버리도록 <보거>가 못 본 체 한 이유가 뭐지?

“아아, 나는 몰라! 그만둬!”

“본즈 앤드 위그의 서류에서 기록이 모두 없어져 버렸어. 나보다 먼저 손에 넣은 자가 있었던 말이야! 누구지? <보거>에 탔던 자가 누구지? 자네와 함께 탔던 게 누구야? 나는 장교와 승무원의 이름을 알고 싶어. 선장이 누구였지?”

“난 몰라!”

포레스트가 비명을 질렀다.

“아무 것도 몰라!”

포일은 히스테리 상태에 빠진 사나이의 얼굴 앞에 지폐몽치를 쑥 내밀어 보았다.

“말해 주면 이 돈을 주지. 5만이야. 일생 동안 뭐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나를 죽이라고 명령한 게 누구지? 대답해, 포레스트. 누구였지?”

사나이는 포일의 손에 있는 지폐몽치를 뺨 뿌리치고 일어서더니 느닷없이 바닷가로 뛰었다. 포일은 물가에서 그를 덮쳤다. 포레스트의 머리가 앞으로 고꾸라지며 얼굴을 물 속에 처박았다. 포일은 힘껏 눌렀다.

“<보거> 호의 지휘를 맡았던 자가 누구지? 포레스트, 누가 명령했어?”

“물에 빠져 죽겠어요!”

로빈이 소리쳤다.

“조금 괴롭혀줄 뿐이오. 물은 진공보다 편해. 나는 반년이나 진공 속에서 고생했지. 누가 명령했나, 포레스트?”

사나이는 부글부글 거품을 뿜으며 숨이 턱에 막혔다. 포일은 그의 머리를 움켜쥐고 물에서 들어올렸다.

“뭐야, 충성스러운 체 하는 건가? 미쳤어? 무서워서 그러냐? 너 같은 녀석에

게는 5천쯤으로도 충분해. 그런데도 5만을 주겠다지 않나? 말해 주면 5만이야. 바보 같은 자식! 그렇지 않으면 천천히 괴롭히면서 죽여줄 테다!”

문신이 포일의 얼굴에 나타났다. 포레스트의 머리를 다시 물 속에 집어넣고 몸부림치는 사나이를 놀렸다. 로빈은 그를 말리려고 했다.

“죽일 생각인가요!”

포일은 무서운 얼굴을 로빈에게로 돌렸다.

“손 치워! 함께 탔던 자가 누구지, 포레스트? 누가 명령했는지 말해, 어서!”

포레스트는 머리를 비틀어 수면으로 올라왔다.

“<보거> 호에는 열 두 명이 타고 있었어.”

사나이는 비명을 질렀다.

“살려줘! 거기에는 나하고 캠프—”

그는 발작적인 경련을 일으키더니 축 늘어졌다. 포일은 그의 몸을 물 속에서 끌어냈다.

“어서 말해, 너하고 누구? 캠프? 그밖에 또 누가 있었는지 말해!…… 아니, 죽었군.”

그는 신음했다.

“어머나!”

“모처럼 얻은 실마리가 풀리려다 말았군. 간신히 입을 열었는데. 쳇, 무슨 실수람!”

포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무쇠를 내뿔듯이 다시 토했다. 문신이 얼굴에서 사라졌다. 그는 시계를 동경 1백 20도에 맞추었다.

“상해는 지금 거의 한밤중일 거요. 자아, 갑시다. <보거> 호에 탔던 의사 세르게이 오렐로부터 알아낼 수 있을 지도 모르오. 그런 무서운 얼굴 하지 마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니까. 갑시다. 조운트!”

로빈은 숨을 죽였다. 그녀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으로 흘끗 눈을 돌리는 것을 그는 보았다. 포일은 뒤돌아보았다. 불길 같은 사람 그림자가 바닷가에 부영게 떠올랐다. 불길에 휩싸인 옷을 입은 거대한 사나이로, 얼굴에는 무시무시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 그 자신의 모습이었다. 포일이 소리쳤다.

“제기랄!”

그는 자신의 타고르는 허상을 향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러자 그 모습이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파랗게 질려서 떨고 있는 로빈을 돌아보았다.

“보았소?”

“보았어요!”

“뒤였소?”

“당신이었어요.”

그는 어물어물했다. 힘이 빠지고 분노에 찬 집념이 사그라졌다.

“하지만…… 환상이었나, 환각이었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는 보았어요.”

“어이가 없군! 자기 자신을 눈앞에 보다니! 그것도 정면으로 말이야…… 옷이 타고 있었어. 당신도 보았던 말이오? 대체 뭐였소?”

“걸리버 포일이었어요.”

로빈이 대답했다.

“지옥의 겁화에 타고 있었어요.”

“자아, 그만해 뒤!”

포일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건 지옥에 떨어진 나였어.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해내고 말겠소. 내가 겁화에 타는 거라면 <보거>도 함께 태워줄 테다!”

그는 두 손을 탁 마주쳤다. 힘과 목적이 되살아났다.

“끝까지 해낼 테다! 다음은 상해 - 어서 조운트해!”

제 10 장

상해의 가장 무도회에서 셀레스의 포마일은 알브레히트 뒤러의 <죽음과 소녀>의 <죽음>으로 분장하고, 알몸에 투명한 베일을 걸친 더없이 아름다운 금발의 여인과 함께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피네본데 집안 사람들이 입은 1920년대의 가운을 지나 웬스버리가 두 사람에게 부축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빛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그 여인이 훌륭한 인형이라는 것을 밝히자 곧 그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한 의견이 나왔다. 상류 사회 사람들은 이러한 속임수를 아주 재미있어했다. 남의 눈앞에 드러내는 것이 용납될 수 없는 여성의 알몸도 인형일 경우에는 단순히 섹스 없는 장난감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이었다.

한밤중에 되자 포마일은 그 인형을 무도회에 참석한 신사들에게 경매하기로 했다.

“돈은 자선 사업에 기부할 거요, 포마일 씨?”

“천만요! 나의 슬로건을 아시겠지요? 열역학에는 1센트도 내지 않는다는 것. 자아, 이 호화롭고 사랑스러운 인형을 몇 크레디트로 사시겠습니까? 백입니까, 여러분? 나무랄 데 없는 미인으로서 어떤 일이라도 합니다. 2백입니까? 고맙습니다. 3백 50? 고맙습니다. 그럼, 5백이면 어떻겠습니까? 8백이라고요? 이거 참, 고맙습니다. 포마일 서커스의 천재 발명가가 만든 이 기막힌 인형에 좀 더 비싼 값을 부를 분은 안 계십니까? 이 인형은 걷기도 하고 이야기도 합니다. 뭐든지 합니다. 가장 비싼 값을 불러 낙찰된 분의 명령에 따르도록 조절되어 있습니다. 9백입니까? 좀 더 부르실 분은? 여러분, 이제 없습니까? 없군요. 네, 낙찰되었습니다. 에르 경에게 9백 크레디트로.”

홀에 떠나갈 듯한 박수와 경탄의 소리가 힘차게 울렸다.

“저 인형의 가치는 9만도 더 나갈 거예요. 운 좋게도 그런 비싼 것을 살 수 있었군요.”

모두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돈을 인형에게 주시겠습니까, 에르 경? 그녀는 훌륭히 답례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머지않아 로마에서 다시 뵈올 때까지…… 한밤중에 보르게제 궁전에서 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에르 경 자신도 다른 청년들도 놀란 일이지만, 그 인형은 정말 살아 있는 인

간으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다. 포마일이 이중으로 사람들을 속여 장난한 것은 진정 즐거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 무렵 포일과 로빈 웬즈버리는 <두뇌 능력 확대 전문, 세르게이 오렐 박사>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로 들어갔다. 그 간판에는 <당신의 조운트 능력을 갑절로 늘려드리겠습니다. 실패하면 비용을 갑절로 하여 돌려드립니다>라고 써어 있었다.

대합실에는 더운침질을 하고, 흡구(피부 표면에 대고 세계 눌러 음압으로 하여 혈액이나 고름을 빨아 내는 기구>를 대고 발삼(반유동 물질로 표본의 봉인 등에 씌)을 바르고, 머리를 전기 분해하여 용적을 배로 늘리는 방법을 그린 무서운 뇌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오렐 박사는 또 해열 설사약을 써서 기억력을 배로 늘리고, 강장제로 도덕심을 증대하고, 괴로운 영혼의 모든 고투를 오렐의 유착제로 조절한다는 것이었다.

대합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포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문을 열어 보았다.

“아편굴이군. 환자를 상대로 이런 장사를 하는 게 괜찮은 것일까?”

그 병실은 중환자들, 절망적인 정신 장애자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비합법적으로 얻은 의사 홍역, 의사 감기, 의사 말라리아로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그다지 괴로워하지는 않았다. 풀을 뺏뺏이 먹인 흰 가운 차림인 간호원들의 열성적인 간호를 받으며 마음껏 병과 간호를 즐기고 있는 듯 했다.

“저자들을 보오.”

포일이 멸시하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오, 끔찍해! 종교 중독자보다 더 더러운 자들이 있다면 바로 저런 병자요!”

“잘 오셨습니다.”

뒤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포일은 문을 닫고 뒤돌아보았다. 세르게이 오렐 박사가 가볍게 인사했다. 이 선량해 보이는 의사는 발랄하고 생기 있는 태도로, 옛스러운 흰 모자에 흰 옷을 입고 의사의 표시인 외과용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 실은 의사도 아무 것도 아닌 엉터리인 주제에. 작은 키에 가무잡잡한 피부, 올리브 색 눈, 이름만 들어도 러시아 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조운트 시대에 들어선 지 1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 세계의 대다수 사람들이 혼교한 탓으로 민족이니 인종의 타입은 소멸되어 가고 있었다.

“선달 그믐날에도 일을 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하고 포일이 말했다.

“우리 러시아 사람의 정월은 앞으로 2주일이 지나야만 됩니다.”

오렐 박사가 대답했다.

“자아, 이리로 오시지요.”

그는 문을 가리키고 둔한 소리를 내며 사라졌다. 그 문은 길다란 층계로 통해 있었다. 포일과 로빈이 층계를 오르기 시작하자 오렐 박사가 층계 위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리로 오십시오. 아아,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다시 모습을 감추었다가 두 사람의 등 뒤에 나타났다.

“문을 닫는 걸 잊으셨군요.”

그는 문을 닫고 조운트했다.

“이리로 오십시오.”

“허풍을 떨고 있군.”

포일이 중얼거렸다.

“조운트 능력을 갑절로 해 준다고 했었지? 아무튼 꽤 멋진 솜씨야. 나도 좀 더 민첩하게 움직여야겠는걸.”

그들은 진찰실로 들어갔다. 유리로 된 방이었다. 벽에는 어마어마한 구식 의료 기구들 -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충격 요법을 쓸 때 쓰는 전기의자, 정신병 환자의 타입을 설정하는 KG 분석기, 납아빠진 현미경이며, 전자 현미경 등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다.

돌팔이 의사는 책상을 향해 앉아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는 조운트해서 문을 닫은 다음 다시 조운트하여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가볍게 인사하고서 의자를 권한 다음, 로빈의 뒤로 조운트하여 의자를 잡아주더니 어느새 창문으로 조운트하여 블라인드를 조절하고, 조명 스위치로 조운트하여 불빛을 조절하고,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갔다.

그는 빙그레 미소지었다.

“1년 전의 나는 전혀 조운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비결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위생 세척제로…….”

포일은 이 신경의 맨 앞 끝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혀로 눌렀다. 그는 가속했다. 천천히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인물에게로 다가가서 그 이마 양옆을 때렸다. 뇌의 앞부분에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여, 조운트 중추를 위축시킨 것이다. 그는 돌팔이 의사를 일으켜 세워 전기 의자에 꽂꽂 묶었다. 이 정도의 일을 하는데 약 5초 걸렸다. 로빈 웬즈버리로서는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몽롱한

행동이였다.

포일은 다시 감속했다. 의사는 눈을 뜨고 머리가 몹시 어지러웠으나, 자신이 놓인 상황을 깨닫고 노여움과 혼란을 느낌과 동시에 크게 놀랐다.

포일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보거> 호의 선의 세르게이 오렐이오. 2436년 9월 16일 <보거> 호에 타고 있었소.”

돌팔이 의사의 노여움과 혼란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9월 16일, 당신은 난파된 우주선 곁을 통과했소. 행성대 부근에서 만난 <노매드> 호는 구조를 청하여 신호를 보냈으나 <보거> 호는 그대로 지나쳐가고 말았소. 떠돌아다니다 그대로 죽도록 - 죽으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 본 채한 것이오. 왜 그랬소?”

오렐은 눈을 디굴거렸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누가 못 본 체 하라고 명령했지? 나를 죽게 내버려두도록 한 것이 누구였지?”

오렐은 빠른 말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껓이기 시작했다.

“<보거> 호에 탔던 자들을 말해! 누가 당신과 함께 타고 있었지? 지휘를 한 자가 누군지 대답해봐!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포일은 조용한 잔혹성으로 계속 몰아붙였다.

“돈을 주지.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입을 열게 하겠다. 나를 죽게 내버려둔 이유가 뭐지? 누가 나를 내버려두라고 명령했지?”

오렐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아니,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말할 테니까.”

그는 힘이 빠져 폭 쓰러졌다.

포일은 얼른 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죽어버렸군. 마침 말하려던 참이었는데. 포레스트와 똑같은.”

“죽었어요.”

“아니야, 나는 전혀 손대지 않았소. 자살한 거요.”

포일은 멍하니 말했다.

“당신은 미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 나는 즐기고 있소. 둘 다 내가 죽인 게 아니오. 그들 자신이 자기를 죽도록 해놓은 거요.”

“참 어이없는 이야기도 다 있군요!”

“이들은 동정 저지제를 마셨소. 당신도 그 약에 대해 알고 있겠지? 첩보부가 스파이들을 위해 쓰고 있소. 만일 지금 자기 측에 불리한 정보를 이야기하려 한다고 합시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호흡과 심장의 고동을 지배하는 공명 신경 계통과 연결되오. 그리하여 그가 정보를 폭로하려고 하기가 무섭게 저지제가 내려와 심장과 폐를 정지시켜 본인은 죽고 비밀은 유지되는 거요. 스파이는 고문을 피하기 위해 자살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소 - 자동적으로 죽으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지.”

“하지만 어째서……?”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소? <보거>는 이렇게까지 주의를 기울여 굉장한 일을 했을 게 틀림없소. 그러나 우리도 곤란하게 되었는데. 이제 남은 마지막 단서는 로마의 요리사 안젤로 포기 뿐이오. <보거>의 요리 부주임이었소. 어떻게 해야 그에게 비밀을 알아 낼까…… 만일…….”

문득 그가 입을 다물었다.

그 허상이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 아무 말도 없이 침묵한 불길한 얼굴이 피처럼 붉게 번쩍이며 옷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포일은 기겁을 해서 몸을 움츠렸다. 자기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누구냐? 너는 무엇을…….”

허상이 스르르 없어졌다.

포일은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적시면서 로빈 쪽으로 돌아섰다.

“당신도 보았소?”

그녀의 표정이 대답하고 있었다.

“정말 현실의 것이었소?”

그녀는 허상이 나타났던 세르게이 오렐의 책상을 가리켰다. 책상 위의 서류가 활활 타고 있었다. 포일은 여전히 놀라고 낭패를 느끼면서 비틀비틀 뒤로 물러났다. 한 손으로 얼굴의 땀을 닦았다. 땀으로 축축히 젖어 있었던 것이다.

로빈은 책상으로 달려가 불길을 두들겨 끄려고 했다. 손이 닿는 대로 서류며 편지다발을 집어들고 필사적으로 두들겼다. 포일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끝 수가 없어요.”

그녀는 어깨로 가쁜 숨을 쉬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포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운을 모아 골똘히 생각에 잠긴 것처럼 일어났다.

“로마로!”

그는 중얼거리듯 뇌까렸다.

“로마로 조운트하는 거요. 가보면 설명을 찾을 수 있겠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 내고 말 테다! 그때까지는 단념하지 않아. 로마로! 갑시다, 로빈. 조운트!”

중세 이래 스페인 층계 거리는 로마의 퇴폐 중심지였다. 스페인 광장은 피아자 디 스파냐에서 빌라 보르게제의 정원에 이르기까지 넓고 긴 한 구획을 이루며 온갖 악이 떼지어 모여 있었다. 전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곳에는 창녀들의 집이 늘어서 있어 창녀, 동성애의 남자, 동성애의 여자, 변질자들이 우글거렸다. 건방지고 뻔뻔한 태도로 이따금 지나가는 선량한 사람을 놀리곤 했다.

이 구역은 20세기의 원자 전쟁으로 파괴되었다. 이윽고 재건되었으나, 21세기의 세계 부흥 전쟁 때 또다시 파괴되었다. 그리고 또 재건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폭발에도 능히 견디는 수정으로 덮여 층계는 단이 딸린 관람석이 되었다. 이 관람석의 둥근 뚜껑이, 키츠가 살았다고 전해지는 집 안 죽음의 방이 보이지 않도록 가로막고 있었다. 이미 좁은 창문으로 키츠의 방을 들여다보는 관광객도 없었으며, 늙은 시인의 눈에 비친 마지막 광경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다. 현재의 관광객이 보는 것은 스페인 층계 거리의 어둡침침한 둥근 지붕으로, 그 밑에는 퇴폐로 일그러진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

층계의 관람석은 밤이 되면 조명이 번쩍이고, 올해 설달 그믐밤에는 더욱 혼잡하게 붐볐다. 천 년 동안 로마 시는 언제나 새해를 폭음 - 폭죽, 로켓, 어뢰, 총격, 병, 구두, 헌 남비 등의 소리 - 으로 맞는 습관이 이어져 왔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한밤중에 맨 위층 창문에서 던지는 잡동사니를 여러 달씩 걸려 모으는 습관이 있었다. 포일과 로빈 웰즈버리가 빌라 보르게제에 내려왔을 때, 불꽃의 폭음과 관람석 옥상에서 잡동사니를 두들기는 소리에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두 사람은 이번에도 가장을 하고 있었다. 포일은 선명한 진홍색과 검정색이 섞인 타이즈에 체자레 보르지아의 더블릿을 입고 있었다. 로빈은 은을 사방에 뿌려 박은 루크레치아 보르지아(1480- 1519. 권모술수를 쓰는 오라버니를 위해 여러 번 정략 결혼을 강요당했음) 부인의 가운을 입고 있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그로테스크한 빌로도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다. 이 두 사람의 르네상스 식 옷차림과 주위 사람들의 모던한 옷차림이 크게 대조를 이루자 조소와 야유가 튀

어나왔다.

이 거리에서 흔히 보는 전뇌 상실자 - 다시 말해서 뇌의 4분의 1이 절개 수술로 태워진 가없는 상습 범죄자들까지도 심한 방심 상태에서 깨어나 두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두 사람이 관람석을 내려올 때 군중들이 그들 주위로 몰려와 떠들어대고 있었다.

“포기—.”

포일이 조용히 불렀다.

“안젤로 포기 있는가?”

창녀의 집 여주인이 상스러운 말로 고함을 질렀다.

“포기, 안젤로 포기, 어디에 있나?”

포일은 태연했다.

“밤에는 이 거리에 있다고 들었는데. 안젤로 포기!”

창녀 하나가 음란한 욕을 퍼부었다.

“안젤로 포기는 어디 있나? 그를 만나게 해 주는 사람에게 10크레디트를 주겠다.”

순식간에 포일은 여러 손에 에워싸였다. 더러운 손, 향수 냄새가 나는 손 - 그것들은 하나같이 탐욕스러운 손들뿐이었다. 그는 머리를 저었다.

“우선 만나게 해 줘야 해.”

로마 사람의 성난 목소리가 주위에서 들렸다.

“포기? 안젤로 포기라고?”

피터 얀 요빌 대위는 스페인 총계 거리를 6주일 동안이나 살살이 조사한 끝에 가까스로 자기가 찾던 얘기를 들었다. 6주일 동안 이미 죽은 지 상당히 오래된 안젤로 포기라는 인물의 신원에 대해 지긋지긋할 정도로 조사해 왔는데, 마침내 들은 것이다.

누군가가 플레스타인의 <보거> 호 승무원에 대해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다는 것,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에게는 거액의 사례금을 지불하겠다는 이야기가 었다. 이러한 정보가 첩보부로부터 얀 요빌 대위에게 통보되었을 때, 대위는 즉시 조사에 나섰다.

“무척 힘든군.”

요빌 대위가 말했다.

“그러나 걸리버 포일, AS- 128/ 127:006은 <보거> 호를 폭파하기 위해 미친

사람 같은 짓을 했지. 아무튼 20파운드의 파이어라면 애쓸 가치는 있거든.”

지금 그는 비틀거리면서 층계를 올라가 르네상스 식 옷차림과 가면을 쓰고 있는 사나이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선 주사를 맞은 탓으로 40파운드나 몸무게가 붙어 있었다. 얼굴빛은 감식 요법 덕분에 시커멓게 되어 있었다. 얼굴 생김새에는 거의 동양적인 요소가 없었으며,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의 매 같은 얼굴과 아주 비슷했다.

“나는 안젤로 포기를 찾고 있소.”

얀 요빌은 현미경적인 눈짓을 했다. 층계에 몰래 잠복해 있던 부하들이 손님 끌기며 창녀 흥내를 멈추지 않고 대위와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녹음하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내행성연합 첩보부의 암호가 포일과 로빈의 주위에서 바쁘게 교신되었다. 얼굴을 조금 찡그리기도 하고, 코를 킁킁거리기도 하고, 몸짓을 하기도 하고, 그때까지 짓고 있던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위치를 움직이기도 했다. 그것은 눈꺼풀, 눈썹, 손 끝 등 매우 희미한 동작을 사용하는 고대 중국의 암호 연락이었다.

“뭐라고요, 시뇨라?”

얀 요빌이 숨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젤로 포기를 찾고 있소.”

“네, 내가 안젤로 포기입니다만…….”

포레스트나 오렐이 보여 준 것과 가은 공포의 놀라움을 예상하면서 포일은 재빨리 팔을 뻗어 얀 요빌의 팔꿈치를 움켜잡았다.

“<보거> 호의 요리부 주인이었던 안젤로 포기요?”

얀 요빌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시뇨라. 무슨 일이신가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잘되는가 보군.”

포일은 로빈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이 사나이는 두려워하고 있지 않소. 저지제가 듣지 않는 방법을 아는 모양이오. 안젤로 포기, 나는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소.”

“어떤 정보인가요, 시뇨라? 얼마 내시겠습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듣고 싶소 - 뭐든지 다. 돈은 그쪽에서 정하는 대로.”

“하지만 나는 이래봐도 나이를 먹은데다 경험도 많은 사람입니다. 한데 몽둥그려 팔기 싫습니다. 정보는 한 가지에 얼마, 또는 한 가지가 얼마 하는 식으로

계산해 주어야겠소. 당신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주시요, 그러면 내가 값을 매길 테니까. 무엇을 묻고 싶으신가요?”

“2436년 9월 16일에 <보거> 호에 타고 있었지요?”

“그 자료는 10 ¢r 이요.”

포일은 교활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돈을 주었다.

“네, 댁습니다!”

“당신이 행성대 부근에서 통과한 우주선에 대한 것을 듣고 싶소. <노매드> 호의 난파된 선체였소. <보거> 호는 9월 16일에 그 결을 지났소. <노매드> 호는 구조 신호를 보냈지만, <보거> 호는 그냥 지나가고 말았지. 누가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소?”

“아아, 시노라!”

“누가 명령했소? 이유가 뭐요?”

“어째서 그런 걸 물으시지요, 시노라?”

“그런 건 알 필요 없소. 값을 매기고 이야기하시요.”

“대답하기 전에 왜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지요, 시노라.”

얀 요빌은 찡긋거리는 미소를 보였다.

“그러면 이 값을 좀 깎아드리지요. <보거>니 <노매드>니 그런 끔찍스러운 일에 흥미를 갖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당신은 그 때 버림받은 우주선의 승무원이었던 모양이지요?”

<<이 사나이는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악센트는 완전하지만, 말투가 전혀 틀려요. 이탈리아 사람에게는 이런 발상이 없어요.>>

포일은 경계하는 듯 굳어졌다. 극히 세밀한 일도 놓치지 않고 냄새맡으려고 긴장해 있던 얀 요빌의 눈이 그 태도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순간 그는 자신이 뭔가 서투른 말을 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부하에게 긴급한 신호를 보냈다.

이윽고 층계에 굉장한 대소동이 일어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포일과 로빈은 고함을 치면서 마구 날뛰는 폭도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첩보부 요원들은 조운트의 허를 찌르는 OPI 연습을 마친 이들이었다. 순간을 다투는 타이밍으로 누구든 밸런스가 허물어져 조운트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가 조운트로 달아나는 것을 완전히 방해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4분의 3초가 늦어져 포일은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이마를 마구 얻어맞은 뒤 나가떨어졌다.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옷도 여기저기 찢겼다. 포일은 미친 듯이 찍어대는 현장 사진에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채 내버려두었다.

그 때 첩보부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그들의 계획이 방해를 받았다.

느닷없이 한 사나이가 나타나 다리를 벌리고 포일의 몸 위로 타넘어섰다. 얼굴에 무시무시한 문신이 새겨져 있고, 연기와 불꽃에 휩싸인 옷을 입은 거대한 사나이였다. 그 유령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었으므로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 못박혀 서서 응시했다. 그 무서운 광경을 보다 층계에서 밀고 밀리던 군중들 속에서 비명이 일어났다.

“불타는 사나이! 불타는 사나이!”

“이 자는 포일이다.”

안 요빌이 낮게 말했다.

15초쯤 그 유령은 조용히 불타면서 보이지 않는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다. 이윽고 유령은 없어졌다. 땅 위에 쓰러져 있던 사나이라도 없어졌다. 포일은 전격 초가속을 시작하여 첩보부원들을 때려눕히고, 사진기와 녹음기 등 모든 증거자료들을 찾아 파괴했다. 그리고 그 몽롱한 빛이 르네상스 식 가운을 두른 여자를 데리고 사라졌다.

스페인 층계는 되살아났다. 악몽으로부터 몸부림치면서 빠져 나가려고 애쓰는 것처럼 괴로워했다.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찢절매는 첩보부원은 안 요빌 대위의 주위로 모였다.

“대체 그것이 뭐였습니까, 요빌 대위님?”

“우리가 목적으로 했던 그 사나이였네. 걸리버 포일. 문신한 얼굴을 보았겠지?”

“불타고 있는 옷도 보았습니다.”

“화형을 받고 있는 마녀 같았습니다.”

“만일 그 불타는 사나이가 포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글쎄, 우리 중앙 첩보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다른 첩보 기관이 통합 작전 여단에 있는 게 아닐까?”

“통합 작전 여단에 그런 기관이 있습니까?”

“그 자의 가속법을 보지 못했나? 그는 우리가 기록한 모든 증거를 파괴했네.”

“나는 아직도 내 눈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보지 못했다면 믿을 수 없겠지. 그것은 특별히 편성된 통합 여단의 극비 기술일세. 그 기술로 병사들을 홀어지게 하기도 하고 한테 집합시키기도 하여 제 위치에 자리잡게 하는 거라네. 화성군사령부에 문의해서 그쪽 여단이 우리와 병행해서 조사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군.”

“육군이 해군에게 비밀 사항을 알려 주겠습니까?”

얀 요빌이 성난 듯 말했다.

“첩보부에는 알려 주지. 이 문제는 매우 중대하니까 법적인 수속 따위는 필요 없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연습에서는 그 여자에게 손댈 필요가 없었네. 그것은 서투르고 불필요한 것이니까.”

얀 요빌은 자기 옆에서 의미심장하게 주고받는 눈길을 깨닫지 못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아 내야겠군.”

“그 여자를 붙잡아오면 참으로 재미있겠는데요, 요빌 대위님.”

조용한 목소리가 매우 조심성 없는 말을 했다.

“조사를 해 보고 나서 여단의 특별 수사부 요원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말입니다.”

얀 요빌은 얼굴을 붉혔다.

“그렇지도 모르지.”

그는 별안간 말했다.

“나를 우습게 보는 모양이지?”

“그런 일은 전에도 곧잘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로맨스는 언제나 같은 식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손을 댈 필요가 없었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다음 - 돌리 웨이커, 진 웹스터, 킴 로게트, 마리온……”

“하나하나 이름을 드는 것은 그만두게!”

또 한 사람이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가로막았다.

“로미오가 줄리엣에게 일일이 이름을 말하겠나?”

얀 요빌이 말했다.

“자네들 모두 내일은 변소 청소를 해야겠군. 이런 호색가 같은 반항은 그냥 둘 수 없어. 하지만 내일의 변소 청소는 용서해 주지. 이 사건이 끝나는 대로 시켜도 되니까.”

매처럼 생긴 얀 요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말 이게 무슨 소동이란! 불타는 낙인처럼 버티고 섰던 포일의 모습을 잊

155 타이거! 타이거!

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는 대체 어디로 갔을까? 그는 무엇을 할 생각일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 11 장

센트럴 파크에 있는 플레스타인의 별장은 새해를 맞아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지그재그로 실이 달려 있고 끝이 뾰족한 예쁜 고대 전구가 노란빛을 던지고 있었다. 조운트를 피하는 미로도 제거되고, 커다란 문은 새해를 위해 활짝 열려 있었다. 집 내부가 밖의 군중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문 바로 안쪽에 보석을 박은 막이 쳐져 있었다.

유명하거나 또는 보편적으로 유명하다고 볼 수 있는 재벌 및 명문 집안 사람들이 자동차, 마차, 가마, 그밖에 온갖 형태의 사치를 다한 탈 것을 타고 도착할 때마다 구경꾼들은 수군수군하며 웅성거렸다. 철회색의 표정으로 상당히 용모가 갖추어진 플레스타인의 플레스타인은 괴물 뱀 같은 미소를 띠고 문 앞에 서서 공개된 저택으로 상류 사회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 명사의 모습이 저택 안으로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유명한 명사가 더 호화스러운 것을 타고 오는 것이었다.

코러스 집안 사람들이 밴드 왜건(악대차)을 타고 도착했다. 에소 집안 - 아들 여섯, 딸 셋 - 사람들은 유리로 둘러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장려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레이하운드 바로 뒤에 엔진 전기 자동차가 도착하여, 입구에 있는 술한 사람들의 웃고 떠들고 놀려대는 목소리가 그리로 향해졌다. 그러나 웨스팅하우스의 에디슨이 에소 연료를 사용하는 차에서 내려오자 층계 위의 웅성거림은 환성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굉장한 손님이 플레스타인의 저택에 들어가려고 할 때, 먼 곳에서 들리는 소란한 소리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땅울림, 공기가 진동하는 격렬한 울림, 격렬한 급속음이었다. 그 음향은 급속히 접근해 왔다. 바깥에 있던 구경꾼들이 넓게 길을 열었다. 커다란 트럭이 요란스럽게 땅을 울리면서 달려왔다. 여섯 명의 사나이가 트럭 뒤에 실은 각재(角材)를 내려주었다. 그들 위에 스무 명의 인부가 와서 각재를 정연하게 정돈하고 있었다.

플레스타인과 손님들은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대한 기계가 큰 소리를 내면서 그 침목(枕木) 위를 미끄러져왔다. 그러자 곧 용접한 강철 선로가 놓여졌다. 인부들은 공기 펀치로 선로를 침목에 박았다. 선로는 플레스타인의 집 문 앞에서 커다란 원을 그리며 빙 돌아 되돌아갔다. 기계와 인부들은 요란한 소리를 끌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허어, 참!”

플레스타인이 말하는 목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손님들은 이것을 구경하려고 속속 나왔다.

멀리서 날카로운 기적 소리가 울렸다. 빨간색의 긴 깃대를 든 사나이가 흰 말을 타고 선로 위를 달려왔다. 그 뒤에 전망차를 한 대 단 기관차가 증기를 내뿜으며 달려왔다. 기차는 플레스타인의 저택 현관문 앞에서 멈춰 섰다. 차장이 날렵하게 차에서 뛰어내리고, 이어 플루먼 카(호화스러운 객차)의 급사가 내려왔다. 급사가 층계를 준비했다. 야회복을 입은 여자와 한 신사가 내려섰다.

“정말 놀랐는데.”

플레스타인이 또 중얼거렸다.

기차는 증기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집 앞 층계를 올라왔다.

“안녕하십니까, 플레스타인!”

신사가 말했다.

“저 말이 님의 정원을 마구 어지럽혀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뉴욕의 옛 관습을 존중하는 분들은 지금도 열차 앞에 빨간 깃발을 달도록 요구하니 말입니다.”

“포마일이야!”

손님들이 외쳤다.

“셀레스의 포마일이다!”

구경꾼들이 환성을 질렀다.

플레스타인의 파티가 성공적일 것은 이미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빌도로를 깔아놓은 넓은 응접실에서 플레스타인은 신기한 듯 포마일을 바라보았다. 포마일은 침착하게 철회색 눈이 날카롭게 응시하는 것을 견뎌냈다. 그러면서도 그는 캄벨라에서 뉴욕까지 따라온 열성적인 숭배자들에게 얼굴로 인사를 보내며 미소를 나누었다. 로빈 웬즈버리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와 내장과 두뇌를 억제해야 한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 사나이는 내가 <보거> 호를 폭파하려던 어리석은 짓을 한 뒤 자기 사무실로 끌려왔던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당신의 얼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플레스타인.”

포마일이 말했다.

“전에 만나본 일이 있었던가요?”

플레스타인은 애매하게 대답했다.

“나는 포마일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소.”

포마일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훈련이 되어 있었으나 플레스타인의 엄격하고 굳은 얼굴은 읽어 낼 수가 없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마음을 늦추지 않고 하는 수 없이 상대하고 있는 듯했고 또 한 사람은 마음을 닫아놓지 않고 완고하여 당장에라도 녹아버릴 듯 불꽃이 튀는 한 쌍의 눈쇠상처럼 보였다.

“당신은 신흥 재벌이라는 점을 자랑하는 모양이군요. 포마일 씨?”

“네, 초대 플레스타인의 조상께서 남기신 자취를 배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소?”

“그는 제 3 차 세계 대전 중에 혈청 암거래로 재산을 만들었던 일을 자랑하고 있었지요. 설마 잊으신 건 아니겠지요?”

“그것은 몰랐군요.”

“그래, 포마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 당신의 불행한 이름은 뭐였소?”

“플레스타인이었습니다.”

“그래요?”

뱀 같은 미소가, 그 빈정거림이 급소를 찔렀음을 나타내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일족과 친척이라는 거군요?”

“언젠가는 그렇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몇 촌이 되오?”

“글쎄요…… 다만 피가 이어져 있을 뿐일 겁니다.”

“재미있군. 당신 피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소. 포마일 씨.”

“아무래도 이 점이 우리 가문의 약점일 것입니다. 플레스타인.”

“당신은 특히 빈정거리는 태도를 즐기는 모양이군.”

플레스타인은 노골적으로 야유를 했다.

“그러나 당신 말에도 일리는 있소. 우리에게는 언제나 피와 돈을 찾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누구에게나 공통된 약덕이오. 그것은 나도 인정하오.”

“나도 그와 똑같은 약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와 돈을 찾는 정열 말이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열적으로 찾지요.”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위선자인 채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위선자인 채하지 않고!”

“포마일 씨, 당신은 내 마음에 드는 젊은이요. 당신이 우리 일족과의 혈족 관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양자로 삼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군.”

“공교롭군요, 플레스타인. 나는 이미 당신과 동족이니까요.”

플레스타인은 포마일의 팔을 붙잡았다.

“내 딸 올리비아에게 소개해 주겠소.”

두 사람은 응접실을 빠져 나갔다. 포일은 이 뜻밖의 사태에서 로빈을 곁에 불러 응원을 부탁해야 할 것인지 어떤지 망설였으나, 속으로 우쭐한 기분도 없지 않았다.

‘이 사나이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결코 알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곧 의심이 생겼다.

‘그러나 알아차렸는지 어떤지 절대로 알 수 없다. 재빠르고 강철같은 사람으로 자기를 억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나보다 훨씬 연기가 훌륭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포마일을 반갑게 맞았다.

“상해에서는 굉장한 속임수를 썼더군요.”

“로마의 사육제는 기막히게 좋았답니다. 스페인 층계에 나타난 불타는 사나이의 소문을 들으셨소?”

“런던에서 당신을 찾았었지요.”

“서커스단은 지금 어디에 있소?”

“글쎄요...”

포일이 말했다.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포마일이 또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이는 줄 알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면서 모여 들었다. 그는 백금제 시계를 꺼내어 케이스를 열었다. 문자반에 하인의 얼굴이 나타났다.

“.....네 이름이 뭐였더라?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아, 됐네. 지금 서커스단은 어디에 있나?”

작은 주석 같은 목소리가 대답했다.

“당신께서 뉴욕을 영주 장소로 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포마일.”

“아아, 그런가?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우리는 세인트 패트릭 사원을 사들였습니다, 포마일.”

“그게 어디에 있는데?”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입니다, 포마일. 5번 거리와 전의 50번 거리 모퉁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텐트를 쳤습니다.”

“고맙네.”

포마일은 백금 시계를 달았다.

“내 주소는 뉴욕의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입니다. 시대에 뒤진 종교에도 취할 만한 점이 있군요 - 적어도 서커스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커다란 교회를 세웠으니까요.”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은 높은 단 위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름다운 플레스타인의 딸은 비위를 맞추며 아침하는 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는 이상하게도 놀라운 장님이었다. 보통의 가시 광선보다 훨씬 아래인 7천 5백 옹스트롬에서 파장이 1밀리미터인 적외선밖에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열파의 자장과 전자파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빨간 방사능의 배경에 반사되는 유기 광선의 이상한 빛 속에서 숭배자들을 보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과 입술은 산호로 되어 있었다. 얼음의 여왕같이 위엄 있고 신비로 왔으며 접근하기 어려운 눈처럼 순백한 처녀 - 얼음의 여왕이었다. 포일은 한번 그녀에게도 눈길을 주었으나 곧 눈을 내리깔고 말았다. 그녀는 전자파나 적외선으로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 장님의 눈이 자기를 보자 포일은 자신도 모르게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맥박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과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에 대한 공상의 번쩍임이 마음 속에서 무력무력 일어났다.

‘어리석은 생각은 그만두자.’

그는 필사적으로 사고를 쫓았다.

‘자신을 억제해야 한다. 몽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것은 무서운 일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는 올리비아에게 소개되자 백은같은 메마른 목소리로 인사를 받았다. 싸늘하나 부드러운 손이 내밀어졌다. 그 손이 자기 손 안에서 전기 충격을 받아 폭발하는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서로의 결정적인 이해, 감정적인 충격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바른 정신의 사고가 아니다, 그녀는 하나의 상징이다. 꿈의 여왕이다…… 접근해서는 안 된다…… 억제해야 한다!’

필사적으로 자신과 싸우고 있었으므로 정중하게, 그러나 무관심한 태도로 물러가라고 눈짓한 것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로서는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시골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어머나! 아직도 여기에 계셨나요, 포마일 씨?”

“물리가라고 명령하신 일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리비아 양.”

“당신은 내 친구의 방해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요?”

“나는 물리가라고 명령받은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 ‘안 된다, 안 돼. 아주 나쁘게 되고 말았군!’- 적어도 친구로 여겨주셨으면 하는 분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포마일 씨. 그리고 부디 내려가 주세요.”

“당신의 감정을 해치는 일을 했습니까?”

“내 감정을? 당신은 더욱 우스꽝스러워지는군요.”

“올리비아 양…… - ‘나는 진실된 말은 한 마디도 할 수 없단 말인가? 로빈은 어디에 있지?’ - 처음부터 다시 해도 괜찮겠습니까?”

“무례한 짓을 할 생각이시라면, 포마일 씨, 당신은 지금 훌륭하게 무례하십니다.”

“다시 한 번 손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는 셀레스의 포마일입니다.”

“알겠어요.”

그녀는 웃었다.

“당신이 어릿광대라는 것은 잘 알았어요. 자아, 어서 내려가세요, 누구든 당신을 즐겁게 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를 화나게 하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 ‘그렇다, 나는 너를 화나게 만들려고 한다. 어떻게든 너의 감정을 움직여 주고 싶은 거다…… 그 열음을 깨뜨리고!’- 맨 처음 한 악수는 너무 힘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적게 주었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포마일 씨!”

올리비아는 언더리가 나는 듯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재미있는 분이고, 독창적이고, 재치가 있고,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내 앞에서는 제발 물리가 주세요.”

그는 높은 단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비틀거리며 물러났다.

‘암개 같은 것! 무슨 말을 지껄이는 거야. 제기랄, 아니, 그렇지 않아. 저 여자는 내가 꿈꾼 꿈 속의 여자다. 저 열음같이 찬 표면을 두들겨 깨뜨리고 빼앗는 거다. 포위하고…… 몰래 침입하여…… 완력으로 말을 듣게 만들어…… 결국 무릎꿇게 해 주는 거야.’

그는 술 더겐햄의 앞에 섰다. 감각이 마비되고, 피와 내장을 긴장시킨 채 서 있었다.

“포마일 씨.”

하고 플레스타인이 말했다.

“이 분은 술 더겐햄 씨요. 그는 30분밖에 있을 수 없지만, 잠깐 당신을 만나 보고 싶다고 하기에…….”

“‘이 자가 눈치를 채 것일까? 확인하기 위해서 더겐햄을 부른 것일까? 공격이다. 언제나 강해야 해.’ - 얼굴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더겐햄 씨?”

포마일은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투로 물었다.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이 싱긋 웃었다.

“나는 유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방사능의 강해를 받았지요. 나는 방사능을 띠고 있습니다.”

죽은 것 같은 눈이 포마일을 쏘아보았다.

“당신이 서커스를 하는 동기는 뭡니까?”

“악명을 높이려는 정열이지요.”

“나는 자신을 감추는 일에는 상당히 숙련되어 있소. 당신의 악업이란 대체 어떤 것들인가요?”

“딜린저(1920년대의 은행 갱)가 카포네(금주법 시대 마피아단의 우두머리)에게 자신이 한 일을 이야기했던가요?”

포일은 차츰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여 승리감을 누르면서 마주 미소지어 주었다.

‘나는 이 자들 둘을 상대로 태연히 버티고 있다!’

“당신은 보다 행복해 보이는군요, 더겐햄 씨.”

순간 그는 실수했음을 깨달았다.

더겐햄이 곧 달려들었다.

“<언제>보다 행복해 보인다고요? 전에 어디서 만나본 적이 있소?”

“<전보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보다>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포일은 태연히 변명한 다음 플레스타인 쪽을 돌아보았다.

“나는 올리비아 양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술, 벌써 30분이 지났네.”

그 때 포일의 양옆에 서 있던 더겐햄과 플레스타인이 뒤를 돌아보았다. 에머

랄드로 장식된 야회복을 입은 키가 늘씬한 여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붉은 머리카락이 타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지스벨라 매퀸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충격이 얼굴에 나타나기 전에 포일은 재빨리 몸을 날려 처음에 들어왔던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문이 등 뒤에서 세계 닫혔다. 좁고 앞이 막힌 막다른 복도로 나온 것이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잠깐 사이를 두고 녹음된 목소리가 공손한 말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이 저택의 사사로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부디 되돌아가 주십시오.’

포일은 숨을 삼키고 마음 속의 공포와 싸웠다.

‘당신은 이 저택의 사사로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부디 되돌아가 주십시오.’

“나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는데…… 지즈는 거기서 살해되었으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당신은 이 저택의 사사로운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부디 되돌아가 주십시오.’

“이제는 끝장이다! 그녀는 결코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더겐햄과 플레스타인에게 이야기했겠지.”

응접실로 통한 문이 열리고, 순간 포일은 그 불타는 허상을 본 듯했다. 그는 곧 지스벨라의 타는 듯한 머리카락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선 채 노여움이 담긴 눈으로 의기양양하게 그에게 미소를 던지고 있었다. 그는 몸을 꼳꼳이 했다.

‘우는 소리는 늘어놓고 싶지 않아.’

당황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포일은 복도에서 걸어나와 더겐햄이나 플레스타인에게서는 눈돌리지 않고 지스벨라의 팔을 잡고서 응접실로 데리고 갔다. 그 두 사람은 곧 폭력과 무기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그는 지스벨라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의기양양한 태도로 미소를 되돌려 주었다.

“도망가 주셔서 고마워요, 걸리. 이렇게 만족스러운 기분이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도망을 가다니? 지즈!”

“왜요?”

“오늘 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소. 구프르 마르테르에서 우리 둘 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왔으니까 말이요. 그렇지 않소?”

포일은 무도실 쪽을 몸짓으로 가리켰다.

“춤추겠소?”

그녀는 그의 냉정한 태도에 놀라 눈을 커다랗게 떴다. 그녀는 그에게 끌어안긴 채 무도실로 따라갔다.

“그런데 지즈, 당신은 어떻게 구프르 마르테르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었지?”

“더겐햄이 수배해 주었어요. 당신은 이제 춤도 출 수 있게 되었군요, 걸리?”

“춤도 출 줄 알고, 4개 국어를 그럭저럭 할 수 있고, 과학과 철학을 연구했소, 서투르나마 시로 쓰고, 어이없는 실험으로 돈을 날리기도 하지. 바보가 하는 것 같은 펜싱도 하고 어릿광대 같은 권투도 하고…… 요컨대 지금의 나는 그 악명높은 셀레스의 포마일이니까.”

“이제는 걸리버 포일이 아니군요.”

“아니, 당신에게만은 걸리버 포일이요. 당신이 누구에게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도 걸리버 포일이겠지.”

“바로 조금 전에 더겐햄에게만 이야기했어요. 당신의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었지요?”

“나도 깜짝 놀랐을 정도니까 당신이 자신을 억누를 수 없었다 해도 무리는 아니지.”

“그래요, 어쩔수 없었어요. 아차했을 때는 이미 당신의 이름이 입에서 튀어나온 뒤였어요. 말해선 안되었다지만, 당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지요?”

“바보 같은 말은 그만두요, 지즈! 그 일로 당신에게는 약 1천 7백 98만 £의 재산이 돌아가게 되었소.”

“무슨 뜻이지요?”

“나는 <보거> 계획을 끝낸 다음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기로 했잖소?”

“<보거>를 파멸시켰나요?” 그녀가 크게 놀라며 물었다.

“아니, 아직. 당신이 나를 파멸시킨 거지. 그러나 약속은 지킬 생각이요.”

그녀는 웃었다.

“친절하기도 하군요, 걸리! 정말 다정한 면을 보여 주시는군요, 꼬리를 감추고, 되도록 나를 기쁘게 해 주세요.”

“쥐새끼처럼 도망다니라는 거요? 방법을 알아야지, 지즈. 나는 쫓아다니는 일 쪽을 더 잘하거든.”

“하지만 나는 호랑이를 죽였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걸리. 당신은 <보거>에게 보복할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어요. 앞으로 한 걸음만 내디디면 성공할 단계에 있을 때 내가 당신을 파멸시켜 버렸어요. 그렇지

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안됐군, 지즈. 나도 사면팔방이 꼭 막히지만은 않았으니까. 여기서 오늘 밤 새로운 단서를 찾아 내려고 하던 참이었소.”

“가엾은 걸리, 당신을 이 곤경에서 구해 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그렇지…내가 잘못 본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농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정말로 걸리버 포일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술을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나라면 할 수 있어요, 걸리, 만일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그는 그녀에게로 눈길을 돌리고 머리를 저었다.

“지즈, 우리 사이에 사랑은 없었소. 당신도 그것은 알고 있을 거요. 나는 뭔가를 쫓는 일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나이요.”

“쫓아가서 어이없는 꼴을 당하는 것이 고작이지요.”

“그건 그렇고, 무슨 뜻이지, 지즈?…… 더겐햄이 당신을 구프르 마르테르로 돌아가지 않도록 수배했다는 것은? 그리고 술 더겐햄을 속이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당신은 그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지즈?”

“그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그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당신을 협박했소? 협박하고 있소? 만일 당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서로 끌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가 나를 잡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내가 그를 잡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어떤 뜻이지?”

“상상할 수 없나요?”

포일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종잡을 수가 없었지만, 그는 이해했다.

“지즈, 그럼 그와……”

“네, 그래요.”

“하지만 어떻게? 그는-”

“여러 가지로 주의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걸리.”

“언짢은 말을 했군. 그는 지금 돌아와 있겠지?”

“돌아와 있다고요?”

“더겐햄이 군대를 데리고 와 있겠지.”

“네, 물론이지요. 그래요.”

지스벨라는 또 웃었으나, 문득 목소리를 낮추고 거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를 거예요, 걸리. 만일 당신이 나에게 가련하게 부탁하거나 매수하려고 듣거나 달콤한 말을 하려고 했다면…… 나는 틀림없이 당신을 파멸시켰을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정체를 폭로했을 거예요…… 이 집에서 큰 소리로 고함쳤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지즈?”

“술은 군대를 모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는 알지 못하니깐요. 당신은 자신이 직접 파멸하면 돼요.”

“믿을 수가 없는걸.”

“당신을 체포하는데 그가 이처럼 꾸물거릴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솔 더겐햄이?”

“그러나 어쩌서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소, 지즈? 내가 당신을 그런 처지에 버려 두고 돌아났는데…”

“그를 당신과 함께 파멸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보거> 호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말하고 있어요. 파이어의 일이에요. 모두들 당신을 쫓아다니는 것은 그 때문이에요. 그것을 쫓는 거예요. - 20파운드의 파이어를.”

“파이어란 뭐지?”

“금고를 열었을 때 내부에 작은 통이 있었지요? 불활성연 통 말이에요.”

“들어 있었소.”

“그 통에 뭐가 있었나요?”

“압축 요드 결정 같은 탄환이 스무 개 들어 있었지.”

“그 탄환을 어떻게 했나요?”

“두 개를 분석시켜 보았소. 하지만 아무도 그 정체를 모르더군. 나도 시간나는 대로 내 실험실에서 세 개째를 분석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소.”

“어머나, 당신이? 하지만 어떻게 했나요?”

“나도 이제 영리해졌소, 지즈.”

포일은 다정하게 말했다.

“플레스타인과 더겐햄이 찾고 있는 것이 그거라는 걸 알기까지는 그다지 시간이 걸리지 않았소.”

“남은 탄환은 어디에 있지요?”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안전하지 않아요. 나는 파이어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술을 그런 일에 맡려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그 정도로까지 그를 사랑하오?”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지즈, 파이어가 뭐지? 당신은 알고 있을 거요.”

“상상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로 들은 힌트를 연결해 보았어요. 짐작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걸리.”

이마에 떠오른 분노가 번들번들 빛났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에게서 달아나는 거예요. 당신을 암흑 속에 희망도 없이 매달아놓은 채 내버려두고 가버리겠어요. 그럼, 어떤 심정이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되도록 즐기겠어요!”

그녀는 그를 떠나 무도실을 부지런히 뛰어나갔다. 그 순간 첫폭탄이 떨어져 내렸다.

그 폭탄은 별뿔별들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다지 많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처절한 것이었다. 그것은 깊은 밤에서부터 깨어나 새벽을 맞이하려는 지구의 부분, 지구의 아침이 되는 반구에 쏟아져 내렸다. 태양에 대한 지구의 공전 앞쪽에서 폭발했다. 이 폭탄들은 4억 마일의 거리를 날아온 것이었다.

그 무서운 속도는 외위성동맹으로부터의 새해선물을 백만분의 1초의 공간에서 잡아 방해할 지구방위군의 전자계산에 의한 신속한 조치에 비할 만한 것이었다. 강렬한 빛을 내는 수많은 새별이 하늘에 걸리고, 그리고 꺼졌다. 그것은 목표의 5백 마일 앞에서 저지되어 폭발된 폭탄들이었다.

그러나 방위군의 속도와 공격측의 속도 차이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폭탄이 저지되지 못했다. 그것은 전리층, 희미하게 밝은 한계, 대기권, 성층권을 지나 땅 위로 쏟아져 내렸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탄도가 거대한 충격이 되어 끝났다.

뉴욕을 파괴한 첫 원자폭탄 공격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하게 플라스틱인의 저택을 뒤흔들었다. 바닥과 벽이 흔들려 손님과 가구들과 장식물들이 한 덩이가 되어 나동그라졌다. 폭탄이 뉴욕 주변에 내리쏟아짐에 따라 진동은 더욱 심하게 되었다.

폭발음은 고막을 찢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몹시 떨게 만들었다. 음향과 충격과 지평선상의 기분 나쁜 빛은 말할 수 없이 거대한 것이었으므로 인간은 이성을 잃어, 산 채 가족이 벗겨진 동물이 비명을 지르며 극도로 겁을 먹고 뛰어헤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5초도 채 되기 전에 플레스타인의 신년축하 파티는 우아한 모습으로부터 수라장으로 바뀌었다.

포일은 바닥에서 일어섰다. 그는 무도실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눈길을 던졌다. 지스벨라가 헤어나려고 허위적거리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어질어질하니 마치 자신의 머리가 아닌 것 같은 머리를 돌렸다. 큰 폭발음은 멎지 않았다. 로빈 웬즈버리가 응접실에서 비틀거리며 몸부림치는 것이 보였다. 그녀에게로 달려가려다 또 발을 멈추었다. 이 때 자기가 가야만 하는 장소가 머릿속에 문득 떠올랐다.

그는 가속했다. 천둥과 번개가 갑자기 멈추더니 스펙트르가 빙빙 돌며 켜졌다 꺼졌다했다. 몹시 흔들리던 진동이 느릿느릿해졌다. 포일은 이 대저택을 돌아다니면서 필사적으로 찾다가 가까스로 그녀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가속된 감각으로는 마치 대리석 조상처럼 보였다. 황홀한 조상의 모습으로 대리석 벤치 위에 발 끝으로 서 있는 그녀를 본 것이다.

그는 감속했다. 순식간에 충격이 다시 스펙트르를 올렸다. 그는 또다시 저 치명적인, 아니, 그보다 더 큰 충격으로 세계 때려눕혀졌다.

“올리비아 양!”

그가 소리쳤다.

“누구시지요?”

“어릿광대올시다.”

“포마일?”

“그렇습니다.”

“나를 찾으러 와주셨나요? 감격스러워요, 정말 감동했어요.”

“여기 이렇게 서 있다니, 제정신이 아니군요. 부탁이니 나와 함께…….”

“싫어요, 싫어요! 이것은 아름다워요… 기가 막힐 정도로.”

“나와 함께 어디든 안전한 장소로 조운트합시다.”

“어머나, 당신은 자신이 갑옷을 입은 기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위험에서 구해 주는 기사 - 당신에게는 어울리지 않아요. 당신이나 달아나세요.”

“여기에 남겠습니다.”

“아름다운 연인으로서?”

“연인으로서.”

“여전히 지루하신 분이군요. 자아, 계시를 받으세요. 이것은 아마게돈(세상의 종말에 있는 선과 악의 결전장)이에요. ……꽃피는 과일이지요. 당신에게 보이는 것을 말해 보세요.”

“별로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포마일은 주위를 둘러보고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지평선 가득히 빛이 보입니다. 구름이 빨리 흐르는군요. 그 위에는……커졌다 다 꺼졌다하는 빛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처럼.”

“어머나, 당신에게는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나요? 나에게 보이는 걸 생각해 보세요! 푸른 하늘에 둠이, 무지개의 둠이 있어요. 짙은 황갈색에서부터 찬란하게 타오르는 불꽃색까지 있어요. 저 둠은 무엇일까요?”

“레이더 망이겠지요.”

포마일이 낮게 말했다.

“그리고 불길이 무시무시하게 넓고 큰 규모로 불타오르고 동요하고 교차되며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요. 저건 무엇일까요?”

“방해 전파겠지요. 당신은 전전자(全電子) 방위 시스템을 보고 있군요.”

“그리고 폭탄이 쏟아져 내리는 것도 보여요…… 당신이 빨강이라고 하는 빛 갈의 신속한 흐름. 하지만 당신의 빨강이 아니에요, 나의 빨강이에요. 어쩌서 저 것이 보이는 걸까요?”

“공기마찰로 열이 가해서 생긴 겁니다. 그러나 불활성연의 외장부(外裝部)는 우리에게 색을 보이지 않는군요.”

“당신은 어릿광대이기보다 갈릴레오(갈릴레오 갈릴레이. 여기서는 천문학자라는 뜻임)로서 더 훌륭하군요. 아아, 동쪽에 폭탄이 떨어져요……아아!”

동쪽 지평선 위의 불꽃은 그것이 그녀의 상상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주었다.

“북쪽에도 폭탄이 떨어져요. 아주 가까이, 아주 가까워요. 보세요!”

북쪽에서 충격이 밀려왔다.

“저 폭발을 보세요, 포마일. 저것은 단순한 빛의 구름이 아니에요. 색깔을 넣어 짙은 직물, 거미줄, 여러 가지 색실로 짜넣은 옷감이에요. 기막히게 아름다워요. 더없이 아름다운 수의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올리비아양?”

“당신은 무서운가요?”

“네.”

“그럼, 달아나세요.”

“싫습니다.”

“당신은 사리에 어둡군요.”

“자신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달아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참는 것이군요, 기사의 용기를 보이기 위해.”

메마른 목소리가 우습다는 듯이 울렸다.

“생각해 보세요, 포마일. 조운트로 달아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몇 초면 멕시코, 캐나다, 알래스카에 무사히 닿을 수 있을 거예요. - 아무 위험도 없이. 지금쯤 그곳에는 몇백억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게 틀림없어요. 우리는 아마 이 시에 남은 마지막 사람일 거예요.”

“모두들 그토록 멀리까지 것처럼 빨리 달아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셈이군요. 어쩌서 나를 내버려두고 도망가지 않나요? 달아나세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당신이 돌아서서 달아났다는 것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암캐.”

“어머나 화났군요! 어쩌면 그런 심한 말을…… 그것이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는 첫번째 증거예요. 당신은 어쩌서 좀 더 머리를 써서 나를 유괴해 가지 않는 거지요?”

“제기랄”

그는 분노가 치밀어올라 주먹을 불끈 쥐면서 그녀에게 접근했다. 그녀는 싸늘하고 조용한 손으로 그의 뺨을 만졌다. 그러나 이때 또다시 진동이 일어났다.

“아니예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빨간색의 흐름이 떴어 떨어져와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똑바로 우리를 향해. 이제 피할 수 없어요. 빨리, 지금 당장 달아나세요! 조운트 하세요! 나를 데려가 줘요. 빨리! 빨리!”

그는 그녀를 벤치에서 끌어내렸다.

“절대로 가지 않겠소!”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부드러운 산호의 입술을 더듬어 키스했다. 그녀의 입술에 미친 듯이 키스를 퍼부으며 마지막 암흑이 닥쳐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진동은 닥치지 않았다.

“속았군!”

그가 소리쳤다.

그녀는 웃었다. 그는 다시 그녀에게 입맞추고 그녀에게서 몸을 뺐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또 웃음소리를 냈다. 그녀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

“끝났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소.”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끼리의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말ियो.”

“<인간의 전쟁>이라고 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격렬했다.

“내 모습에 속지 않은 것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아아, 옛이야기에 나오는 왕녀를 섬기는 충실하고 지루한 기사며 그들의 달콤한 열정. 하지만 나의 내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이의 전쟁은 잔혹한 것이 될 거예요. 나를 얻지 말아요…… 나를 파괴해 주세요!”

갑자기 그녀는 올리비아, 저 비할 데 없이 우아한 눈의 여왕으로 돌아갔다.

“폭격은 이미 끝나지 않았을까요, 포마일? 쇼는 끝났어요. 하지만 얼마나 훌륭한 새해 서곡이에요? 편히 쉬세요.”

“편히 쉬세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 말을 되풀이했다.

“편히 쉬세요. 포마일, 당신은 언제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는지 모를 만큼 야만스러운 시골뜨기인가요? 자아, 당신은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안녕!”

그녀는 거듭 말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할 말을 찾았으나, 결국 몸을 돌려 저택에서 비틀거리며 나왔다. 흥분과 혼란으로 몸이 떨렸다. 주위의 혼란과 파괴도 거의 깨닫지 못할 만큼 멍해져서 걸었다.

지평선은 빨간 불꽃으로 밝았다. 공격파가 매우 격렬하게 대기를 동요시켰으므로 바람은 아직도 묘한 폭풍이 되어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폭발의 진동이 온 시를 뒤흔들어 떨게 했으므로 벽돌이며 벽이며 유리며 금속 등은 날려가고 가루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처럼 무시무시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뉴

옥은 한 발도 폭탄을 직접 받지 않았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온 시에 사람 그림자가 끊겨 있었다. 뉴욕을 비롯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은 몸의 안전을 찾아 각자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 5마일, 50마일, 5백 마일-에서 필사적인 노력을 하여 조운트했다. 그 가운데는 폭발의 중심지를 향해 조운트한 자도 있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이 조운트 폭발로 죽었다. 공공 조운트 대는 이토록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출발하는 혼잡을 계산에 넣어 설계되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포일은 흰 옷을 입은 구조대가 거리에 나타난 것을 깨달았다. 긴급 신호가 그를 향해 보내져 약식이지만 구조 활동에 징용된다는 뜻을 연락해 주었다. 조운트의 문제는, 주민을 도시에서 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귀시켜 질서를 되찾는 일이었다. 포일은 화재며 약탈자와 싸우기 위해 이 1주일을 소비할 생각은 없었다. 그는 가속하여 구조대를 피했다.

5번 거리에서 그는 감속했다. 에너지가 거의 떨어져서 이제는 그는 가속 상태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다. 오랜 시간 가속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며칠 동안의 휴식이 필요했다.

약탈자와 조운트 습격단은 재빨리 거리에서 혼자 또는 떼를 지어 은밀하고 야만스럽게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승냥이들은 살아 있지만 무력한 동물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의 몸을 마구 덮쳤다. 그들은 포마일에게도 밀려왔다. 오늘 밤에는 어찌되었든 그들의 먹이가 되게 마련이었다.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아.”

그는 밀려온 그들에게 말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라구.”

그는 주머니의 돈을 몽땅 털어 던져주었다. 그들은 그것을 낚아채듯 집었으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흥을 즐기고 싶어했던 것이다. 포일은 이미 무력한 신사에 지나지 않았다. 5, 6명의 사나이가 포일을 에워싸며 골탕을 먹이려고 가까이 다가왔다.

“친절하신 나리.”

그들은 히죽히죽 웃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파티를 한바탕 벌이려고 한답니다.”

포일은 파티 손님 하나가 토막토막 잘려진 시체를 보았다. 그는 한숨을 크게 내쉬고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의 환영을 마음속에서 쫓아버렸다.

“종구말구.”

그는 말했다.

“파티를 하세나.”

그들은 그로 하여금 비명(悲鳴)의 댄스를 추도록 준비시켰다. 포일은 입 속에 있는 배전반을 작동하여 20초의 파멸적인 시간, 일찍이 발명되었던 것 가운데 가장 위험한 살인 기계인 명령 살인자가 되었다. 그것은 의식적인 사고나 의지와는 관계 없이 행해졌다. 그의 육체는 근육과 반사에 기록된 동작을 그대로 했을 뿐이다. 그는 땅바닥에 때려눕혀진 여섯 구의 시체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은 상처 하나 없이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먼 곳의 화재가 그 지붕 용마루의 구리에 반영되었다.

그 안에 사람의 모습은 없었다. 포마일 서커스의 텐트는 사원을 모두 차지하고, 조명이며 서커스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서커스단원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하인, 요리사, 심부름꾼, 종복, 운동가, 철학사, 수행원, 캠프에 따라온 사람들, 부랑배들은 어디론지 달아나고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약탈하기 위해 되돌아올 거야.”

포일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는 자기 텐트 속으로 들어갔다. 맨 처음 그가 본 것은 흰 사람 그림자였다. 융단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중얼하고 있었다. 로빈 웬즈버리였다.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마음도 찢겨 있었다.

“로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속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다. 그녀를 일으켜 세워서 흔들어대고 뺨을 세게 때렸다. 그녀의 얼굴이 불그래해지더니 뭔가 중얼거렸다. 그는 주사기를 꺼내 그녀에게 니아신을 충분히 주사했다.

현실에서 멀어진 정서상태에서 이 약이 나타내는 각성 작용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녀의 윤기 있는 피부가 회색으로 변했다. 아름다운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포일을 알아보았다. 자기가 잊으려고 했던 일이 생각났는지 비명을 지르며 웅크리고 앉았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러는게 좋아.”

포일이 말했다.

“당신은 도피(逃避)의 명수잖아? 처음에는 자살하려고 했지. 이번에는 이렇게 됐고…… 다음은 어떤 거지?”

<<<저리 가세요.>>>

“아마도 종교겠지. 성경을 뒤적이며 신념을 위해 순교하는 것. 당신은 현실에 착실하게 부딪칠 수 없는 거요?”

<<<당신은 절대로 달아나지 않나요?>>>

“절대로! 도피란 바보나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노이로제요.”

<<<노이로제.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아무 계획도 없이 사는 사람이 잘 쓰는 말이에요. 당신은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렇지요? 훌륭하고, 균형이 잡혀 있어요. 한평생 도망다니는 주제에.>>>

“내가? 천만에 나는 지금까지 줄곧 쫓아다니고 있었소.”

<<<당신은 도망다니는 거예요. 공격성 도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나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그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파괴하지요. 그 래도 모르시겠어요? 당신이 해온 일은 바로 그거예요.>>>

“공격성 도피?”

포일은 화가 치밀었다.

“내가 무언가로부터 도피하고 있다는 말ियो?”

<<<네, 그래요.>>>

“무엇에서?”

<<<현실에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인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그것도 자신의 패턴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당신은 자신의 광기의 패턴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파괴하고 있어요.>>>

그녀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들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이대로 가게 해 주세요.”

“간다고? 어디로?”

“나에게는 나대로의 사는 방법이 있어요.”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하고?”

“내 나름대로 찾겠어요.”

“어째서? 대체 왜 그러는 거요?”

“이젠 지긋지긋해요…… 당신도 전쟁도, 왜냐 하면 당신은 전쟁만큼이나 나쁘니까요. 그보다 더 나빠요. 내가 오늘 밤 경험한 일은 당신과 함께 있는 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가지 다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안 돼!”

그는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

“나는 자신의 자유를 살 준비가 되어있어요.”

“어떻게?”

“<보거> 호에 대한 단서는 모두 틀린 것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어요.”

“어디서?”

“어디든 상관없잖아요? 만일 내가 그 정보를 당신에게 가르쳐주면 나를 자유롭게 해 주시겠어요?”

“당신에게서 빼앗을 수도 있지.”

“그럼 빼앗아 보세요.”

그녀의 눈이 번들번들 빛났다.

“만일 당신이 이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여기서 귀찮은 일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가르칠 수도 있소.”

“그래요? 오늘 밤과 같은 폭격이 있는 뒤에도? 그럼, 해 보세요.”

그녀의 도전적인 태도에 포일은 당황했다.

“당신이 엉터리를 말할지도 모르잖소.”

“힌트를 하나 드리겠어요. 오스트리아 사나이를 기억하시지요?”

“포레스트 말이요?”

“네, 그는 당신에게 승무원의 이름을 말하려 했지요. 그가 말한 이름을 기억하세요?”

“캠프.”

“끝까지 말하기 전에 그는 죽고 말았어요. 그 이름은 캠프시예요.”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단서라는 거요?”

“네, 캠프시. 그의 이름과 주소를 알고 있어요. 나를 자유롭게 해 준다고 약속하면 가르쳐주겠어요.”

“중소.”

포일이 말했다.

“당신은 자유요. 자아, 가르쳐주오.”

그녀는 곧 상해에서 입었던 여행복을 꺼내왔다. 그 주머니에서 그녀는 일부

가 불에 타서 없어진 종이쪽지를 꺼냈다.

“이것은 세르게이 오렐의 책상에서 발견한 거예요. 불을…… 그 불타는 사나이가 일으킨 불을 끄려 했을 때……”

그녀는 종이쪽지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은 의뢰장 쪽지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달세계
마레 누비움
박테리아 유한회사
제3동

……이 박테리아 지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네. 조운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째서 한 사람의 인간이 개처럼 취급돼야 한단 말인가? 제발 나를 살려 주게, 세르게이. 우리가 비밀에 붙이고 있는 그 우주선의 옛동료였던 사람을 살려 주게. 1백℄r쯤이라면 자네가 내줄 수 있을 걸세. 내가 자네를 위해 한 일을 기억하겠지? 1백이나, 그것이 안되면 50℄r이라도 좋으니 보내주게. 나를 절망시키지 말게.

로저 캠프시

포일이 외쳤다.

“이거다! 이 자야말로 실마리다.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야. 이 자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모든 것을.”

그는 로빈을 보고 빙긋 웃었다.

“우리는 내일 밤 달을 향해 떠나야 하오. 좌석을 예약해 두도록. 아니, 적의 공격 때문에 귀찮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우주선을 사는 게 좋겠군. 어느 쪽도 운임이 싸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라니요?”

로빈이 말했다.

“<당신>이겠지요?”

“<우리>요.”

포일이 대답했다.

“우리는 달에 가는 거요, 둘이 함께.”

“나는 당신과 헤어지겠어요.”

“아니, 떠나선 안 돼. 나와 함께 가야 해.”

“하지만 당신은 약속했잖아요……?”

“어른이 되어야 해, 아가씨. 이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약속하지 않을 수 없었어. 이제는 점점 더 당신이 필요해졌어. <보거> 때문이 아니오. <보거>는 나 혼자 할 수 있소. 그보다 좀더 중요한 일 때문에 필요해.”

그녀의 의문에 찬 얼굴을 보자 그는 후회하는 것처럼 미소지었다.

“어쩔 수 없소. 당신이 이 편지를 두 시간 전에 나에게 주었다면 나도 약속을 지켰겠지만, 이제는 이미 너무 늦었소. 나에게는 연애 비서가 필요해졌거든. 나는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을 사랑하고 있소.”

그녀는 분노가 치밀어 벌떡 일어났다.

<<<그녀를 사랑한다고요?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을? 저 하얀 주검을 사랑하다니!>>>

그녀의 정신 감응이 보인 격렬한 분노는 그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아아, 당신은 이제 나를 잃었어요! 영원히. 이제는 내가 당신을 파멸시킬 테예요.>>>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제 12 장

피터 안 요빌 대위는 10초에 하나씩 런던 중앙첩보국 본부에 들어오는 보고를 훑어보았다. 정보는 전화, 무선, 유선, 조운트로 보내져왔다. 폭격맞은 곳의 지도가 곧 만들어졌다.

서경(西經) 60도에서 1백20도까지 남북 아메리카가 집중 공격을 받았음 - 북아메리카 파블라돌에서부터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남아메리카 리오에서부터 에콰도르에 이르는…… 방어망을 10퍼센트의 초거리 유도탄이 통과한 것으로 보임…… 사망자수는 대략 1천만 내지 1천2백만으로 추산됨.

그의 사무실에서 조운트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며 책상 위에 보고서를 놓기도 하고 벽 전체를 덮고 있는 유리 흑판에 집계 숫자며 방정식을 쓰고 있는 보좌관들을 보면서 그는 말했다.

“이것이 조운트 시대가 아니었다면 손해는 다섯 배에 달했겠지. 어쨌든 이것은 전멸에 가까워. 이 정도의 폭격이 또 한번 있게 된다면 지구는 전멸할 거야.”

형식적인 의례가 없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었으므로 안 요빌 대위는 보좌관 중 한사람이 문을 노크하고 예의를 갖추어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깜짝 놀랐다.

“대체 무슨 일인가?”

그가 물었다.

“어떤 여자가 뵈고 싶습니다. 요빌 대위님.”

“지금은 회극을 연출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안 요빌은 분격한 투로 말했다. 그리고 그는 투명한 흑판에 씌어진 피해 상황 집계인 화이트헤드 방정식을 가리켰다.

“저걸 읽고 밖에 나가 울거나 하게!”

“아주 특별한 여성입니다, 요빌 대위님. 스페인 층계에서 본 당신의 비너스가 온 겁니다.”

“뭐라고? 무슨 비너스라고?”

“당신의 아프리카 인 비너스입니다.”

“그럼, 그 여자가?”

얀 요빌은 조금 망설였다.

“안내하게.”

“물론 개인적으로 면회하시는 거겠지요?”

“물론이고 뭐고가 어디 있어! 지금은 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야. 들어오는 보고는 그대로 두고, 특별히 내게 연락해야 할 때는 비밀 통화로 바꾸도록. 모두에게 알려줘!”

로빈 웬즈버리는 찢겨진 순백색 야회복차림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도중에 어느 중계지에도 들르지 않고 뉴욕에서 런던으로 곧장 조운트해 온 것이었다.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아름다웠다. 얀 요빌은 가슴속으로 그녀를 검사했다. 로빈은 이 검사가 끝났을 때 눈을 커다랗게 떴다.

“어머나, 당신은 그 때의 그 요리사잖아요? 안젤로 포기!”

얀 요빌 대위는 정보 장교로서 이 위기를 넘길 준비를 했다.

“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보통 때였다면 매력적인 옷차림으로 바꾸어 입을 테지만, 공교롭게도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자아, 여기에 앉으십시오. 성함이……?”

“웬즈버리, 로빈 웬즈버리라고 해요.”

“아아, 그러십니까? 얀 요빌 대위입니다. 참으로 잘 와주셨습니다. 웬즈버리 양 덕분에 오래 애먹었던 수사의 수고가 덜어지겠군요.”

<<<하지만 어째서……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군요. 당신은 스페인 총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어째서 당신은 추적을-?>>>

얀 요빌은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아니, 당신은 정신 감응을 하십니까, 웬즈버리 양? 어떤 방법입니까? 나는 정신 감응 시스템을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나는 완전한 정신 감응 전달은 하지 못해요. 일방적인 감응 전달이지요. 보낼 수는 있지만 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반적으로는 쓸모가 없다는 뜻이군요.”

얀 요빌은 동정적인 눈길을 보냈다.

“정신 감응의 불리한 점은 모두 갖고 있으면서도 이익이 되는 점은 모조리 빼앗아버리다니 매우 비열한 방법이군요. 동정합니다, 진심으로.”

<<<어머나! 말도 꺼내기 전에 이해해 주신 분은 당신이 처음이예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웬즈버리 양. 나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일을 다 알아 내 버리니까요. 그런데 스페인 총계에서의 일인데…….”

그는 그녀의 흥분된 정신 감응 전달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어째서 그는 뒤쫓고 있는 걸까요? 나를? 적성의 - 이 사람들은 나를 힐문하는 것일까? 몸을 자르기도 하고 - 정보를 - 나는->>>

얀 요빌은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하듯 다정하게 꼬옥 쥐었다.

“자아, 진정하십시오. 당신은 아무 것도 아닌 일에 겁을 먹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은 적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어떻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지금은 우선 그 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보부가 사람들에게서 어떻게든 정보를 쥐어짜 내려고 몸을 자르기도 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된 소문입니다.”

“소문?”

“우리는 그토록 어리석은 것은 하지 않는답니다, 웬즈버리양. 중세의 야만스러운 방법을 배우지 않더라도 정보를 끌어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을 아예 쓸모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전설 같은 소문이 미리 퍼뜨려진 겁니다.”

<<<정말일까? 아니, 거짓말을 하는 걸 거야. 함정이야.>>>

“정말입니다. 웬즈버리양…… 나는 여러 가지 술책을 씁니다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러 온 것이 분명하니까요.”

<<<이 사람은 도무지 빈틈이 없군…… 너무나 머리가 빨리 돌아가.>>>

“당신의 말을 들으니 최근에 무슨 심한 일을 당하신 것 같군요, 웬즈버리양…… 아주 혹독한 고통을 받은 것 같군요.”

<<<네, 그래요. 하지만 모든 건 다 내 탓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여자, 어떻게든 할 수 없는 바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웬즈버리양. 어째서 당신이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을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에게 속은 모양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탓이라고 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누군가의 탓도 있을 겁니다. 그게 누구니까?”

“그것을 말하면 그를 배신하는 게 돼요.”

“그럼,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어머니와 여동생을 찾아야 해요…… 나는 이제 그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만의 손으로 찾아야만 해요.”

로빈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나는 걸리버 포일이라는 사나이에 대해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얀 요빌은 달콤한 기분이었으나, 곧 일로 돌아갔다.

“그가 철도로 왔다는 것이 정말인가요?”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이 물었다.

“기관차에 전망차까지 달고 왔다면서요? 기막히게 대답하군요.”

“그래 아주 훌륭한 젊은이더구나.”

플레스타인이 대답했다.

강철같이 딱딱하게 굳은 모습으로 그는 딸과 둘이 응접실에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조운트해 달아난 하인이며 부하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냉정한 태도로 올리비아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딸에게는 이 중대한 위험을 결코 느끼게 하지 않으려는 듯했다.

“아버지, 피곤해요.”

“마음이 피로한 밤이었지. 그러나 아직 방으로 물러가지 말아주렴.”

“왜요?”

플레스타인은 함께 있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웬지 쓸쓸하구나, 올리비아.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자.”

“나는 아까 장난을 했어요, 아버지. 딸에서 폭격 광경을 지켜 보았어요.”

“너 혼자서?”

“아니오, 포마일과.”

플레스타인이 닫아둔 정면 현관문이 덜컥대며 누군가 심하게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일까요?”

플레스타인이 조용히 말했다.

“약탈자겠지. 놀라지 않아도 된다, 올리비아. 들어올 수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아.”

그는 무기가 준비하게 놓여 있는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려고 했다.

“포마일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우리는 함께 보고 있었어요…… 폭격 상황을 서로 설명해 주면서.”

“아무도 곁에 없고 너희 둘만 있었단 말이나? 분별이 모자랐구나, 올리비아.”

“알고 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무척 크고, 자신에 대해 의심해 본 일도 없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일부러 소탈하게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은 화가 나 있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나를 찾으러 뜰에까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와 함께 뜰에 있었느냐? 그러면 못쓴다, 올리비아.”

“나는 흥분해서 정신이 절반쯤 어떻게 되었었나 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나요,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는 어떻게 보였지요?”

“몸집이 무척 크고, 키가 크고, 몹시 색이 검고, 어딘지 모르게 알 수 없는 점이 있다. 보르시아를 닮았어. 확신과 천박함 사이를 흔들리며 왔다갔다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아, 그럼, 거친 사람으로군요. 나도 그것은 알았어요. 위험에 맞닥뜨리면 타올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짝반짝 빛날 뿐인데…… 그 사람은 빛을 내뿜는 볼트 같은 느낌이에요. 말할 수 없이 매혹적이에요.”

“저어, 올리비아.”

하고 플레스타인이 다정하게 타일렀다.

“아직 결혼 전의 여자는 조심성이 많아야 하니까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거란다. 네가 셀레스의 포마일 같은 벼락부자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갖는다면 나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을 거다.”

플레스타인 집안의 하인들, 요리사, 마부, 심부름꾼, 말시중꾼, 하녀들이 응접실로 속속 되돌아왔다.

플레스타인은 냉혹하게 말했다.

“너희들은 각자 맡은 일을 팽개치고 달아났었다. 내가 잘 기억해 두지. 나의 안전과 명예는 너희들 손에 맡겨져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지켜야 해. 올리비아와 나는 거실로 돌아가겠다.”

플레스타인은 얼음처럼 순수한 여왕을 단호히 보호하려는 것처럼 딸의 손을 이끌고 층계를 올라갔다. 그는 중얼거렸다.

“피와 돈이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

“가문의 악덕에 대해 생각했었다, 올리비아. 나는 네가 그것을 이어받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고 있다.”

“어떤 악덕인데요?”

“너는 몰라도 되는 일이야. 포마일에게도 그것이 있지.”

“어머나, 그는 나쁜 사람이군요? 그것도 나는 알고 있었어요. 보르지와와 같다고 말씀하셨지요? 까만 눈동자와 얼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저 끔찍스러운 보르지야…… 그 그림이 그 무늬가 되어 나타난 것이 틀림없어요.”

“무늬라고?”

“네,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무늬가 있어요. 여느 신경이나 근육의 전기와는 달라요. 뭔가가 그 위에 또 있어요. 처음부터 나는 거기에 매혹되었어요.”

“어떤 무늬더냐?”

“환상적인 것…… 무서운 악의 화산……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요. 뭔가 쓸 것을 주세요. 그래서 보여드리겠어요.”

두 사람은 6백 년 전의 치펜데일(18세기 가구장식의 양식) 풍 장식장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플레스타인은 은을 칠한 수정판을 꺼내 올리비아에게 내주었다. 그녀는 손 끝으로 그것을 만졌다. 검은 점이 나타났다. 그녀가 손가락을 움직이자 선이 되었다. 그녀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소름이 오싹 끼칠 만큼 무시무시한 악마의 가면에 나타난 소용돌이 무늬와 문장을 그렸다.

솔 더겐햄은 어두워진 침실에서 나왔다. 순간 한쪽 벽의 조명이 켜져서 불빛이 가득 넘쳤다. 지스벨라의 침실은 거대한 거울에 비친 것 같은 느낌이었으나, 불빛이 가려지는 장소가 있었다. 지스벨라가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거울에 비친 솔 더겐햄은 혼자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었다. 이 거울은 똑같은 두 개의 방을 가르고 있는 한 장의 흐린 유리였다. 더겐햄은 자기 방의 불을 켜 것이었다.

“시간을 정한 연애라……”

더겐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렸다.

“지긋지긋하군.”

“아니에요, 솔, 그렇지 않아요.”

“몸이 마르겠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불행해.”

“아니에요, 당신은 욕심이 너무 많군요. 이 정도로 만족하세요.”

“이제까지 이처럼 만족한 적은 없었소. 당신은 훌륭하구요.”

“당신은 사치스러운 분이예요. 자아, 주무세요, 솔. 내일은 스키에 가시는 거지요?”

“아니, 계획을 바꿔야겠소. 일을 해야하오.”

“어머나, 술,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일은 하지 않겠다고. 고민하는 일도 없고 뛰어 돌아다니거나 하지도 않겠다고요. 약속을 어길 생각이신가요?”

“난 이 전쟁이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가 없소.”

“전쟁 같은 건 아무래도 좋아요. 당신은 타이코 사막에서 충분히 희생을 치렀어요. 아무도 당신에게 그 이상의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또 한 가지 해야할 일이 있소.”

“내가 이제 일은 못하게 막겠어요.”

“아니, 당신은 참견하지 않는 게 좋소, 지스벨라.”

“믿지 않으시는군요.”

“당신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싶지 않소.”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는 없어요.”

“포일이라면 할 수 있소.”

“뭐라고요?”

“포마일은 걸리버 포일이오. 당신도 알고 있을 거요.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한 번도…….”

“그렇지, 당신은 나에게 말하지 않았소. 당신은 홀름하오.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충실했으면 좋겠소, 지스벨라.”

“어떻게 아셨나요?”

“포일이 자신도 모르게 말해 버린 것이오.”

“어떻게요?”

“이름이지.”

“셀레스의 포마일? 그는 셀레스 회사를 샀어요.”

“그러나 조프리 포마일이었지 않소?”

“자신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실은 기억에 남아 있던 이름이었소. 조프리 포마일이란 멕시코 시티의 종합 병원에서 그에게 과대 망상증 테스트를 할 때 쓴 이름이오. 그의 입을 열게 하려고 우리는 포일에게 착각법을 걸었었소. 그래서 그 이름이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아 있었던 것이오. 그는 그 이름이 생각났을 때 자신이 지어낸 독창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했소. 그러나 나는 곧 그때의 일이 생각났었소.”

“가엾은 걸리……”

더겐햄은 미소지었다.

“그렇지, 아무리 외부의 위험에서 자신을 지킨다 해도 언제나 그 내부에 있는 무언가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배신에 대해서는 막을 수가 없소. 우리는 누구나 자신을 배신하고 있소.”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술?”

“물론 그를 해치워야지.”

“20파운드의 파이어 때문에?”

“천만에. 거의 승산이 없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요.”

“뭘라고요?”

지스벨라는 방을 나누고 있는 유리벽에 얼굴을 뒀다.

“술, 당신이 말인가요? 애국자인가요?”

그는 마치 죄를 저지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오. 그로테스크한 이야기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마음 먹었소. 나를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든 것은 당신이오. 나는 다시 본디의 제정신을 지닌 사람으로 돌아왔소.”

그도 유리벽에 얼굴을 뒀다. 두 사람은 3인치의 흐린 유리를 사이에 두고 키스를 나누었다.

마레 누비움은 혐기성 박테리아, 토양유기물 부패균, 희귀한 곰팡이 및 그 밖에 공기가 없는 토양을 필요로 하는 온갖 종류 미생물의 성장에 알맞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박테리아 회사는 바라크, 사무실, 공장이 가운데 몰려 있고 그 주변에는 밭이랑으로 구획된 모자이크 모양의 재배장이 펼쳐져 있었다. 하나하나의 재배장은 커다란 유리통으로 되어 있었다. 지름 백 피트, 높이 12센티미터로, 2분자의 두께였다.

태양 광선이 달의 표면을 기어다니며 마레 누비움에 이르기 하루 전에 유리통은 매토(媒土)로 채워졌다. 공기 없는 달에 눈이 아찔한 듯한 핏빛이 비칠 때, 통에 씨를 뿌린다. 그리고 태양이 줄곧 나와 있는 14일 동안 그것을 가려내고 조정하고 영양을 준다. 노동자들은 우주복을 입고 밭이랑을 왔다갔다했다. 해가 지는 기간이 마레 누비움에 찾아올 무렵이면 통이 거두어진다. 그리고 해가 나오지 않는 추운 2주일 동안에 팽팽 열려서 저장된다.

조운팅도 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는 지루한 양식에는 필요가 없었다. 그 리하여 박테리아 회사에서는 조운트 능력이 없는 불행한 사람들을 고용하여 노예적인 임금으로 혹사했다. 그것은 노동의 최저 조건이며, 태양계의 착취와 수탈의 표본이었다. 박테리아 회사의 기숙사는 2주일 동안의 휴식 기간 내내 마치 지옥과도 같았다. 포일은 제 3동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알아차렸다.

소름이 끼칠 것 같은 광경에 부딪혔던 것이다. 거대한 방에 2백 명의 인간이 있었다. 매춘부, 잔인한 눈을 가진 손님 끄는 사람, 도박을 직업으로 삼은 무뢰한 마약 상인, 고리대금업자들…… 목을 콕 찌르는 담배 연기, 알콜, 사람에게서 나는 역겨운 냄새가 자욱히 차 있었다. 가구, 침구, 옷가지, 의식을 잃은 인간, 텅 빈 병, 썩은 음식이 바닥에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다.

포일이 모습을 나타내자 신음 소리가 끊어올랐으나, 그는 이 자리를 빠져 나가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맨 처음 그에게 눈을 돌린 털복숭이 사나이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걸었다.

“캠프시인가?”

무뚝뚝한 대답이 되돌아왔다. 포일은 하죽이 웃고 나서 그 사나이에게 백¢의 지폐를 주었다. 그리고 다른 사나이에게 물었다.

“캠프시인가?”

모욕이 대답이었다. 그는 그 사나이에게도 지폐를 주었다. 바라크 한가운데까지 오자 단서가 될 만한 사나이를 만났다. 분명 이 바라크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사나이인 듯, 괴물 같은 모습에 알몸으로 두 매음부를 애무하며 아랫사람에게서 위스키를 빼앗아 마시고 있었다.

“캠프시인가?”

포일은 빈민들의 말투로 물었다.

“나는 로저 캠프시를 찾고 있는데.”

“우선 돈부터 내시지.”

사나이는 커다란 손바닥을 내밀어 포일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며 말했다.

“이리 내라구.”

군중들 속에서 재미있다는 듯한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포일은 빙긋 웃으면서 그의 눈을 향해 침을 뱉었다. 심상치 않은 정적이 흘렀다. 벌거벗은 사나이는 매음부를 뺨 집어던지고 포일을 때려눕히려 하고 다가섰다. 5초 뒤 포일은 그를 바닥에 뺨치게 하고 그 목을 발로 눌렀다.

“나는 캠프시를 찾고 있어.”

포일은 조용히 말했다.

“갓은 고생을 하며 찾고 있어. 가르쳐 주는 편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여 주겠다. 자아, 말해 봐!”

“세면소에……”

사나이가 신음했다.

“세면실에 있다가까.”

“좋아, 돈을 주지.”

포일은 사나이 앞에 남은 돈을 던지고 급히 세면실로 달려갔다.

캠프시는 세면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을 벽에 대고 지친 목소리로 신음하고 있었다. 아마 몇 시간 동안이나 틀어박혀 있었던 모양이다.

“캠프시인가?”

사나이는 신음 소리로 대답했다.

“왜 그러고 있나, 캠프시?”

“웃어……”

캠프시는 울기 시작했다.

“웃어야…… 웃 투성이야. 웃, 오물,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오물, 웃, 웃 투성이야.”

“정신차리게, 캠프시, 눈을 떠봐!”

“웃, 웃, 오물,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오물……”

“캠프시, 알겠나, 오렐이 나를 보내서 왔네.”

캠프시는 훌쩍거리는 소리를 그치고 젖은 얼굴을 포일에게로 돌렸다.

“누구? 누구라고?”

“세르게이 오렐이 보내서 왔지. 내가 자네의 자유를 찾아주겠어. 자네는 자유야. 여기서 나가는거야.”

“언제?”

“지금 당장.”

“오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캠프시는 매우 지쳐 있으면서도 정신없이 기빠 떠들기 시작했다. 타박상이 있는 부어오른 얼굴이 웃는 듯한 표정이 되었다. 포일은 그를 세면실에서 끌어냈다. 그러나 바라크로 들어가자 그는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다. 포일이 그를 긴 방으로 데리고 가자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매음부가 웃을 한아름 안고 그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캠프시는 입에서 거품을 내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이기 시작했다.

“이 자가 왜 이러는 거지?”

포일은 빈민어로 아까의 그 사나이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때려눕혀졌던 그 사나이는 우호적이지는 않았으나 최소한 이 때만은 존경의 뜻이 담긴 중립적인 태도로 변해 있었다.

“달려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가 대답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헌옷을 보여주면 <경련>을 일으키지요. 묘한 녀석입니다.”

“무엇 때문인가?”

“무엇 때문이냐고요? 미친 거지요. 그뿐입니다.”

메인 오피스의 기밀실에서 포일과 캠프시는 우주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나서 포일은 그 사나이를 로켓 발착탑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서는 스무 대의 대 중력 광선이 밤하늘을 향해 지하고로부터 파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지하고로 들어가 포일의 우주선에 올라타고 발착대를 떠났다.

포일은 선반에서 병과 주사 앰플을 집어들었다. 술을 따라 캠프시에게 주었다. 그는 손바닥에 앰플을 올려놓고 미소지었다.

캠프시는 아직도 기뻐 어쩔 줄 몰라 떠들어대며 위스키를 마셨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자유다! 만세! 내가 어떤 꼴을 당해왔는지 당신은 모를거요.”

그는 또 술을 마셨다.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야. 꿈만 같아. 이건 꿈이야. 당신은 어째서 마시지 않지요? 나는-”

캠프시는 숨을 삼키며 글라스를 떨어뜨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포일을 응시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

“당신의 얼굴이…… 아아, 당신의 얼굴이……어떻게 된거요!”

“너 때문이야, 이 멧탱구리!”

포일이 소리쳤다.

그는 벌떡 일어났다. 호랑이 같은 얼굴이 이글이글 타오르며 주사 앰플을 나이프처럼 쑥 내밀었다. 그것은 캠프시의 목에 콕 찔리더니 바들바들 떨리다가 멈추었다. 캠프시는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포일은 가속하여 쓰러지는 몸에 접근하여 넘어지기 바로 직전에 받아 올렸

다. 그는 사나이를 우현의 특별 선실로 운반했다. 이 우주선에는 특별 선실이 두 개 있었다. 그중 우현의 특별 선실은 도구와 용품들을 놓아둔 수술실로 되어 있었다. 포일은 캠프시의 몸을 수술대에 묶어놓고 외과 수술용 기구 케이스를 열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최면 훈련으로 배운 미묘한 수술을 하기 시작했다. 5분의 1의 가속에 의해서만 가능한 수술이었다.

피부와 근막을 절단하고, 늑골을 톱으로 썰어 심장을 끌어낸 뒤 절단하고 정맥과 동맥을 수술대 옆의 복잡한 수혈 펌프에 붙들어맸다. 펌프를 시동시켰다. 20초가 지났다. 캠프시의 얼굴에 산소 마스크를 갖다대고, 산소 펌프의 스위치를 넣어 숨을 쉬게 했다.

포일은 다시 감속하여 캠프시의 체온을 조사하고 정맥에 충격 예방제를 주사한 다음 그를 지켜보았다. 혈액이 소리를 내며 캠프시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다. 5분 뒤 포일은 산소 마스크를 뗐다. 호흡 반응은 계속되고 있었다. 캠프시는 심장 없이 살아 있었다. 포일은 수술대 곁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무늬가 아직도 그의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캠프시는 의식을 잃고 있었다.

포일은 눈도 깜박이지 않고 응시하고 있었다.

캠프시는 눈을 뜨더니 다시 비명을 질렀다.

포일은 벌떡 일어나 한층 더 세게 그를 묶어놓고, 심장 없는 사나이의 몸 위로 허리를 굽혔다. 그가 말했다.

“캠프시!”

캠프시는 또 비명을 질렀다.

“자신을 잘 봐, 캠프시, 자네는 죽어 있는 거야.”

캠프시는 정신을 잃고 까무러쳤다. 포일은 다시 산소 마스크를 갖다대 주었다.

“제발 부탁이니 죽게 해 줘!”

“왜 괴로운가? 난 반년이나 죽어 있었어. 그래도 나는 우는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

“죽게 해 줘!”

“이제 곧 죽게 해 주지. 저지제는 듣지 않아. 그러나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곧 죽게 해 준다. 자네는 2436년 9월 16일 <보거> 호에 타고 있었지?”

“부탁이니, 죽게 해 줘!”

“<보거> 호에 타고 있었지?”

“아아!”

“공간에서 난파된 우주선을 만났지. <노매드> 호의 난파체였어. 구조를 청했지만, 자네는 그냥 지나쳤어. 그렇지?”

“아아!”

“왜 그랬나?”

“오, 주님! 오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왜 그랬지?”

“아아, 살려주십시오!”

“나는 <노매드> 호에 타고 있었다 캠프시. 내버려두면 죽을 줄 알면서 뻔히 그대로 지나친 이유가 뭐야?”

“은혜로우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질문에 대답하면 내가 죽게 해 주마, 캠프시. 어째서 못 본 체해서 죽게 했지?”

“당신을 구할 수가 없었소.”

“어째서?”

“피난민을 태우고 있었소.”

“그래, 역시 생각했던 대로군. 카리스트에서 피난민을 태워 운반했겠군?”

“아아!”

“몇 명이었지?”

“6백 명.”

“굉장히 많았군. 그러나 한 사람쯤 더 태울 수도 있었을 텐데? 어째서 나를 구해 내지 않았지?”

“피난민을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소.”

“뭐라고!”

포일이 소리쳤다.

“우주선 밖으로…… 모두 6백 명…… 발가벗겨…… 옷, 금, 보석 짐을 모두 빼앗고…… 한 덩어리로 하여 기밀실에서 내던졌소. 아아, 우주선 안은 온통 옷 투성이었소…… 비명과 - 아아, 하느님, 이것을 잊을 수만 있다면! 발가벗은 여자들이…… 파랗고 넓은 공간에서 파열되어 내장이 모두 흩어진채…… 우리 뒤에서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고 있었소…… 온 우주선이 옷 투성이었소…… 6백 명이…… 내던져진 것이요!”

“이 자식! 그것이 장사였구나! 너희들은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지구에 데려

다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게로군.”

“그렇소.”

“그래서 나를 구하지 않았나?”

“구했다 해도 언젠가는 당신을 집어던져야만 할 참이었소.”

“누가 명령했지?”

“선장이.”

“이름은?”

“조이스. 린제이 조이스.”

“주소는?”

“화성, 스코프치 식민지.”

“뭐라고!”

포일은 벼락을 맞은 사람 같았다.

“그 자가 스코프치에 있다고? 1년이나 걸려 쫓아다니면서도 그 자에게 손을 댈 수 없었던 말인가…… 그 자를 괴롭혀 나와 똑같이 호된 꼴을 당하게 해 줄 수 없었던 말인가?

그는 수술대 위에서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는 사나이로부터 얼굴을 돌렸다. 그도 자신의 실패를 깨닫고 괴로워 몸부림쳤다. 그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스코프치! 생각조차 하지 못했군…… 그 자를 위해 또 하나의 수술대를 준비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무늬가 시커먼 얼굴에 나타났다.

캠프시의 절망적인 신음 소리로 포일은 다시 정신을 차렸다. 수술대로 돌아와 산산조각으로 찢긴 사나이의 몸 위로 허리를 굽혔다.

“마지막이니 솔직하게 대답해 봐. 스코프치의 린제이 조이스가 피난민을 집어던지라고 명령했던 말이지?”

“아아!”

“그리고 나를 보고도 못 본 체 죽도록 내버려두라고 명령했던 말이지?”

“아아, 아아! 이제는 그만 죽게 해 줘!”

“살아야 해, 이 돼지야. 심장이 없는 더러운 개야! 심장 없이 살아야 해! 살아서 괴로워해야 해! 나는 네놈을 영원히 살려둘 테다……”

기분나쁜 인광이 포일의 눈을 쏘았다. 그는 눈을 들었다.

그 타오르는 허상이 수술실의 네모진 큰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창문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불타는 인간의 모습이 사라졌다.

포일은 수술실로 나와 사령실로 뛰어갔다. 전망창에 2백 70도 시계가 보였다. 그러나 불타는 사나이는 아무 데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현실이 아니었어. 현실일 리가 없지. 그것은 계시야. 행운의 징조…… 나를 지켜주는 천사야. 그는 스페인 층계에서 나를 도와 주었어. 그는 나에게 더욱 나아가 린제이 조이스를 찾아 내라고 격려하는 거야.”

그는 조종석의 벨트로 몸을 꼭 붙잡아 묶고 제트를 시동시켜 전속력으로 나아갔다.

“화성, 스코프치 식민지의 린제이 조이스!”

그는 공기의자에 세계 놀리면서 생각했다.

‘스코프치…… 감각도 없고, 기쁨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뇌도 없는 금욕적인 도피에 도달한 스코프치의 인간. 어떻게 그 자를 벌해 줄까? 어떻게 괴롭혀 줄까? 특별 선실에 처박아놓고, 내가 <노매드> 호 안에서 느낀 것과 똑같은 것을 느끼도록 해 줄까? 제기랄! 스코프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죽어 있는 것이야. 시체를 때려 괴롭히는 방법을 알아 내야겠는데.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성공할 단계에서 문이 단단히 닫힌 듯한 심정이군. 복수는 실패야…… 꿈이야…… 결코 현실이 되지는 못해.)

한 시간 뒤 그는 가속과 분노에서 해방되었다. 그는 조종석의 벨트를 풀고 캠프시를 생각해 냈다. 그는 수술실로 가보았다. 속도를 올릴 때의 굉장한 가속이 수혈 펌프를 막아버려 캠프시는 숨이 끊어져 있었다. 갑자기 포일은 이제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그것과 필사적으로 싸웠다.

“어떻게 된 건가, 캠프시?”

그는 나지막하게 소곤거렸다.

“공간에 내던져진 6백 명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신의 일도…… 자네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미는 창백한 지하실의 그리스도 교도가 되려는 건가? 올리비아, 당신은 나를 어찌려는 거요? 나에게 겁쟁이 마음이 아니라 힘을 주시오, 올리비아…….”

제 11 장

<<<셀레스의 포마일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 또는 어떠한 입장으로든 그와 협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모조리 심리하시오. 안 요빌(중앙 첩보부).>>>

<<<본사 사원은 셀레스의 포마일의 동정을 엄중히 감시하고, 즉시 각자의 미스터 플레스타에게 보고하도록. 플레스타인.>>>

<<<클리어 사원은 모두 현재의 임무를 그대로 두고 포일 사건에 관한 새로운 임무에 착수하시오. 더겐햄.>>>

<<<포마일의 모든 재산을 봉쇄하기 위해 전쟁 위험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은행은 휴업에 들어가시오. YY(중앙 첩보부).>>>

<<<우주선 <보거> 호에 관해 조사하는 자는 심문을 위해 플레스타인 성으로 연행하도록. 플레스타인.>>>

<<<내행성연합군의 모든 항구와 모든 공항은 포마일의 도착을 경계하시오. 모든 착륙에 대해 검역 및 관세 검사를 철저히 집행하도록. YY(중앙 첩보부).>>>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을 수색하고 감시하라. 더겐햄.>>>

<<<본즈 앤드 위그의 서류에 의해 포일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있도록<보거> 호의 전 승무원 명단을 조사하도록. 플레스타인.>>>

<<<전쟁범죄위원회는 민중의 적 제1호로서 걸리버 포일을 지목하기로 결정. YY(중앙 첩보부).>>>

<<<지금 내행성군에서 염탐 중인 셀레스의 포마일, 별명 걸리버 포일, 또는 걸리 포일의 체포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1백만 £ r의 상금

을 주겠음>>>

식민이 행해지고 2세기가 지났지만 화성에서의 공기 싸움은 여전히 매우 심각했으므로 VL법, 다시 말해서 식물 사형법은 아직도 유효했다. 이산화탄소의 대기를 산소의 대기로 바꾸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고 있었는데, 어떤 식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파괴하는 것은 살해 행위로 간주되었다. 풀잎 하나도 신성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푼말을 세울 필요도 없었다. 잔디밭에 들어가는 사나이는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다. 꽃을 꺾는 여자도 용서 없이 살해되었다. 이 2세기 동안, 갑자기 덮칠지도 모르는 죽음의 공포에 찬 2세기 동안 푸르게 자라는 식물에 대해 존경심이 커져 그것이 거의 종교로까지 높아졌다.

포일은 화성의 생 미셀로 통하는 독의 사잇길을 질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는 시르티스 공항에서 이 독의 사잇길 기슭에 있는 생 미셀의 채송대까지 직접 조운트해 왔다. 이 사잇길로 2분의 1마일쯤 푸른 들판을 지나 화성의 생 미셀에 이르고 있었다. 그 나머지 거리는 걸어가야만 한다.

프랑스 해안에 있던 몽 생 미셀과 같이 화성의 생 미셀도 장엄한 고딕식 사원과 능선 위에 선 뾰족탑과 흉벽이 높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구의 몽 생 미셀은 푸른 초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양쪽 다 요새(要塞)였다. 몽 생 미셀은 조직적인 종교가 폐기되기 이전의 신앙적인 요새였고, 화성의 미셀은 정신 감응의 요새였다. 그 속에는 화성에서 단 한 사람의 완전한 전심술사인 시그울드 맥스먼이 살고 있었다.

“여기가 시그울드 맥스먼을 지키고 있는 방채(防柵)로군.”

포일은 신경질인지 기도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첫째로 태양계, 둘째로 계엄령, 셋째로 더겐햄 - 플레스타인 일당 - 넷째로 요새, 다섯째로 제복 입은 위병, 감시원, 하인, 시그울드 맥스먼의 숭배자들. 엄청난 거액으로 무서운 힘을 마구 팔아버리는 시그울드 맥스먼…….”

포일은 당치도 않게 큰 소리를 내어 웃었다.

<<<그러나 여섯째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시그울드 맥스먼의 아킬레스 힘줄이다…… 나는 시그울드 3세에게 백만 qr을 지불했었지…… 아니, 4세였던가?>>>

그는 위조한 신분 증명서로 화성의 생 미셀 외부 미로를 통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긴박한데다 이미 적이 몸 가까이 다가와 있으므로 가속하여 몸을 감추었다. 그리고는 생 미셀 농원 속의 담을 둘러친 정원에서 보잘것 없고 허술한

오두막을 한 채 발견했다. 꺼멓게 그을린 창문과 풀을 이어만든 지붕을 엮어 마
굿간으로 잘못 봄직한 오두막이었다. 포일은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은 보육소였다. 밝은 인상을 주는 보모 셋이 혼들의자에 앉아서 언 손
으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포일의 몽롱한 모습이 등 뒤로부터 덮여 조용히 여
자들을 주사기로 찔렀다. 그런 다음 포일은 감속했다. 매우 나이가 많은 늙은
아이에게로 눈을 돌렸다. 시들어 주름이 잡힌 그 아이는 바닥에 앉아 전차로 장
난하고 있었다.

“안녕, 시그울드!”

포일이 말했다.

어린이가 울기 시작했다.

“울보로구나! 뭐가 무섭지? 나는 너를 괴롭히거나 하지 않아요.”

<<<아저씨는 무서운 얼굴을 한 나쁜 사람이야.>>>

“아가의 친구야, 시그울드.”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나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거야.>>>

“아가의 친구라니까. 자아, 봐, 아저씨는 너 대신 너인 체하는 나쁜 사람들을
안단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 아저씨의 마음을 알아보렴.”

<<<아저씨는 그를 괴롭히려 하고 있어. 아저씨는 나더러 그에게 이야기하도
록 시키려 하고 있어.>>>

“누구에게?”

<<<대장. 스크루— 스코— >>>

아이는 말이 막히자 큰 소리로 울었다.

<<<저리가!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야. 머릿속에 나쁜 것을 넣고, 저 불타는
인간과 —

“이리 와, 시그울드.”

<<<싫어! 언니! 유모 언니!>>>

“잠자코 있지 못해, 이 못난이야!”

포일은 70살짜리 어린아이를 붙잡아 쿡쿡 쥐어박았다.

“시그울드, 이것은 너로서도 태어나서 처음 맞본 경험일 거다. 난생 처음 맞
았겠지?”

늙은 아이는 그를 노려보며 마구 울부짖었다.

“시끄러워! 우리는 이제부터 스크프치 식민지로 가는 거다. 만일 네가 암전히
하라는 대로 잘하면 아무 일 없이 다시 데려다주고 캔디든 뭐든 좋아하는 것을

주지. 그러나 만일 암전하게 굴지 않으면 너에게서 사는 힘을 모조리 빼앗아버릴 거야.”

<<<아니야, 아저씨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절대로 나는 시그울드 맥스먼이야. 전심술사 시그울드 아저씨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아가, 나는 걸리버 포일이란대. 태양계의 적 제 1 호지. 1년이나 걸려 찾아온 것을 이제 앞으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대강 짐작할 수 있게 된단다! 나는 그 녀석과 담판을 하기 위해 너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험한 짓을 하는 거야. 나는 걸리버 포일이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

전심술사는 있는 대로 소리를 질러 두려움을 방출하기 시작했다. 곧 경보가 화성의 생 미셀 전지역에 울려 퍼졌다. 포일은 늙은 아이를 꼭 끌어안고 가속하여 그를 요새 밖으로 데려갔다. 그런 다음 조운트했다.

<<<긴급 경보. 시그울드 맥스먼이 걸리버 포일, 별명 샬레스의 포마일, 태양계의 적 제 1 호로 지목된 사나이에 의해 유괴되었다. 목적지는 거의 정해져 있다. 통합 여단은 경계하라. 중앙 첩보부에 연락하라. 긴급 경보!>>>

섹스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옛 스코프치의 백색 러시아 인들은 스스로 남근을 제거하는 잔학한 짓을 했었다. 감동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는 현대의 스코프치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야만스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다. 스코프치 식민지로 들어가 특권을 얻는 대신 재산을 집어던질 때, 새로 들어온 자는 기꺼이 감각 신경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다. 그래서 보지도 듣지도 소리를 내지도 이야기를 하지도 않으며, 냄새를 맡지도 맛을 보지도 만지지도 않고 사는 것이다.

그 곳의 수도원에 처음 들어가면 우선 상아로 만든 작고 우아한 방을 보여준다. 그 안에서 여생을 명상하며 보내는 생활이 쉽게 납득된다. 사실 감각이 없는 생물은 지하 묘지에 처박혀 그 속에서 거칠게 깎은 돌판 위에 앉아 먹을 것이 주어지면 먹고, 하루에 한 번 운동할 뿐이었다. 22시간 가운데 21시간은 오직 혼자 캄캄한 속에 내버려진 채, 시중 받는 일도 없고 보호 받는 일도 없고 사랑 받는 일도 없이 앉아 있는 것이다.

“살아 있는 시체……”

포일은 중얼거렸다.

그는 감속하여 시그울드 맥스먼을 내려놓고, 망막의 빛에 스위치를 넣은 뒤

어두운 내부를 들여다 보려고 했다. 지하묘지 속은 영원한 어둠이었다. 시그울드 맥스먼은 공포와 고통을 정신 감응으로 크게 외쳤기 때문에 포일은 그를 또 마구 휘둘러야만 했다.

“조용히 하라니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죽은 생물들을 아무래도 소리쳐 깨울 수는 없으니까. 자아 린제이 조이스를 찾아줘!”

<<<그들은 병들었어……모두 아파……머릿속에 구더기가 있어……구더기와 병과——>>>

“시그울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적당히 해둬. 좀더 나쁜 짓을 보여 줄까?”

두 사람은 지하 묘지의 복잡하게 얽힌 미로 속으로 내려갔다. 돌판은 마룻바닥에서 천장까지 선반처럼 벽에 붙여져 있었다. 동물은 팔태충(연체 동물의 일종으로 달팽이 같이 생겼음)처럼 희고 시체처럼 말이 없으며 부처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스코프치 사람들의 살아 있는 주검 냄새로 가득했다. 시그울드는 오랫동안 몹시 큰소리를 지르며 울었다. 포일은 그를 꼭 잡고 놓지 않았다.

포일은 돌판에 붙어 있는 청동 이름표를 읽어나갔다.

“존슨, 라이트, 킬리, 그래프, 네스트로, 언더우드…… 아아, 여기에는 몇천 명이나 있군. 시그울드, 린제이 조이스를 찾아줘. 이름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는 없어. 리걸, 코온, 불래디, 빈센트 - 아니, 이게 뭘까?”

포일은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여위어 뼈와 가죽만 남은 창백한 한 사람이 이마를 두드리고 있었다.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며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다. 선반 위의 흰 생물이 몸부림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었다. 시그울드 맥스먼이 끊임 없이 내뿜는 고통과 공포의 전파가 전달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조용히 하라니까!”

포일이 고함쳤다.

“그만둬. 어서 린제이 조이스를 찾아 내. 그러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서둘러 그를 찾아 내면 돼.”

<<<이 밑에 있어.>>>

시그울드가 흘쩍거리며 말했다.

<<<이 바로 밑에.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선반에 있어. 난 집에 돌아가고 싶어. 기분이 나빠. 나는——>>

포일은 시그울드와 함께 급히 내려갔다. 이름표를 읽어 가는 동안 그는 드디

어 <린제이 조이스, 부겐빌, 금성>이라고 씌어진 곳에 이르렀다.

이 자야말로 포일의 적이며, 그를 죽도록 내버려둔 자 - 카리스트에서 피난하려던 6백 명을 죽인 주모자였다. 이 자야말로 그가 복수를 계획하고 몇 달 동안이나 찾아다닌 적이었다. 이 자야말로 포일이 우주선 특별선실에서 괴로워 몸부림치게 해 주려고 준비해 온 적이었다. 이 자가 바로 <보거>였다. 그런데 그 인간은 여자였다.

포일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서 있었다. 여성이 패더(여성임을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막)로 둘러싸여 있던 시대에는, 여자가 자기들에게 금지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남자 옷차림을 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는 여자가 장사를 목적으로 한 우주선에 타거나 고급 우주 선원이 되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었다.

“이 여자가?”

그는 분격하여 외쳤다.

“이것이 린제이 조이스인가? <보거>의 린제이 조이스란 말인가? 시그올드, 이 여자에게 물어봐.”

<<<나는 <보거>가 뭔지도 모르는걸.>>>

“물어봐!”

<<<하지만 난…… 이 여자는 - 명령을 했어.>>>

“선장인가?”

<<<나는 이 여자의 마음 속이 싫어. 병과 어둠 뿐이야. 아아, 괴로워! 집에 가고 싶어!>>>

“여자에게 물어봐. 이 여자가 <보거>의 선장이었는지.”

<<<그래, 선장이었어. 이제 부탁이니 제발 더 이상 나를 그녀의 내부로 들어가게 하지 마. 복잡해서 괴로워. 나는 이 여자가 싫어.>>>

“이 여자에게 말해 - 나는 2216년 9월 16일에 이 여자가 구해 주려고 하지 않았던 사나이라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결판을 내려고 찾아왔다고 말해. 그 답례를 해 주겠다고.”

<<<난 몰라. 모른단 말야!>>>

“죽여 주겠다고 천천히 시간을 끌며 잔혹하게 죽여 주겠다고 말해. 내 우주선에는 특별 선실이 만들어져 있지. 내가 반년 동안이나 그 속에서 씌었던 <노매드> 호의 그 방과 똑같은 방을 준비해 놓았다고 말해 줘. 그때의 나와 똑같이 씌어서 죽어가도록 해 주겠다고 말해!”

포일은 말라빠진 아이를 화가 치미는 대로 휘둘렀다.

“이 여자에게 말해 주는 거야. 스포츠에 섞여들었다고 해서 풀려날 것 같은가 - 내가 잔혹하게 죽여주겠다고 말이야. 내 말을 알아들었으면 어서 이 여자에게 말해 줘!”

<<<이 여자는…… 이 이 사람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어.>>>

“뭐라고!”

<<<난 이 자를 몰라.>>>

“이 여자가 나를 보고도 못 본 척 죽도록 내버려두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단 말인가?”

<<<나는 이 여자의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

“들어가, 바보야! 그렇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어줄 테다. 이 여자가 뭐라고 했지?”

시그올드가 울부짖고 여자가 몸부림을 치므로 포일은 더욱 초조하게 서둘렀다.

“들어가! 어서 들어가! 이 여자에게서 끌어내. 빌어먹을! 시그올드! 시그올드! 알겠나? 이 여자에게 물어봐. 피난민을 내던지도록 명령했는지 안했는지 어서 물어봐.”

<<<싫어, 싫어!>>>

“싫다니! 이 여자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가 묻고 싶지 않다는 뜻인가?”

<<<그녀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

“이 여자는 <노매드> 호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라는 명령을 내렸나?”

<<<이 여자는 복잡하고 병들었어. 아아, 부탁이야! 언니, 살려줘! 집에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이 여자는 <노매드> 호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라는 명령을 내렸나?”

<<<싫어!>>>

“안 내렸는가?”

<<<싫어. 집에 데려다줘.>>>

“누가 명령했는지 그녀에게 물어봐.”

<<<언니한테 갈 테야.>>>

“물어보라니까!”

<<<싫어, 싫어, 싫어! 나는 무서워. 그녀는 병났어. 어두워, 캄캄해. 이 여자

는 나빠. 나는 이 여자를 몰라. 난 언니한테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몸부림쳤다. 포일이 큰 소리를 질렀다. 메아리가 울렸다. 포일이 와락 아이를 붙잡았을 때 눈부신 빛이 비쳤다. 지하 묘지 전체가 그 불타는 사나이의 모습으로 환해졌다. 포일의 허상이 눈앞에 서 있었다. 소름 끼칠 듯한 얼굴, 불타오르는 옷, 강렬하게 빛나는 눈동자가 린제이 조이스 - 지금은 겁에 질린 스코프치의 인간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불타는 사나이는 호랑이 같은 입을 크게 벌렸다. 빼걱거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웃음 같았다.

“이 여자는 괴로워하고 있다.”

허상이 말했다.

“너는 누구야?”

포일이 낮게 물었다.

불타는 사나이가 당황해 했다.

“너무 밝다. 좀 더 빛을 약하게 해 줘.”

포일이 한걸음 앞으로 나갔다. 불타는 사나이가 괴로운 듯이 귀를 틀어막았다.

“너무 시끄러워!”

사나이가 소리쳤다.

“그렇게 소리를 내며 걷지 마!”

“너는 나의 수호신인가?”

“네 눈을 멀게 하고 있군.”

사나이가 또 웃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어봐. 비명을 지르고 있어. 애원하고 있어.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괴로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여자의 말을 들어봐.”

포일은 부르르 몸을 떨었다. 사나이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여자는 누가 명령했는지 말하고 있다. 너에겐 들리지 않는가? 눈으로 듣는 거다.”

불타는 사나이는 몸부림치는 여자를 길다란 손톱이 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여자는 <올리비아>라고 말하고 있다.”

“뭐라고!”

“<올리비아>라고 말하고 있다. 올리비아 플레스타인, 올리비아 플레스타인, 올리비아 플레스타인.”

불타는 허상이 사라졌다.

지하 묘지는 다시 암흑으로 돌아갔다.

갓가지 색채의 빛과 불협화음이 포일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는 너무
나도 놀라서 숨이 멎어 비틀거렸다. 그는 중얼거렸다.

“블루 조운트…… 올리비아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
어. 올리비아— 나는…….”

그는 무엇이 손에 닿는 것을 느꼈다.

“지즈인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시그울드 맥스먼이 그의 손에 매달려 울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이를 안아올렸다.

<<<난 괴로워!>>>

시그울드가 훌쩍훌쩍 울며 말했다.

“나도 괴롭다, 아가야.”

<<<집에 가고 싶어.>>>

“내가 데려다주지.”

그는 아이를 팔에 안고 발끝이 걸려 넘어질 뻔하면서 지하 묘지를 걸었다.
걸으면서 그는 입 속으로 중얼거렸다.

“산 시체들이다. 그리고 나도 이들과 한패가 되었다.”

지하 묘지에서 지상의 수도원 복도로 나가는 돌층계를 발견했다. 그는 죽음
과 공허감을 맛보면서 층계를 올라갔다. 머리 위가 밝아졌다. 순간 벌써 새벽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복도가 인공 불빛으로 눈부시게 비추어져
있음을 깨달았다. 구두 소리와 지휘관들의 낮고 노한 목소리가 들렸다. 층계 중
간에서 포일은 걸음을 멈추고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시그울드—”

그는 목소리를 죽여 말했다.

“위에 있는 것이 누구지?”

<<<병사>>>

아이가 대답했다.

“병사? 무슨 병사?”

<<<통합막료여단 병사.>>>

시그울드의 주름투성이 얼굴이 빛났다.

<<저들은 나 때문에 온 거야. 나를 우리 언니한테 데려다 주려고.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정신 감응으로 크게 외치자 머리 위에서 고함 소리가 쏟아져 내렸다. 포일은 복도로 나가는 층계를 가속하기도 하고 감속하기도 하면서 올라갔다. 이윽고 초록색 잔디밭으로 둘러싸인 로마네스크 풍의 아치가 있는 광장으로 나왔다. 잔디밭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레바논 삼나무가 있었다. 돌이 깔린 보도에는 통합 막료 여단의 수색대가 떼지어 있었다. 포일은 드디어 두려운 적을 만난 것이다. 그가 지하 묘지에서 몽롱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자 그들도 일제히 가속하여 접근해 왔다.

그러나 포일은 아이를 안고 있었다. 충을 쏘아 죽일 수는 없었다. 시그울드를 팔에 꼭 끌어안고 그는 복도를 달렸다. 그를 막으려는 자는 없었다. 왜냐 하면 플러스 5의 가속 상태에서 두 개의 몸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양쪽 다 치명적이기 때문이었다. 이 위험하기 이를 데 없는 작은 싸움은, 객관적으로는 5초 동안 번개가 지그재그로 달린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

포일은 복도를 돌파하여 수도원의 큰 홀을 빠져 나왔다. 다시 미로를 지나서 정면 문 밖에 있는 공공 조운트 대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감속하여 반 마일 앞의 수도원 공항으로 조운트했다. 공항에도 전깃불이 눈부시게 켜졌고 수색대가 떼지어 있었다. 대 중력 광선을 갖춘 지하고는 부대의 우주선에 의해 모두 점령되어 있었다. 그의 우주선에는 감시가 붙어 있었다.

포일이 공항에 도착하고 5분의 1초 뒤에 수도원으로부터 추적자들이 속속 조운트해 왔다. 그는 절망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연대의 2분의 1 병력에 의해 밀집적으로 포위되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가속하고 있었으며, 치명적인 행동으로 나올 장치도 갖추고 있었다. 그와 동등한 힘을 가졌거나 또는 그보다 뛰어났다. 이길 가망성은 전혀 없었다.

그 때 외위성동맹군이 운명을 바꾸어 주었다. 지구에 대한 폭력이 행해진 지 꼭 1주일 뒤에 그들은 이제 화성을 공격했던 것이다.

초장거리 유도탄이 밤이 이슬할 때부터 새벽녘까지 쿠아드론 속에 쏟아져 내려와서 하늘을 환하게 했다. 또다시 하늘은 대 유도탄들의 폭발로 명멸했다. 지평선에서는 빛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땅 위에서는 큰 충격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소름이 끼칠만한 변화가 있었다. 휘황하게 빛나는 새 별이 머리 위에서 폭발하여 번쩍이는 빛으로 행성의 밤을 비추어 냈기 때문이다. 분열된 탄두군의 흐름이 화성의 위성 포보스를 공격하여 눈 깜짝할 사이에 흔적도 없이 만들었다.

통합 막료 여단의 병사가 이 처절한 공격을 확인하는 것이 늦어져 포일에게 기회를 주었다. 포일은 다시 가속하여 그들 속을 빠져 나와 우주선에 도착했다. 그는 메인 해치 앞에서 멈춰 섰다. 지금까지의 임무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사태에 대응해야 할 것인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당황해 있는 병사를 보았다. 포일은 시그월드 맥스먼을 공중으로 집어던졌다. 병사들이 아기를 받으려고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동안 포일은 그들을 앞질러 우주선 안으로 뛰어들어가 해치를 닫고 잠갔다.

가속한 채 그는 사령실로 뛰어들었다. 그는 스타트 레버를 밟았다. 그는 조종석의 벨트로 몸을 잡아매 한 여유도 없었다. 가속된 채 아무 방비도 없는 신체에 미친 1백 추력(推力)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순식간에 증대해 오는 거대한 압력이 그를 의자에서 굴러 떨어뜨렸다. 그는 몽유병자같이 조종실 뒷면을 향해 조금씩 물러났다. 벽이 그의 가속된 감각에 나타나 그에게로 접근해 왔다. 그는 벽을 향해서 두 팔을 뻗어 자기를 지키기 위해 손바닥을 납작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 뒤로 밀어보내는 느린 속도의 힘이 그의 두 팔을 각각 양쪽으로 떨어지게 하고 벽이 와서 그를 눌러냈다. 처음에는 온건하게 그리고 차츰 세계…… 마침내 얼굴이, 턱이, 가슴이, 몸 전체가 금속의 벽에 박히고 말았다.

거대한 압력으로 고통스러웠다. 그는 혀로 입 속의 스위치를 떼어 내려고 했으나, 그를 벽에 처박히게 한 추력 때문에 일그러진 입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물에 침식된 바위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듯한 폭발음이 훨씬 아래에서 일어났다. 병사들이 밑에서 쏘아댄 모양이었다. 우주선이 외부 우주의 푸른 공간 속으로 분해되어 버리자 의식을 잃기 전에 그는 잡아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제 12 장

포일은 캄캄한 암흑 속에서 눈을 떴다. 그는 감속하고 있었으나, 몸이 몹시 지쳐 있어 혼수 상태에 빠진 사이 가속 상태로 있었음을 말해 주었다. 힘을 저장하는 상자가 완전히 비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그는 한 손을 조금 움직여서 등의 작은 부분을 만져보았다. 상자가 없었다. 제거되고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 끝으로 더듬어보았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환기 장치와 냉방 장치 및 자동 제어 장치가 달그락거리는 나지막한 소음이 들렸다. 그는 우주선 안에 있었다. 그는 침대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이 우주선은 떠돌면서 낙하하고 있었다.

포일은 벨트를 풀고 팔꿈치를 매트리스에 누르면서 벌떡 일어났다. 암흑 속을 더듬거리며 조명 스위치나 초인종을 찾으려고 했다. 그의 두 손이 유리에 부조가 되어 있는 물병에 닿았다. 손 끝으로 그 글자를 읽었다. 그는 느꼈다. 상선, V, O, R, G, A - <보거>! 그는 비명을 질렀다.

특별 선실의 문이 열렸다. 사람의 실루엣이 문을 통해 언뜻 비쳤다. 그 등 뒤의 사치스러운 개인용 휴게실 조명에 비추어진 실루엣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구했어요.”

목소리가 말했다.

“올리비아?”

“그래요.”

“그럼, 이것은 현실이었군요?”

“그래요, 걸리.”

포일은 울음을 터뜨렸다.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당신은 아직 약해요. 자아, 쉬도록 해요.”

그녀는 그를 휴게실로 데리고 가서 벨트를 매어주고 소파에 앉혔다. 그것은 아직도 그녀의 체온으로 따듯했다.

“당신은 옛세 동안이나 이런 상태였어요.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지요. 외과의사가 당신 등에서 배터리를 찾아 내기 전에 당신에게서 모든 것이 다 나가버리고 말 테니까요.”

“어디에 있소?”

그는 쉼 목소리로 물었다.

“필요하실 때는 언제라도 돌려드리겠어요. 조금하게 서둘러선 안 돼요.”

포일은 그녀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새하얀 눈의 여자, 사랑하는 얼음의 여왕…… 순백의 비단 같은 살결, 보이지 않는 산호빛 눈동자와 더없이 아름다운 산호빛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눈물에 젖은 눈 언저리를 향수 뿌린 손수건으로 닦았다.

“당신을 사랑하오, 올리비아!”

포일이 말했다.

“네, 알고 있어요. 걸리.”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 언제부터였소?”

“나는 <노매드>를 탈출한 우주인 걸리버 포일이 나의 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신이 포마일이라는 것은 만나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아아, 만일 내가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은 내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 웃고 있었군.”

“아니예요.”

“내 곁에 서서 마구 웃었잖소.”

“당신 곁에 서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아니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이성적이 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예요.”

대리석 같은 얼굴에 붉은빛이 퍼졌다.

“나는 지금 당신을 놀리는 게 아니예요. 나는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려 당신을 배신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자기 방위였지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매우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한 시간 뒤 나는 그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왜냐 하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염려가 전혀 없어요.”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소?”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겠어요?”

그녀는 희미하게 몸을 떨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쫓아왔을까요? 그 폭격을 처참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당신을 구했을 때, 당신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살아날 가망이 없어보였어요. 당신의 우주선은 산산조각으로 부서졌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소?”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예요?”

“나는 시간을 실속(항공기의 기체가 중심이 잡히지 않아 전진 속도를 잃는 것)시키고 있소.”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요?”

“시간이 아니라…… 나는 용기를 실속시키고 있소.”

“우리는 지금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어떻게 나를 뒤쫓아왔지?”

“나는 당신이 린제이 조이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우주선 가운데 하나를 조종하여 왔어요. 그런데 우연히도 그것이 <보거>였어요.”

“아버지는 알고 있소?”

“아니요, 나에게는 나 자신의 사생활이 있으니까요.”

포일은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녀를 보고 있으면 괴로웠다. 그는 사랑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녀를 증오했다. 제발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고 마음 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그는 현실이 이러한 행태를 취한 것을 저주했다. 그는 그녀의 손수건을 떨리는 손으로 애무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았다.

“사랑하오, 올리비아!”

“당신을 사랑해요, 걸리. 나의 적인 당신을!”

“아아!”

포일은 울부짖었다.

“어째서 당신은 그런 짓을 했소? 당신은 피난민을 태운 <보거>에 함께 타고 있었소. 그리고 피난민을 밖으로 내던지라고 명령 내렸소. 나를 보고도 못 본 체 죽도록 내버려두라고 명령을 내렸소. 왜 그랬지? 어째서!”

“뭐라고요?”

그녀는 날렵하게 뒤로 물러났다.

“당신은 사죄를 바라시나요?”

“설명을 듣고 싶은 거요.”

“나는 아무 것도 말씀드릴 게 없어요!”

“피와 돈.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지. 그 말이 옳아. 아아, 창녀! 암개! 짐승!”

“피와 돈 - 그래요. 게다가 철면피하지요.”

“나는 한없이 빠지고 있소. 올리비아, 나에게 구조의 밧줄을 던져주소!”

“그렇다면 빠지는게 좋아요. 나를 구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에요

- 무언가 잘못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몸차림을 정돈하고 아주 상냥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걸리. 그래서 당신에게 믿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정직해지려 하고 있어요. 간단한 설명이 있을 뿐이에요. 내에게는 나만의 생활이 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그렇지요.”

“당신의 사생활이란 어떤 거요?”

“당신의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다르지 않아요. 나는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파괴도 하고……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범죄자예요……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왜? 돈 때문에? 당신에게는 돈이 필요 없잖소?”

“그래요.”

“지배하기 위해?…… 권력 때문에?”

“권력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무엇 때문이요?”

그녀는 마치 이 진리아말로 모든 진리에 앞서는 것이며, 그것이 자신을 형벌에 처하여 벌주고 있는 것처럼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증오 때문이에요…… 모두에게 복수해 주기 위해서이지요, 당신들 모두에게.”

“무엇 때문이라고?”

“장님이기 때문에……”

그녀는 짓눌린 목소리로 말했다.

“속고 있기 때문에, 무력하기 때문에…… 나는 태어났을 때 살해되었어야만 했어요. 당신은 장님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인생을 일단 남의 손에 맡겨진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어떤 것인지 아세요? 의존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불구라는 것을 말이에요. <모두들을 나 자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려 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나의 비밀스러운 삶의 방법으로 택하고 타일러왔어요. <자신이 장님이면 모두를 좀더 심한 장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이 무력하면 모두를 불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복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올리비아, 당신 미쳤소”

“당신은?”

“나는 괴물을 사랑하고 있군.”

“우리는 둘 다 괴물이에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다고요? 당신이 괴물이 아니라고요?”

그녀는 발끈 화가 나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보복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지금까지의 당신 행동은 뭐지요? 자신의 불행에 대해 결말을 지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면, 당신의 복수는 뭐지요? 당신을 미치광이 괴물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에요, 걸리.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그녀가 이야기한 진실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심정이었다.

“그렇소.”

그는 천천히 말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을게 전혀 없는 사람ियो. 아니, 당신보다 더 나쁘지. 그러나 나는 6백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인 일은 없소.”

“당신은 6백만 명이나 죽이고 있어요.”

“뭐라고?”

“그 이상일지도 몰라요. 당신은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손에 넣고서 내놓지 않고 있어요.”

“파이어 말이요?”

“그래요.”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 모두가 그 때문에 싸우고 있는 20파운드의 기적이라는 파이어란 대체 뭐요?”

“나도 몰라요. 하지만 모두들 그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그래요, 이제야말로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나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몇백만 명이 살해되더라도 괜찮아요. 우리와는 관계 없는 일이니까요.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걸리. 우리는 떨어져 서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떨어져 우리 자신의 세계를 이룩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해요.”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요.”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서로 상대를 찾아 냈어요.”

별안간 그녀는 소리내어 웃으며 두 팔을 내밀었다.

“말 따위가 필요 없을 때 나는 어째서 말다툼을 하고 있을까! 자아, 오세요. 사랑스러운 사람!…… 당신이 어디에 있든 나에게로…….”

그는 그녀를 더듬어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입을 더듬어 탐욕스럽게 키스를 퍼부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억누르며 그녀를 떼어놓았다.

“왜 그러세요, 걸리?”

“나는 이미 아이가 아니오.”

포일은 지친 듯이 말했다.

“단순한 일이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배웠소. 단순한 답이란 없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할 수도 있소.”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걸리?”

“당신은 나에게 자신을 혐오하도록 만들고 있소.”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줄곧 호랑이였소. 나는 자신을 훈련하고 교육시켰소…… 좀 더 긴 손톱과 날카로운 이빨로 노렸다 하면 재빨리 결판을 내도록. 나는 반드시 상대를 쓰러뜨리는 강한 호랑이로 자신을 훈련시켰소…… 자신을 높여왔소…….”

“그래요, 당신은. 당신은 가장 공포한 호랑이예요.”

“아니, 이제는 그렇지 않소. 나는 단순함을 넘어버렸소. 자신을 생각하는 동물로 만들고 말았소. 나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눈을 통해 내가 혐오하는 애정, 그 사랑을 보고 있소.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요. 호랑이는 없어져버렸소.”

“호랑이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당신은 뒷에 둘러싸여 있어요, 걸리. 더겐햄, 첵보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온 세계로부터.”

“알고 있소.”

“하지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우리가 함께 돕고 있으면 안전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파괴할 수 있어요.”

“아니, 함께가 아니오.”

“무슨 말이에요, 걸리?”

그녀가 또 발끈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몰아낼 생각인가요?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건가요? 아직도 복수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마음대로 해도 좋아요. 나는 여기에 있었어요. 하세요……. 자아, 나를 파괴해 버리세요!”

“아니, 파괴란 이제 나와 관계없는 일ियो.”

“아아, 알았어요!”

그녀는 금방 다시 상냥해졌다.

“그 얼굴 때문이군요. 가엾기도 하지! 호랑이 얼굴을 부끄러워하는 거지요? 하지만 난 그것을 사랑해요. 당신은 나를 위해 그토록 뜨겁게 불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장님의 눈을 꿰뚫을 만큼 활활 타고 있어요.”

“아아, 우리는 어쩌면 이토록 비열하고 못났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녀는 다그쳤다. 그리고 그에게서 몸을 떼었다. 그녀의 산호빛 눈이 번쩍번쩍 빛났다.

“나와 함께 저 공습을 지켜보던 사나이는 어디로 갔지요? 그 부끄러움을 모르던 잔혹한 사나이는 어디로…….”

“없어져버렸소, 올리비아. 당신은 그를 잃었소. 서로 상대를 잃은 거요.”

“걸리!”

“그 사나이는 없어졌소.”

“하지만 어쩌서지요? 내가 무얼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당신은 모르오, 올리비아.”

“당신 어디에 있나요?”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닿자 매달렸다.

“들어주세요, 걸리. 당신은 무엇에 인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뿐이에요. 아무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독이 터진 듯 그녀에게서 말이 쏟아져 나왔다.

“당신이 옳아요. 물론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나빴어요. 우리 둘 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지난 일이에요. 아무 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외롭고 불행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상대를 찾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걸리. 언제나, 언제까지나! 나는 당신을 오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바라고 기다리며 기도했어요.…….”

“아니,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올리비아. 그것은 당신 자신도 잘 알 거요.”

“아니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걸리!”

“<보거>에서 내리게 해 줘요, 올리비아.”

“착륙하잔 말인가요?”

“그렇소.”

“지구예?”

“그렇소.”

“당신은 무얼 하시려는 거지요? 당신이야말로 미쳤군요. 모두를 당신을 추적하고 있는데…… 당신을 기다렸다가 감시하려 하고 있어요. 어찌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 이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오, 올리비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뿐이요. 나는 아직도 정신에 사로잡혀 있소. 거기서 달아날 수 있는 인간은 없소.”

그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자신을 억눌렀다. 그녀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입술을 댔다.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모두 끝났소, 올리비아.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언제나, 언제까지나.”

“내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더겐햄이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포일을 발견한 날 밤 우리는 폭격을 받았습니다. 달에서 그의 행방을 놓친 지 1주일 뒤 화성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화성이 폭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그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미 1주일 동안이나 그의 자취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폭격이 일어날 겁니다. 내행성연합의 어느 별에 가해질 것인가? 금성? 달? 또다시 지구일까?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음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보복을 가하지 않고 이대로 또 한번 공습을 받는다면, 우리는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테이블 주위를 빙 둘러보았다. 플레스타인 성의 회의실, 상아와 금으로 된 배경을 등지고 그의 얼굴과 세 사람의 얼굴을 모두 긴장해 있었다. 안 요빌은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렸다. 플레스타인은 얇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더겐햄이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파이어가 없으면 보복할 수 없고, 포일이 없으면 파이어의 소재를 알아 낼 수 없다는 것.”

플레스타인이 말을 가로막았다.

“나의 지령에 의하면, 파이어는 공개된 장소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소.”

“그러나 첫째, 여기는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더겐햄이 쏘아붙이듯 말했다.

“개인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입니다. 둘째, 이것은 소유권 문제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토의하는 것이며, 그 점에서는 우리는 똑같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뭐요, 지즈?”

지스벨라 매퀸이 회의실로 조운트해 왔다. 그녀는 매우 화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직 포일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은 아직도 감시하고 있겠지?”

“네.”

“화성 병단으로부터의 보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아주 극비니까요.”

얀 요빌이 조용하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서 입수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당신도 나로부터 정보를 얻어내고 있지않습니까, 요빌 대위?”

더겐햄이 음침하게 미소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 보고를 가져다 여기서 중앙 첩보부 요원을 놀라게 해 줄 수 있을까, 지즈?”

그녀는 사라졌다.

“소유권에 관한 일입니다만...”

얀 요빌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플레스타인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중앙 첩보부는 파이어에 관한 권리, 증서, 이익을 어디까지나 완전하게 내드리겠다고 보증할 용의가 있습니다.”

“더욱 우쭐하게 만들지 않는 편이 좋소, 요빌 대위.”

플레스타인이 싸늘하게 끼어들었다.

“이 회담은 녹음되고 있소. 대위의 제안은 이미 서류장에 들어가 있소.”

그는 더겐햄에게로 뺨 같은 얼굴을 돌렸다.

“당신은 내게 고용되어 있소. 내 일에 대해 말할 때는 자신을 좀 억눌러주시 바라오.”

“당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말입니까?”

더겐햄은 무시무시한 미소를 보이며 되물었다.

“당신과 당신의 저주받은 소유물, 당신의 모든 것과 당신의 저주받은 모든

재산이 우리를 이런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당신의 재산 때문에 지구가 파멸될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과장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전쟁을 종결시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항복할 수 있지 않소?”

플레스타인이 대답했다.

얀 요빌이 말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사령부에서 검토된 다음 내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외위성동맹군이 승리를 거둔 뒤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행성연합군을 완전히 착취하려고 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탈당하여 마침내 아무 것도 남지 않은 채 흑사당할 겁니다. 항복은 철저한 패전과 마찬가지로 참담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플레스타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소.”

더겐햄이 그 말을 받아 말했다.

“결국 지금의 회사는 제외되는 거지요.”

얀 요빌이 더겐햄의 말에 덧붙였다.

“과연 그랬었군요, 플레스타인.”

더겐햄이 의자째로 몸을 돌렸다.

“설명해 주십시오.”

“무엇을?”

“파이어에 대한 것을 모두 설명해 주시오. 포일의 소재를 알아 내고 그것을 찾아 낼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주십시오.”

“싫소.”

플레스타인이 대답했다.

“왜 싫습니까?”

“나는 이 정보를 교환하는 자리에서 퇴장하기로 마음먹었소. 파이어에 대해서도 아무 것도 밝힐 필요가 없소.”

“무슨 말씀이오, 플레스타인! 당신 정신이 돌았소? 지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또 레지스 세필드의 자유당과 겨루고 있는 거요?”

“그 설명은 매우 간단한 것이요, 더겐햄씨.”

얀 요빌이 끼어들었다.

“우리가 항복하여 패전할 경우에 관해 내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플레스타인이 이 기회에 한층 더 자신의 지위를 굳게 하리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적과 흥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일로도 당신의 감정을 움직일 수 없겠소?” 더겐햄은 플레스타인에게 경멸의 빛을 보이며 다그쳐 물었다.

“어떤 것도 당신을 감동시킬 수 없는 거요? 돈 이외의 다른 어떤 것도? 저리가 있어요, 지즈! 모든 것이 다 틀려버렸소.”

지스벨라가 다시 또 회의실로 조운트해 왔던 것이다.

“화성 병단에서 보고가 있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포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았어요.”

“뭐라고?”

“플레스타인이 그를 잡아두었어요.”

“뭐라고!”

더겐햄과 얀 요빌이 둘 다 펄쩍 뛰었다.

“그는 전용 우주선으로 화성을 떠났습니다만, 폭파된 뒤 플레스타인의 <보거> 호에 의해 구출되었음이 관측되었습니다.”

“플레스타인, 장하시군요!”

더겐햄이 쏘아붙이듯 말했다.

“그래서 당신은…….”

“잠깐만!”

얀 요빌이 끼어들었다.

“그도 지금 처음으로 알았소, 더겐햄씨. 보시오.”

플레스타인의 잘 생긴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그는 일어서려고 하다가 의자에 허물어지듯 쓰러졌다.

“올리비아!…….”

그는 중얼거렸다.

“올리비아가 그 자와 함께…… 그 쓰레기와…….”

“플레스타인!”

“올리비아가…… 최근에…… 어떤 종류의 행동을 하고 있었소. 이 가문의 수치요, 피와 - 나는…… 그것을 못 본 체 눈감고 있었소……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잘못된 거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소. 나는…… 그러나 그 포일이…… 더러운 녀석! 돼지! 그 자를 파멸시켜 줄 테다!”

플레스타인의 목소리가 놀라울 만큼 커졌다. 머리가 목을 매단 사나이 같이 뒤로 젖혀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यो?”

“간질ियो.”

얀 요빌이 말했다.

요빌은 플레스타인을 의자에서 마룻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스폰! 지스벨라 양, 빨리!”

그는 플레스타인의 이를 억지로 벌리고 혀를 깨물지 않도록 스폰을 그 사이에 집어넣었다. 발작은 시작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곧 멎었다. 경련이 멎었다. 플레스타인이 눈을 떴다.

“가벼운 병ियो.”

얀 요빌이 중얼중얼하며 스폰을 뺐다.

“그러나 한참 동안은 어지러울 것ियो.”

갑자기 플레스타인은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파이어는 파이로파의 합금ियो. 파이로파는 깎거나 두들기면 불꽃이 이는 금속ियो. 파이어는 에너지를 방사하오. 에너지를 나타내는 <E>앞에 <Pyr>이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이유는 이 때문ियो. 파이어는 트랜스포르토늄 방사능 동위 원소의 동형 액체로서, 별의 피닉스 작용의 순서로 열핵 에너지를 해방하는 것ियो. 그 발견자의 의견에 의하면, 우주에 폭발한 원초물자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 냈다고 하오.”

“어머나!”

지스벨라가 외쳤다.

더겐햄은 몸의 움직임으로 그녀의 말을 막고, 플레스타인의 위로 몸을 가까이 가져갔다.

“어떻게 하면 위험량에 이릅니까, 플레스타인? 어떤 방법으로 에너지가 해방되는 겁니까?”

“원초적 에너지가 천지창조 때 발해진 것처럼—”

플레스타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의지와 사유에 의해.”

“플레스타인은 지하실 그리스도 교도인 모양이군요.”

더겐햄은 얀 요빌에게 낮게 속삭였다. 그는 다시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했다.

“설명해 주십시오, 플레스타인.”

“의지와 사유에 의해서요.”

플레스타인은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파이어는 사이코키네시스에 의해서만 폭발하오.

그 에너지는 사유에 의해서만 해방되는 것이오. 폭발이 의지되고 거기에 직접 사유가 더해져야 하는 것이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오.”

“사건을 푸는 열쇠는 없습니까? 공식은?”

“아니, 오직 의지와 사유만이 필요할 뿐이오.”

뿌연 눈이 감졌다.

“아아, 이게 무슨 일인가?”

더겐햄이 이마의 땀을 닦았다.

“이제 외위성동맹군을 저지할 수 있겠소, 요빌 대위?”

“살려고 하고 살아 있는 생물은 모두 파멸되겠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스벨라가 말했다.

“그럼, 그것을 찾아 내어 그 길을 피하도록 합시다. 좋은 생각이 없겠소, 요빌 대위? 포일은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의 연구실에서 그 지옥의 폭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지 않소 - 그것을 분석하려고.”

“절대로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을 텐데요.”

지스벨라가 화가 나서 말했다.

“미안하오, 지즈.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명예니 체면에 구애될 수는 없소. 그래서 말인데, 요빌 대위, 먼지나 액체가 침전물이 되어 그 물질의 미세한 부분이 틀림없이 그 부근에 있을 것이오. 우리는 이 파편을 폭발시켜 포일의 서커스로부터 악마를 분쇄시킵시다.”

“목적은?”

“그를 피어내기 위해서. 그는 그 부근에 파이어를 감추었을 것이오. 그는 그 것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올 거요.”

“그것도 폭발되면 어떻게 하지요?”

“그런 일은 없소, 불활성의 동위 원소인 금고 안에 저장되어 있는 한은.”

“전부 다 넣어두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즈의 이야기로는 다 넣어두었소…… 적어도 포일은 그렇게 말했소.”

“나를 그런 일에 끌고 들어가지 말아주세요.”

지스벨라가 말했다.

“아무튼 우리는 내기를 걸어야만 하오.”

“내기를 건다고요!”

얀 요빌이 소리쳤다.

“피닉스 작용에 거는 겁니까? 당신은 태양계를 새로운 별로 바꾸는 도박을 하려는 것이오.”

“달리 어쩔 수가 없지 않소! 다른 길을 택해 보시오…… 그것도 역시 파멸로 가는 길일 것이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줄 아오?”

“하지만 기다릴 수는 있어요.”

지스벨라가 말했다.

“무엇을 기다린단 말이오? 포일이 그것을 주무르다 이쪽도 함께 날려버리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요?”

“그에게 경고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있는 곳을 모르잖소.”

“찾아 낼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서 말이오? 그것도 도박 아니겠소? 어딘가에 뒹굴면서 누군가가 에너지로 바꾸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물자는 어떻게 되겠소? 만일 조운트 습격단의 승냥이들이 그것을 손에 넣었다고 해봅시다. 좋은 것이라도 들어 있을까 하고 금고를 연다면 어떻게 되겠소? 따라서 우리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20파운드를 찾아 내는 거요.”

지스벨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겐햄은 첩보부 장교 쪽으로 돌아섰다.

“결정은 당신이 하는 것이오, 요빌 대위. 내 방법을 실행하겠소, 아니면 기다리겠소?”

얀 요빌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소. 과학자들은 모두 저주받아야 해.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이유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더겐햄 씨. 실은 외위성동맹 군도 파이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이 최악의 방법으로 첩보원을 동원해서 포일을 찾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소. 만약 여기서 명칭히 있다가는 적이 우리보다 먼저 그를 납치할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 이미 그를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당신의 결정은……?”

“폭발이요. 만약 할 수 있다면 포일을 꺾어냅니다.”

“안 돼요!”

지스벨라가 소리쳤다.

“어떻게 하지요?”

더겐햄이 그녀를 무시하고 물었다.

“아아, 나는 이 일에 꼭 맞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로빈 웬즈버리라고, 자기 쪽에서만 정신 감응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언제 하겠소?”

“지금 당장. 즉시 그 부근 전체를 소개(疏開) 시키겠습니다. 모든 보도망을 동원해서 완전 방송을 하겠습니다. 포일이 내행성연합군 어딘가에 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해 들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지스벨라가 필사적으로 말했다.

“그는 그것을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듣는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의지와 사유…….”

플레스타인이 낮게 중얼거렸다.

언제나 그렇듯 레닌그라드의 소란스러운 민사재판에서 돌아왔을 때, 레지스 세필드는 힘에 겨운 상대를 때려눕힌 권투선수처럼 기분이 좋았다. 베를린의 블레크만에 들러 술을 마시며 한참 동안 전쟁 이야기를 했다. 그는 옛 프랑스 외무성의 집회소에 들어서 또 한참동안 전쟁 이야기를 했다. 그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쾌적한 조명이 빛나고 있었다.

그가 복도와 거기에 늘어선 방 앞을 성큼성큼 걸어가자 비서가 손에 가득 휴대용 녹음구를 갖고 그를 맞았다.

“자르고 던첸코를 때려눕혔지.”

세필드가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노련한 던첸코 녀석, 아무 말도 못하더군. 우선 이로써 11대 5로 내가 유리해졌어.”

그는 휴대용 녹음구를 사무실에 와르르 쏟아놓았다. 깜짝 놀라 입을 벌린 비서의 입을 향해 그 하나를 집어던졌다.

“어머나, 세필드씨! 취하셨군요?”

“오늘은 이제 일을 하지 않겠어. 전쟁소식이 너무 음울해. 유쾌해지려면 뭔가 해야 하잖아. 어때, 거리에 나가서 한바탕 소동이라도 벌일까?”

“어머나, 셰필드씨!”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일은 다른 날로 돌려줄 수 없겠어?”

“사무실에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셰필드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대체 누구야? 하느님? 아니면 인간님?”

“이름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것을 주셨어요.”

비서는 셰필드에게 밀봉한 봉투를 내밀었다.

<지급>이라고 급히 휘갈겨 씌어져 있었다. 셰필드는 봉투를 뜯었다. 무뚝뚝한 얼굴이 호기심으로 긴장되었다.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봉투 속에는 두 장의 5만_{qr} 지폐가 들어 있었다. 셰필드는 말없이 몸을 날려 그의 전용 사무실로 뛰어들었다.

포일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진짜 지폐로군요.”

셰필드가 빠른 말투로 말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그렇습니다.”

포일이 대답했다.

“틀림없이 이 지폐가 작년에 스무 장 조폐되었습니다. 모두 지구의 국고에 넣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 두 장을 손에 넣었지요?”

“뇌물로.”

“어째서지요?”

“그 때는 다만 이것을 손에 넣어두면 편리할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예요? 좀더 뇌물을 쓸 때 편리할 거란 말입니까?”

“만일 합법적인 수수료가 뇌물이라고 한다면.”

“수수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셰필드는 지폐를 포일에게로 휙 집어던졌다.

“내가 당신의 의뢰를 직접 다루겠다고 결정할 때,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 지폐를 받지요. 그런데 당신의 문제란 뭘니까?”

“범죄입니다.”

“아직 그렇게 똑똑히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자수하려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지요?”

“여러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강도와 강간.”

“두 가지만 더 들어주십시오.”

“협박과 살인.”

“아직 그밖에 또 있습니까?”

“반역(叛逆)과 대량 학살.”

“당신의 범죄 리스트는 그것뿐인가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히 검토하면 몇 가지 더 발견될지도 모르지만.”

“무척 바쁘셨군요. 당신은 악마의 아들이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군요.”

“양쪽 다였습니다. 세필드씨.”

“왜 자수하고 싶어졌지요?”

“제정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포일은 격렬하게 대답했다.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습시다. 범죄자란 경기가 좋은 동안에는 결코 행복하지 않지요. 당신은 분명 경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자수하려고 합니까?”

“사람에게 달라붙는 것 가운데 가장 나쁜 것, 나는 양심이라는 진기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세필드가 코방귀를 뀌었다.

“그것은 목숨을 빼앗게 되는 수가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자신이 동물처럼 행동해 온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처벌해 주고 싶다는 거로군요?”

“아니,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포일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온 것입니다…… 중요한 외과 수술 때문에. 사회 조직을 뒤엎게 하는 사람은 암입니다. 자기 개인의 결정을 사회보다 위에 놓는 것은 범죄입니다. 거기에는 연쇄 반응이 있으니까요. 형벌로 자신을 처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고쳐놓아야만 합니다. 나를 구프르 마르테르로 되돌려보내든가, 아니면 사살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다니요?”

세필드가 날카롭게 말을 가로막았다.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아니, 아직 괜찮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당신은 마치 자신의 도덕적인 고통이 시시각각 더해지는 것같이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포일은 손끝을 신경질적으로 움직여 지폐를 구기며 흥분하여 말했다.

“이건 터무니없이 혼란된 지옥입니다, 세필드씨. 두렵고 퇴폐적인 범죄를 보상해야 할 한 여자가 있습니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 아니, 그것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녀도 역시 잘라내야 할 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그 복잡한 사건은 대체 뭘니까?”

포일은 세필드를 돌아보았다.

“만일 정월 공습 때의 폭탄 하나가 당신 사무실로 어정어정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 『잘 처리해 주시오. 나를 전과 똑같이 집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내가 뿌리째 부숴 버린 도시와 인간을 전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오』 내가 당신에게 의뢰하고 싶은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나는 보통 범죄자가 어떤 심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튼 당신은 범죄자라 할지라도, 아마추어어임에 틀림없습니다. 분별을 가지시오. 당신은 여기에 와서 강도, 강간, 살인, 대량학살, 반역 등 당치도 않은 죄상으로 자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필드의 조수 바니가 사무실로 조운트해 왔다.

그는 흥분해서 소리쳤다.

“소장님!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두 사교계의 젊은이가 C급 매춘부를 매수하여 외설 조운트를 - 아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미처 알아차리질 못하고……”

바니는 목소리를 삼키고 가만히 쳐다보았다. 조금 뒤 그가 소리쳤다.

“포마일이다!”

“뭐라고? 누구라고?”

세필드가 되물었다.

“이 사나이를 모르십니까, 소장님?”

바니는 어물어물하면서 말했다.

“셀레스의 포마일, 걸리버 포일입니다.”

1년 이상이나 전부터 레지스 세필드는 이 순간이 올 때를 위해 최면 체험으로 준비를 갖추어놓고 있었다. 그의 몸은 생각하는 일 없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반응은 번개 같았다. 세필드는 0.5초 동안에 포마일의 관자놀이와 목과 아랫배를 때렸다.

포일은 쓰러졌다. 세필드는 뒤돌아서면서 날째게 바니를 사무실 안쪽으로 메어붙이고 난 뒤 손바닥에 침을 뱉었다. 약품이 손에 들어오지 않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약품에는 의지하지 않기로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이다. 세필드의 타액선은 자극에 대해 아나피라키시 분비를 일으키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포일의 옷소매를 찢어 포일의 팔 오목한 곳에 손톱으로 상처를 내었다. 그는 침을 팔의 상처에 비벼넣고 피부를 꼬집어 맞추었다.

이상한 외침 소리가 포일의 입술에서 새어 나왔다. 낯빛 문신이 그의 얼굴에 나타났다. 나가떨어진 바니가 미처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세필드는 포일을 어깨에 메고 조운트했다.

그는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에 있는 포마일 서커스 텐트 한가운데에 도착했다. 대답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러나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것은 그가 마지막으로 가볼 예정이었던 장소였으며, 처음부터 파이어가 있으리라고 예상했던 곳이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큰 사원 속에 쳐져 있는 텅 빈 텐트는 너털너털해져 있었다. 세필드는 맨 처음 눈에 띈 방으로 뛰어들었다. 포마일의 이동 도서실이었다. 그 안에서는 수백 권의 책과 수천에 이르는 소설 기록구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조운트 습격단의 승냥이들은 도서실에는 별 흥미를 갖지 않았던 것이다. 세필드는 포일을 마룻바닥에 집어던졌다. 그 때가 되자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다.

포일의 눈꺼풀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그리고 눈이 뜨여졌다.

“당신에겐 약물이 주사되어 있소.”

세필드가 재빨리 말했다.

“조운트하려는 생각은 마시오. 꿈쩍도 하지 마시오. 경고해 두겠는데, 나는 어떤 일에도 대처할 용의가 있소.”

포일은 멍해 있었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다. 세필드는 곧 총을 쏘아 어깨에

부상을 입혔다. 포일은 돌바닥에 쓰러졌다. 몸이 저리고 귀가 멍멍했다. 독이 온 몸의 혈관을 돌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해 두겠는데……”

세필드가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는 어떤 일에도 대처할 용의가 있소.”

“무엇을 바라는 거요?”

포일이 중얼거렸다.

“두 가지 - 20파운드의 파이어와 당신. 특히 당신 몸이 필요해.”

“돌았군! 나는 단념하고 그걸 내주기 위해 당신 사무실에 갔던 건데……”

“외위성동맹군에게 팔 작정이었나?”

“어디에……?”

“외위성동맹군.”

“천만에!……”

포일이 중얼거렸다.

“나도 정말 사정에 어두웠군. 애국자 세필드가 외위성동맹군의 앞잡이였나.…… 정말 사정에 어두웠어. 나 바보야.”

“당신은 전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바보요, 포일. 우리는 파이어보다 당신이 더 필요해. 파이어는 우리로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당신의 정체는 알고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요?”

“그럼, 아직 모르는 모양이지? 아직 모르는 거야. 어렵פות 알지도 못해.”

“무엇을 말시오.”

“자아, 들어보시오.”

세필드는 내뱉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2년 전 <노매드> 호의 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지. <노매드> 호의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요. 우리 공격대 가운데 하나가 <노매드> 호를 격파했소. 그리고 당신이 난파선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지. 당신은 오직 한 사람의 생존자였소.”

“그럼, 외위성동맹군의 함선이 <노매드> 호를 폭파했던 말ियो?”

“그렇지. 기억하고 있지 않소?”

“그 일은 전혀 기억하고 있지 않소. 생각이 나지 않아.”

“그 이유를 가르쳐주지. 공격선은 교묘한 계락을 생각해 냈소. 그들은 당신을

사로잡아 적을 유인하는 데 이용하려고 한 것이오. 알겠소? 당신은 반사반생이 었소.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데려다 치료를 했소. 그리고 당신에게 우주복을 입 혀서 단파 송신기와 함께 표류하도록 했지요. 당신은 온갖 파장으로 조난 신호 를 발신하여 구조를 요청했소. 그들은 가까이 숨어 있다가 당신을 구조하려 오 는 내행성연합군의 함선을 노리려는 계산이었소.”

포일은 웃기 시작했다. 그는 대답하게 말했다.

“나는 일어설 테다! 또 한 번 썩봐, 바보 녀석! 나는 일어설 테다!”

포일은 어깨를 두손으로 누르면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리고 보니 <보거>는 나를 구하지 않은 편이 더 좋았었군.”

포일은 또 웃었다.

“나는 적을 유인하는 데 이용된 미끼였군. 아무도 내 곁에 접근해 와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 나는 미끼, 죽음의 먹이었으니까. 이젠 지독한 야유가 아닌가요! <노매드> 호는 구조될 권리가 없었던 거야! 나는 복수할 권리가 없었던 거야!”

“당신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군.”

세필드가 고함치듯 말했다.

“당신을 표류시킬 때 그들은 <노매드> 호 가까이에 있지는 않았소. 그들은 <노매드> 호에서 60만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지.”

“60만 마일?”

“<노매드> 호는 항로로부터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 그들은 우주선이 곧 잘 지나다니는 항로에 당신을 표류하도록 하고 싶었지. 그래서 당신을 60만 마 일이나 태양에 접근시켜 표류하도록 했소. 기밀실에서 밀어 떨어뜨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후퇴하여 공간을 떠돌고 있는 당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요. 당신 옷 에서 빛이 켜졌다 꺼졌다 했으며, 단파로 구조를 요청하여 신음 소리를 내고 있 었소. 그런 다음 당신은 실종됐던 것이오.”

“실종되었다고?”

“행방 불명이 되었지. 빛도 없고 단파 신호도 없었소. 그들은 곧 조사하러 갔 소. 그런데 당신은 흔적도 없었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안 것은…… 당신이 <노 매드> 호로 돌아가 있다는 것이었소.”

“불가능한 일이오, 그런 것은.”

세필드가 거칠게 말했다.

“당신은 우주를 조운트한 거요! 당신은 치료를 받고 있었소. 혼수 상태였소. 그런데 당신은 우주를 조운트했소. 60만 마일의 공간을 조운트하여 난파된 <노

매드> 호로 돌아갔소. 일찍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오. 자신도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찾아 내고 말겠소. 나는 당신을 외위성군으로 끌고 가겠소. 산산이 부서뜨리게 되더라도 그 비밀을 알아 내고 말겠소!”

그는 굉장히 힘있는 손으로 포일의 목살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러나 우선 파이어를 내놔! 당신 손에 쥔 파이어, 우물쭈물하려는 생각은 아예 버려.”

그는 포일의 이마를 권총으로 쿡쿡 찔렀다.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테다. 사양할 생각 따위는 조금도 없어.”

그는 또 포일을 냉정하고 훌륭하게 때려주었다.

“별을 받고 싶다면, 이제 알았겠지!”

바니는 제 5 공동 조운트 대를 뛰어내리자 겁먹은 토끼처럼 뉴욕의 중앙 첩보부 정면 현관으로 뛰어들었다. 외부 초계선을 날 듯이 빠져 나가 보호 미로를 지나 내부 사무실로 들어갔다. 뒤에서 기겁을 한 추적자들이 줄지어 쫓아왔다. 바니는 앞쪽에 조용히 조운트하여 그가 오기를 대비해 기다리는 위병들을 알아 보았다. 바니는 외치기 시작했다.

“요빌 대위! 요빌 대위!”

그는 계속 달리면서 책상을 뒤엎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굉장한 소란이었다. 그는 계속 소리지르고 있었다.

“요빌, 요빌 대위!”

모두들 한꺼번에 그에게 덤벼들려고 했을 때 안 요빌이 나타났다.

“어떻게 된 건가?”

대위가 고함쳤다.

“웬즈버리 양은 절대로 조용하게 해둬야 한다고 명령하지 않았나?”

“요빌 대위!”

바니가 소리쳤다.

“누구지?”

“셰필드의 조수입니다.”

“.....바니인가?”

“포일이.....”

바니가 외쳤다.

“걸리버 포일이…….”

얀 요빌이 정확하게 1.66초로 그들 사이의 간격을 50피트나 좁혔다.

“포일이 어쨌나?”

“세필드가 포일을 붙잡았습니다.”

하고 바니는 가쁜 숨을 헐떡였다.

“세필드가? 언제?”

“30분 전에.”

“그럼 왜 이리로 데리고 오지 않는 거지?”

“그는 포일을 유괴했습니다. 세필드는 외위성동맹의 간첩이 틀림없습니다.”

“자넨 어째서 곧 이리로 오지 않았나?”

“세필드는 포일을 데리고 조운트했습니다…… 그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함께 사라진 겁니다. 나는 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20분 동안에 여기저기로 50번이나 조운트했습니다…….”

얀 요빌은 절망하여 소리쳤다.

“전문가도 아니면서 자넨 왜 우리 전문가들에게 맡기지 않았나!”

“두 사람을 찾아 냈습니다.”

“찾아 냈다고? 어디서?”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에서. 세필드는…….”

그 순간 어떻게 된 일인지 얀 요빌이 뒹 돌아서더니 큰소리로 외치며 복도를 다시 뛰어서 돌아갔다.

“로빈! 로빈! 거기 서, 로빈!”

그 때 이 세상 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요란한 폭발음으로 귀가 멍해져 아무 것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제 15 장

연못 속에서 파문이 퍼져가듯 의지와 사유가 파이어를 찾아다니던 중 그 미묘한 전자 공이치기에 닿으려다 확산된 것이었다. 사유는 미립자를, 먼지를, 연기를, 증기를, 미생물을, 분자를 발견했다.

의지와 사유는 모든 것의 외모를 변화시켰다.

프랑코 토렐 박사가 파이어의 한 조각에서 그 비밀을 알아 내려고 하던 시절 리에서는, 그 찌꺼기와 침전물이 바다로 통해 있는 배수구에 버려졌다. 몇 달 동안이나 지중해의 조류는 이 찌꺼기를 바다 밑으로 흘려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50피트에 이르는 높은 파도가 북동쪽의 사르디니아로부터 남서쪽 트리폴리에 이르는 거리에서 발생했다. 백만분의 1초 사이에 전 지중해의 해면은 거대한 지령이가 미친 듯 날뛰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판테렐리아, 랑페도우사, 리노사, 말타 등 여러 해안을 덮쳤다.

잔존물 중 어떤 것은 불에 타 있었다. 그것은 연기와 증기로 굴뚝에서 쏟아져 나와 수백 마일이나 떨어진 장소로 운반되어 갔다. 이들 작은 분자들은 모로코, 알제리아, 리비아, 그리스 등지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미세하고 강렬하며 눈부신 폭발을 일으켰다. 아직 성층권에 떠돌고 있는 약간의 미립자는 대낮의 별처럼 휘황한 빛을 보이며 그 존재를 밝히고 있었다.

존 맨틀레이 교수가 역시 파이어를 둘러싸고 불가능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던 텍사스에서는 그 찌꺼기들이 거의 방사능에 오염된 오물을 버리는 낡은 유정의 갭 속으로 흘러 들어갔다. 깊은 지하수가 그 물질을 대부분 흡수하고 완만한 속도로 약 10평방 마일의 지역에 확산시켰다. 텍사스 평야의 10평방 마일에 이르는 토지는 지하수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막대한 미개발 천연 가스 자원이 마침내 돌파구를 뚫고 지축을 흔들면서 지표로 깨뜨렸다.

흘날리는 작은 돌의 불꽃으로 점화된 가스는, 요란한 소리를 내는 2백 피트의 불기둥이 되었다.

이처럼 지구 여기저기에서 단독적인 폭발, 연쇄적인 폭발, 그에 동반된 화재, 소규모의 불, 유성의 발화 등이 빈번히 일어나 지상에는 분출된 큰 화구며 좁은 해협이 나타났다.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에서는 약 10분의 1그램의 파이어가 포마일의 연구실에서 폭발했다. 나머지 파이어는 불활성연의 동위 원소 금고에 엄중히 넣어져

서, 우연이나 고의적인 심리운동에 의한 점화에서 보호되고 있었다. 이 10분의 1그램의 파이어에서 발생한 에너지의 굉장한 폭발은, 마치 내부만의 지진이 건물물을 진동시킨 것처럼 벽을 부수고 바닥을 파열시켰다. 기둥에 받쳐진 거대한 벽이 순식간에 와르르 허물어졌다. 탑, 뿔족탑, 기둥, 벽, 지붕이 복잡하게 얽혔으나, 위태롭게 균형이 유지되어 커다랗게 뚫린 바닥으로 일시에 떨어지지 않았다.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거나 멀리서 진동이 일어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균형을 잃고 허물어질 참이었다.

폭발한 열이 무수한 불길을 올리며 허물어진 지붕의 남아빠진 두꺼운 구리를 녹였다. 만약 또 1밀리그램의 파이어가 폭발했다면, 그 열로 금속이 그 자리에서 흔적도 없이 증발했을 것이다. 금속이 녹아 지붕의 잔해를 타고 흘러내렸다. 서로 얽힌 거미줄 같은 어떤 기괴한 주형처럼 돌, 쇠, 목재, 유리 덩어리가 뚝뚝 떨어졌다.

더겐햄과 얀 요빌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한 발 늦게 로빈 웬즈버리와 지스벨라 매킨이 나타났다. 열두 명의 첩보부원과 더겐햄이 지휘하는 클리어 직원 여섯 명이 플레스타인의 조운트 경비원이며 경찰들과 함께 속속 도착했다. 순식간에 타오르는 건물 주위에 비상선이 쳐졌다. 그러나 구경꾼은 거의 없었다. 정월 초부터 공습을 경험한 뒤였으므로, 이번의 폭발도 뉴욕 주민의 반수 이상을 놀라게 하여 안전을 찾아 필사적으로 조운트하게 했던 것이다.

불소리는 무시무시했다. 불안정한 균형으로 지탱되고 있던 사원의 잔해들이 매우 위험하게 보였다.

모두들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고 있었으나, 공기의 진동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얀 요빌은 포일과 셰필드의 소식을 더겐햄의 귀에 대고 소리쳤다.

더겐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념이 어린 미소를 떠올렸다. 그가 외쳤다.

“안으로 들어가야겠소!”

“방화복이 있어야 합니다!”

얀 요빌이 마주 소리쳤다.

요빌 대위는 모습을 감추었다가 곧 방화구조대의 방화복을 두 벌 가지고 돌아왔다. 이 광경을 보자 로빈과 지스벨라는 신경질적으로 말리려고 했다.

두 사람은 그녀들을 모른 채하고 불활성 이성체의 방화복을 입자 지옥의 곽화 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갔다.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 안은 마치 거대한 손이 목재와 돌과 금속을 마구 휘저어놓은 것 같았다. 파괴된 모든 틈새로 걸쭉하게 녹은 구리의 헛바닥이 기어

다니고, 그것이 천천히 아래로 옮겨가 목재에 불을 붙이고 돌을 깨뜨리고 유리를 산산조각냈다. 구리물이 천천히 흐른 곳은 높은 열이 날뻐있었지만, 힘차게 튀어 흩어지며 흐른 곳은 높은 온도의 눈부신 금속 물방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천장에서 허물어져 내린 대들보 밑에는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었다. 폭발은 돌바닥을 폭발하여 건물 아래의 지하실, 지하 2층, 지하 납골실까지 드러나게 했다. 그 지하도, 돌이며 대들보며 파이프며 철선이며 포마일 서커스의 텐트 천막도 잔해로 묻혀 있었다.

더겐햄은 얀 요빌의 어깨를 두드리며 주의를 아래로 돌리게 했다. 구멍에 절반쯤 떨어질 듯이 서로 엮힌 파편 속에 레지스 셰필드의 시체가 누워 있었다. 폭발로 인해 몸이 이상한 모양으로 일그러져 찢겨 있었다.

얀 요빌이 더겐햄의 어깨를 두드리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구멍 밑바닥 근처에 걸리버 포일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녹은 구리의 눈부신 비말이 그 모습을 비추어낼 때마다 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두 사람은 의논하기 위해 곧 돌아서서 사원 밖으로 왔다.

“그는 살아있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상상할 수는 있소. 그 텐트 조각이 그를 덮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폭발은 사원 내부 반대쪽에서 일어났는데, 도중에 텐트가 있어 포일은 거기에 싸인 채 날려졌을 것이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세게 얻어맞기 전에 구멍 속으로 굴러 떨어진 거요.”

“그렇지도 모르겠군요. 우선 그를 밖으로 끌어 내야만 합니다. 파이어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것은 그 사나이 한 사람뿐이니깐요.”

“아직도 이곳에 있을까요?…… 폭발하지 않고?”

“불활성연으로 된 금고에 들어 있다면 그렇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기로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그를 구출해 내지요?”

“바로 그 일인데, 우리는 위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어째서?”

“뻔하잖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실수하는 날에는 모든 게 눈사태처럼 허물어질 거요.”

“구리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지요?”

“물론 보았지요!”

“10분 이내에 구출해 내지 않으면 저자는 녹은 구리물 속에 가라앉고 말 거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도로 건너편에 있는 옛 RCA 빌딩 지하실은 깊이가 세인트 패트릭과 같은 정도요.”

“그래서요?”

“거기 내려가 옆으로 구멍을 뚫는 거요. 포일을 밑바닥에서 구해 낼 수 있을 지도 모르오.”

1개 분대가 30년 동안이나 버려진 채 문이 닫혀 있던 옛 RCA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아케이드 - 몇 세기나 전 옛날의 여러 가지 가게들이 형편없이 썩은 박물관 내부로 내려갔다. 구식 엘리베이터를 찾아 내려 지하 2층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허리까지 찰 만큼 물이 괴어 있는 지하도로 나갔다.

세인트 패트릭 사원의 지하 납골실 반대쪽인 동북동쪽으로 뻗어 있는 물이 핀 지하도를 건너가자 갑자기 앞쪽이 밝게 비추어져 보였다. 더겐햄은 큰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뛰어나갔다. 세인트 패트릭의 지하 2층을 뚫은 폭발은, 그 지하 납골실과 RCA 빌딩의 지하실 벽을 허물어뜨렸던 것이다. 톱니처럼 들쭉날쭉한 돌과 흙벽 틈을 통해 지옥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50피트 저쪽에 포일이 얹힌 대들보, 돌, 파이프, 금속 철선의 미로 속에 갇혀 쓰러져있었다. 그는 위쪽에서부터 크게 소리내며 흘러내리는 금속물과 몸 주위에서 간헐적으로 뿜어오르는 불길에 싸여 있었다. 옷에 불이 붙어 얼굴의 납빛 문신이 나타나 보였다. 마치 미로로 잘못 들어가 당황한 동물처럼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아아!”

얀 요빌이 소리쳤다.

“불타는 사나이다!”

“뭐라고요?”

“스페인 층계에서 본 불타는 사나이요. 좋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요?”

“우선 안으로 내려갑시다.”

갑자기 강력한 빛을 내뿜는 뜨거운 구리덩어리가 포일의 가까이에 떨어져 10피트 아래에서 금속 물방울을 튀겼다. 두 번 세 번 느릿느릿 밀려오는 흐름이 계속되었다. 금속 녹은 물이 괴기 시작했다. 더겐햄과 요빌은 벽에 뚫린 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3분 동안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린 뒤 그 미로를 지나서 포일에

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곳은 이쪽에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잠겨 있는 상태였다. 더젠햄과 얀 요빌은 다시 나와서 의논했다.

“접근할 수가 없군요.”

더젠햄이 소리쳤다.

“그러나 그는 탈출할 수 있을거요.”

“어떻게? 저런 모습이니 조운트할 수도 없을 테고…… 만일 조운트할 수 있다면 저런 곳에 꾸물거리고 있을 리가 없잖소.”

“아니, 그는 기어오를 수가 있소. 보시오. 왼쪽으로 가서 몸을 일으키고 거기서 거꾸로 나와 저 대들보를 따라 돌아서 그 밑으로 미끄러진 다음 저 얇힌 철선을 헤치는 거요. 이쪽에서 저 철선으로 들어갈 수는 없소.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이요. 그러나 저쪽에서 밖으로 밀어 열 수는 있소. 그렇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 거요.”

녹은 구리물이 포일 주위에서 점점 불어났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산 채로 구이가 되어버릴 텐데…….”

“그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쳐 주어야 하오…… 빠져 나올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해!”

두 사람은 소리치기 시작했다.

“포일! 포일!”

미로에 갇힌 불타는 사나이는 계속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쉬쉬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구리물이 점점 더 불어나고 있었다.

“포일! 왼쪽으로 돌아! 들리는가? 포일, 왼쪽으로 돌아서 기어오르는 거다. 하라는 대로 하면 빠져 나올 수 있어. 왼쪽으로 돌아 기어올라라! 그리고 - 포일!”

“그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포일! 걸리버 포일, 들리나?”

“지즈를 부릅시다. 그녀의 말이라면 틀림없이 들릴 거요.”

요빌이 말했다.

“아니 로빈이 좋겠소. 그녀는 정신 감응을 할 수 있으니까 저자에게 들릴 것이요.”

“그러나 그녀가 해 줄까요? 그녀가 저 사나이를 구해 줄까요?”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요. 이것은 증오를 초월한 문제니까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한 적이 없는 최대의 무시무시한 사건이요. 내가 그녀를 불리오겠소.”

얀 요빌이 밖으로 기어나가려고 했다. 더젠햄이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 그를 보시오. 자아, 켜졌다 꺼졌다하고 있소.”

“뭐라고요?”

“보시오! 그는 반딧불처럼 켜졌다 꺼졌다하고 있소! 눈을 떼지 말고 잘 보시오. 보았소? 아아, 꺼졌군.”

포일의 모습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을 신속하게 되풀이하고 있었다. 마치 바구니 속에 들어 있는 반딧불 같았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하려는 걸까? 무엇이 일어날 것일까?”

포일은 달아나려 하고 있는 것이었다. 뒷에 걸린 반딧불처럼,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릇 속에 넣어진 바닷새처럼 그는 거칠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돌진해 가는 새카맣게 그을린 불타는 생물이 된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 소리는 시각적으로 찾아오는 이상한 모양의 불빛 같았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생기 있는 리듬으로 불려지는 것을 보았다.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포일

동작은 그에게 소리가 되어 닥쳐왔다. 불길의 몸부림을 들었다. 연기의 소용돌이를 들었다. 켜졌다 꺼졌다하는 빛, 비웃음, 그림자를 들었다. 하나같이 귀를 찢는 듯한 괴상한 말과 목소리였다.

<<<부우루우우 가아아루우!>>>

<<<영차, 영차, 리트 키트 디트 지트 — 무기드.>>>

재빠른 그림자가 대답했다.

<<<오오오, 아아아아, 히이이이, 티이이이.>>>

열파가 외쳐댔다.

그의 옷에서 타고 있는 불길까지도 꺾가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고향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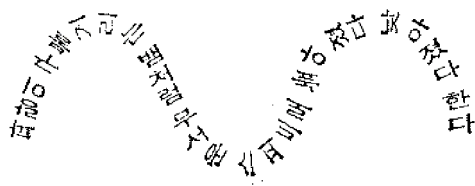
<<<만텔가이스트만(이것은 무의미한 말이지만, 독일어로 읽으면 만텔은 외투, 가이스트는 정신, 만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됨)>>>

그들은 고향치고 있었다.

색채는 그에게 있어 고통이었다……. 열, 냉기, 압력은 아주 높은 곳에 이르렀다가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속으로 떨어지는 감정, 무시무시한 가속감, 때려 눕혀지는 압축감을 느끼게 했다.

빨강이 그에게서 물러나고

파랑이 덮쳐온다



촉감은 그에게 있어 미각이었다……. 목재가 손에 닿는 느낌은 얼얼하고 매웠으며, 백목 같은 맛이였다. 금속은 짠맛이었고, 돌은 손에 닿자 달고 새콤했으며, 유리의 촉감은 약간 지나치게 구워진 파이 껍질처럼 미각을 만족시켜 주었다.

후각은 촉각이었다……. 뜨겁게 달군 돌은 땀을 애무하는 빌로도 같은 감촉이었다. 연기와 재는 피부를 문지르는 거친 수직의 옷감, 거의 젖은 즙 천 같은 감촉이었다. 녹아서 흐르는 금속물은 심장을 세게 때리는 타격 같은 느낌이였다. 파이어의 이온화 현상은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물 같은 냄새가 나는 오존으로 공기를 채웠다.

그는 장님도 아니고 병어리도 귀머거리도 아니었으며 감각 기능을 잃은 것도 아니었다. 감각은 분명히 있었으나 파이어의 대전동 때 받은 충격으로 신경조직이 일그러지고 짧아져서 지각이 여과되었다. 그는 원격 지각, 다시 말해서 외계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것이 두뇌에 전달되는데, 뇌수에서는 지각 대상이 한데 섞여 혼란을 일으키는 혼하지 않은 상태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포일은 소리를 빛으로, 움직임을 소리로, 색채를 고통으로, 촉감을 맛으로, 냄새를 촉감으로 느꼈다. 그는 옛 세인트 패트릭의 지옥에 미로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뒤죽박죽이 된 감각의 만화경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그는 또다시 비참한 깊은 연못 가장자리로 몰리자 절망하여 모든 단련과 생활 습관을 내 버렸다. 아니, 아마 그것들이 그에게서 떨어져나간 것이리라. 그는 환경과 경험에 의해 조건지어진 생물에서 도망과 생존을 열망하여 자신의 모든 힘을 오로지 거기에 쏟는 원초적인 생물로 돌아갔다. 그리고 또다시 2년 전의 기적이 여가서 나타난 것이다.

인간 유기체 - 온갖 세포, 섬유, 신경, 근육의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그 갈망을 이루어주었다. 포일은 또다시 우주 조운트를 한 것이다.

그는 활 모양으로 굽은 우주의 최단 공간 거리를 광속보다도 훨씬 빠른 사고의 속도로 날았다. 그 공간 속력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으므로 그의 시간의 축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에 이르는 수직선에서 비틀어졌다. 그는 새로운 근수평축이 - 새로운 우주시간의 최단선을 따라 명명한 것이었다. 불가능이라는 개념에 이미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인간 정신의 기적에 의해 움직여진 것이다.

그는 헬무트 그랜트며 엔치오 덴드리지며 그밖에 수십 명의 실험자들도 끝낼 수 없었던 일을 또다시 해낸 것이다. 왜냐 하면 일찍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여 여러 사람의 기도를 실패로 끝나게 한 저 공간 시간 금제를 틀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부정 공간에 조운트한 것이 아니라 부정 시간에 조운트한 것이었다. 그러나 4차원 감각, 시간의 화살의 완전한 형태 위에 있는 위치 -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에게 있어 생득적이면서도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일 때문에 깊이 침잠해 있는 시간상의 위치 - 이러한 가장 중요한 것이 포일에게 있어서는 아무 것도 아니게 되었다. 그는 $\langle i \rangle$, 즉 마이너스 1의 평방근을 상상적인 숫자로부터 상상 작용의 장대한 행동에 의해 현실로 옮기면서 엘스웨어(elsewhere)로, 엘스웬(elsewhen)으로 우주 시간의 최단선에 따라 조운트한 것이었다.

그는 조운트했다.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조운트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해안에서, 상해의 돌팔이 의사 진찰실에서, 로마의 스페인 층계에서, 달에서, 화성의 스크프치 식민지에서 공포와 곤란을 겪을 때 나타나 자신을 격려해 준 저 불타는 사나이가 된 것이다. 그는 시간을 소급하여 복수를 위해 걸리버 포일이 싸운 잔혹한 전투에서 조운트했다. 활활 불타며 빛나는 그의 모습은 어떤 때는 사람들의 눈에 띄었지만, 눈치 채이지 않는 때도 있었다.

그는 조운트했다.

그는 <노매드> 호를 타고 대우주의 얼어붙은 허무 한복판을 떠돌고 있었다.

그는 어떤 공간과도 통하지 않는 문 앞에 서 있었다. 으스스 추운 한기는 레몬 맛이었다. 진공은 그의 피부에 괴수의 발톱이었다. 태양과 불박이별은 그의 뼈를 쥐어뜯는 간헐열이었다. 동작이 그의 귓속에서 울렸다.

<<<그룹무어 프레드니스!>>>

그것은 그에게 등을 돌리고 복도에서 사라진 인간의 모습이었다. 어깨에 식량이 든 커다란 구리 남비를 메고 공간을 떠돌며 몸부림치는 모습이었다. 그것은 걸리버 포일이었다.

<<<메하트 제스슬로트.>>>

그의 동작의 빛이 환성을 질렀다.

<<<아하! 오호! 무보투 노트 토우 카크.>>>

빛과 깜박이는 그림자가 대답했다.

<<<오……오오? 소……오?>>>

그가 지나온 공간에 생긴 부유물의 소용돌이가 중얼거렸다.

입 속의 레몬 맛이 견딜 수 없었다. 피부 위의 손톱은 고문이었다.

그는 조운트했다.

그는 구프르 마르테르의 깊은 못 속에 있었다.

빌로도의 암흑이야말로 더 없는 복이었으며 낙원이었다.

“아아!”

그는 안도의 마음을 담아 외쳤다.

“아아, 아아!”

그의 목소리가 메아리로 되돌아왔다. 그 소리는 눈부신 빛의 패턴으로 바뀌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불타는 사나이는 어쩔 줄 몰라 당황했다. 그 시끄러운 소리에 눈앞이 캄캄해져서 “그만!” 하고 소리쳤다. 또다시 메아리의 어지러운 패턴이 나타났다.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그 그만

먼 곳에서 덜그럭거리는 발소리가 가로로 된 북극광의 부드러운 패턴이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덜 덜 덜 덜 덜 덜
 커 커 커 커 커 커
 덩 덩 덩 덩 덩 덩
 덜 덜 덜 덜 덜 덜
 커 커 커 커 커 커
 덩 덩 덩 덩 덩 덩

포일과 지스벨라 매켄을 지중탐지기로 추적하고 있던 구프르 마르테르 병원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

光線이 덮쳐든다

의 수색대였다. 저 불타는 사나이는 없어졌으나, 행방불명된 탈주자를 쫓는 추적자들을 자신도 의식하지 않고 유인해 놓은 채 없어진 것이다.

그는 순간적으로 모습을 감춘 다음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으로 돌아갔다.

미지의 것에 대한 심한 자기 투기는 최단선 우주 시간에 만나게 되자 결국 그가 달아나려는 <지금>으로 되돌아 가버린 것이다. 왜냐 하면 우주 시간의 반대가 된 활 모양의 곡선에서 그의 <지금>은 곡선의 가장 깊은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 최단선을 과거나 미래를 향해 위로 위로 움직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비스듬히 기울어진 언덕길이 있는 끝없이 깊은 구멍으로 던져 올려진 공이 한순간 맨 첫지점에 와서 멈추었다가 다시 깊은 구멍으로 떨어지듯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현재로 떨어져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의연히 절망 상태에서 알지 못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는 또다시 조운트했다.

오스트레일리아 해안의 저비스 비치에 있었다.

그의 움직임이 소리치고 있었다.

<<래저미스트 클로트헤븐>>

물결 소리는 푸트라이트의 빛으로 그를 현혹시켰다.

걸리버 포일과 웬즈버리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불타는 사나이의 입에 식초

불타는 사나이는 조운트했다.
또 레몬 맛이 나며 오싹 한기를 느꼈다.
진공이 그의 피부를 비열한 손톱으로 쥐어뜯었다.

그는 은빛으로 빛나는 우주선 현장으로 내다보았다.
달의 기복 있는 산맥이 배경에 솟아 있었다.
현장을 통해 그는 수혈 펌프와 산소 펌프의 거친 소음을 볼 수가 있었다.
걸리버 포일이 그를 향해 하는 동작이 외침 소리가 되어 들렸다.
진공은 그의 목을 움켜잡고 괴로울 정도로 짓눌렀다.
우주 시간의 최단선은 순식간에 그를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의 <지금>으로 되돌려놓았다.

그가 처음으로 흥포한 투쟁에 들어간 뒤 아직 2초도 되지 않았다.
또다시 불타는 창같이 그는 알지 못하는 것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는 화성의 스킵치 지하 묘지에 있었다.
전에는 린제이 조이스였던 흰 괄태충이 실박하게 부푼 가슴을 드러내며 몸부림쳤다.

<<<싫어! 싫어! 싫어!>>>
<<<괴롭히지 마, 죽이지 마! 아아,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부탁이에요!>>>

불타는 사나이는 호랑이의 입을 벌리고 웃었다. 그가 말했다.
“이 여자는 괴로워하고 있다.”
그 목소리의 울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너는 누구냐?”

불타는 사나이는 어쩔 줄 몰라했다. 그가 말했다.

“너무 밝다. 좀더 빛을 약하게 해 줘.”

포일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프라아아 가아아 다아아 마아우우!>>>

동작이 사납게 울부짖었다.

불타는 사나이는 괴로운 듯이 귀를 손으로 틀어막았다. 그리고 나서 소리쳤다.

“너무 시끄러워! 그렇게 소리를 내며 걷지 마!”

몸부림치는 린제이 조이스의 동작은 아직도 비명을 지르며 애원하고 있었다.

<<<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불타는 사나이가 또 웃었다. 이 여자는 보통 사람에게는 병어리였다. 그러나 그의 기괴하게 변형된 감각에는 그녀가 의미하는 뜻이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이 여자의 말을 들어봐. 비명을 지르고 있어. 애원하고 있어. 죽고 싶지 않은 거야. 괴로움을 받고 싶지 않은 거야. 이 여자의 말을 들어봐.”

<<<명령한 것은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이에요.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이에요!>>>

“이 여자는 누가 명령했는가 말하고 있다. 너에게는 들리지 않는가? 눈으로 듣는 거다. 이 여자는 <올리비아>라고 말하고 있다.”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장기판 같은 포일의 질문의 빛은 그에게는 너무 센 것이었다. 불타는 사나이는 스크프치의 고민을 또 통역했다.

“이 여자는 올리비아라고 말하고 있다. 올리비아 플레스타인. 올리비아 플레스타인. 올리비아 플레스타인.”

그는 조운트했다.

그는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 지하로 돌아왔는데, 갑자기 혼란과 절망이 그가 죽었음을 알렸다.

이것은 걸리버 포일의 종말이었다.

이것은 영원이며, 이 지옥은 현실이었다.

그가 목격한 것은, 죽음의 마지막 순간 감각이 허물어져가기 전에 지나가는
과거였다.

그는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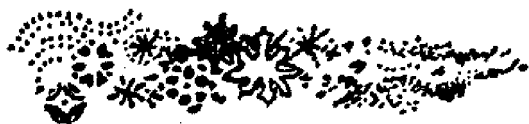
그는 자기가 죽었음을 알았다.

그는 <영원>에게 복종할 것을 거부했다.

그는 다시 알지 못하는 곳으로 향했다.

불타는 사나이는 조운트했다.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안개, 성좌의 눈무늬 집단,



액체 다이아몬드 소나기 속에 있었다.



그의 피부에 나비의 날개가 느껴졌다.

입 속에 차디찬 진주 한 알의 맛을 느꼈다.



그의 복잡한 만화경 같은 시각은, 자신에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그는 자기가 이 <아무 데도 아닌 장소>에 영원히 멈추어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걸리>>>

“누구요?”

<<<로빈이에요.>>>

“로빈?”

<<<로빈 웬즈버리였어요.>>>

“-- 였다고?”

<<<로빈 요빌이에요.>>>

“난 모르겠는데. 나는 죽어 있는 건가?”

<<<아니예요, 걸리.>>>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옛 세인트 패트릭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예요.>>>

“그게 어디인데?”

<<<설명하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걸리. 당신은 여기에 겨우 몇 초밖에 머물 수 없어요.>>>

“어째서?”

<<<당신은 아직 우주 시간을 뚫고 조운트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다시 돌아가 배워야 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소,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세필드는 내가 <노매드

> 호로…… 60만 마일을 우주 조운트했다고 말했소.”

<<<그 때는 우연이었어요, 걸리. 당신은 스스로 훈련하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당신은 아직 지속할 수 없으니까요…… 어떠한 <지금>에서도 현실적으로 외모를 바꾸는 방법은 알지 못해요. 순간적으로 옛 세인트 패트릭으로 다시 던져지고 말지요.>>>

“로빈, 지금 생각난 일이 있는데, 당신에게 나쁜 소식ियो.”

<<<알아요, 걸리.>>>

“당신 어머니와 여동생들은 죽었소.”

<<<훨씬 오래 전에 알았어요, 걸리.>>>

“얼마나 전에?”

<<<30년 전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소.”

<<<아니,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옛 세인트 패트릭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당신에게 불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나는 기다렸어요, 걸리.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죽지 않았나?”“”““

<<<네.>>>

“들어보지.”

<<<당신의 지각은 완전히 혼란되어 있어요. 탈출은 곧 끝나지만, 좌우라든가 위아래의 방향은 말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이야기하겠어요.>>>

“어째서 당신은 나를 구해 주는 거지? 나는 당신에게 몹쓸 짓을 했는데?”

<<<모든 걸 다 용서해 드렸고, 이미 잊었어요, 걸리. 자아, 들어보세요. 옛 세인트 패트릭에 돌아가거든 가장 소리가 큰 그림자에 부딪칠 때까지 계속 걷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았소.”

<<<피부에 깊이 찢리는 상처가 느껴질 때까지 그림자의 소리를 향해 걸어 가세요. 거기서 멈추세요.>>>

“알았소.”

<<<그리고 압력과 타락감을 향해 반회전하는 거예요. 자아,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하겠소.”

<<<강하고 딱딱한 빛의 시트를 지나면 키니네의 맛에 이를 거예요. 사실 그것은 철선 덩어리예요. 경쾌한 해머 소리가 들리는 것이 보일 때까지 키니네를 똑바로 헤치면서 가세요. 그러면 당신은 살 수 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있소, 로빈?”

<<<전문가에게 의뢰받은 거예요, 걸리.>>>

웃음이 와아 일어났다.

<<<당신은 이제 과거의 어떤 <지금>에라도 돌아갈 수 있어요. 여기 피터와 술이 있어요. 그들이 안부전하라고 하네요. 지즈 더겐햄도 있어요. 행운을 빌겠어요, 그리운 걸리…….>>>

“과거? 이것은 미래인가?”

<<<그래요, 걸리.>>>

“나는 여기에?…… 올리비아는?”

순간 그는 <지금>이라는 무서운 구멍을 향해 우주 시간의 최단선을 아래로 아래로 허위적 거리면서 굴러 떨어졌다.

제 16 장

그의 감각은 플레스타인 성의 상아와 금으로 꾸며진 <회의실>에서는 혼란되지 않았다.

시각은 시각이 되고, 길다란 거울과 뿌연 유리창과 서가 사다리에 올라가 있는 로봇 도서관원이 있는 금으로 장식된 문고가 보였다. 소리는 소리가 되어, 그는 15세기 풍(로코코 식) 책상 위에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 비서가 등근 기록기를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로봇 바텐더에게서 받은 코냑을 입에 물었을 때, 맛은 맛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벼랑에 서 있다는 것---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적을 무시하고 있었다. 영원히 밝은 표정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아일랜드 계 로봇 바텐더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고맙네.”

포일이 말했다.

“영광입니다”

라고 로봇은 대답하고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

“날씨가 아주 좋군.”

포일이 말했다.

“언제나 어디든 날씨가 좋습니다.”

로봇이 말했다.

포일은 다른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로봇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것이 낡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유 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만 반응할 뿐입니다.…… 판에 박은 방법으로 기계식으로 반응할 뿐이지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소. 다시 말해서 반응하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요. 단추를 눌러보시오. 나는 튀어오를 테니까.”

그는 로봇의 녹음된 목소리를 흉내냈다.

“영광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별안간 격렬한 어조로 모두에게 덤벼들었다.

“대체 무슨 용건이오?”

그들은 불안한 목적을 품고 있었으므로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다. 포일은

불에 타고, 두들겨맞고, 큰 화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들로 하여금 달아나고 싶게 만들었다.

“나는 교수형을 받고, 물에 빠져죽고, 넷으로 찢겨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할 참이지만…… 자아, 무슨 일이요?”

“나는 내 물건을 돌려주기 바라고 있소.”

플레스타인이 싸늘하게 미소지으며 말했다.

“파이어 18파운드 가량 말이로군. 대신 무엇을 주겠소?”

“아무 것도 내주지 않겠소. 나는 내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요.”

얀 요빌과 더겐햄이 동시에 이야기에 끼어들었다. 포일이 두 사람을 말렸다.

“단추는 한 번에 하나씩 놀려야 하오. 여러분, 플레스타인이 지금 단추를 놀려서 나를 펄쩍 뛰오르게 하려는 참이오.”

그는 플레스타인 쪽으로 돌아앉으며 말했다.

“좀더 세게 누르시오, 플레스타인. 피와 돈이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추를 누르시오. 자아, 이번에는 누가 요구할 차례지요?”

플레스타인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법률은……”

“법률? 헐박이요?”

포일은 웃었다.

“내가 놀라리라 생각하시오? 바보 같은 짓은 그만두시오. 그 설달 그믐날 밤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보시오, 플레스타인……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위선자인 채하지 않고 말이오.”

플레스타인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며 숨을 한 번 쉬더니 미소를 지우고는 말했다.

“당신에게 권력을 주겠소. 나의 후계자로 지정하고, 플레스타인 계 모든 기업의 협력자로 인정하고, 우리 일족의 우두머리로 삼겠소. 우리는 함께 세계를 소유할 수 있소”

“파이어로?”

“그렇소.”

“당신의 제안은 기록되고 또한 거부되었소. 당신은 따님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올리비아를?”

하며 플레스타인은 숨이 막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렇소 올리비아를. 그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쓰레기 같은!”

플레스타인이 고함쳤다.

“더럽군……인색한 좀도둑 주제에……뻔뻔스럽게도……”

“파이어 대신 따님을 나에게 주시겠습니까?”

“주지”

플레스타인은 간신히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포일은 다시 더겐햄 쪽을 돌아보았다.

“당신 차례요.”

“만일 토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더겐햄은 힘주어 말을 시작하려다가 도중에서 그만두었다.

“그렇지.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위선자인 채하지 않고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제공할 생각이오?”

“영광을.”

“영광?”

“나는 돈이나 권력을 줄 수 없소. 그러나 명예를 줄 수는 있소, 걸리버 포일. 내행성연합군을 파멸에서 구해 준 사나이라는 명예를 그리고 안전을 제공할 수도 있소. 당신의 범죄 기록을 말소하고, 당신에게 명예 있는 이름을 주고, 유명인의 전당에 당신을 모셔 명복을 빌고 길이 기념할 장소를 마련할 것을 보증하겠소.”

“안 돼요!”

지스벨라 매퀸이 날카롭게 말을 가로막았다.

“받아들여선 안 돼요, 걸리! 당신이 구세주가 되고 싶다면 그 비밀을 깨뜨려 버리세요. 아무에게도 파이어를 주어선 안 돼요.”

“파이어가 뭐지요?”

“아무 말도 하지 마오, 지즈!”

더겐햄이 크게 소리쳤다.

지스벨라가 말했다.

“그것은 사유만으로 폭발할 수 있는 열핵 폭발물이에요. 사이코키네시스에 의해서…….”

“어떤 사유로?”

“거기에 돌려진, 그것을 폭발시키고자 하는 어떤 사람의 의지예요. 만일 그것

이 불활성연의 방사는 동위 원소 속에 갇혀 있지 않는다면, 의지에 의해 위험한 계에 이르러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잖소, 지즈!”

“우리 모두가 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다면,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겠어요.”

“이것은 이상주의보다 더 큰 문제요.”

“이상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포일의 비밀에 비하면 파이어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정도지.”

얀 요빌이 중얼거리듯 말하며 포일에게 미소지어 보였다.

“셰필드의 조수가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에서 셰필드와 당신이 나눈 간단한 대화를 약간 엿들어 우리는 우주 조운팅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소.”

갑자기 침묵이 흘렀다.

“우주 조운팅이라고!”

더겐햄이 소리쳤다.

“불가능해! 설마 제정신으로 말한 것은 아닐 테지요, 요빌 대위?”

“물론 제정신입니다. 포일은 우주 조운팅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지요. 그는 외위성동맹국의 공격 우주선으로부터 조난된 <노매드> 호까지 실로 60만 마일을 조운트했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파이어보다 훨씬 중대한 문제요. 나는 우선 이 문제를 토론하고 싶소.”

“모두들 자기가 바라는 바를 이야기했군요.”

로빈 웬즈버리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무엇을 바라시나요, 걸리버 포일?”

“고맙소, 로빈.”

포일이 대답했다.

“나는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소”

“뭐라고요?”

“추방되기를 바라고 있소.”

그는 숨가쁘게 헐떡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흉터가 봉대를 감은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내가 저지른 짓을 보상하고 속죄하고 싶소. 내가 젊어지고 있는 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벗고 싶은 거요……. 이 고통은 등뼈를 부수고 말 것 같소. 구프르 마르테르로 돌아가고 싶소. 만일 그럴 가치가 있는 일이라면 뇌절제 수술을 받

고 싶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소. 나의 소망은……”

더겐햄이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도피하고 싶은 거로군. 그러나 달아날 길은 없소.”

“나는 구제받고 싶소!”

“그건 말도 안되오!”

얀 요빌이 소리쳤다.

“당신의 뇌수 속에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 많이 저장되어 있소---뇌절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यो!”

“죄니 벌이니 하는 어린아이 같은 하찮은 관념을 훨씬 초월해 있는 것이요.”

더겐햄이 말했다.

“그렇지 않아요.”

로빈이 반대했다.

“언제 어느 세상에도 죄는 있거 마련이고, 따라서 구제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것을 초월할 수 없어요.”

“이해득실, 죄와 구제, 이상과 현실…….”

포일이 미소지었다.

“당신들은 각자 확고한 확신을 갖고, 아주 단순하고 일면적이군요. 의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나뿐ियो. 당신들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당신은 올리비아를 단념하는 거지요, 플레스타인? 정말 나에게 주겠소? 당신은 그녀를 법 앞에 내놓을 생각ियो? 그녀는 살인자요.”

플레스타인은 일어서려다 어찌된 일인지 의자에 허물어지듯 주저앉았다.

“반드시 구제가 있어야 하오, 로빈? 당신은 올리비아 플레스타인을 용서할 수 있겠소? 그녀가 당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살해했소.”

로빈이 파랗게 질렸다. 얀 요빌이 항의하려고 했다.

“외위성동맹군은 파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소. 요빌 대위. 셰필드는 분명히 그렇게 밝혔소. 당신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파이어를 그들에게 쓸 작정이요? 당신들은 내 이름을 온 세계 사람들의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 작정이요?--- 린치(18세기 미국 버지니아 주의 보안관 윌리엄 린치 대위에 의해 생겼음)와 보이코트(20세기 아일랜드의 지주였던 보이코트 대위는 1880년에 동맹의 배척을 받았음)처럼?”

포일은 지스벨라에게로 돌아섰다.

“당신의 이상주의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형기를 끝내기 위해 다시 구프르

마르테르로 돌아가겠소? 게다가 더겐햄 씨, 당신은 지즈를 단념하겠소? 그녀를 구프르 마르테르로 가게 할 수 있겠소?”

모두들 일제히 떠들어댔다. 그는 자신을 억누르면서 이 혼란을 응시하고 있었다.

“인생은 극히 단순합니다.”

그가 말했다.

“이 결정도 아주 단순하잖소? 내가 플레스타인의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요? 행성군의 복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요? 만일 로봇라면 단추를 눌러 이 문제의 반응을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로봇이 아니요. 나는 우주의 기형아요…… 생각하는 동물이요…… 나는 이 곤란한 입장에서 자신이 택해야 할 길을 똑똑히 확인하려 하고 있소. 파이어를 온 세계에 뿌려 세상을 파괴할 것인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주 조운트의 방법을 가르쳐주어 그들로 하여금 전우주에 퍼져 있는 이 별에서 저 별로 흩어지게 할 것인가? 자아, 해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로트 바텐더가 방 저쪽에서 커다란 소리를 내며 칵테일 셰이커를 던졌다. 깜짝 놀라 잠깐동안 침묵이 계속되었다. 더겐햄이 신음 소리를 냈다.

“아차, 나의 방사능이 또 당신의 인형을 망가뜨렸군요, 플레스타인!”

“그 답은 <예스>입니다.”

로봇이 아주 또렷하게 말했다.

“고맙소”

포일이 대답했다.

“영광입니다.”

로봇이 대답했다.

“인간은 우선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며, 그리고 개인입니다. 당신은 사회가 파괴를 선택하든 안 하든 사회와 행동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군.”

더겐햄이 안절부절못하며 말했다.

“스위치를 끄시다, 플레스타인!”

“잠깐만!”

하고 포일이 말했다. 그는 로봇의 무쇠로 된 얼굴에 새겨진 해맑은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사회는 아주 바보스럽고 혼란에 빠지는 일도 있지. 실제로 자네는

지금 이 회의를 보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르쳐야지 명령을 해선 안됩니다. 당신은 사회를 가르쳐야만 합니다.”

“우주 조운트를 하도록 말인가? 어째서, 어째서 별이나 은하계에 가야 하나? 무엇 때문에?”

“왜냐 하면 당신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스스로에게 물을 겁니다. 왜 사는가? 그러나 그런 것은 묻지 마십시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았군.”

더겐햄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군요.”

얀 요빌 대위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보다 인생에는 뭔가 있을 게 아닌가?”

포일이 로봇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것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회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정지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어째서 우리는 일치하여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일까?”

“당신들은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쥐떼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도해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따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지도를 하지?”

“지도해야 하는 사람들…… 몰린 사람들, 강제 받은 사람들.”

“기형적인 인간이군.”

“당신들은 모두 기형입니다. 언제나 기형이었습니다. 인생은 기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희망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참으로 고맙소.”

“영광입니다.”

“자네는 이제 물러가도 좋네.”

“언제나 어디든 날씨가 좋습니다.”

로봇은 밝게 웃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로봇은 쉬쉬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포일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저 로봇의 말이 옳소. 당신들은 잘못되어 있소. 우리는 세계를 위해 결정하려고 하고 있소. 그러나 우리가 뭐요? 세계 자신에게 결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소? 우리는 세계에 비밀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들이지

요? 온 세계에 알려 결정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오. 자아, 옛 세인트 패트릭으로 갑시다!”

그는 조운트했다. 그들도 따랐다. 그 곳의 한 구역은 아직도 차단되어 있었으나, 굉장한 군중이 모여 있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의 구경꾼들이 연기를 토하고 있는 폐허로 속속 조운트해 온 것이었다. 경찰관들은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선을 치고 있었다. 그래도 장난꾸러기들과 골동품수집가, 무책임한 사람들이 폐허 속을 조운트하려다 화상을 입고 비명을 지르면서 나왔다.

얀 요빌의 신호로 차단선이 열렸다. 포일은 타는 듯이 뜨거운 돌을 뚫고 지나가 높이가 15피트나 되는 사원의 동쪽 벽에 이르렀다. 연기를 뿜고 있는 돌을 잡고 위로 밀어 올리듯이 하여 비틀어 열었다.

요란한 소리가 나며 가로 3피트 세로 5피트쯤 되는 한 구획이 열렸다. 포일은 그것을 움켜쥐고 끌어냈다. 그 구획이 흔들렸다. 타버린 경첩이 허물어져 떨어지고, 돌테두리가 부서졌다.

2세기 전 조직적인 종교가 폐기되어 모든 신앙의 전통적인 신자들이 지하로 쫓겨갔을 때, 신앙심 두터운 사람들이 옛 세인트 패트릭 사원 안에 이처럼 비밀 벽감을 만들어 그것을 제단으로 했던 것이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수난상이 아직도 영원한 신앙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십자가 발 밑에 불활성연동위원소의 빨간 빛 작은 상자가 있었다.

“이것이 계시일까?”

포일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중얼거렸다.

“이것이 바로 내가 찾고 있던 해답이란 말인가?”

그는 다른 어떤 인간보다도 재빨리 그 무거운 금고를 움켜쥐었다. 그는 5번 거리에 면해 있는 사원의 층계 잔해로 백 야드 조운트 했다. 그는 너무나 놀라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곳 군중 앞에서 금고를 열었다. 그 속에 든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첩보부 관계관들이 일제히 외침 소리를 질렀다.

“포일!”

더겐햄이 외쳤다.

“부탁이요, 포일!”

얀 요빌 대위가 외쳤다.

파이어 요드 결정의 빛깔로 담배만한 크기의 덩어리…… 고행 액체의 트랜스프로토늄 아이스토프 1파운드를 포일은 집어냈다. 그는 군중을 향해 고함쳤다.

“파이어요! 주워두시오! 가지고 있으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미래요. 파

“이어요!”

그는 그 덩어리를 군중 속으로 집어던지고 뒤돌아보더니 소리쳤다.

“샌프란시스코, 러시아의 언덕!”

그는 세인트루이스, 덴버를 지나 샌프란시스코로 조운트했다. 그는 러시아의 언덕에 도착했다. 오후 4시여서 거리는 오후 쇼핑을 하는 조운터들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파이어다!”

포일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악마와도 같은 그의 얼굴은 피처럼 빨갛게 불타는 것 같았다.

“파이어요! 위협하오! 죽음이오! 여러분의 것이오. 이 물질에게 무엇인가 이 야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오. 알레스카로!”

그는 추적자들이 도착한 순간 곧 조운트했다.

알레스카의 노움에 이르자 점심 때였다. 비프 스테이크와 맥주를 점심으로 먹으려고 제재소에서 조운트해 온 삼립벌채인들은 요드 빛깔의 1파운드 합금을 그들 한복판에 던진 호랑이 얼굴의 사나이로 하여 크게 놀랐다. 사나이는 빈민 어로 소리쳤다.

“파이어란 말이오! 다들 들리오? 자아, 들어보시오. 파이어란 말이오. 우리의 더러운 죽음. 우리 모두의 죽음! 정신차려야 하오. 모두들에게 파이어라는 말을 퍼뜨리시오! 그것뿐이오!”

겨우 몇 초 뒤져서 조운트해온 더겐햄과 얀 요빌을 향해 그는 소리쳤다.

“동경 궁성 앞 광장!”

그들의 총알이 그에게 이르기 바로 1초 전에 그는 사라졌다.

동경은 상쾌한 날씨였으나 바람이 많이 부는 아침이었다. 궁성 앞 해자에 모여 혼잡을 이루는 아침의 러시 아위에 호랑이 얼굴을 한 사나이가 나타나자 모두들 놀라 얼어붙고 말았다. 매우 규모가 작으나 역사상 최초로 원자 폭탄의 폭발을 경험한 사람들의 자손에게 그는 이상한 금속덩어리와 잊을 수 없는 경고의 말을 던져주었다.

포일은 비바람이 세계 휘몰아치는 방쪽으로, 몬순이 불어대는 뉴델리로 옮겨 다니며 똑같은 일을 했다. 그 동안 그는 줄곧 미친개처럼 추적 당하고 있었다. 바그다드에 이르자 밤 3시였다. 나이트클럽의 손님들과, 언제나 새벽 동트기 전 30분을 뒤쫓아 세계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알코올에 취해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파리와 런던은 깊은 밤이었다. 상젤리제와 피카디리 서커스의 군중들은 포일이 나타났다는 충격적인 경고로 벼락이라도 맞은 것 같았다.

불과 50분 사이에 세계의 4분의 3을 두루 돌아다니며 추적자들을 끌고다닌 뒤 포일은 런던에서 그들에게 잡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은 포일을 때려눕히고 그 팔에서 파이어 금고를 빼앗았다. 그들은 남아 있는 파이어 덩어리를 세어 보고 금고 뚜껑을 굳게 닫았다.

“전쟁을 하기에 넉넉한 만큼은 남아 있소. 만일 당신들이 전쟁을 할 생각이 라면…… 파괴와……죽어 없어지기 위해서 넉넉할 만큼은 남아 있소.”

그는 웃기 시작했다. 승리감으로 히스테리컬하게 흐느껴울었다.

“방위하는 데는 몇백만을 쓰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 1센트도 쓰지 않으니까.”

“당신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소?”

더겐햄이 고함쳤다.

“물론 알고 있지요.”

“9파운드의 파이어가 온 세계에 뿌려졌소! 만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사유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을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 겠소? 부탁이니 제발 이 군중들을 멀리 가게 해 주시오, 요빌 대위.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서는 안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조운트합시다.”

“그만두시오!”

포일이 고함쳤다.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들려주시오!”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로군. 어린아이에게 실탄을 쏜 총을 내주는 것이나 같은 짓이요.”

“민중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마시오. 그럼, 그들도 아이들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거요. 감독자인 채 행동하는 당신들은 대체 뭐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포일!”

“그들을 어린아이 취급하지 말란 말이요. 실탄을 쏜 총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오. 모든 것을 숨김없이 밝혀주시오.”

포일은 사납게 부르짖었다.

“나는 그 <회의실>의 회의를 끝장내버렸소. 나는 최후의 비밀을 널리 퍼뜨

렸소. 앞으로는 아무 비밀도 없소…… 아이들에게 무엇을 아는 것이 최선인가 가르칠 필요도 없소…… 모두들 어른이 되게 하시오. 이미 그 때가 온 것이요.”

“아아, 드디어 미쳐버렸군!”

“내가? 나는 살아 있고 또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삶과 죽음을 내주었소. 이들 민중들은 우리들처럼 몰린 사람들에게 의해 오랫동안 매맞고 이끌려왔소. …… 강제적인 인간, 세계를 그들 앞에 꿰어앉히지 않을 수 없다는 호랑이 인간들. 우리는 셋 다 호랑이요.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강제력을 갖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의 일을 도맡아 결정하는 우리란 대체 어떤 자들이요? 이제 세계 자신으로 하여금 삶과 죽음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는 거요. 어째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요?”

“우리는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니요.”

얀 요빌이 말했다.

“우리는 몰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어느 사람이 피하고 있는 책임을 지도로 강요받고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들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면 될 게 아니겠소? 그 의무와 죄업을 기형인의 어깨에 억지로 매어주는 것을 못하도록 하면 되오. 우리는 언제까지나 세계의 속죄양(고대 유대에서는 속죄일에 죄인이 죄를 씌워 황야에 산양을 놓아 주는 습관이 있었음)이 되어야 하지요?”

“무슨 말을 하는 거요, 포일!”

더겐햄이 분격하여 소리쳤다.

“민중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오? 그들은 자신의 이익조차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있소.”

“그렇다면 그들에게 그것을 배우게 하든지, 아니면 죽도록 내버려두는 게 좋겠지요. 우리는 행동도 운명도 같이해야 하오. 함께 살아남든가 함께 죽든가 둘 중 하나요.”

“그들의 무지 때문에 당신은 죽을 생각이오? 당신은 모든 것을 다 밝히지 않고 파이어를 회수할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하오.”

“싫소! 나는 민중을 믿고 있소. 나도 호랑이가 되기 전까지는 민중의 한 사람이었소. 나처럼 늘씬하게 두들겨 맞고 눈을 뜨게 되면 누구나 보통 인간 이상의 인간이 되는 수가 있지요.”

포일은 부르르 몸을 떨더니 번개처럼 피카디리 서커스의 중심에 있는 50피트 높이의 청동 에로스 상 꼭대기로 조운트했다. 그는 가까스로 그 위에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시오. 여러분! 나는 호소하고 싶소. 여러분!”

커다란 고함소리가 그의 말에 응답했다. 포일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여러분은 돼지요! 돼지처럼 바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뿐이요. 여러분은 자기 손에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주 조금밖에 쓰고 있지 않소. 모두들 듣고 있소? 여러분은 천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보 같은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정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공허를 느끼고 있소. 여러분은 모두 다 그렇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들 다…….”

비웃음이 날아왔다. 그는 신들린 것처럼 무시무시한 정열로 말을 계속했다.

“전쟁을 해서 다 소모해 버리는 것이 좋소. 참담한 꼴을 당한 뒤 생각하는 게 좋소. 자신을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 좋소. 여러분은 돼지요! 알겠소? 저주받은 돼지! 나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겠소--- 죽음인가 삶인가. 그리고 위대해지는 것이요. 여러분이 최후의 파국을 맞을 때, 나를, 걸리버 포일을 찾아 내시오. 나는 여러분을 인간이 되게 해 주겠소. 나는 여러분을 위대하게 해 주겠소. 나는 여러분에게 별을 주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없어졌다.

그는 엘스웨어로, 엘스웬으로, 우주간의 최단거리를 조운트했다. 그는 우주창조의 대혼란에 이르렀다. 한순간 불안정한 근 - 현재에 멈추어 눈 깜짝할 사이에 대혼란에 빠졌다.

<<<이것은 해내야 할 일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것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는 다시 조운트했다. 불타는 창처럼 알지 못하는 곳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영역으로 날았다. 또다시 그는 근 - 공간과 근 - 시간의 혼돈 속으로 떨어졌다. 그는 노웨어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나는 믿는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는 또 조운트했다. 다시 혼돈 속으로 떨어졌다.

<<<무엇에 대한 신앙인가?>>>

그는 지옥의 가장자리를 떠돌아다니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신앙에 대한 신앙이다.>>>

그는 생각했다.

<<<뭔가 믿는 대상이 필요하지는 않다. 뭔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믿는다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운트했다. 신앙에 대한 의지의 힘이 목적 없는 목적의 근 - 현재를 현실로 바꾸어 놓았다…….

<지금>. 파르스름하게 불타고 있는 오리온 좌의 리겔 성. 지구에서부터 5백 40광년 떨어진 곳. 태양보다 1만 배나 밝은 별, 세 개의 거대한 행성에 둘러싸인 에너지의 비등점…… 포일은 우주 한가운데서 꿈꿨던 열거의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떠돌다 이미 믿고 있으면서도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믿을 수 없는 운명에 맞닥뜨렸다. 눈부신 한순간 그는 우주를 떠돌고 있었다. 지구의 생명을 창조해 낸 새벽에 원시의 바닷가에서 처음으로 바다에 들어가 혈떡이면서 그 위에 떠돌던 생물과 마찬가지로 포일은 무력하고 완전히 곤혹한, 더욱이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우주 조운트 했다. 근 - 현재를 또다시 바꾸면서…….

<지금>. 거문고자리의 α성(베가). 리겔보다 더 파랗게 불타고 있는 지구로부터 26광년이나 떨어진 AO성. 행성은 없지만 밝게 빛나는 혜성 무리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혜성 무리의 가스 모양을 한 꼬리는 푸른빛 도는 검은 하늘에 활 모양을 그리며 불꽃을 내뿜었다.

다시 그는 현재를 <지금>으로 바꾸었다. 카노프스(南極老人星), 태양처럼 황금빛으로 빛나며 침묵에 잠긴 우주의 황야 속에서 광음을 울리고 있는 이 거대한 별은 마침내 아가미를 갖고 있던 생물, 인간의 침입을 받았다. 그 생물은 우주의 바닷가에서 숨을 혈떡이면서 떠다녔다. 삶보다는 죽음에 가까웠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가까웠으며, 세계의 끝으로부터 6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와 있었다. 토성의 띠, 토성의 한가운데를 두른 띠같이 얇고 넓적한 띠가 카노프스를 에워쌌다. 성진과 유성 등이 퇴적된 그 띠 속을 그는 헤매다니고 있었다.

<지금>. 타우르스(황소자리)의 알데바란. 빨간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쌍둥이 별. 그 열여섯 개의 행성은 타원형을 그리며 양친의 주위를 무서운 속도로 돌고 있었다. 그는 우주시간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동하고 있었다…….

<지금>. 엔타레스. 1등성. 빨간빛의 거대한 알데바란과 같은 쌍둥이 별. 지구로부터 2백 50광년, 에덴과 같은 기후에 2백 50개의 수성만한 행성에 둘러싸인 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는 분만의 자궁 내부에 잉태되어 있었다. 그는 <노매드> 호로 돌아온 것이다.

지금 그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우주 항로로 운행하고 있었다. 저 잊혀진 민족, 과학인의 나라, 사가소 소행성 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인 가운데 정착해 있었다. 포일의 얼굴에 호랑이를 새기고 그에게 모이라라는 여자와 자게 한 조제프의 고향에……

그는 <노매드> 호로 돌아와 있었다.

내 이름은 걸리버 포일
지구가 나의 고향
무한한 우주에 익히 살며
내가 가는 곳은 별의 무리.

여자 모이라는 <노매드> 호의 기구 로커 안에서 그를 발견했다. 그는 동그랗게 오므리고 있는 태아였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눈은 신성한 계시로 불타고 있었다. 사가소 소행성은 이미 오래 전에 복구되어 기밀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이때의 포일은 여러 해 전에 그를 탄생케 했던 그 위험한 생존의 동작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는 바야흐로 자신이 배운 훌륭한 사상을 소화하면서 잠자코 명상에 잠겨 있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황홀한 상태로 옮겨 로커에서 빠져 나와 보이지 않는 눈으로 모이라의 걸을 지났다. 옆으로 비켜서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자를 지나쳐갔다. 그는 텅 빈 통로를 헤매다 다시 로커의 태내로 돌아갔다. 다시 몸을 웅크리고 의식을 잃었다.

그녀는 그를 만져보았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얼굴에 새겨진 이름을 불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행성 안으로 뛰어갔다 - 조제프가 지배하던 저 신성한 장소로.

“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모이라가 말했다.

“우리를 파괴할 뻔한 그 신인이 돌아왔습니다.”

조제프의 얼굴이 노여움으로 어두워졌다.

“어디에 있느냐? 안내해라!”

“당신은 그를 다치게 하지 않겠지요?”

“무릇 빛은 갇아야 하는 것이다. 안내하라.”

조제프는 그녀를 따라 <노매드> 호의 로커로 들어갔다. 그리고 포일을 뚫어지게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 타오르던 노여움이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포일을 만져보고 말을 걸었다. 그러나 아무 반응이 없었다. 모이라가 말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벌해선 안됩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

조제프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는 꿈을 꾸고 있다. 나는 성직자로서 이러한 꿈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그는 눈을 뜨고 우리를 알아보고, 그의 민중을, 나의 사상을 인정할 것이다.”

“그럼, 당신은 이 사람을 벌하시겠군요?”

“그는 이미 자신의 벌을 스스로 발견했다.”

포일은 로커 밖으로 옮겨졌다. 모이라가 꾸불꾸불한 복도를 뛰어가 곧 따듯한 물을 담은 은그릇과 음식 쟁반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다정하게 포일을 더운물로 목욕시키고 그 앞에 신에 대한 제물로써 음식이 담긴 쟁반을 바쳤다. 그런 다음 모이라는 조제프 옆에 나란히 서서 - 세계와 함께 - 보다 큰 잠이 깰 때를 기다릴 준비를 했다.

작품 해설

앨프리드 베스터(Alfred Bester) 같은 작가가 어쩌서 사이언스 픽션(SF)을 쓰는 것일까?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질문이지만, 웬지 모르게 이 의문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금 여기서 이 의문에 대한 설명을 일반적인 형식으로 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소설상의 문제와 얽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의문은 SF를 심리 소설이나 성격 소설보다 낮은 차원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어떤 점에서 심리 소설이나 성격소설이 고차원에 속하는 순문학이라는 증명은 할 수 없다. 결국 성격이라는 애매한 것을 믿고 그 인간 행위의 순수한 모습을 잃은 근대 작가들이 행위의 명을 던져버리고 심리를 추구하는 일에 괴로움을 무릅쓰고 열중할 때 SF가 일종의 해독제로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고전적인 서사시나 비극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그대로 의심할 나위 없는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미를 감당할 만한 역량을 지닌 작가는 아마도 톨스토이로서 끝난 것 같다. 따라서 행동으로서 묘사할 수 없는 인물은 완전한 인간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근대 소설은 악전 고투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인간상으로 초점을 맞출 수 없는 심리를 그려서는 주인공이 소설의 참된 주인공일 수가 없으며, 주인공의 부재는 다시 말해서 인간상의 부재를 뜻한다. 바로 이 점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SF를 등장케 했다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우리 주위에서 새로운 작가나 비평가들이 SF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소설과 자연주의에 얽매어 꼼짝도 못하고 퇴폐와 막다른 곳에 다다라 갈 곳이 없어진 소설들에 싫증이 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소설 <<타이거! 타이거!>>는 꽤 재미있는 문제를 제시해 줄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내용이 황당무개한 데도 - 아니,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와 모험의 순수성이 빛나기 마련이다.

이 소설이 복수담이고 일종의 유리된 이야기며 남을 웃기려는 광대 소설이자 도덕극이며 가면극이기조차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다시 말해서 근대소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요소를 가장 근대적인 SF에 결부시켰음을 깨달을 때 베스터라는 작가는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질 것이다. 도덕극이라고 말한

것은, 걸리버 포일에게 있어서의 신의 상실 또는 거부가 이 작품의 커다란 주제이기 때문이다. 가면극이라고 말한 것은, 포일이 가진 <호랑이>의 페르소나는 <성격>이 아니라 보편적인 역할 - 그가 <<걸리버 여행기>>의 주인공 걸리버와 이름이 같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 을 뜻하며, 심리보다도 이 역할의 의미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광대소설이라고 말한 까닭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 ‘이 소설은 평범한 사람이 충격에 의해 행동하는 하나의 개인적인 기록을 그리는 데 주안점이 있으므로 기괴한 상상력에 의한 비약적인 스토리의 전개도 공상과 학소설로서는 신기하지 않다. 따라서 개인 기록 소설로서 이것이 모순 없이 잘 조화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이것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나는 엘프레드 베스터를 포함하여 SF가 갖는 에너지를 중시하고 싶다. 이 소설을 예로 들자면 <보거>에 대한 복수가 모든 움직임의 주축이 되어 있어, 그것을 중심으로 한 이 가면극에서는 포일 이외의 인물은 다만 포일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등장이 허용된다 - 다시 말해서 등장인물의 잠재적 에너지는 이 축을 중심으로 하여 행동하는 형식을 취하여 밀고 밀리며 서로 부딪치는 데서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보들레르의 <<포우 론>>에 이런 글이 있다.

‘포우가 창조하는 인물, 다시 말해서 섬세하고 날카로운 재능을 지닌 사나이, 지칠대로 지친 신경을 가진 사나이, 격렬하고 인내심 강한 의지로 갖가지 곤란에 도전하는 사나이, 보기에 따라선 확대된 사물 위에 눈이 칼날같이 굳게 긴장되어 박힌 사나이 - 이것은 포우 자신이다. 또 그 여자들 - 기괴한 질병으로 죽으려 하며 음악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앓고, 그러면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 - 이도 또한 포우 자신인 것이다.’

이 말을 알프레드 베스터에게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지나칠까? 적어도 베스터 같은 작가가 SF를 쓰는 이유는 포우의 전통이 그의 속에 살아 있기 때문이라고 단언해도 좋을 타이므로, 작가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언제나 패턴과 리듬과 템포를 중시하며, 언제나 그러한 관점에서 소설을 생각하고 있다. 나를 타이프그래피(인쇄술) 실험자로 몰아세우는 것도 패턴에 대한 이런 집착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시각과 음향과 문장을 드라마틱한 패턴에 융합시키는 기술이다. 독자의 눈과 귀와 마음을 하나로 융해시켜, 이 각 부분의 총화보다 좀더 큰 무언가를 음미해 주기

바라는 것이다. 나의 기묘한 신념에 의하면 책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 이상의 무엇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전감각적인 지적 체험이어야 하는 것이다.’

옛부터 많이 써온 말이지만, <10년에 한 번 나올까말까한 걸작>이라는 말만큼 이 작품 <<타이거! 타이거!>>에 어울리는 표현은 없을 것이다. 1956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모든 의미에서 1950년대 미국 SF의 가장 좋은 점들만 집대성했다고 보아도 좋다. 현혹적인 기교, 화려한 퇴폐취미, 세련된 대화와 자극성이 풍부한 유머……. 베스터의 작품이 갖는 매력을 헤아리자면 끝이 없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맨 첫 페이지부터 독자를 강력하게 이야기 속으로 이끌어들이는 저 묘한 열기와 박력이 아닐까싶다.

데몬 나이트는 <<타이거! 타이거!>>를 평하는 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스터는 이 작품 속에 보통소설 여섯 권분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끌어들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여섯 권분의 악취미와 모순과 오류를 끌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 부분에 이르면 모든 요소가 혼연일체가 되어 신비스러운 면모를 이뤄 묘한 감동을 준다. 베스터는 잡동사니를 모아 예술품을 만들어 낸 것이다……’

앨프레드 베스터는 1913년 뉴욕 시 맨하튼의 유대 계 중류 가정에서 태어났다. 옛날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H. G. 웰즈가 창간한 지 얼마 안된 <어메이징 스토리즈 지>를 읽으며 열렬한 SF팬이 되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다가 도중에 컬럼비아 대학 법학과로 옮겼으나, 결국 어느 한쪽에서도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 그 무렵 ‘르네상스 인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음악이며 미술 학점을 따는 것과, 조정, 축구, 펜싱 등 선수 생활로 바빠 화학이나 법률 방면으로 나갈 만한 성적을 얻지 못한 모양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하는 일 없이 지내던 중 소설을 써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한 편의 SF를 <스탠더드 매거진>(스릴링 윈터 지나 스타들링 스토리즈 지의 출판사)에 투고한 것이 인연이 되어 편집자 모트 와이징거와 잭 시프 두 사람을 알게 되었다. 마침 읽고 난 제임스 조이스 작 <<율리시스>>의 평을 들은 두 편집자는 그를 유망한 젊은이로 인정했다. 그리하여 편집자로부터 스킬링 윈더 지에서 아마추어 FO 콘테스트를 하는데, 쓸 만한 작품이 모이지 않으니 그의 투고 작품이 괜찮으면 입선작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두 편집자의

조언에 따라 쓴 단편 <<파괴된 공리(The Broken Axiom)>>는 스릴링 원더 지 1939년 4월호에 콘테스트 1등 당선작으로 실렸다. 상금은 50달러. 이것이 작가로서의 데뷔였다.

그로부터 3년 동안 베스터는 스릴링 원더를 중심으로 열 네 편의 중단편을 발표했으나, SF 작가로서의 그는 극히 평범한 존재였다. 이 제 1 기 작품 가운데 읽을 만한 것은, 훗날 <<시간과 공간의 모험>>에 다시 실린 <<이브와 없는 아담>>과 후년의 베스터 작품을 엿보게 하는 중편 <<지옥은 영원히>> 정도이다. 사실 최근에 베스터 자신이 선정한 단편집에서도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이 두 가지밖에 수록되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의 전기를 가져다 준 것은 40년대 첫 무렵에 일어난 폭발적인 희극 붐이었다. 그의 스승인 두 편집자가 슈퍼맨 그룹에 뽐혀감과 동시에 베스터도 그들의 권유로 희극 시나리오를 쓰게 되었다. 원작의 수요가 굉장하여,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작가로서는 괴로운 일이었으나 대단히 유익한 수업 시기였다. 이리하여 <<슈퍼맨>>을 비롯하여 <<그린 랜턴>>, <<캡틴 마블>> 등의 시나리오를 써냈다. 이때 익힌 시각화, 강한 어택, 세리프, 간결함 등의 기술이 뒷날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희극 시나리오 일을 3년쯤 계속한 무렵 여배우인 그의 아내가 라디오 미스터 리 드라마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잘된 것을 번안하여 가지고 갔더니 그 자리에서 채택되었다. 이어서 새로 시작한 <찰리 찬>에서도 역시 대본이 채택되었다. 차츰 희극은 인기를 잃어갔지만, 격렬한 생존 경쟁의 자리에서 단련된 덕택에 그해 끝 무렵에는 앞에서 말한 두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규작가로서 일하는 한편 <더 새도우> 등 여러 드라마에 관계하는 인기인이 되어 있었다. 그 때부터 베스터는 희극도 SF도 있고 오직 미스터리 모험물, 판타지, 버라이어티 등 라디오 프로그램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대어 이따금 연출까지 직접 맡았다. 이윽고 미국이 텔레비전 시대로 접어들자 이번에는 정신없이 텔레비전 대본을 써냈다. 물론 라디오와 달라 텔레비전의 세계는 스폰서의 주문이나 검열이 엄해 베스터의 기질에 맞지 않았다. (뒤에 그는 이 때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텔레비전 세계의 내막을 폭로한 장편 소설을 한 권 썼다.)

어느 날 희극작가 시절에 알았던 호레스 골드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그가 <갤럭시 지>의 편집을 맡았는데, 부디 뭔가 써달라는 것이었다. 그 때의 상황을 베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처럼 웃었다. 자신이 SF 작가로서 맨 밑바닥에

자리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희극대본 마감이 열흘마다 있었다……. 언제나 그 때문에 고생했다……. 더욱 나쁘게도 나는 최근의 SF가 어떤 것인지 거의 모르고 있었다. 호레스는 그로부터 1, 2주일마다 잡담이며 소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의 계락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이미 그를 위해 뭔가 쓰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놓여 있었다.’

맨 처음 베스터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타임머신을 갖추고 범주를 그 발생지점까지 더듬어갈 수 있는 미래 경찰을 상대로 범인이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완전범죄를 기도하는 도서(倒敎) 미스터리였던 모양이다. 그러나 호레스는 시간 여행 테마는 이미 오래 전부터 너무 많이 써왔으니까 경찰관에 타임 머신 대신 텔레파시 능력을 갖게 하고, 동시에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의 에스퍼 사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조언했다.

그 한여름 파이어 아일랜드의 별장에 틀어박혀 쓴 장편 <<파괴된 사나이>>는 갤럭시 지 1952년 1월호부터 3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교묘한 구성, 주인공들의 강렬한 성격, 화려한 기교, 희극대본과 라디오 텔레비전 세계에서 단련된 다이나믹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도 10년 동안의 인생 경험에서 얻은 작가 자신의 성숙 - 이런 것들은 이색적인 개성을 지닌 새로운 작가 베스터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다. 연재를 시작하자 곧 압도적인 호평을 받은 이 소설은 이듬해 세계 SF 대회에서 스타존의 <<인간이상>>, 클라크의 <<유년기의 끝>>을 물리치고 제 1 회 휴고 상을 획득했다.

SF계에 화려하게 되돌아온 베스터는 몇 가지 개성적인 단편을 발표하는 한편, 두 번째 장편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훨씬 전부터 그는 뒤마의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비슷한 복수극을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우연히 어느 날 낡은 내셔널 지오그래픽 지를 들추다 눈에 띈 기사가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그것은 2차 대전 중 어뢰 공격을 받아 4개월 동안이나 뗏목을 타고 표류한 필리핀 인 선원의 이야기였다. 그 동안 근처를 지나는 배가 몇 번이나 그를 보았으나 코스를 바꾸어 비참하게도 그를 구조해 주려 하지 않았다. 나치의 잠수함이 상선을 유인하기 위해 곤잘 그런 미끼를 쓰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 2 작은 영국의 살레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생각한 대로 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겨울이 되어 추위에 굴복한 베스터는 해협을 건너 로마로 옮겨가 거기서 그 뒤를 계속 쓰게 되었다. 가장 애를 먹은 것은 결말이었다.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압도적인 피날레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날

이탈리아의 젊은 영화 감독과, 어느 나라에서도 실험적인 작품은 좀처럼 하게 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전부터 텔레비전 대본으로 쓰고 싶다고 생각했던 <시네세디아(소리가 색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한 감각이 다른 영역의 감각을 불러 일으키는 일)> 현상을 설명하다가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찾고 있던 클라이맥스였다!

이러하여 1956년에 발표된 제 2 작이 바로 <<타이거! 타이거!>>이다. 먼저 영국에서 단행본으로 나온 뒤, 같은 해 <<내가 가는 곳은 별의 무리(The Stars My Destination)>>라는 제목으로 갤럭시 지 10월호부터 4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파괴된 사나이>>의 스케일을 좀더 넓히고 정념과 에너지를 더욱 확장시킨 것 같은 이 작품은 앤소니 버우처로부터 <베스터의 가장 화려한 걸작>이라는 절찬을 받기는 했으나, 일반적으로는 <<파괴된 사나이>>만큼 인기를 얻지 못한 것 같다. 당시 미국 SF계에서는 여기저기가 뚫려 약간 엉성한 느낌이 드는 이 작품보다도 <<파괴된 사나이>>쪽이 소설로서의 정리감이나 완성도에서 높이 평가됐던 것이다. 미국에서 <<타이거! 타이거!>>의 가치가 다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베스터의 영향을 받은 새로운 작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부터이다. 그 가운데서도 새뮤얼 디레니 등은 이 작품을 <미국이 낳은 최고의 장편 SF>라고까지 격찬하였다.

두 권의 장편과 열 편이 넘는 단편으로 일류작가의 대열에 낀 베스터는 이 무렵부터 또다시 SF계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60년부터 담당하기 시작한 F&SF지의 서평란은 그의 비평이 지나치게 엄하다는 독자들의 반향이 있어 2년만에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작품 발표도 차츰 적어져 64년부터는 전혀 SF를 쓰지 않았다. 여행잡지 <허리데이>의 편집자가 베스터가 쓴 텔레비전 계의 내막 소설을 읽고 그에게 주목하여 해외 텔레비전 계의 특집 기사를 써주지 않겠느냐고 부탁했기 때문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타이거! 타이거!>>도 실은 이 취재여행 중에 씌어진 셈이다. 이 특집기사가 매우 평판이 좋아 결국 베스터는 동지(同誌)의 정기 기고가가 되었다. 새로운 자동차의 시험 드라이브, 미항공우주국의 취재, 보잉 747의 처녀 비행, 예능계 유명인과의 인터뷰 등 언제나 새로운 자극과 변화를 구하는 그의 기질에 꼭 맞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윽고 그는 기고가로부터 그 잡지의 편집 스태프에 낄 정도로 일에 익숙해졌다.

베스터가 다시 10년 가까운 공백을 두고 SF계로 돌아온 것은 1972년의 일이었다. 그해 10월호 F&SF 지에는 <<동물의 시(市)-The Animal Fair)>>라는

베스터의 중편이 다음과 같은 작가의 말과 함께 실려 있다 - ‘헐리데이 지가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전하게 되어, 그 거대한 도시를 한 번 보자 나는 이 잡지의 스태프로 머무를 것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제부터는 소설을 쓰는 데 온 마음을 쏟을 생각이다.’ 그 뒤에 덧붙여진 F&SF 지 편집자의 한마디가 좋다 - <인디애나폴리스여, Danku!>

그리고 74년에는 팬이 애타게 기다리던 그의 장편이 <애널로그 지>에 연재되기 시작했다. 무대는 백 년쯤 미래, 인구 과잉에 빠진 미국, 지상의 모든 기계를 조정하고 있는 슈퍼 컴퓨터에 대해 불사인 그룹이 인간의 독립을 얻기 위해 도전한다는 이야기였다. <<답례를 목표로 선물하는 사람(Indian Giver)>>, 나중에 단행본으로 펴낼 때 <<The Computer Connection>>이라고 제목을 고친 이 장편은 <<타이거! 타이거!>>만큼 박력이 넘치지는 않지만, 숨쉴 틈도 없이 펼쳐지는 아이디어와 화려한 문체가 역시 베스터 특유의 것이라는 평판이다. 역시 휴고, 네블라 두 상의 후보작에도 추천되었다. 그 뒤 <헐리데이 지>는 폐간 되었으므로, 뭔가 새로운 분야의 도전이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는 한 얼마 동안 베스터는 SF를 계속 써줄 것 같다. 머지않아 신작 장편 <<Golum 100>>이 출판된다는 소식도 있다.